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  
조승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Modern Architect Seung Won Cho,  
a Former Master Carpenter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송 승 엽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  
조승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Modern Architect Seung Won Cho,  
a Former Master Carpenter

지도교수 田 鳳 熙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宋 承 燁

宋承燁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 조승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宋 承 燁

지도교수 田 鳳 熙

본 연구에서는 1901년 10월 2일에 출생하여 1987년 1월 16일에 사망한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 조승원(趙承元)의 생애와 그가 남긴 저술 및 작품들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조승원의 건축 활동은 1923년부터 1978년까지의 긴 시간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해방을 전후로 평양과 서울을 넘나드는 지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대목, 청부업, 근대 건축가의 다양한 직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국건축의 근대화 과정을 구체적 대상을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의 자습을 통한 건축 학습의 과정과 그가 1960, 70년대 남긴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및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과 근대를 넘나드는 복합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근대건축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조승원의 작품 활동은 1923년에서 1931년의 대목으로서 건축 입문 시기, 1931년에서 1943년의 토목건축청부업회사 건평사 시기, 1943년에서 1953년의 건축 활동 불능의 혼란기, 1953년에서 1965년의 철근콘크리트조 학습 시기 1965년에서 1978년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시기의 총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1960년대 전통 건축의 재학습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부터 1969년까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저술하여 1981년에 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의 전체 건축 활동이 수렴되는 지점을 5기에 해당하는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보아, 이를 조승원 건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승원 건축의 발단으로 보았고, 이후시기를 조승원 건축이 형성되어 전개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조승원과 조승원의 건축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승원은 대목 출신이지만 전통건축의 장인이 아니며 주로 근대적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정식의 근대적 제도권 건축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구체적으로 1926년에 만난 백기환과 1930년을 전후로 교류한 미국 선교사 맹로법, 곽안련을 통해 근대



적 설계도서의 작성법과 시공법을 이룬 시기에 학습하였고, 줄곧 벽돌,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근대적 재료와 구법을 통한 건축을 설계, 시공하였다. 그는 1923년 대목으로 건축에 입문하였지만, 이 시기 그가 시공한 건축 역시 주로 ‘벽돌과 석조를 곁들인 근대적인 목조건축’이었고, 그의 전체 작품 목록에서 전통적 방식의 목조건축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1925년 도편수 한성룡을 방문하여 전통건축을 학습하였지만, 이는 깊이 있는 학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시기 그가 전통건축의 학습을 시도하고 한계에 부딪친 아쉬움은 이후 그가 전통건축의 학습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1931년 설립되어 1940년대 초까지 활동한 조승원의 평양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는 시공 뿐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설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작품의 활동 범위는 평양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건평사의 활동은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 범위는 선교부의 관할 구역 전체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건평사 김준식이 1933년 설계하여 1936년 완성한 현존하는 대구제일교회의 건축을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조승원이 1934년 설계, 시공한 신양리 교회당의 실체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는 대구제일교회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건평사는 소속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동일 작품의 반복이 아닌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건축을 설계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건평사의 활동을 통해 일제시기 토목건축청부회사의 특성과 평양 장로교 중심의 미션계 건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조승원은 1956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에 참여한 춘천사범학교의 공사를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을 체득하였다. 이는 이른 시기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이 정치적 목적과 별개로 시공의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당시 피바디 사범대학의 사절단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춘천사범학교의 기술교육을 담당했던 허만 박사의 제안으로 한식목조건축양식을 철근콘크리트조에 반영하는 건축을 계획하였다. 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네 번째, 조승원은 1960년대 전통건축의 학습과 함께 스스로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의 전통 계승을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고민하게 된다. 그의 전통건축의 학습은 현장답사, 도편수 박기섭을 통한 목가구 접합 기법 및 문양 제도 학습, 전통건축의 용어 및 도구의 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그는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로서 본인이 전통 계승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자각했으며, 일시적 권력의 예술이 아닌 영원한 예술로서의 전통을 현대적 재료와 구법을 통해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그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남기게 되는 사고의 배경으로서 중요하다.

다섯 번째, 조승원이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저술한 전통목조건축에 관한 저서인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그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한 결과물이다. 조승원은 전통건축의 진체가 목조라는 점과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새로운 재료와 구조를 통한 전통의 계승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그는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저술하였다. 이는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결과물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전통의 현대적 계승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특성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영조법식』, 『화성성역의궤』, 『저승전의궤』, 『인정전중수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을 참고하는 바탕에 개인의 경험적 학습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전통건축 관련 고문헌의 기초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로서의 책의 특성은 용어의 측면에서도 드러나는데, 책에서는 『영조법식』과 『화성성역의궤』 등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을 해설하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용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이를 복원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두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은 한국 건축사의 개괄, 익공, 온돌, 민가, 풍수지리, 조선시대 가옥규제 등의 내용을 『화성성역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함께 수록된 설계도의 구성과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저술에 가장 중요한 참고 문헌이었던 『영조법식』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며 한국 전통건축을 전달하는 책의 궁극적인 저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세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전통건축의 제작, 제도의 기법을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록된 설계도는 능숙한 근대식 제도 기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통건축의 제작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승원의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실

레이면서 동시에 건축 실물로 가늠할 수 없는 조승원의 전통건축에 대한 학습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승원의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특성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건축가 개인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구체적인 전통 건축의 학습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는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문하였고, 일찍이 전통건축에 관심을 가져 도편수 한성룡을 방문하여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긴 시간 근대적 건축의 설계와 시공에 종사하였지만, 1960년대 전통 건축을 재학습하며 그 구체적 성과를 글과 도면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건축을 전통을 주제로 한 당대의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과 차별화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두 번째로 건축 기술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한국 건축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달성한 철근콘크리트조의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의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과 도선사 호국참회원은 각각 1967년, 1968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는 기술의 관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한옥의 상세를 모사한 것으로 평가 받는 강봉진의 복원 콘크리트 광화문(1968), 국립중앙박물관(1972)과 동시기 또는 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조승원 건축의 세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전통의 표현은 강봉진의 기술적 성과와 동일선상 또는 그 이상에서 그 의미를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건축 표현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 표현을 위한 완전한 모사도 완전한 추상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그는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표현 간의 조화, 긴장, 갈등의 관계를 통해 건축 형태를 결정하였는데, 이의 결과물에서는 세부에서 모사된 전통의 표현과 추상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표현이 공존한다. 이러한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은 그의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인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1967)으로, 이는 건축 형태에서 전통 표현을 위해 추상과 모사의 극단의 방법을 취한 당대의 여타 건축들과의 비교에서 조승원 건축의 차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조승원, 대목, 근대 건축가, 전통건축, 근대건축,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학 번 :** 2015-22844

# 목 차

I .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
II . 조승원 건축의 검토를 위한 예비적 고찰 .....	9
2.1. 대목과 근대 건축가의 개념 .....	9
2.1.1. 개항 이후 전통건축 장인의 위상과 호칭 변화 .....	9
2.1.2. 한국 근대 건축의 기점과 건축가의 개념 .....	16
2.1.3.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 조승원 .....	21
2.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용어 검토 및 정의 .....	23
2.3. 조승원 작품 목록의 검토와 시기 구분 .....	27
2.3.1. 조승원 작품 목록의 검토 .....	27
2.3.2. 조승원 건축 활동의 시기 구분 .....	35
III . 조승원 건축의 발단 .....	38
3.1. 유년기와 항일독립운동의 영향 .....	38
3.1.1. 유년기의 학습(1901-1918) .....	38
3.1.2. 항일독립운동과 조선물산장려회(1918-1923) .....	43
3.2.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건축학습 .....	48
3.2.1. 근대적 건축의 시공 학습(1923-1931) .....	48
3.2.2. 도편수 한성룡의 영향(1925) .....	58
3.3.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建平社) .....	63
3.3.1.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영향과 건평사의 설립 (1931) .....	64
3.3.2. 건평사 시기의 건축(1931-1943) .....	69

IV. 조승원 건축의 형성과 전개 .....	85
4.1. 서울 활동의 시작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발상 .....	85
4.1.1.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1943-1953) .....	85
4.1.2. 1950년대 건축 활동의 재개 .....	92
4.1.3.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 학습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1953-1965) .....	98
4.2. 건축관의 형성과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	105
4.2.1. 전통 계승의 의식 .....	105
4.2.2. 전통의 현대적 계승 .....	115
4.2.3. 1960년대 전통건축의 재학습과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1963-1969, 1981) .....	120
4.3.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와 의미 ....	140
4.3.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1965-1978) .....	141
4.3.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특성 .....	162
4.3.3.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역사적 의미 .....	178
 V. 결론 .....	 181
 참고문헌 .....	 185
Abstract .....	191

## 표 목 차

(표 1) 조승원 관련 문헌 목록 .....	4
(표 2) 연구 흐름도 .....	8
(표 3) 문헌에서 나타난 조승원의 호칭 .....	10
(표 4) 업종과 위계에 따른 목수의 호칭 .....	14
(표 5) 근대 건축가의 제도적 범주에 따른 지표 .....	20
(표 6) 조승원 건축 직능의 평가 .....	22
(표 7)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분포 양상 .....	26
(표 8) 조승원 건축 작품 목록 .....	30
(표 9) 조승원 건축 작품의 최종 목록과 시기 구분 .....	33
(표 10) 김원석의 조승원 건축 활동 시기 구분 .....	35
(표 11) 조승원 작품 활동 시기 구분 .....	36
(표 12) 제1기 「대목으로서 건축 입문기」의 작품 목록 .....	49
(표 13) 제2기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 시기」의 작품 목록 .....	69
(표 14) 혼란기 1940년대 조승원의 건축 작품 .....	85
(표 15) 제3기 「학교건축을 통한 철근콘크리트조 학습기」의 작품 목록 ..	92
(표 16) 문헌에서 등장하는 조승원 답사지 목록 .....	121
(표 17)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목차 .....	126
(표 18)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영조제작, 영조제도의 세부목차 .....	127
(표 19)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1-6. 한식목조건축의 영조제작 서두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 목록 .....	131
(표 20) 제4기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시기」의 작품 목록 .....	141

## 그 립 목 차

(그림 1) 평생 한복을 고집한 조승원 .....	43
(그림 2) 조승원이 수감되었던 서울 마포 공덕동 105번지의 옛 경성감옥 .....	43
(그림 3) 손창윤과 삼공양말공장 .....	51
(그림 4) 백기환 옹 .....	14
(그림 5) 「평양만담, 적극적인 평양」, 『동아일보』, 1930.10.19. ....	53
(그림 6) 1934년 송실전문학교 대강당의 외관 .....	55
(그림 7) 송실대학교 대강당 내부 모습 .....	56
(그림 8) 1932년 평서, 평양 양노회 연합회 사경회강설장면 광경 .....	56
(그림 9) 일제시기 평양의 애련당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엽서 .....	59
(그림 10) 일제시기 발간 된 평양명승8경 사진엽서집의 봉투 .....	60
(그림 11) 시부자와의 집 저택에 이축되었을 때의 애련당 .....	60
(그림 12) 기계창에서 목공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 .....	65
(그림 13) 조승원이 맹장로로 언급하는 맹로법 .....	65
(그림 14) 평양의 선교 거점 풍경을 묘사한 조감도 .....	67
(그림 15) 조감도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자택 확대도 .....	67
(그림 16) 평양의 선교 거점 풍경을 묘사한 조감도 .....	71
(그림 17) 조감도에 표기된 14. Men's Bible Institute Buildings .....	71
(그림 18) 조감도에 표기된 40. U.C.C.Main Building & Dormitory와 1932년 증축 전 본관의 정면 .....	71
(그림 19) 조감도에 표기된 41. U.C.C.Auditorium-Gymnasium과 송실전문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 측면도 .....	71
(그림 20) 1908년 평양 신학교 건물 전경 .....	72
(그림 21) 여자성경학교 건물 .....	72
(그림 22) 1932년 증축 전 송실전문학교 본관 .....	73
(그림 23) 1935년 송실전문학교 증축 후 본관 .....	74
(그림 24) 대구제일교회. 현재 남성정 선교관의 모습 .....	76
(그림 25) 대구제일교회의 정면도와 기사 .....	77
(그림 26) 대구제일교회 후면 모습 .....	78
(그림 27) 대구제일교회 측면 모습 .....	78

(그림 28) 대구제일교회 첨탑을 올려다 본 모습	78
(그림 29) 대구제일교회 평면도	79
(그림 30) 벤자민 프라이스의 『Church Plans』 (1892)에 수록된 교회들	80
(그림 31) 『Church Plans』 (1892) no.25	80
(그림 32) 서울 정동교회	80
(그림 33) 대구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4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 광경	81
(그림 34) 평양 신양리 교회	82
(그림 35) 조승원이 대릉조 시절 시공했던 송실전문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	83
(그림 36) 1940년 철수하는 평양의 미국 선교사들	86
(그림 37) 1936년 돈암 용두지구의 주거밀집 현황	89
(그림 38) 2002년 돈암지구 지적도	89
(그림 39) 서울 청계천과 안암동	90
(그림 40) 최봉척 교장	93
(그림 41) 군산사범학생들이 터를 닦은 도서관과 과학관	93
(그림 42) 오산 중.고등학교 본관	96
(그림 43) 이응준	96
(그림 44)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	99
(그림 45) 군산 부속 초등학교의 1950년대 모습	99
(그림 46) 1980년 송의동의 인천교육대학 구 캠퍼스 전경	100
(그림 47) 보성고등학교 신관	101
(그림 48) 1960년 과학관 준공 직후 춘천사범학교 전경	104
(그림 49) 평안남도 맹산의 귀틀집 및 물방앗간 도면	107
(그림 50) 도구 도면	124
(그림 51) 제도 중인 조승원	124
(그림 5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수록된 도판의 종류	133
(그림 53) 칠포집 투시도	134
(그림 54) 부재 상세도	134
(그림 55) 평안북도 희천의 지주농가	135
(그림 56) 칠포집의 각 제공 층별 구조 상세도	136
(그림 57) 1973년 3월, 성북구 자택 시하장 마룻방의	



원고 앞에서의 조승원 .....	137
(그림 58) 1983년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초평건축상 수상 .....	138
(그림 59) 경향신문 보도 당시의 사진 .....	138
(그림 60) 1970년대 초 서울여자상업학교의 북서쪽에서의 전경 .....	142
(그림 61) 조승원과 홍두표 .....	143
(그림 62) 서울여자상업학교 제9대(중학4대)교장 홍두표 .....	143
(그림 63) 1964년 9월 29일 서울여자상업학교 체육관 낙성식 .....	144
(그림 64) 1965년 서울여자상업학교 학생들의 등교 모습 .....	144
(그림 65) 서울여자상업학교 체육관 .....	145
(그림 66) 소석관 낙성식 모습 .....	147
(그림 67) 1976년 학교 시설의 배치도 .....	148
(그림 68) 박희만 作, 서울문영여자중학교 전경, 194x97cm, 유화. ....	149
(그림 69) 도선암 시절의 도선사 .....	150
(그림 70) 조승원과 청담 스님 .....	151
(그림 71) 청담 스님이 조승원에게 보낸 친필 편지 .....	151
(그림 72) 조승원에 의해 설계, 시공된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전경 .....	152
(그림 73) 귀논 월한정의 준공식 모습 .....	154
(그림 74) 다낭 국제공원 내 평화정의 건립 당시 모습 .....	154
(그림 75) 1972년에 조성 된 타이한 공원 내 팔각정과 분수대. ....	155
(그림 76) 1972년 사이공 평화정 공사 당시의 모습 .....	156
(그림 77) 1972년 사이공 평화정에 걸린 현판들 .....	156
(그림 78) 단청이 훼손되기 전의 평화정의 모습 .....	156
(그림 79) 2017년 6월 기준 현존 평화정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막혀있는 모습 .....	157
(그림 80) 2017년 6월 기준. 현존하는 평화정의 모습 .....	157
(그림 81) 삼청각 배치도 .....	158
(그림 82) 완성 직후의 삼청각 유하정 .....	159
(그림 83) 공사 중인 삼청각 일주문 .....	159
(그림 84) 삼청각 유하정 평면도 .....	159
(그림 85)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측면도 .....	161
(그림 86)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정면도 .....	161
(그림 87) 도선사 호국참회원 정면 .....	163

(그림 88) 전통건축 누정 바닥의 적층 예시 다이어그램 .....	163
(그림 89) 누정의 전통과 철근콘크리트조가 조화 된 기본형을 잘 보여주는 서울여상 소석관의 전경 .....	164
(그림 90) 경복궁 경회루(上)과 청와대 영빈관 계획(下)의 비교 .....	165
(그림 91) 베트남 평화정(左), 탑골공원 팔각정(右)의 비교 .....	166
(그림 92) 기본형에 팔각형 평면의 도입 예시 다이어그램 .....	167
(그림 93) 1970년 공사중인 서울여상 과학관 .....	167
(그림 94) 서울여상 소석관 최상층 처마 공간 .....	169
(그림 95) 서울여상 소석관 정면을 올려다 본 모습 .....	169
(그림 96) 삼청각 일주문의 정면 .....	170
(그림 97) 매달린 기둥을 가까이에서 본 모습 .....	170
(그림 98)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나타나는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 .....	172
(그림 99) 호국참회원 최상층 실내 지붕 가구 .....	173
(그림 100) 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콘크리트 광화문 .....	167
(그림 101) 삼청각 유하정의 전경 .....	174
(그림 102) 삼청각 일주문의 지붕 하부에서 드러나는 서까래의 모습 .....	174
(그림 103) 1970년대 초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익공 .....	175
(그림 104) 서울여상 과학관의 근경 .....	167
(그림 105) 1966년 완성된 김종업의 UN 묘지 정문 .....	179
(그림 106) 1972년 완성된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 .....	179

#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 조승원(趙承元, 1901.10.2.-1987.1.16.)의 생애와 건축 작품을 살펴보고,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 내에서 그와 그의 건축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세기의 대략 90년에 걸친 한 건축가의 생애와 작품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국 건축의 근대화 과정에서 건축 생산의 주체와 생산의 과정, 이에 의한 결과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승원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그는 1901년 10월 21일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났으며, 청년기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1923년 평양에서 한옥 시공 현장의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문하였다. 1925년에는 짧은 시간이었으나 당시 평양에서 유명했던 도편수 한성룡에게 전통건축의 수업을 받기도 하였고, 1926년에는 대륜조의 전속목수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만난 백기환을 통해 근대적 설계 제도와 시공의 기술을 학습하였다. 1931년에는 평양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의 관계를 토대로 지인 3명과 함께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를 설립하여 1942년까지 다수의 벽돌과 석조의 근대건축을 설계, 시공하였다. 그는 1940년에 서울로 이주하였고,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에는 정상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으나, 1953년부터 연고자들을 통해 다수의 학교 건축의 재건에 참여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 기술을 학습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히 1957년의 춘천사범학교의 공사 현장에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을 체득하였다.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발상은 1967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소석관의 건축에 적용되어 첫 실현을 보게 되었고 이후 1978년까지 다수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완성하였다. 한편 그는 1961년부터 도편수 박기섭과의 교류 등을 통해 전통건축을 재학습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저술을 병행하였다. 1969년에 탈고한 원고는 그의 차남 조영무에게 넘겨져 1981년 민음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이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3년에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초평건축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87년 1월 16일 성북동 자택에서 운명하였고, 시신은 경기도 광남 묘원에 안치되었다.

조승원의 생애와 건축을 살펴보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조승원 생애의 시기적 연속성과 지리적 활동 범위는 한국 근현대건축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

는 시간적, 지리적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그의 삶이 20세기의 시작인 1901년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재건과 군사독재, 민주화를 거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1987년까지의 넓은 시간 범위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과 1920, 30년대의 시기 동안은 평양을 중심으로, 1940년 이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건축 활동의 지리적 범위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조승원의 활동은 한국건축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생산주체들의 성격을 재고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개항과 함께 전통건축 장인 조직이 해체된 후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중심으로 생산주체는 재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적 의미에서의 건축가의 직능이 정비된 제도로서 규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인 건축가의 개념은 일제시기 국내외에서 제도권 건축 교육을 받은 인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정립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조승원은 어떠한 제도권의 건축 교육을 받지 않고서 대목, 청부업자를 거쳐 건축가의 직능을 수행했고, 이는 과도기 각 생산주체들의 성격이 단순히 제도권 건축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등의 단순한 공식으로 뚜렷하게 구별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승원이 1960, 70년대에 완성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민간의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실현된 것이며, 조승원 건축 학습의 특성인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57년 춘천사범학교의 현장을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발상을 체득했고, 이후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학습과 전통건축의 학습을 병행한 결과, 1967년 그의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인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을 실현하였다. 이는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작가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전통이 주제가 된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승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게다가 많지 않은 그와 관련한 기록들에서조차 그의 생애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잘못 서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분명한 사실이 재생산됨으로써 조승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예로서, 조승원을 근대 건축가가 아닌 전통건축의 장인으로 이해한 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 관계의 검증을 기반으로 조승원의 생애와 건축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으려 한다. 나아가 그와 그의 건축을 한국 건축의 근대화 과정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위상과 의미를 정립할 것이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1901년 10월 2일에 출생하여 1987년 1월 16일 사망한 조승원의 전체 생애와 그가 남긴 건축 관련 저술 및 실물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내용상으로는 조승원의 건축 학습 과정과 이의 결과물인 저술 및 건축 작품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이는 1차 관련 문헌의 검토 및 확보, 2차 건축 작품 전체의 목록화, 3차 현존 작품의 현장 답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추가하여, 문헌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기 위해 조승원의 차남 조영무(趙英武, 1932-, 건축평론가)를 직접 만나 2번의 구술채록을 수행하였다. 이는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미출간, 2017.3.22.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자료가 부족한 이유』, 미출간, 2017.3.25.의 두 권으로 정리되었다.

조승원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집: 나의 일생기 - 감명」 (1961), 『건축』, 제47권 1호, 2013.1.</li> <li>- 「머리말」 (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조승원·조영무 공저, 민음사, 1981.</li> <li>- 「조승원 전통건축가의 증언」 (1975.11.28.), 『건축·도시계획론』, 조영무 저, 민음사, 1975.</li> <li>-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li> <li>- 조영무 공저, 「한식 목조건축시대에 사용된 건축도구 및 기계」, 『건축사』, Vol.1981, No.4, 1981.</li> <li>- 조영무 공저, 「한식 대목작제도 개설」, 『건축사』, Vol.1981, No.7, 1981.</li> <li>- 조영무 공저, 「한식목조건축기법의 특징들」, 『건축사』, Vol.1980, No.10, 1980.</li> <li>- 「이달의 말씀: 두가지 맹세」, 『샘터』, 제66권, 1975.9.</li> <li>-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1963.10-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li> <li>- 「한식건축 사장-대를 잇는 증언」 (1963), 『비평건축』, 제2호, 1996.4.</li> <li>-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li> </ul>
조영무 편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 『조영무 조형에세이 한국원시창조순환이론』, 미출간, 2014.</li> </ul>

조승원 구술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옹, 『공간』, 97호, 1975.6.</li> </ul>
조영무 구술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미출간, 2017.3.22.</li> <li>-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자료가 부족한 이유, 미출간, 2017.3.25.</li> </ul>
추모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원석, 도목수 조승원 옹, 『건축가』, 1987.1-2.</li> <li>-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64호, 1987.2.</li> <li>- 이한기, 「도편수 조승원옹 - 전환기 건축의 재평가」, 『공간』, Vol.235, 1987.3.</li> <li>- 유희준, 고 조승원 선생님 영전에 붙여, 『건축과 환경』, 통권 제30호, 1987.2.</li> </ul>
서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창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건축가』, 1982.1-2.</li> <li>- 장기인,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꾸밈』, 34호, 1982.2.</li> <li>- 김정기, 조승원옹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공간』, Vol.177, 1982.3.</li> </ul>
단행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길룡, 『한국현대건축평전』, 공간서가, 2008.</li> <li>-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2000.</li> </ul>
신문기사 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건축의 秘法을 한눈에」, 서울신문, 1982.1.24.</li> <li>- 「『韓式건축설계 원론』 펴낸 趙勝元옹 韓屋건축 技法을 물려준다」, 경향, 1982.02.03.</li> <li>- 「Senior Architect Writes On Traditional Edifice」, The Korea Herald, 1982.2.27.</li> <li>- 「전통한옥짓기 技法集大成」, 연합통신, 1982.2.27.</li> <li>-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신동아』, 1982.4.</li> <li>- 「82년 艸平建築賞 趙勝元옹이 받아」, 경향, 1983.03.01.</li> <li>- 「조선조 도목수 趙勝元翁」, 경향, 1987.01.17.</li> <li>- 「근대건축에 ‘한옥의 혼’ 엮은 이 사람」, 한겨레, 2013.06.26.</li> <li>- 「[일사일언] 어느 건축가父子」, 조선일보, 2017.03.16.</li> </ul>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탈로그: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근대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13.6.10.-7.21.</li> </ul>

표 1 조승원 관련 문헌 목록

조승원이 직접 저술한 문헌을 살펴보면, 그가 1960, 70년대에 저술하여 『건축』, 『건축사』, 『비평건축』, 『샘터』 등의 건축지에 게재한 9개의 글과 조영무의 저서 『건축·도시설계론』(민음사, 1975)에 수록된 한 개의 글 그리고 저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민음사, 1981)까지 총 11개의 글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간』지에 게재된 조승원의 직접 구술채록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접 자료로서 조승원 관련 문헌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서평이 3건, 1987년 그의 사망 후 추모글이 4건, 신문기사가 9건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단행본과 학술지 및 학위논문 등에서 조승원에 관하여 짚막히 언급한 글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량과 질의 한계를 인식하여 문헌의 추가 확보에 나섰고, 다행히 조영무를 통해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미출간, 2014) 제목의 자료로서, 조영무가 본인의 미출간 원고의 부록으로 편집, 저술한 것이다. 이는 조영무가 「생업」, 「후회 I · II」, 「감명I · II」, 「기쁨 · 즐거움」, 「눈물」, 「별명」, 「인연」의 총 7종 9권으로 이루어진 부친의 유고 『나의 일생기』의 원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sup>1)</sup> 이의 초고는 1996년 4월에 비평건축에 게재된 조승원의 저술 「양해의 글. 유고 I· II· III. 고건축에 대한 추상, 한식건축사상,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과 함께 관련 자료로 수록되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검토가 어떠한 선행 연구로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조영무에 의해 이 내용은 2014년까지 지속적인 수정을 거쳤고, 편집을 마친 최종본이 본 연구에 제공되었다. 이는 2차 사료이긴 하지만 내용의 출처인 1차 사료가 명확하고, 조승원과 그의 건축 활동의 실체를 파악할 단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영무 편저,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미출간, 2014)에서 정리한 1923년부터 1978년까지의 총 46개 작품을 토대로 조승원의 직접 저술 및 구술채록 총 12건과 추모글 중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의 글 총 3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1차적인 조승원 건축 작품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의 내용은 건축 작품과 시기 그리고 조승원이 맡은 역할을 포함하며, 조승원 건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작품의 실체를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일일이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수정 보완된 목록은 총 52개 작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 조승원의 유고 『나의 일생기』는 그가 1961년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작성한 조승원의 자서회고록이다. 『나의 일생기』중 「감명」의 일부분이 『건축』지에 게재된 적이 있고, 「생업」편의 원본 서적은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근대건축」(서울역사박물관, 2013.6.10.-7.21.) 전시에서 공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에서는 그 원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못하였다.

최종 완성되었다.

이들 중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인천사범학교 본관」(1957), 「인천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 교사」(1960),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소석관」(1967),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과학관」(1973), 「도선사 호국참회원」(1968), 「베트남 평화당」(1972), 「삼청각 일주문」(1972), 「삼청각 유하정」(1972), 「대구제일교회」(1936)의 총 10개의 조승원 건축은 최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이들 중 「대구 제일교회」(1933)의 경우 청부인에 평양 건평사 김준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재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1930년대 건평사 시기의 건축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서술 과정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조승원 건축을 살펴보는 예비 단계로서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우선 선행 문헌들에서 조승원을 지칭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 그를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근대 건축의 생산 주체별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승원의 특징적인 1960, 70년대 건축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용어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확보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조승원의 최종적 작품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시기 구분법이 불분명함을 지적하여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주로 연대기별 서술의 방법으로 조승원 건축 활동 전체를 고찰하였다.<sup>2)</sup> 3장과 4장은 조승원의 건축 활동의 시기 구분에서 혼란기 이전과 이후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3장은 조승원이 건축에 입문하기 전부터 건축에 입문하여 스스로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시기까지의 범위를 조승원 건축의 발단으로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승원의 초기 건축 학습이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성격을 지녔음에 주목하여 살펴보았고, 건평사와 건평사 건축의 실체를 관련 자료들의 검토,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 4장에서는 1940년 조승원이 서울로 이주한 후 혼란기를 거쳐 1953년 건축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부터 그가 1960, 70년대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는 시기까지의 범위를 조승원 건축의 형성과 전개로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조승원이 시공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조를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을 체득하는 정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가 대목출신 근대 건축가로서 전통계승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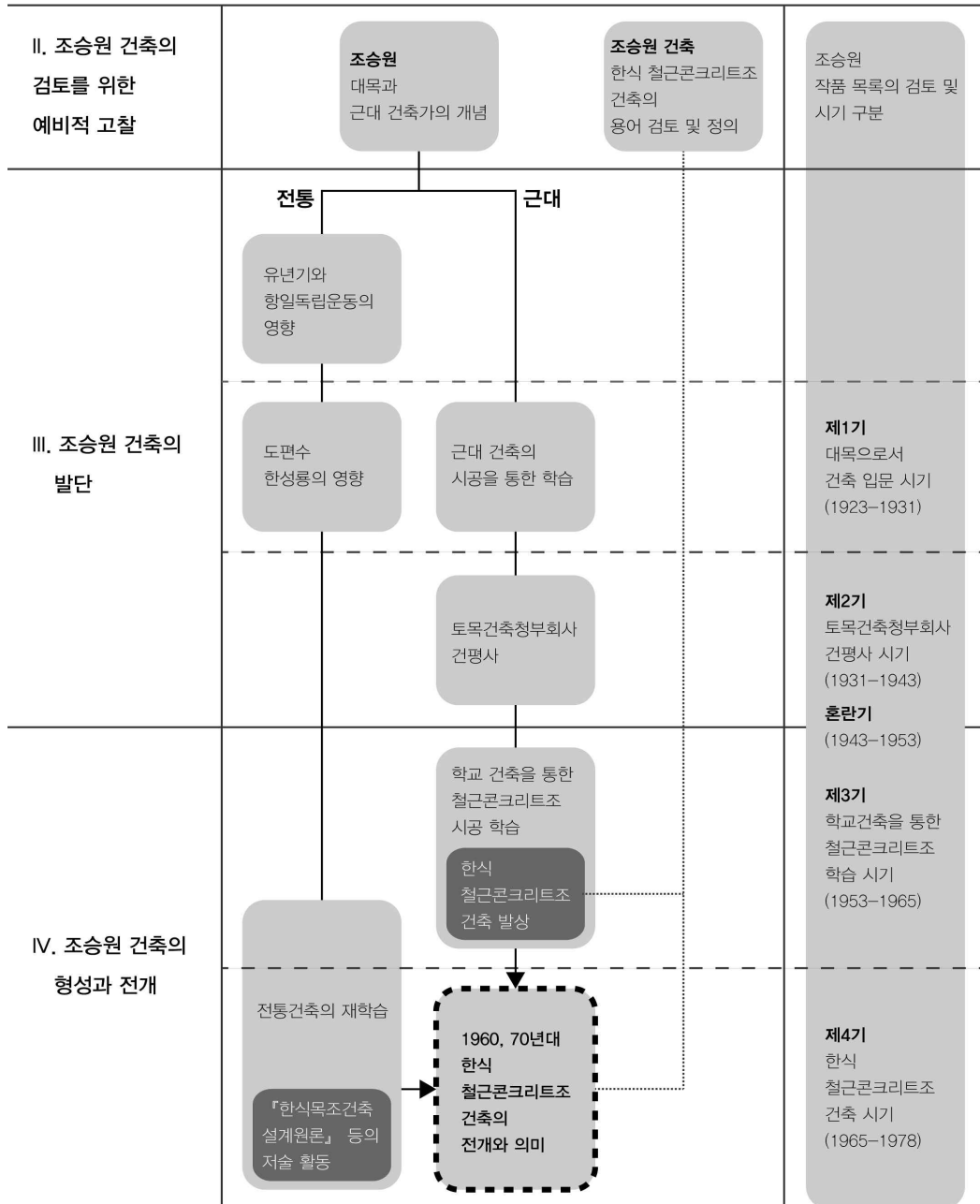
---

2) 본 연구의 3장과 4장의 서술 방법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른 이유는 1차적으로 조승원의 선행 연구가 부족함에 기인한다. 엄밀히 말하면, 조승원 건축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료로 취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별 서술 등의 방법을 통해 조승원 건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전통건축의 재학습을 수행하고 저술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의 결과로 출간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960, 70년대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의 특성,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I. 서론



# V. 결론

표 2 연구 흐름도

## Ⅱ. 조승원 건축의 검토를 위한 예비적 고찰

### 2.1. 대목과 근대 건축가의 개념

본 절에서는 조승원 연구의 예비 고찰로서 선행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조승원의 호칭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 수집된 조승원 관련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조승원의 호칭은 도목, 도목수, 장인, 건축 장인, 대목장, 도편수, 전통 건축가, 고(古) 건축가, 건축가, 대목출신 건축가, 건축기능공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승원의 건축 이력이 지닌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승원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인식함에 그 원인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승원의 호칭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를 전통건축 장인으로 인식한 호칭이고, 둘째는 그를 근대적 건축가로 인식한 호칭이다. 수집된 관련 문헌 중 분명한 호칭을 기재한 총 24건의 문헌을 살펴보면 도목, 도목수를 비롯한 전통건축 장인의 의미를 지닌 호칭을 사용한 경우가 총 12건, 건축가라는 호칭을 사용한 경우가 총 11건, 예외의 경우로 건축기능공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는 전통건축 장인 의미의 호칭과 건축가 호칭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축가의 호칭에는 ‘전통’이나 ‘고(古)’의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글에서 근대적 건축가의 의미보다 전통건축 장인의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승원 관련 문헌들에서 등장하는 호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체로 그를 전통건축 장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함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호칭은 조승원의 복합적 건축 이력 중 전통건축과 관련된 사항만을 편향적으로 부각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문헌들에서 나타난 장인 또는 건축가를 의미하는 다양한 호칭들은 용례의 의도 전달에는 차질이 없을지 모르나 그 정의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승원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를 지칭하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 2.1.1. 개항 이후 전통건축 장인의 위상과 호칭 변화

한국의 전통건축을 생산하는 장인의 호칭은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며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함께 변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 전통건축 장인의 호칭은 고려 말 조선 초를 지나 17세기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조선 초기 이전의 건축공

용례	호칭	문헌
건축가 용례 (11)	고(古) 건축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달의 말씀: 두가지 맹세」, 『샘터』, 제66권, 1975.9.</li> <li>-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옹, 『공간』, 97호, 1975.6.</li> </ul>
	전통 건축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승원 전통건축가의 증언」(1975.11.28.), 『건축·도시계획론』, 조영무 저, 민음사, 1975.</li> </ul>
	대목출신 건축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사일언] 어느 건축가父子」, 조선일보, 2017.03.16.</li> </ul>
	건축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2000.</li> <li>-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li> <li>- 「양혜의 글 유고 I, II, III」, 『비평건축』, 제2호, 1996.4.</li> <li>- 「카탈로그: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근대건축」, 서울역사박물관, 2013.6.10.-7.21.</li> <li>-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 『조영무 조형에세이 한국원시창조순환이론』, 미출간, 2014.</li> <li>- 「Senior Architect Writes On Traditional Edifice」, The Korea Herald, 1982.2.27.</li> <li>- 「근대건축에 ‘한옥의 혼’ 엮은 이 사람」, 한겨레, 2013.06.26.</li> </ul>

3)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p.199.

전통건축 장인 용례 (12)	도목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길룡, 『한국현대건축평전』, 공간서가, 2008.</li> <li>- 김원석, 도목수 조승원 옹, 『건축가』, 1987.1-2.</li> <li>-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64호, 1987.2.</li> <li>-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신동아』, 1982.4.</li> <li>- 「조선조 도목수 趙勝元翁」, 경향, 1987.01.17.</li> </ul>
	도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건축의 秘法을 한눈에」, 서울신문, 1982.1.24.</li> <li>- 「『韓式건축설계 원론』 펴낸 趙勝元翁 韓屋건축 技法을 물려준다」, 경향, 1982.02.03.</li> <li>- 「전통한옥짓기 技法集大成」, 연합통신, 1982.2.27.</li> <li>- 「82년 艸平建築賞 趙勝元翁이 받아」, 경향, 1983.03.01.</li> </ul>
	도편수 (1)	- 이한기, 「도편수 조승원옹 - 전환기 건축의 재평가」, 『공간』, Vol.235, 1987.3.
	대목장 (1)	- 「특집: 나의 일생기 - 감명」(1961), 『건축』, 제47권 1호, 2013.1.
	장인 (1)	- 최창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건축가』, 1982.1-2.
기타 (1)	건축 기능공 (1)	- 김정기, 조승원옹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공간』, Vol.177, 1982.3.

표 3 문헌에서 나타난 조승원의 호칭

장에 대한 호칭은 일반적인 목수 외에 지유, 도료장, 대목 등이 있었으며 이 중 고려 말 조선 초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호칭은 대목이었다.<sup>4)</sup> 조선 초기 대목은 목조부분의 기술적인 면을 총괄 주도한 지도적 기술자로서 고위 관직까지 가질 수 있었다.<sup>5)</sup> 하지만 대체로 17세기를 경계로 관영 공사에서 대목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변수 또는 도변수라는 호칭이 등장하며, 18세기를 경계로 사찰건축에서도 역시 대목이 사라지고 대신 도편수 등의 호칭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sup>6)</sup> 이는 공사 조직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관영 공사에서는 건물의 각 부분별로 세분된 편수가 조직되고 그 아래 일반 장인이 구성되며 이의 우두머리로 도편수가 자리 잡게 된다.<sup>7)</sup> 또한 사찰공사에서도 도편수가 우두머리를 맡고 아래 부편수를 두고 그 아래 일반 장인이 조직된다.<sup>8)</sup> 이는 조선초기의 대목과 차이를 보이는 점인데, 특히 이는 공사 조직이 각 부분별 편수 체제로 분할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체를 총괄하는 우두머리인 도편수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 시기의 대목에 비해 축소됨을 의미한다.<sup>9)</sup> 또한 신분상으로도 도편수는 과거의 대목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sup>10)</sup>

한편 전통건축 생산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관영 공사 조직은 고용임금제의 성장과 함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였다.<sup>11)</sup> 이는 개항에 의한 서구 문물의 급격한 유입과 연이은 일제에 의한 조선정부의 와해로 더욱 가속화되어, 1897년 경운궁 조영과 1920년 창덕궁 대조전 공사를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사에서 전통적 장인 조직의 참여는 사라지게 된다.<sup>12)</sup> 해체 된 이들은 각종 공사 현장의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일부는 산 중 사찰의 개, 보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다.<sup>13)</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세기 초에 진행된 전통건축 장인 조직의 해체와 함께 이들이 참여하는 건축의 종류가 분화된다는 점이다. 즉, 일부는 전통적 방식으로써 목조의 건축을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지만 다른 일부는 목조와 함께 근대적 재료들이 더해진 건축을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건축 생산주체의 성격이 크게 전통건축의

4) 김동욱, 같은 책, p.120.

5) 김동욱, 앞의 책, p.123.

6) 김동욱, 앞의 책, p.199.

7) 김동욱, 앞의 책, pp.210-211.

8) 김동욱, 앞의 책, pp.210-211.

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272.

10) 김동욱, 앞의 책, pp.210-211.

11) 김란기, 「근대 전통건축 생산장인의 활동과 계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4호, 1990. 8, p.24.

12) 정태용, 『韓國 建築에 나타난 近代性에 關한 研究 : 19세기에서 1960년대까지 시기별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론, 1994, p.241.

13) 김란기, 앞의 책, p.25.

장인과 건설 기술자로 구분되는 기점이 된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이들은 1920년 창덕궁 대조전 공사를 비롯하여 이후 전통의 목조로 조영된 사찰의 불전, 상류층의 주택 등의 공사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목조의 문화재의 개, 보수 일에 참여한 경우이다. 이들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도제의 방식으로 전통적 기술을 전승하여 현재는 대목장이라는 호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74호로서 등록되어 있다.<sup>14)</sup> 이때의 대목장은 목공일 중 문짝, 난간 등을 맡는 소목과 구분한 데서 나온 명칭으로 대목 일을 하는 목공 분야의 기술 총책임자를 지칭한다.<sup>15)</sup> 이와 별개로 이들은 현장에서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도편수 등 편수체제의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한다.<sup>16)</sup>

다음으로 20세기 초 새롭게 유입된 근대적 재료와 기술이 사용된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된 전통건축 장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특히 1920년대 도시에서 급격히 그 수요가 늘어난 소위 ‘개량 한옥’ 혹은 ‘집 장수 집’의 공사 현장에 다수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sup>17)</sup> 이때의 주택은 벽돌 등의 재료가 혼용되더라도 목조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통건축 장인 중 대목 일을 담당하던 목수들이 공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영향으로 국내 건축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인부들의 일반적 호칭이 목수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공사 현장은 그 규모가 작았으므로 각 부분별 업종을 세분하는 전통적 방식의 편수 체제는 그 실효성이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도편수, 부편수 등의 호칭보다는 일반적 목수와 구분되는 공사 지휘자로서의 목수를 지칭하기 위해 간편히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를 붙여 도목수 또는 도목이라는 호칭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의 목수와 도목수의 호칭은 주택에서 철근콘크리트가 보편화 된 1990년대까지도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sup>18)</sup> 이는 목수라는

14) 국가무형문화재 제 74호 대목장은 1980년에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처음 지정되었다. 2017년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기능 보유자는 신응수, 전홍수, 최기영 3인이 있다. 이들과 관련하여 전통건축 장인의 계보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란기, 앞의 책. 김종훈, 『전통 한옥 계획에 나타난 장인 건축기법 연구』, 명지대 박론, 2011 등을 참고.

15) 『대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p.9.

16) 국가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기능 보유자였던 배희한의 구술과 현 기능 보유자 신응수의 글에서 이들이 시공의 현장에서 여전히 편수 체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 신응수, 『천년 궁궐을 짓는다』, 김영사, 2002 등을 참고.

17)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21.

18) 1991년 8월 25일자 경향신문의 건설노임 관련 기사에서는 건설 직종의 구분을 도목수, 철골공, 방수공, 콘크리트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도목수의 하루 노임이 45,26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콘크리트공으로 40,474원이다. 이는 도목수가 전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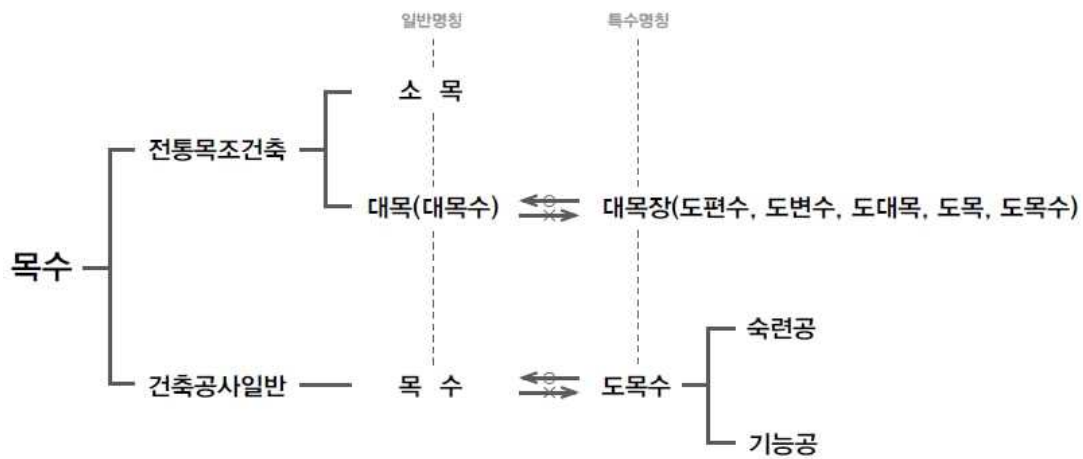


표 4 업종과 위계에 따른 목수의 호칭

호칭이 더 이상 반드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도목수는 공사의 총 지휘자를 의미하는 일반적 호칭으로 정착되었다.

정리해보면 전통건축 장인 중 목공일을 맡았던 목수는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목조건축과 근대적 건축의 각기 다른 종류의 공사에 투입되며 분화되었다. 이때 전통목조건축의 대목 일을 지속하며 기능을 전수받은 이들은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그 용어는 소목 일과의 구별에서 대목, 대목장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편수 체제의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이들 대목 중 우두머리를 여전히 도편수, 도변수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공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접두사만을 붙여 도대목, 도목, 도목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개량 한옥 등의 근대 건축 현장으로 흘러 들어간 전통건축 장인들의 영향으로 공사 현장의 건설 기술자의 일반적 호칭이 목수로 정착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시공의 지휘자를 도목 또는 도목수라 칭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도목수의 경우 참여하는 건축의 종류를 불문하고 우두머리 목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목의 경우에는 소목과의 구별에서 목공의 업무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이를 다루는 사람의 호칭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목은 여말선초의 대목과는 그 용어의 위상과 의미가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조건축이 아닌 공사현장에서도 건설 기술자를 목수

사현장을 지휘하는 역할로서 다른 직종보다 위계가 높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설 노임 38% 폭등」, 『경향신문』, 1991.8.25.



라 부르는 경우가 있고 대목장의 경우 현장에서 도편수, 부편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칭들은 각 업종별로 완전히 일반화되어 적용되는 개념이기보다는 개별 건축의 성격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맥락에서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 2.1.2. 한국 근대 건축의 기점과 건축가의 개념

서구에서는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총괄적 책임자인 근대적 의미의 건축가에 대한 인식적 기반을 르네상스에서부터 두고 있으며, 이들은 18세기 말과 19세기를 거치며 교육 기관과 건축사 자격 제도의 신설, RIBA, AIA 등의 건축가 전문집단의 형성 등 근대적 제도를 통해 건설업 등의 타 분야와 건축가의 전문 직능을 구분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하였다.<sup>19)</sup>

한편 일본에서 근대 건축가는 19세기 중반 이후 근대화를 주도한 관의 후원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 이 때 관의 근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1886년에 생긴 동경대학 조가(造家)학과의 교수에는 영국인 건축가 조시아 콘더(Josiah Conder)가 초청되었고 이후 다쓰노 긴고(辰野金吾)를 비롯한 첫 번째 졸업생들은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서양의 보자르 건축을 배워 귀국한 후 동경대학 교수직을 재편함과 동시에 국가 시설의 설계를 도맡게 되었다.<sup>20)</sup> 따라서 그들은 정부건축가의 권위를 자연스레 부여받게 되었고 이로써 민간 건설업자와는 그 성격을 구별함으로써 건축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았다.<sup>21)</sup>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서구에서는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스스로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근대 건축과 건축가가 탄생하였고, 일본의 경우 권위를 지닌 관이 스스로 근대화를 주도하고 이를 서구화와 등가로 두는 비교적 단순한 공식을 통해 근대 건축과 건축가를 성립시켰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건축의 근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하였고, 따라서 초기 근대 건축과 건축가의 개념이 스스로에 의해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 근대 건축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도시, 건축의 모습과 대비하여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점으로서 개항을 그 시작으로 보거나<sup>22)</sup>, 상업의 성장 등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함께 건축 생산 방식과 기술의 변화를 근거로 화성 축조를 한국 건축에서 근대성이 표출된 최초의 사례로 보거나<sup>23)</sup>, 식민 지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의

19) 박길룡, 배형민, 「건축가·건축사·건축 사무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송율, 『韓國近代建築의 發展過程에 關한 研究 : 1920年代 後半에서 1960年까지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론, 1993.

20) 류전희, 「광복후 50년, 한국건축교육의 극복과 도전-건축교육에서 ‘식민성’ 극복의 의미」,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1995. 송율, 같은 책.

21) 송율, 앞의 책.

22) 전봉희, 이규철, 서영희,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2.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건축』, 제27권 5호, 1983. 송율,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건축역사연구』, 제2권 1호, 1993.

역사적 단절로 인해 196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서구 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건축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등<sup>24)</sup>으로 나타난다.

한국 근대 건축의 시작을 정의하는 다양한 주장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생산 주체의 관점에서 한국인 근대 건축가를 정의하는 데는 서구 건축을 근대 건축으로 정의하여 전통 건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송울은 전통건축과의 대비개념으로 서구건축을 근대건축으로 우선 정의하고, 해방 전 한국인으로서 서구식의 건축물을 설계한 것이 알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한국인 후원자의 등장과 함께 작품 활동을 본격화 한 1920년대 후반부터 근대 건축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또한 박길룡이 최초의 한국인 근대 건축가를 1919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 제1회 졸업생인 박길룡(朴吉龍, 1898-1943)으로 설정하고, 1932년 세워진 박길룡 건축사무소 출신자들을 해방 전후의 한국 건축계 2세대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주장은 서구 건축이라는 결과물 이전에 전통 건축의 장인이 자생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건축가로 변모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대적 건축교육기관이 한국인 근대 건축가의 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창모는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초창기 교육이 근대적 건축술에 입각한 서양의 양식건축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고찰하여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도 하였다.<sup>27)</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경성고공의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대 건축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건축가가 출현했다고 보는 관점이나, 그들은 본격적인 근대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정동은 1895년부터 1897년까지의 기간에 심의석(沈宜碩, 1854-1924.7.21.)이 영은문을 철거하고 서양식의 건축인 독립문, 독립공

---

23) 정태용, 앞의 책, 1994.

24) 배형민, 서정일, 「모더니즘과 한국 건축」,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여기에서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후까지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 형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모더니즘이 서구 근대성에 뿌리를 둔 이유를 들어, 1950년대 서양을 직접 체험한 건축가들의 1960년대 활동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1세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25) 송울, 앞의 책.

26) 박길룡, 「1부: 건축사 사무소의 성립과 진화, 한국 건축사무소 傳」, 『건축과 사회』, 제22권, 2010.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의 세대론을 위한 구도」, 『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 논총』, 1993.8.

27) 안창모,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14권 6호, 1998.6.

원, 독립관의 일을 맡아 보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를 단순한 목수가 아닌 한국 개화기의 첫 자생적 건축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8)</sup> 한편 정인하는 모더니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인자가 ‘근대적 자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의 탐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를 충족하는 김수근과 김중업이 진정한 근대 건축가이며 이들 이전세대의 한국건축가들은 근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하지만 전문 집단의 형성과 건축사 등의 자격 제도, 건축의 교육 제도 등 건축의 제도가 근대적 사회에서 건축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sup>30)</sup>, 기본적으로 한국인 근대 건축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을 근대적 건축 교육 제도에 근거하여 일제시기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졸업자 및 동시기 미국, 일본 등에서 건축 유학을 다녀온 이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으로 설정하는 관점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들이 해방 후 1950, 60년대를 거치며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고, 건축사 제도 등의 건축 관련 법 제도의 정비에 주요한 역할을 맡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심적으로 근대적 건축의 제도는 건축가를 전근대의 건축 장인과 달리 건설의 물리적 과정에서 상당히 분리시킨다.<sup>31)</sup> 이 과정에서 건축가의 직능은 계약서, 건설 도서, 시방서 등을 통해 체계화하여 정의되고, 따라서 근대 건축가의 주요한 행위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이를 형식화 된 도서들을 통해 시공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된다.<sup>32)</sup> 이에 따라 건축의 지식 전승 역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기술 전승이 약화되고, 근대적 기법의 도서를 수단으로 교육 기관을 통한 체계화되고 표준적인 지식의 전승이 중

---

28)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2010.

한편 우대성, 박언곤은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1996.에서 심의석에 대한 김정동의 평가를 긍정하며, 그를 최초의 한국 근대건축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29)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미건사, 1996, pp.10-11.에 따르면 건축가가 근대적 자아를 가졌다는 의미는 그에게 전달된 전통 또는 외국의 건축경향 등을 주체적으로 해석함을 의미하며,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를 대상화 혹은 타자화하여 어떠한 표현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새롭게 표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적 자아를 갖춘 건축가는 곧 세계를 재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언어의 탐구를 수행한다.

30) 배형민 저, 박정현 역, 『포트폴리오와 다이어그램』, 동녘, 2013, p.18.

31) 배형민 저, 박정현 역, 같은 책, p.40.

32) 이안, 「한국근대건축에 설계도면 구법의 체계화 과정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8, 2000, p.197.에 따르면 중세이후 서양에서의 설계 도면의 발전이 건축가가 건축현장 출신의 기술자에서 도면제작자로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심을 차지하게 된다.<sup>33)</sup> 이러한 관점에서 심의석은 다양한 서양식 건축에 접함으로써 서구 근대 기법의 도면을 익힌 것은 특기할만하지만<sup>34)</sup>, 아직까지 그가 설계에서 근대 도면을 얼마나 이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계보다는 물리적 건설 자체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무엇보다도 그의 이력이 근대적 건축 제도를 논할 만큼 보편적인 전통건축 장인들의 위상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sup>35)</sup> 따라서 아직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심의석을 근대 건축가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6)</sup>

한편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건축계를 살펴보면, 일제시기 근대적 건축설계를 경험한 건축인 중 다수가 전후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건축대서사, 건설업자, 건축가가 혼돈되면서 제도로서의 건축가의 직능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sup>37)</sup>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일제시기 근대적 기관의 건축 교육을 받은 이들이 건축 설계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근대 건축가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이들이 표출하는 근대성의 정도가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작가들이 표출하는 근대성을 가늠하기 위한 특정 관점이 필요하다는 정인하의 주장은 검토될만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60년대 이전의 건축가, 건축사무소, 건축 전문 집단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존재하지만<sup>38)</sup>, 여전히 일제시기 경성고공 건축과 졸업자 및 미

33) 김동욱, 「건축 지식의 전승」,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89.

34) 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례의 건축도 연구』, 전남대 박론, 1994, p.37에 따르면 서양근대식설계도작성법의 도입은 1881년이다. 이 시기는 조선정부가 개화기를 맞아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청나라 텐진(天津)에 영선사 김윤식이 인솔하는 청년학도를 파견한 때이다.

35) 송율, 「건축실무의 역사 (1)」, 『건축사』, Vol.1994, No.8, 1994, p.85.

36) 송율은 같은 책, p.85에서 장인과 건축가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단지 장인이 사회적으로 고양된 것이 건축가라는 바우하우스 선언의 내용을 믿는다면 심의석을 최초의 한국건축가로 부를 수도 있으나, 그의 출세가 보편적 장인들의 위상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1909년 이후 그의 행적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동욱은 저서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352.에서 심의석이 “*재래 기술에 익숙한 기술자에서 근대적인 건축 설계사의 변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설명하지만, 그를 건축가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규철은 「통감부 시기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재편」, 『건축역사연구』, 제23권 5호, 2014.에서 심의석을 기술자이자 관원으로 표현하였다.

37) 안창모, 「건설업과 건설 회사」,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61. 배형민, 서정일, 앞의 책, p.367.

38) 한국의 건축가, 건축사무소, 건축 전문 집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건축가에 관한 연구

근대 건축가			
근대적 건축 문서의 작성	근대적 건축 교육 기관	건축사 등의 자격 제도	건축가 전문 집단

표 5 근대 건축가의 제도적 범주에 따른 지표

국, 일본의 유학과 등 다수의 초기 건축가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건축 생산 주체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 근대 건축의 기점을 개항으로 파악하고 근대 건축가와 전통건축의 장인을 구별한다. 그리고 근대 건축가의 직능을 서구적 의미의 건축가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판단하려 한다. 이러한 제도의 범주는 크게 건축문서의 작성, 교육기관, 자격제도, 건축가 전문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건축가 특정 개인의 창작에서 표출되는 근대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승원의 근대 건축가로서의 직능을 파악해볼 수 있다.

안창모,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97. 김소연, 『정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등.

## 2. 한국 건축사무소에 관한 연구

김상윤, 『1950-70년대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종합건축연구소의 작품특성』, 연세대 석론, 2007. 이윤석,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 종합건축과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양대 건축대학원 석론, 2004 등.

## 3. 한국 건축전문집단에 관한 연구

이종호,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 : 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론, 1993 등.

### 2.1.3.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 조승원

조승원의 건축 활동은 크게 ‘전통건축 장인’, ‘건설 기술자’, ‘근대 건축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전통건축 장인과 관련하여 조승원의 이력을 간단히 언급해보면, 그는 기록에서 스스로 1923년 한옥 시공 현장의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25년에는 도편수 한성룡 밑에서 전통 건축 장인의 기법을 잠시나마 학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그가 참여했던 건축은 ‘벽돌조와 석조를 결합한 근대적인 목조건축’이었고, 이후에도 전통적 장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을 만한 경력을 쌓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대목에서 대목장 또는 도편수라 불릴만한 지위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설 기술자와 관련하여 조승원의 이력을 고찰해보면, 그는 시공 현장의 목수로 건축에 입문하였고 1930년을 전후로 규모 있는 건축물의 책임 시공을 맡아 볼 만큼 숙련된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1931년 스스로 토목건축청부업회사 건평사를 설립하였다. 해방 후에는 혼란기도 있었으나, 한국전쟁 후 재건의 현장에서 다수의 학교 건물들을 직접 맡아 시공함으로써 건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이 때 습득한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1960, 70년대는 독특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건축의 전 경력에서 건설 기술자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20년대 초의 목수를 거쳐 기능을 숙련한 후에는 줄곧 현장의 도목수로 활동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 건축가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설정한 제도적 범주에서의 지표로써 검토해볼 수 있다. 조승원은 교육 기관을 통해 근대 건축을 습득하지 못하였고, 일제 시기 건축대서사 또는 1961년에 생긴 건축사를 취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920년대 말부터 미국 선교사, 미국 건축 유학생, 일본 건축 유학생 등과의 교류를 통해 근대적 설계 도면과 계약서, 시방서 등의 건축 문서의 작성법을 익혔고 이를 바탕으로 줄곧 건축 설계와 시공을 행하였다. 또한 그의 사후이긴 하나 2000년에 출간된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가 목록에서 조승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sup>39)</sup> 이는 그의 건축 이력이 제도화된 건축가 전문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직능과 기술을 공유했음을 의미한다.

39)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 인명록」,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기문당, 2000, p.69.

여기에는 총 1,300여의 건축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건축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한국건축가협회의 회원과 건축전문 저널에 1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계와 관계의 인사는 별도의 추천 작업을, 작고한 건축가는 별도의 편찬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조승원은 이 책이 편찬되는 시점에 고인이었으므로, 편찬위원회의 선정에 의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원							
전통건축 장인		건설 기술자		근대 건축가			
대 목	대 목 장	목 수	도 목 수	근대적 건축 도서의 작성	근대적 건축 교육 기관	건축사 등의 자격 제도	건축가 전문 집단
✓	-	✓	✓	✓	-	-	✓

표 6 조승원 건축 직능의 평가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승원을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 정의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3, 4장에서 주로 다루었다. 조승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당히 미흡하긴 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그에 대한 평가는 전통건축 장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허나 그의 이력은 한국 건축의 근대화 과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의 정의는 조승원과 그의 건축 활동의 복합적 성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악하고, 그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틀로써 의미가 있다.



## 2.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용어 검토 및 정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크게는 한국의 근, 현대 건축물 중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포함하여 외관의 형태와 세부에 도입된 한국 전통건축의 요소까지가 철근콘크리트로 표현된 건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는 조승원의 1960, 70년대 작품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통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 중에서는 우선 1960, 70년대 건축계의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 다수의 현대건축에서의 전통 표현 양상을 유형화한 연구가 있다.<sup>40)</sup> 이는 대체로 1960, 70년대 한국 현대 건축의 다양한 사례들을 건축물의 형태에서 전통이 표현된 정도와 방법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순영은 이들을 직설적 표현, 추상화된 표현으로 분류하였고, 이은진은 보수적 전통주의, 절충적 전통주의, 추상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송인호는 직설적 복고주의<sup>41)</sup>, 전통요소의 원용, 전통요소의 변용, 전통적 이미지의 추상화로 더욱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분류의 정도와 용어 사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크게 전통을 직설적 형태로 표현한 것과 추상화하여 표현한 것의 양분 구도로 두고 중간 단계를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례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형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와 도입된 전통요소를 철근콘크리트로 표현한 현대건축의 사례들을 분류 체계 속에 포함시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을 특정 건축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1960, 70년대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서 콘크리트로 전통을 표현한 건축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전통양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난형은 박정희 정권 하에 강봉진에 의해 1960년대 진행된 콘크리트에 의한 광화문의 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건축을 ‘콘크리트 구조의 전통양식건축’으로 지칭하였다.<sup>42)</sup> 또한 김지훈은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건설된 한국전통건축물의 형태에 충

40) 송인호, 「한국 현대건축형태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유형화의 시론과 실례」, 『꾸밈』, 제65호, 1987.4, pp.42-47. 정순영, 윤인석,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0권, 1999. 이은진, 『1960-7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론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등.

41) 이희봉은 그의 글에서 1970년대 전통목조건축의 세부까지도 그대로 현대 부재인 콘크리트로 모사한 건축을 ‘순복고주의 건축’ 또는 ‘민족적 복고주의 건축’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희봉,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 1971-80」,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2000, p.323.

실하면서도 재료로서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을 ‘한국전통양식 철근콘크리트조’로 정의하였다.<sup>43)</sup> 이와 관련하여 김지홍은 그의 논문에서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사례를 통해 특정 전통 건축 양식이 선택되어 콘크리트로 건축되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의 전통양식건축은 건축의 창작 행위에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물로서, 원형의 복원 또는 양식의 모사에 치중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조승원의 건축은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니고, 또한 창작의 방법에서도 특정 건축 양식의 모사에 편중되어 치중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조 전통양식’은 조승원의 건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한옥’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의 분류체계에서의 용어나 콘크리트조 전통양식 등의 표현보다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창모는 콘크리트로 완성된 팔각정에서부터 경복궁의 민속박물관 그리고 김기웅의 전주시청사까지의 넓은 범주의 사례들을 포괄하여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을 사용하고 있다.<sup>45)</sup> 또한 송인호는 앞서 소개한 분류 유형 중 직설적 복고주의 범주에서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세워진 건축들을 지칭하면서 콘크리트 한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sup>46)</sup> 특히 박길룡은 조승원의 건축을 언급하면서 이를 콘크리트 구조의 한옥으로 지칭하여 주목된다.<sup>47)</sup> 안창모 역시 조승원이 개입된 삼청각을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례로서 언급하고 있다.<sup>48)</sup> 따라서 조승원의 1960, 70년대 작품들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콘크리트 한옥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용어 사용은 앞의 연구들에서의 용어들에 비해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콘크리트 한옥의 용어에서 ‘한옥’의 표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한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기둥

42) 강난형, 『경복궁 궁역의 모던 프로젝트: 발전국가시기 광화문과 국립종합박물관을 중심으로 1962-73』, 서울시립대 박론, 2016.

43) 김지훈, 『1970년대 한국전통양식 콘크리트조 건축물 보존현황』, 충북대 산업대학원 석론, 2002, pp.1-2.

44) 김지홍,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 박론, 2014, pp.51-102.

45) 안창모,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회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 재고」, 『건축』, 제53권9호, 2009, pp.36-40.

46) 송인호, 앞의 책, p.43.

47)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2015, p.136.

48) 안창모, 앞의 책, p.37.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지칭한다.<sup>49)</sup> 여기에서는 한옥에 대하여 주택이라는 용도를 규정하지 않았고 전통 양식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개방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지만<sup>50)</sup> 재료에 한해서는 목구조와 자연재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재료적 관점에서 콘크리트 한옥의 용어는 주요 구조에서 공존할 수 없는 콘크리트와 목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미 상 모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로서 주요 구조부와 전통 요소를 모두 표현한 건축을 한옥으로 정의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봉희가 한옥의 다양한 층위를 표현한 분포도는 문화재 한옥, 정통 한옥, 현대 한옥이라는 세 가지의 좁은 범주의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의 용어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수용한 다른 두 종류의 현대건축을 개념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특기할만하다.<sup>51)</sup> 여기에서는 특히 좁은 범위에서 한옥의 제한적 규정 외부에 자리한 한옥풍 건축을 현대건축의 실내 공간에 설치된 한실(韓室)의 경우와 외관만을 한옥 형태로 지은 의사(擬似)한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의 사례로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철근콘크리트조 한옥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52)</sup> 이러한 관점은 철근콘크리트로 전통을 표현한 현대 건축을 한옥풍 건축의 범주에서 새롭게 용어 정의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종합해보면,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들 중에서는 콘크리트 한옥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옥 등의 용어가 조승원 건축을 표현하기에 비교적 적합해보이기는 하나 용어 자체의 의미상 모순으로 인해 표현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운 용어의 정의는 전봉희가 정의한 한옥의 분포 양상 중 한옥풍 건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한옥풍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정도로 용어가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한옥풍’의 용어가 이미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전통을 표현하는 현대건축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에서 정의 내려졌다고 판단되어 대신에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 또는 양식을 의미하는 한식을 사용하여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용어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주요 구조부와 차용된 전통건축의 요소까지를 철근콘크리트조로써 표현한 현대 건축을 지칭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조승원의 1960, 70년대의 건축 작품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를 전봉희의 분포도에 위치시키면 다

49) 건축법시행령[시행 2010.2.18.][대통령령 제22052호, 2010.2.18., 일부 개정] 제2조(정의) 1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50)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29.

51)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33.

52)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34.

음의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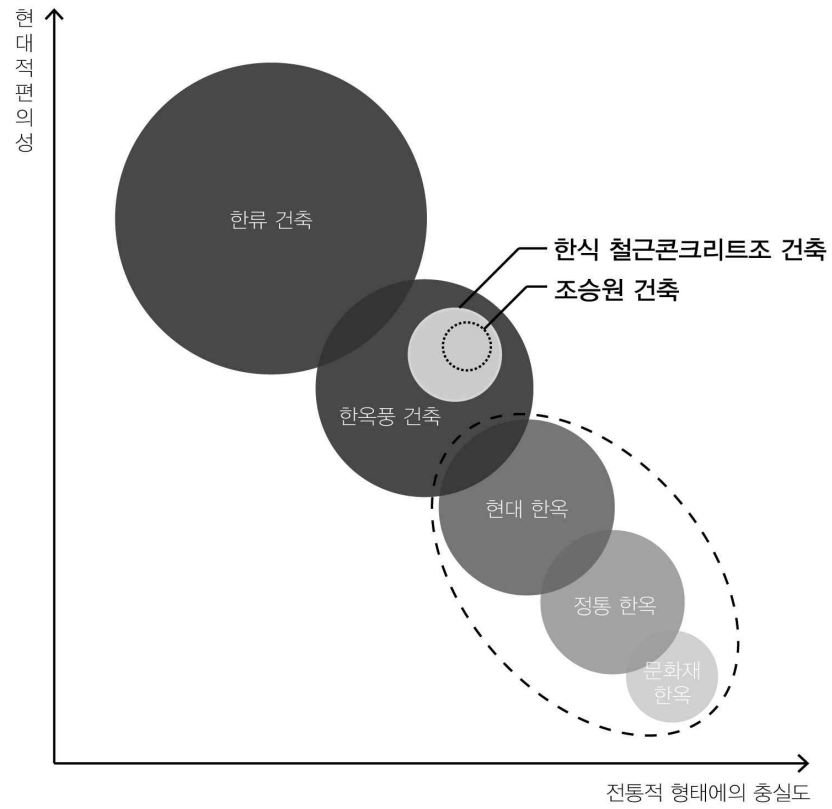


표 7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분포 양상(출처: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34.의 표3을 기초로 재편집)

## 2.3. 조승원 작품 목록의 작성과 활동의 시기 구분

### 2.3.1. 조승원 작품 목록의 검토 및 작성

1975년 6월의 『공간』 지 97호에는 조승원의 구체적인 건축 작품이 목록으로 수록되었다.<sup>53)</sup> 이는 잡지에 현석홍과 조승원의 대담이 실리면서 함께 수록된 것으로서, 조승원 건축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이다. 여기에서는 조승원의 출생지, 본적지, 당시의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한 연보와 함께 1914년부터 1974년까지의 조승원 건축 활동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소개되었다.<sup>54)</sup> 내용 중에는 주로 1940년 조승원이 서울

53)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응, 『공간』, 97호, 1975.6.

54)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응, 『공간』, 97호, 1975.6, p.34.에 수록된 조승원 연보 원문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趙勝元年譜

출생지 평남 맹산

본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47의 2

현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126의5

생년월일 1901년 10월 21일생

1914-1917. 한학수업

1919-1922. 독립운동참가 옥고

1923-27. 한식목수종사 습득

1928-1930. 현대식 건축설계에 종사 습득

1931-1936. 함명건설회사 건평사 전무

1936-1945. " 사장

1940- 서울이주 (종로구 명륜동 1가)

1955- 보성중고등학교석조본관 설계감리

1956-57. 인천사범학교 본관 설계감리

1957- 춘천사범학교 별관 감리

1964- 서울여상체육관 감리

1965- 보성중고등학교 현 본관 설계감리

1967- 서울여상 현본관 한식 설계감리

1969- 도선사 참회원 한식 설계 감리

1969-1970. 서울여상 팔각교실 한식 설계 감리

1972- 대구2군사령부 관내 법당 한식 설계 감리

1972- 월남 사이공 팔각정 한식 설계 감리

1972- 삼청동 삼청각 한식 감리

1972- 삼청각 팔각정 일주문 한식 설계 감리

1973- 수원 29 순국열사사당 한식 설계 감리

로 이주한 후의 구체적인 건축 작품을 포함하였다. 이는 최초로 건축 전문 잡지에서 조승원을 다룬 사례로서 그의 건축 활동의 이력과 구체적 작품 목록, 각 작품에서의 역할을 병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방 전 조승원의 이력을 언급하면서도 당시의 구체적 건축 작품 활동을 언급하지 않아 조승원의 전체 작품 목록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후 조승원의 건축 작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에는 조승원이 작고한 후 1987년 1월부터 3월간의 기간에 각각 『건축가』 지 1987년 1-2월호, 『꾸밈』 지 64호, 『공간』 지 235호에 게재 된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의 조승원 추모글이 있다.<sup>55)</sup> 이 세 개의 글에 수록 된 조승원의 약력은 편집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다.<sup>56)</sup> 여기에서는 1975년 6월 『공간』 지 97호에 수록 된 조승원 약력에 일부의 내용이 추가되어 갱신되었다. 건축 작품 목록과 관련하여 추가된 내역을 정리해보면, 해방 전 건평사 시절의 주요 작품이 새롭게 소개되었고, 1974년 이후의 건축 작품이 추가되었다.<sup>57)</sup>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승원의 건축

---

1974- 부산 천안사 범당 한식 설계 감리

1974- 용인 건설산업 별장 한식 설계

55) 김원석, 도목수 조승원 옹, 『건축가』, 1987.1-2, p.22.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64호, 1987.2, pp.92-93. 이한기, 「도목수 조승원옹 - 전환기 건축의 재평가」, 『공간』, Vol.235, 1987.3, p.131.

56) 김원석의 글에 수록 된 목록은 주요약력 하에 ‘건평사 시절의 주요작품’과 ‘기타’의 목록이 별도로 특기되었고, 이왕기의 글에서는 조승원 옹 약력서 하에 ‘(1) 인적사항’, ‘(2) 학력 및 경력사항’, ‘(3) 기타’가 분류되어 정리되었으며, 이한기의 글에서는 전체 목록이 ‘학력 및 경력사항’, ‘주요약력’, ‘조승원옹 관련 참고문헌’으로 분류, 정리되어 수록되었다.

57) 이외 조승원의 건축 활동과 관련 된 이력으로 추가 된 내용 중 특기할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평사 시절의 주요작품(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

- 강계 개례지 병원
- 선천 신성학교 강당
- 신의주 제1주일학교
- 재령 재중병원 및 재령교회
- 명신중고등학교
-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 등 기타다수

1974년 이후의 건축작품

1975. 한식 대규모 영빈관 기본계획안 설계

1978. 서울 라이프주택단지 내 경로당 설계 감리

기타

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건평사 시절 작품의 경우 각 작품의 시기와 역할 등의 내용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이후 시기 조승원의 전체 생애와 함께 건축 작품 목록이 공개 된 문헌은 1996년 4월에 출간 된 『비평건축』지의 제2호이다.<sup>58)</sup> 여기에는 조영무가 제공한 조승원의 유고 세 편이 수록되었고, 이 때 조영무 편집, 저술의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미출간, 2014) 초고의 내용이 함께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조승원의 생애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건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 △, □의 기호로서 각각 건축 작품, 집필원고, 참고문헌으로 분류되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의 내용은 건축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59)</sup>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보한 조영무 편집, 저술의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미출간, 2014)에 나타나는 조승원의 건축 작품 전체 목록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기별 건축 작품에 번호를 매겨 전체 작품을 목록화하였고, 하나의 계획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 범주는 1923년 조승원이 건축에 입문하던 시기부터 1978년 조승원 생전의 마지막 작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는 각 작품별로 저술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작품의 규모와 구조, 위치, 용도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어 있고, 각 작품에서 맡은 조승원의 역할이 청부, 시공, 감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승원 건축 작품의 전체를 목록화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문헌 자체가 조영무의 편집에 의한 2차 사료라는 점, 1차 사료인 원본이 1961년 이후 조승원의 회고에 의해

---

1972. 5. 월남 사이공시장 감사장(“평화당” 설계감리로)

1976. 12. 25. 도선사감사공로패

1978. 4.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수도공사 감시관 위촉

1981. 12. 15. 저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간행(민음사)

1982. 4. 월간지 “신동아” 1982년 4월호 “오늘의 한국인(51)” 등

1983. 2. 26. 한국건축가협회 초평건축상 수상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의 같은 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

58) 「양해의 글, 유고 I II III “고건축에 대한 추상, 한식건축사장,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24-137.

59)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 인명록」,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기문당, 2000, p.69.에 수록된 조승원의 이력은 비평건축 이후이자 마지막으로 조승원의 작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평건축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1987년의 조승원 추모글들에서 정리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비평건축에 수록되었던 상세한 조승원의 이력이 건축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시기	번호	작품명	역할
1,923년	신축작품 (1)	2층 목조가옥 “삼공양말공장”	시공
1,926년	신축작품 (2)	2층 벽돌조적조 목조기와집 “수옥리 동양여관 (東洋旅館)”	청부, 시공
	신축작품 (3)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강당 및 체육관”	책임 시공
	신축작품 (4)	“정의여학교(正義女學校)”	시공
	신축작품 (5)	“진남포 김상회(金商會)”	청부, 시공
1,931년	신축작품 (6)	“남성경학교(南聖經學校) 강당 및 기숙사”	청부, 시공
1,932년	신축작품 (7)	평양 역전 유정에 “2층목욕탕(二層沐浴湯)”	설계, 시공
	신축작품 (8)	안악읍 대원면 “김농장창고(金農場倉庫)”	설계, 시공
1,933년	신축작품 (9)	“문산창고(汶山倉庫)”	시공
	신축작품 (10)	“농장사무실(農場事務室)”	시공
	신축작품 (11)	“정의여학교(正義女學校) 담장공사”	시공
	신축작품 (12)	황해도 재령읍(載寧邑) “제중의원(濟衆醫院)”	청부, 시공
	신축작품 (13)	“재령교회당(載寧教會堂)”	설계, 시공
	신축작품 (14)	“숭실전문학교본관(崇實專門學校本館) 증축공사”	시공
1,934년	신축작품 (15)	평양 “신양리교회당(新陽里教會堂)”	설계, 시공
	신축작품 (16)	평양 “신양리(新陽里) 조승원 한옥자택(趙勝元韓屋自宅)”	설계, 시공
1,936년	신축작품 (17)	황해도 금천읍 “금천읍사무소(金川邑事務所)”	설계, 시공
1,938년	신축작품 (18)	“오성상업학교(五成商業學校)”	설계, 시공
	신축작품 (19)	“동부예배당(東部禮拜堂)”	설계, 시공
	신축작품 (20)	평양 기림리(箕林里) “조승원한옥자택(趙勝元韓屋自宅)”	설계, 시공
1,939년	신축작품 (21)	평안북도 영변읍(寧邊邑) “송덕남학교(崇德男學校)”가 농산면 구장동(球場洞) 으로 이전. 그 “본관(本館), 강당(講堂), 교사사택(教師舍宅)”	설계, 시공
	신축작품 (22)	황해도 평산군 남천리(南川里) 소재 “천도교포교당(天道敎布敎堂)”을 매입하여 “예수교장로회(예수敎長老會) 남천교회당(南川教會堂)”으로 개조	-
1,942년	신축작품 (23)	평안북도 영변읍 농산면 구장동(球場洞) “용문공업학교(龍門工業學校)”	설계, 시공



1,947년	신축작품 (24)	“주택영단돈압지구(住宅營團敦岩地區) 제1지구”	청부, 시공
1,953년	신축작품 (25)	“군산사범(群山師範/후에 敎大) 도서관 및 부속초등학교”	설계, 감리
1,955년	신축작품 (26)	“서울 보성고등학교(普成高等學校) 석조교사(石造校舍)”	설계, 감리
1,956년	신축작품 (27)	“인천사범(仁川師範/후에 敎大) 본관(本館)”	설계, 감리
1,957년	신축작품 (28)	“오산중·고등학교(五山中高等學校) 교사(校舍)”	설계, 감리
	신축작품 (29)	“춘천사범(春川師範/후에 敎大) 과학관(科學館)”	시공, 감리
	신축작품 (30)	“춘천사범 한식지붕 콘크리트라멘조 도서관(圖書館)”	설계, 감리
1,959년	신축작품 (31)	“인천사범부속초등학교(仁川師範附屬初等學校) 교사(校舍)”	시공, 감리
1,960년	신축작품 (32)	“서울 혜화동(惠化洞) 윤씨주택(尹氏住宅)”	설계, 시공
1,964년	신축작품 (33)	“서울여상체육관(서울女商體育館)”	시공, 감리
1,965년	신축작품 (34)	“서울 보성고등학교본관(普成高等學校本館)”	설계, 감리
	신축작품 (35)	“서울여상(서울女商) 한식지붕 콘크리트라멘조 교사”	설계, 감리
1,968년	신축작품 (36)	도봉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설계, 감리
1,971년	신축작품 (37)	“대구2군사령부법당(大邱二軍司令部法堂)”	설계, 감리
	신축작품 (38)	“월남(越南) 사이공 시내공원(市内公園) 2층팔각정 평화당(二層八角亭平和堂)”	설계, 감리
1,972년	신축작품 (39)	서울 삼청동 “삼청각(三清閣)”	시공, 감리
	신축작품 (40)	삼청각 “일주문(一柱門) 및 2층팔각정(二層八角亭)”	설계, 감리
	신축작품 (41)	“홍교장주택(洪教長住宅)”	설계, 시공
1,973년	신축작품 (42)	“수원 29인 순국열사사당(殉國烈士祠堂)”	설계, 감리
1,974년	신축작품 (43)	“부산 천안사 법당(法堂)”	설계, 감리
	신축작품 (44)	“용인 한식별장(韓式別莊)”	설계, 감리
1,975년	계획작품 (1)	한식 대규모 “영빈관(迎賓館) 기본설계안” 작성	-
1,978년	신축작품 (45)	“서울 라이프 주택단지 경로당(敬老堂)”	설계, 감리

표 8 조승원 건축 작품 목록(출처: 조영무 편저,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 『조영무 조형에세이 한국원시창조순환이론』, 미출간, 2014. 큰 따옴표와 한자를 비롯한 표기는 원본을 그대로 따름)

작성되었다는 점, 타 문헌에서 언급한 일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한계를 인식하여 이의 검토 및 재작성을 수행하였다.

목록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신축작품임을 미루어 작품번호만을 기록하고, 계획 작품과의 구별은 역할 범주에서 해결하였다. 그리고 1987년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의 세 개의 추모글에는 등장하지만 조영무의 목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세 개의 건평사 시절 작품인 「강계 계례지(桂禮知)병원」, 「신의주 제일 주일학교」, 「명신 중·고등학교」를 검토 대상으로서 목록에 추가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건축년도와 조승원이 맡은 역할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사료로서의 최종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의미에서 포함한 것이다. 또한 조영무의 목록에서 개별 작품임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번호로 작성된 경우에는 재작성 과정에서 개별 번호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표 7]에서 신축작품 (40)번으로 표기된 삼청각 “일주문(一柱門) 및 2층팔각정(二層八角亭)”으로서 재작성된 목록에서는 작품 번호 45, 46번으로 개별 표기하였다. 이는 각 건축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확정된 총 52개의 건축 작품은 개별적으로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건축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 건축물의 모습과 건축 시기 및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건축물의 모습 및 구체적 사항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문헌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축이 실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52개의 검토 대상 중 21개의 건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4개의 건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의 통계는 전체 대상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해방 전의 조승원 건축 작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북에 위치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검토 과정에서 조영무의 목록 중 각 작품의 건축 년도와 내용 및 역할이 잘못 기록된 경우를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건축 년도가 오기 된 대표적 사례는 1926년으로 표기된 신축작품 (3)의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강당 및 체육관”으로, 이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건축 내용이 오기 된 대표적 사례는 1957년 신축작품 (29)의 “춘천사범(春川師範/후에 敎大) 과학관(科學館)”으로 이는 「춘천사범학교 별관」으로 최종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승원의 역할이 오기 된 대표적 사례는 1957년 신축작품 (30)의 “춘천사범 한식지붕 콘크리트라멘조 도서관(圖書館)”을 조승원이 설계, 감리 했다는 기록으로서, 이는 정황상 시공되지 않았으며 계획안만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였다. 이외에도 다소의 오기가 있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수정한 조승원의 건축 작품 목록 전체의 검토 여부와 결과를 표로써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시기 구분	건축 년도	번 호	건축 작품	역할	확인
1기	1923	1	2층 목조가옥 「삼공양말공장」	시공	△
	1926	2	2층 벽돌조적조 목조기와집 「수옥리 동양여관」	청부, 시공	-
		3	「진남포 김상회」	청부, 시공	-
		4	「정의여학교」	시공	△
	1928 - 1930	5	「송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	책임 시공	○
2기	1931	6	평양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	청부, 시공	○
	1932	7	「송실전문학교본관 증축공사」	시공	○
		8	평양 역전 유정애 「2층목욕탕」	설계, 시공	-
		9	안악읍 대원면 「김농장창고」	설계, 시공	-
	1933	10	「정의여학교 담장공사」	시공	△
		11	황해도 재령 「제중병원」	시공	-
		12	황해도 재령 「재령교회당」	설계, 시공	-
		13	「농장사무실」	시공	-
		14	「문산창고」	시공	-
	1934	15	평양 「신양리교회당」	설계, 시공	○
		16	황해도 선천 「신성학교 강당」	-	-
		17	평양 「신양리 조승원 한옥자택」	설계, 시공	-
	1936	18	황해도 금천읍 「금천읍사무소」	설계, 시공	-
	1938	19	「오성상업학교」	설계, 시공	-
		20	「동부예배당」	설계, 시공	-
		21	평양 기림리 「조승원한옥자택」	설계, 시공	-
	1939	22	평안북도 영변읍 「송덕남학교」가 농 산면 구장동으로 이전. 그 「본관, 강당, 교사사택」	설계, 시공	-
		23	황해도 평산군 남천리 소재 「천도교포 교당」을 매입하여 「예수교장로회 남 천교회당」으로 개조	-	-
	1942	24	평안북도 영변읍 농산면 구장동 「용문 공업학교」	설계, 시공	-
	시기 미상	25	「강계 계례지(桂禮知)병원」	역할 미상	-
		26	「신의주 제일 주일학교」		-
		27	「명신 중·고등학교」		-

혼란기	1947	28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	청부, 시공	△
3기	1953	29	「군산사범학교 도서관」	설계, 감리	○
		30	「군산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설계, 감리	○
	1955	31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	설계, 감리	○
	1955 - 1957	32	「오산 중고등학교 본관」	설계	○
	1956 -	33	「인천사범학교 본관」	설계, 감리	○
		34	「춘천사범학교 별관」	시공, 감리	○
	1957	35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춘천사범학교 도서관」	계획안	○
	1958 - 1960	36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	시공, 감리	○
	1960	37	「서울 혜화동 윤씨주택」	설계, 시공	-
	1964	38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체육관」	시공, 감리	○
	1965	39	「보성고등학교 신관」	설계, 감리	○
4기	1965 - 1967	40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소석관」	설계, 감리	○
	1968	4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도선사 호국참회원」	설계, 감리	○
	1970 - 1972	4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과학관」	설계, 감리	○
	1971	43	「대구 2군 사령부 법당」	설계, 감리	-
		44	월남 사이공 시내공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평화당」	설계, 감리	○
	1972	45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삼청각 일주문」	설계, 감리	○
		46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삼청각 유하정」	설계, 감리	○
		47	「홍 교장 주택」	설계, 시공	-
	1973	48	수원 「29인 순국열사 사당」	설계, 감리	-
	1974	49	부산 「천안사 법당」	설계, 감리	-
		50	「용인 한식 별장」	설계, 감리	-
	1975	51	한식 대규모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
	1978	52	「서울 라이프주택단지 경로당」	설계, 감리	-

표 9 조승원 건축 작품의 최종 목록과 시기 구분

(○: 건축 실체의 직접적 확인 / △: 건축 실체의 간접적 확인)

### 2.3.2. 조승원 건축 활동의 시기 구분

조승원에 관한 문헌 중 1987년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의 세 개의 추모글에서는 조승원의 건축 활동을 내용에 따른 시기 구분으로 정리하고 있어 주목된다.<sup>60)</sup> 이는 조승원의 건축 활동이 비교적 뚜렷한 분기점을 지니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물로서 그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세 개의 글에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김원석의 시기 구분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시기 구분	시기	내용
1기	1923-1930	한식 대목작 수업 및 근대 건축 설계, 시공 수업 및 종사
2기	1931-1940	함명건설회사 건평사 설립,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작품 활동
3기	1940-1963	서울 이주 후 라멘조를 이용한 작품활동(주로 학교의 교사)
4기	1964-1969	한식목조건축설계법식에 관한 저서 간행 기획 및 한식 지붕 라멘조를 응용한 작품 활동
5기	1970-1983	국내외에서 한식 조형언어를 매체로 한 다양하고 원숙한 작품 활동

표 10 김원석의 조승원 건축 활동 시기 구분

김원석, 이왕기, 이한기는 글에서 공통적으로 조승원의 건축 활동을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의 분기점을 설정한 시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23년 건축 입문
2. 1931년 건평사 설립
3. 1940년 서울 이주
4. 1963년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저술 시작
5. 1969년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탈고와 1971년 월남 사이공 시내공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평화당」의 설계 및 감리

이들의 분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60) 김원석, 도목수 조승원 옹, 『건축가』, 1987.1-2, p.23.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64호, 1987.2, p.97. 이한기, 「도판수 조승원옹 - 전환기 건축의 재평가」, 『공간』, Vol.235, 1987.3, p.127.

2기와 3기에 포함 된 1930년대부터 1950년대의 시기는 좀 더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1)</sup> 3,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해방 전후 시점에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시기는 조승원이 정상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던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평사의 마지막 작품이 확인되는 1942년부터 정상적인 건축 활동이 재개되는 1953년까지는 혼란기로서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시기 구분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은 내용에서 건축 작품의 활동과 저술 활동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조승원의 건축 관련 활동을 파악함에 있어 그의 저술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술과 실무 활동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문제로 인해 3, 4기의 구분 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게 되고, 4, 5기를 불필요하게 구분하게 된다. 특히 4, 5기의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성격의 1960, 70년대의 건축 실무 활동이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파악되지 못하게 되어 시기 구분의 방법적 단점을 부각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기 구분법을 조승원의 건축 실

시기 구분	시기	내용
1기	1923-1931	대목으로서 건축 입문 시기
2기	1931-1943	토목건축청부업회사 건평사 시기
혼란기	1943-1953	건축 활동의 불능 시기
3기	1953-1965	학교건축을 통한 철근콘크리트조 학습 시기
4기	1965-1978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시기

표 11 조승원 작품 활동 시기 구분

61) 특히 해방 전후의 조승원 건축 활동과 관련하여 시기 구분에서의 혼란이 드러난다는 점은 이왕기가 김원석, 이한기와 달리 2기와 3기를 구분하는 시점을 1945년 해방으로 설정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2기의 시점이 건평사의 설립으로서 명확한 것에 비해, 건평사가 와해 된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조승원은 1940년에 서울로 이주하는데 이후 시기인 1942년에 이북에 위치한 건평사 시절의 작품이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42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은 총 11년으로 꽤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947년의 한 작품 외에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시기 구분에서는 2기와 3기의 구분 시점이 모호하고, 3기의 기간이 내용에 비해 긴 시간 범위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다.

무 활동에 중점을 두어 활용하였다. 그리고 건축의 학습과 저술 활동은 시기 구분과 별개로 학술적 차원의 건축 활동으로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수정된 조승원의 작품 활동의 시기 구분을 표로써 정리하면 위의 [표 11]과 같으며, 이는 [표 9]의 최종 조승원 전체 작품 목록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조승원의 건축 작품 활동을 시기별 특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틀로서 의미가 있다.

### Ⅲ. 조승원 건축의 발단

#### 3.1. 유년기와 항일독립운동의 영향

##### 3.1.1. 유년기의 학습(1901-1918)

조승원은 전 생애 동안 어떠한 제도권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는 20대부터 그의 특징적인 건축을 형성, 전개하던 말년의 60대 이후까지 줄곧 자습을 통해 건축을 학습하였다. 또한 그의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는 건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50대부터 한시(漢詩)등에도 관심을 가져 스스로 체득한 글쓰기의 방법을 통해 1960, 70년대 여러 저술을 남길 수 있었다.<sup>62)</sup>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의 욕구는 그가 목수로서 건축에 입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건축가로 전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조승원의 유년기 교육을 살펴보면, 그의 꾸준하고 강한 지적 욕구의 기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유년기를 추억하는 1960, 70년대의 저술에서 그가 시기별로 학습한 내용과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다섯 살 되던 해인 1905년부터 성경학교에서 수학한 맏형 승세(勝世)의 무릎에 앉아 한글을 배웠고,<sup>63)</sup> 1908년 봄에는 「천자문」, 「회동몽학」을 배웠으며,<sup>64)</sup> 열 살 되던 해인 1910년에는 「신·구약성서」 몇 번씩 통독하고 암기하였다.<sup>65)</sup> 1914년이 되어 부친 조득룡이 동네 예배당 아랫방에 서재를 설치하여, 조승원은 이곳에서 1917년까지 3년간 한문학을 습득했다.<sup>66)</sup> 이 때 그는 「사략」의 초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4서와 「시경」을 차례로 공부하였다.<sup>67)</sup>

우선 그의 유년기 학습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기독교를 믿었던 부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sup>68)</sup> 그의 맏형이

62) 조영무는 인터뷰에서 아버지 조승원이 평소에 늘 시작(詩作) 공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회고했다. 이 시첩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2017.3.2., pp.26-27.

63) 조승원, 「특집: 나의 일생기 - 감명」(1961), 『건축』, 제47권 1호, 2013.1, p.40.

64) 조승원, 같은 책, p.40.

조승원이 언급하는 회동몽학은 1914년 이종린(李鍾麟)이 지어 회동서관에서 간행한 한자교습서 『몽학이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가 이를 배웠다는 시기인 1908년은 저서의 간행일보다 이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는다. 1914년 이전에 『회동몽학』이라는 별개의 서적이 있었거나, 조승원이 기억의 착오로 학습의 시기를 오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5) 조승원, 앞의 책, p.41.

66) 조영무 편저, 「부록 4. 건축가 조승원 개인기록」, 『조영무 조형에세이 한국원시창조순환이론』, 미출간, 2014, p.1.

67) 조영무 편저, 같은 책, p.1.



성경학교를 다닌 것<sup>69)</sup> 그리고 그가 예배당의 서재에서 공부를 하게 된 까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승원은 성장하여 1915년 그가 다니던 달전교회<sup>70)</sup>에서 기독교 세례문답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된다.<sup>71)</sup> 기록에서 그는 어린 시절 종교에 상당히 독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72)</sup> 이후 그의 종교는 지속적으로 조승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sup>73)</sup>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히 그는 1920, 30년대의 건축 학습과 활동에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그는 그의 건축에서 핵심적인 근대적 건축술을 익힐 수 있었다. 어린 조승원의 종교 활동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조승원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던 해인 1905년은 을사조약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해이고,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어 결국 1910년 한일합병으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조승원이 어린 시절 학습을 전개하던 1908년과 1917년 사이의 제도권 교육은 일제의 영향이 뚜렷했다. 을사조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는 1906년에 「보통학교령」을 시행하여 종래의 소학교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에서 일

---

68) 조승원, 앞의 책, p.40.

한국으로의 개신교 유입 과정의 초기 선교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조승원의 고향인 평안도를 포함하여 황해도 등 관서지방이 두드러지는데, 김권정, 「1920~30년대 조만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47, 2006에 따르면 이는 관서지방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오랜 정치사회적 차별로 양반사족의 형성이 약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유리된 유교적 지식이나 형식에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부를 축적한 중소상공인, 지주, 자작농 등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수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1890년대 초 본격적인 선교 사업이 시작된 이래 교세의 발전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는데, 1885년부터 1910년까지 국내에 설립된 장로교회의 총수 683개 중 관서지방의 것이 362개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할 정도였다.

69) 동아일보 1922년 2월 2일자 「남성경학교졸업식」 기사를 통해 조승원의 만형 조승세가 평양의 남성경학교를 9회로 졸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경학교졸업식」, 『동아일보』, 1922.2.2.

70) 달전(達田)교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주노회. 소재: 평안남도 덕천군 일하면 달하리. 현재: 평안남도 덕천시 신평리. 창립: 1916년경.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1, p.290.

71) 조승원, 앞의 책, 2013.1, p.42.

72)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였다거나 당시 가장 존경하던 이가 목사님이었다는 표현에서 그의 독실함을 엿볼 수 있다. 조승원, 앞의 책, p.41.

73) 기록에서 그의 혼례도 종교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18년에 박정찬 목사의 주례로 당시 평안북도 희천군 진면 대선리에 살던 최 전도사의 손녀 최명숙(崔明淑, 1900~2000)과 결혼한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어교육을 강조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교육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는 당시 늘어난 사립학교를 규제하기 위해 「사립학교령」을 시행하였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실시되던 민족교육을 억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강요한 것이다.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후인 1911년에는 총독부에 의해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의 1차 목적은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승원의 집안 내력은 그가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 1907년 ... 다음해 봄 ... 두 형님과 같이 덕천읍으로 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우리나라 최후에 임금이시던 융희 황제 폐하의 탄신 축하기념식에 참여하였다. 을사보조약 후이므로 일본의 군인이 주둔하였고 일본말 배우는 보통학교가 처음으로 생긴 때이다. ... 우리 황상님의 탄신일 만세를 부르던 추억,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발맞추어 행진하던 훈련,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당에 모였는데 읍내에 있는 보통학교 선생이 찾아오셔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창 정두하, 정인초 들은 학생이 되어 가는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보통학교에 보내면 헌병 보조원 아니면 순검노릇이나 할 것이라고 허락하지 않아 집에서 국한문, 성서 익히기와 동생 업어주는 것이 공부였습니다...<sup>74)</sup>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조승원 집안의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조승원은 부친의 반대로 보통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고, 대신 동네 예배당에 설치된 서재에서 한문학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린 조승원의 자발적 선택은 아니었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인간들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심정을 기록한다면 제일 부러운 것은 삼보를 학교를 가보지 못한 것이고 기쁘다면 열네 살 되는 때 책을 끼고 서재로 갈 그 때이었다. ...<sup>75)</sup>

어린 조승원은 당시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제 때에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했다. 14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서야 처음으로 서재를 통해 본격적인 공부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어린 그는 학교를 가지 못해 아쉬웠고, 서재를 다니게 되어 기뻐다. 1906년에 시행된 「보통학교령」에 따르면 당시 입학연령은 만 8세부터 12세까지이다. 이는 만약 그가 보통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했다면 만 8세에 정규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음을

74) 조승원, 앞의 책, 2013.1, pp.40-41.

75) 조승원, 앞의 책, p.41.

의미한다. 허나 그는 집안의 영향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던 모습을 14살까지 6년간 지켜보아야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6년은 그 시기의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 기간에 그가 「신·구약성서」를 몇 번씩 통독하고 암기한 이유는 종교에의 독실함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한편으로 그의 채워지지 않는 학습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그가 14살부터 다니기 시작한 서재의 교육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음 기록을 통해 당시의 교육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서재에 다닐 때 동창들은 정보 이외에는 나의 손아래이었다. 열다섯 살부터 3년 동안 한문학을 배우면서 접장 노릇을 하였으나 초달채적으로 동창들을 때린 기억은 없다. ... 친구 그들은 현재 학교와 같이 학급전체가 같은 교과서를 배우지를 못하고 수십 명 되는 학생 전부가 제각기 배우게 되니 선생님께서 일일이 배워주지를 못하고 접장되는 내가 거진 배워 주게됨으로 해서 사략초권, 논어, 맹자, 사권까지 시전 일부를 익히는 동안 동창들을 전부 가르치게 되어 사서 이하 제반 유가서를 직접 배우고 익히지 않았어도 익힌 거와 마찬가지로 통하게 되었다. ...76)*

엄밀히 말하자면, 조승원은 서재에서 선생님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재의 훈장 조교 역할로서 동생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글을 익혔다. 이는 그가 위의 기록에서 “유가서를 익힌 거와 마찬가지로 ... 통하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과 달리 부족한 학습이었다. 이는 그의 다음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과거의 건축구조예술을 시문형식으로써 간단명료하게 기록 보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으나, 열네살 때부터 삼년간 배운 빈약한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고고문물을 철저히 탐구할 수 있기는커녕 기록하기조차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시작입문서 「구벽」이라는 시 짓기 입문서를 구하여 시문작법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 77)*

기록에서 그가 「구벽」이라는 시작입문서를 통해 독학을 시작한 시기는 50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sup>78)</sup> 이처럼 조승원의 유년기 학습의 부족함은 평생 동안 그의 학습

76) 조승원, 앞의 책, p.42.

77) 조승원, 앞의 책, p.42.

78) 그는 이 기록에서 「구벽」 책을 약 십여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록의 작성 시기를 통해 볼 때 일러도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시문작법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욕구를 자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생 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법은 유년기를 통해 익숙해진 스스로 책을 손에 쥐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년기 학습의 배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구열을 통해 조승원은 목수로서 건축에 입문하였음에도 근대건축을 익혀 건축가로 전향할 수 있었고, 후에는 비교적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건축과 관련한 저술들을 남길 수 있었다.

### 3.1.2. 항일독립운동과 조선물산장려회(1918-1923)

사람이란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지만 나는 평생 두 가지 맹세를 한 일이 있다.

그 하나는 18세에 혼례를 치를 때의 맹세였고, 다른 하나는 古堂 조만식 선생님을 도와 일 할 때의 맹세였다. 나는 이 두 가지 맹세를 성실히 지켜오는 동안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 건축을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sup>79)</sup>

조승원은 평생을 아내 최명숙 여사가 만들어 준 한복만을 입을 것을 고수했다고 한다.<sup>80)</sup> 이는 그가 근대적 건축을 익혀 활동하면서도 줄곧 우리의 전통건축을 연구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조승원의 ‘우리 것’에 대한 태도는 그의 실천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조승원이 이 같은 성향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그의 청년 시절 참여한 항일독립운동과 이후 고당 조만식 선생의 영향이 깊게 깔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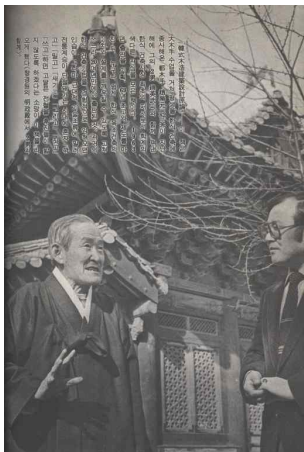


그림 1 평생 한복을 고집한 조승원(출처: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신동아』, 19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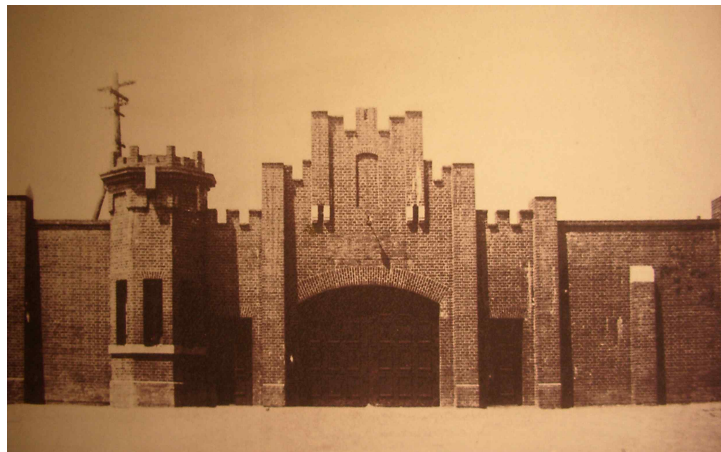


그림 2 조승원이 수감되었던 서울 마포 공덕동 105번지의 옛 경성감옥(출처: 백범학술원)

#### (1) 조승원의 항일독립운동

청년이 된 조승원은 항일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다. 그는 1918년 혼례 후 유년기를 보냈던 평안남도 덕천군 일하면의 집에서 평안남도 대동군 구동창리로 이사하였고, 이곳에서 ‘구국청년단’을 조직하여 책임자가 된다.<sup>81)</sup> 그는 동지 허병진과 함께 평안

79) 조승원, 「이달의 말씀: 두가지 맹세」, 『샘터』, 제66권, 1975.9.

80) 송승엽, 앞의 책, p.27.

남도 평원, 덕천, 맹산 등지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군자금을 조달하였다.<sup>82)</sup>

이듬해 1919년에 그는 3·1운동에 가담하였고, 이 일로 그 해 초겨울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평양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sup>83)</sup> 당시 고당 조만식이 3·1운동 직후 체포되어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그의 형량은 상당한 수준이었다.<sup>84)</sup> 이는 그가 얼마나 열렬히 항일운동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평양감옥에서 첫 3개월을 복역한 뒤 그곳의 보안죄수 33명과 함께 2차로 마포의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남은 기간을 복역했다.<sup>85)</sup> 그의 죄수번호는 609호였는데, 이는 당시 제일 나쁜 번호였다고 한다.<sup>86)</sup> 당시 함께 수감된 죄수 중에는 그의 장인 최유현(崔攸鉉)을 비롯하여 이승훈(李承薰, 1864~1930), 이갑성(李甲成, 1886~1981), 오화영(吳華英, 1880~1960) 등 3.1운동의 민족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趙: ... 지금은 고인이 된 동지들도 있고, 미국에 가서 사는 동지도 있지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일로 가출옥을 둘러싼 일이 있었지요. 33인 중에서도 거의 다 가출옥으로 나가버렸어요. 六堂 崔南善 선생도 무명 두루마기에 회충배기육남삼신 신고 동지들 수십명에 둘러싸여 비장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南岡 李承薰 선생, 李甲成長兄, 吳華英 세분만이 남아서 醫務室 앞 등나무아래서 그물을 뜨시면서 앉아 계시기에 <다 나가시여 적적들 하시지요?> 인사드렸더니 南岡선생님의 말씀이 <한 가렛꾼(세사람이 하는 일의 공사명)남았네> 하시더군요. 그후 이갑성 장형, 오목사님도 나가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강선생님은 <개과……당치도 않은 소리. 개과할 것도 없고, 나로 말미암아 팔백여명의 후진들이 이 감옥에 있다. 나는 이런 전철을 남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발길을 옮기지 않아서 간수들이 강제로 들어서 감옥대문 밖에다 내려놓으니까, 선생님은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 하시

81)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p.1-2.

82)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p.1-2.

83)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84) 당시 조만식은 중국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평양형무소에서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조승원이 이후 평양감옥에 수감된 것은 시기가 늦지만 1919년 겨울의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함께 복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규식, 「조만식」, 『韓國史市民講座』, Vol.47, 2010, p.141.

85)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86) 현석홍, 앞의 책, p.37.

한편 이 기록에서 조승원이 만기출옥 날짜를 1922년 8월 19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22년 8월 19일에 그가 출옥했다면 그가 수감된 시기가 1921년 2월인데, 그가 이미 1920년 경성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다른 기록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담의 월, 일의 표기가 올바르다면, 그가 출옥한 날짜인 1921년 8월 19일을 1922년으로 착오한 것으로 생각된다.

던 그 모양이, 그 음성이 아직도 이 눈과 이 귀에 선합니다.<sup>87)</sup>

이들과 함께 조승원은 감옥에서도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1920년 그는 경성감옥 옥중에서 ‘성우회’의 조직에 최연소 회원으로 가담하기도 하였고,<sup>88)</sup> 당시 3평 옥방에 평균 22~24명을 수용하던 열악한 옥중의 처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옥중처우개선사건’의 대표자로 나서기도 하였다.<sup>89)</sup>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경성감옥 수감자 약 800명이 ‘옥중 동맹파업’을 실시하였고 이들 가운데 약 600여명이 무차별로 고문을 당하는 소동 끝에 당시의 교도소장이 해임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sup>90)</sup> 한편 그는 이곳에서 만난 장용하 씨로부터 수학을 배우기도 하였다.<sup>91)</sup>

그는 1921년 여름에 만기 출옥하여 서울 한규설(韓圭設, 1848~1930) 대감 댁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였다가 용산의 이응준(李應俊) 일본군 중위 집에 잠시 체류한 후 평양으로 귀가하였다.<sup>92)</sup>

## (2) 조선물산장려회의 영향

조승원이 출옥한 때는 3·1운동의 여파로 인해 일제가 무단통치를 종료하고 기만적 문화통치로 그 지배 전략을 변화시킨 시기이다. 특히 1920년대는 항일독립운동의 방법이

---

87) 현석홍, 앞의 책, pp.36-37.

88) 당시 조직된 성우회의 회장은 이갑성(李甲成)이었고, 회원들 중에는 김석황, 정창원, 이경선, 한송주 등이 있었다고 한다. 회장은 ‘장형’으로 불렸고, 조승원은 회원들 중 나이가 제일 어려 ‘끝동생’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현석홍, 앞의 책, p.36.

89)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90)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91) 현석홍, 앞의 책, p.37.

92)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조영무에 따르면 당시 감옥에서 출두하면 일본 친일파 집에 2,3일 묵게 하고 서울 유명 인사들의 집에서도 체류케 하였다 한다.

특기할 점은 그가 후에 건축을 맡게 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재단 설립자가 한규설 대감의 자제인 한양호라는 사실이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문영학원 재단은 1992년 제2대 이사장인 최영숙이 부임하기까지 한씨 가문에 의해 운영된다. 조영무에 따르면 조승원이 이때의 인연으로 서울여상의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영무의 의견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서울여상의 일을 맡게 되는 데는 당시 교장이었던 홍두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4.3.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의 내용을 참고.

한편 조영무에 따르면 조승원이 귀가하자 처인 최명숙 여사는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 최유현은 아직 출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당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송승엽, 앞의 책, p.15, p.19.

국내외로 다양해진 시기인데, 국외에서는 의열단에 의한 의거활동,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 무장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농민,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고당 조만식은 이 시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 7월 1차로 평양의 상공업계, 교육계, 기독교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발기하였으나 일제 당국과 일본인 상인들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이후 지역의 기독교계 인사들을 규합하여 평양 YMCA를 설립한 뒤 조선물산장려회의 조직에 다시금 착수하여 1922년 6월 20일 창립총회를 거행하였다.<sup>93)</sup> 조선물산장려회에 의한 물산장려운동은 근검절약과 토산품 생산 및 애용을 통해 우리의 산업 경제를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94)</sup>

이러한 배경에서 조승원은 1921년 평양으로 돌아와 신양리 전셋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중국 상해로의 망명을 계획하였다.<sup>95)</sup>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출옥 후 일본경찰의 요시찰인이 되자 감시를 벗어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96)</sup> 그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목수 일을 시작하였다.<sup>97)</sup>

허나 결국 그는 고민 끝에 망명을 포기하는데, 이는 망명전야 아내 최명숙이 맡아들 영휘(英徽)를 낳아 귀가하여 만류하였기 때문이다.<sup>98)</sup> 그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때부터 그는 평양의 염전리 경신양말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경신상회의 업무를 보기도 하였으며 여가를 이용하여 목수 일을 겸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sup>99)</sup> 이

93) 장규식, 앞의 책, pp.140-141.

94) 윤은순, 「조만식의 생활개선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1, 2014에 따르면, 서울의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대 초반 상황을 보이다가 곧 시들해진 것과 대조적으로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은 1930년대 이후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다.

95)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96) 조영무는 인터뷰에서 조승원 건축의 연구 자료가 부족한 주요한 원인으로 이 시기 조승원의 경험을 꼽았다. 조승원이 항일독립운동의 죄목으로 복역한 후 일본경찰에 의해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평생 동안 자기기록의 기피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영무에 따르면 조승원은 1940년 서울 이주 후에 사무실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자택에도 서가가 없었고, 서류 보관을 위한 보관함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 자료가 부족한 이유』, 2017.3.25, p.1.

9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98)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99) 조승원의 조선물산장려회와 관련한 구체적 활동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회고를 검토해 볼 때, 그는 1922년 6월 20일 평양YMCA 회관에서 개최된 조선물산장려회의 창립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는 당시 그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항일독립운동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의 조선물산장려회의 활동은 그에게 일종의 자위책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즉 그에게 조선물산장려회의 활동은 가족부양과 궁핍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좌절 될 위기에 처한 항일독립운동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고당 조만식 선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선포할 때 선전깃발 선두에서 선생과 같이 생애를 한다는 맹세를 하였고, 이는 본인이 국내를 떠나지 않은 또 하나의 동기였다고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sup>100)</sup>

자위책이었다고 표현하였지만, 고당 조만식 선생이 조승원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생 물산장려운동의 첫 번째 실천 수칙이었던 한복 입기를 실천하였다. 또한 그의 저술에서는 서민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토착건축에 대한 애착 역시 고당 선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통해 추구했던 지역성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sup>101)</sup> 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조승원은 1960, 70년대 본인의 건축 작품과 관련하여 시공비의 절감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 역시 물산장려운동이 장려했던 근검절약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sup>102)</sup> 무엇보다도 이 시기 고당 선생의 영향으로 그가 근대건축을 행하면서도 줄곧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점은 이후 조승원 건축을 형성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100) 현석홍, 앞의 책, pp.36-37.

101) “... 특히 너무나 푸대접을 당하였으나 참다운 실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민건축(庶民建築)의 진정한 정화(精華)를 아껴 주기를 기대한다. ...”, 조승원, 「머리말」 (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17.

102) “... 건축공사비는 1965년 시세로 건평단가가 36,000원에 지나지 않았었다. 이 단가 속에는 접근로 및 환경정리공사비용도 포함된 것이었다. 한식지붕을 가진 라멘(梁)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언어도단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 3.2.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건축학습

1923년쯤, 그러니까 내가 독립운동죄목으로 마포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다음에야, 고향이었던 평양성 안으로 돌아와서, 나는 木手의 匠器들을 잡기 시작하였었다. 쟁기들에는 大, 中, 小型의 鋤침톱과 인거톱 그리고 鋸, 大, 小의 대자구와 손자구, 鈎, 粗, 細, 精의 세 가지 대패들, 鋳, 그리고 자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도구들은 木手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던 때였던지라, 木手들이 가지고 쓰던 匠器들의 우열을 가려 보아 그 匠人의 솜씨를 헤아리기도 하였었다. 몇 해 만에 나는 非鋪作집들을 짓는데 어느 정도 자신을 얻었다. 그러나 鋪作집을 손수 지어 볼 기회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았었다. ...<sup>103)</sup>

1923년 조승원은 지인이었던 대목장 김익준의 권유로 동업하며 본격적인 대목 일을 시작하게 된다.<sup>104)</sup> 이후 2, 3년 동안 그는 목수의 연장통을 메고 공사 현장을 다니며 소규모의 한식 목조 주택과 상점의 시공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혔다.<sup>105)</sup> 이를 통해 소규모 한옥의 공사에 자신이 붙은 그는 전통 방식의 포작집에 관심을 가져, 1925년 당시 평양에서 유명했던 도편수 한성룡(韓成龍)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한다.<sup>106)</sup> 하지만 이후 그가 본격적인 전통적 장인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26년 건축회사 대룡조(大龍組)의 전속목수가 되어 이곳의 백기환을 통해 기본적인 근대적 건축기술을 접하였고, 대룡조가 폐업한 후에는 1930년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지인들과 함께 직영으로 근대건축의 시공 일을 지속하게 된다.<sup>107)</sup> 이와 같은 그의 1920년대 활동은 전통과 근대를 넘나드는 그의 복합적 건축 학습의 시작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2.1. 근대적 건축의 시공을 통한 학습(1923-1931)

조승원이 평양에서 목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1920년대는 이미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생산을 담당하던 장인 조직이 개인별, 지역별로 상당히 해체되어 있던 시기이다. 1897년 경운궁 중건공사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통건축 생산조직은 국가적 건축에서의 주도적 생산자의 지위를 크게 상실하였다.<sup>108)</sup> 1905년 일제에 의해 탁지부 건축소가 설립되

103) 조승원, 같은 책, pp.49-50.

104)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p.1-2.

한편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생계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105)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0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10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p.2-3.

108) 김란기, 앞의 책, p.25.

년도	번호	건축 작품	역할
1923	1	2층 목조가옥 「삼공양말공장」	시공
1926	2	2층 벽돌조적조 목조기와집 「수옥리 동양여관」	청부, 시공
	3	「진남포 김상회」	청부, 시공
	4	「정의여학교」	시공
1928 - 1930	5	「송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	책임 시공

표 12 제1기 「대목으로서 건축 입문기」의 작품 목록(1923-1930)

어 우리나라에서 식민지 건축토목공사를 독점하면서 장인들은 각종 공사장의 노동자로 생계유지의 밥벌이로 나가거나, 광산노동자, 공장노동자로 전환하여 이른바 식민지 기층 노동자로 전락하였다.<sup>109)</sup> 한편 일부의 장인들은 당시 간헐적으로 행해지던 사찰건축의 보수, 개수 공사장으로 흘러들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다.<sup>110)</sup>

개항 이후 급격히 유입된 서구 근대건축 기술과의 경쟁 속에서 전통건축의 기술자적 지위를 잃고 일용노동자로 전락하여 매일의 생계를 유지하던 장인들의 상황은 1920, 30년대의 일명 ‘한옥 붐’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sup>111)</sup> 1920년대 도시화와 주택난의 여파는 새로운 주택 개발과 대규모 주택 보급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개량 한옥’ 혹은 ‘집 장수 집’이라 부르는 새로운 한옥이 들어서고, 농촌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 하였던 규모가 큰 고급 한옥들이 건설되었다.<sup>112)</sup> 장인들은 이러한 늘어나는 주택 건축 현장으로 유입되어 이곳에서 전통과 근대의 기술을 새롭게 조합하기 시작하였다.<sup>113)</sup>

실제로 조승원이 활동하던 평양은 1914년부터 그가 대목 일을 본격화하던 1923년의 10년 동안 주민수가 2배가 늘고 그 중 공장 노동자수는 9배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그 절대적 규모가 서울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더라도 당시 평양의 상당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건축 수요를 예상케 한다.<sup>114)</sup> 이러한 배경에서 1921년 출옥 후 공장, 상회

109) 김란기, 앞의 책, p.25.

110) 김란기, 앞의 책, p.25.

111) 김란기, 앞의 책, p.25.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19.

112)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21. 이에 따르면, 당시 한옥 붐의 이유로는 그 시기 근대 건축의 건설 체계가 급증한 주택 수요를 따라갈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점, 신분에 따른 건설의 제약이 사라져 누구나 자유롭게 집을 짓고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유통체계와 수단의 발달로 목재 등의 재료 수급이 원활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113) 이 시기 한옥의 근대적 발전을 도모한 실험은 구조, 재료, 평면계획, 장식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p.21-22.

114) CNC 북한학술정보, 「평양시의 역사지리적 개관」, 『북한지리정보: 평양시』,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이 시기 늘어난 건설 수요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목수의 연장통을 쥐게 되었다.<sup>115)</sup>

그는 기록에서 1923년부터 대목으로서 한옥들을 짓는데 종사하였다고 한다.<sup>116)</sup>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한옥’은 온전한 전통 양식의 한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이 시기를 회고하는 여러 기록에서 본인이 건축에 참여한 집을 두고 ‘한식주택’<sup>117)</sup>, ‘한식목조의 주택’<sup>118)</sup>, ‘한식 목조건축’<sup>119)</sup>, ‘비 포작집’<sup>120)</sup>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벽돌조와 석조를 결들인 근대적인 목조건축’이었다.<sup>121)</sup> 이는 192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까지도 서울 주택 시장의 주를 차지했던 목조와 벽돌조의 도시형 한옥의 형태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22)</sup>

그가 대목 일을 시작한 후 3, 4년 만에 한식목조의 주택과 상점의 건축기술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꽤 많은 공사 현장에 참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123)</sup> 하지만 이 시기에 참여한 주택 시공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작품으로는 1923년 「삼공양말공장」의 공사의 시공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는 2층의 목조 가옥이었다.<sup>124)</sup>

---

1990.

115) “나는 그 당시 가정 생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아 셋방과 목수도구가 내가 소유한 재산의 전부였다.”,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116)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p.16-17.

117)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118)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19)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p.16-17.

120)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p.49-50.

121)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22) 「경성가옥 총 건평은 102만 8,900평.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30만 8,000평 격증」, 『동아일보』, 1934.02.18.(박철진,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 석론, 2002, p.16에서 재인용)

123)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24) 삼공양말은 1920년대부터 평양의 주요 기업으로 등장하였다. 회사 설립자 손창윤(孫昌潤, 1890.7.6.~?)은 회사 자체적으로 원사(原絲)를 염색하는 공장도 세우고, 1926년에는 편직기를 생산하는 기계제작소를 설립하는 등 기업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판단컨대 1923년 당시 이 건축의 공사 규모는 꽤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건축 입문 후 몇 해 동안 여타 한옥의 시공에 참여했으나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과 비교하여 이 공사의 참여는 그에게 상당히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337.



그림 3 손창윤과 삼공양말공장. 본 이미지의 건축이 조승원이 시공한 것인지는 불분명함.(출처: 「대한민국 제1호 양말공장」, 『조선일보』, 2011.1.21자 기사)

이 역시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다만 이를 통해 조승원이 건축에 입문하던 시기에 20세기 초반 한국 건축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중층 목조 건축의 시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25)</sup>

그의 기록에서 건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26년부터이다. 조영무 편집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건축회사 대룡조(大龍組)의 전속목수가 되었고, 이곳에서 만난 백기환을 통해 도면보는 법과 시공의 기술 그리고 설계제도의 방법 등 기본적인 근대 건축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sup>126)</sup> 하지만 시기와 관련하여 이 기록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승원은 대룡조가 백기환, 박정호, 이용학의 3인조 건축회사였다고 전하고 있는데<sup>127)</sup>,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대룡조의 핵심 구성원으로 파악되는 백기환의 활동 사항이다. 백기환은 1893년 7월 29일 평양 출신으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캐나다 그리스도 대학 건축학과 3년을 마치고 귀국하여 함경도에서 선교사 및 건축기술

125)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20에 따르면 1920, 30년대에는 대형 시설에 철근콘크리트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이고, 이러한 시설의 규모가 작은 경우 목조건축으로 짓긴 했으나 한옥이 아닌 서양 목조 혹은 일본식 목조건축이었다 한다. 이에 따라 「삼공양말공장」의 건축 역시 한국의 전통 목조가 아닌 서양 혹은 일본식 목조건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2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2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sup>128)</sup> 그는 1920년 1월 평남도청 및 평양경찰서의 폭파와 시위 운동을 일으킬 계획으로 평양에 들어왔고, 이의 활동이 발각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7년 4~6월 무렵에 감형으로 가출옥하였다.<sup>129)</sup> 따라서 백기환이 대륙조의 설립에 참여했다면 이는 적어도 1927년 봄 이후의 일이므로, 조승원이 1926년에 대륙조에 소속되어 백기환을 만났다는 기록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또는 1926년에 조승원은 백기환이 없는 대륙조에 목수로 소속되었고, 백기환은 석방 후 대륙조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sup>130)</sup>

또한 조영무 편집의 같은 기록에서 1926년의 시기에 대륙조가 불화로 말미암아 폐업, 해산하고 조승원은 김익준, 송병렬과 협력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전하는데<sup>131)</sup>, 백기환이 회고에서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진행된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의 공사에 참여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대륙조의 폐업 시기는 1926년은 아니고 공사가 끝난 시점인 1930년의 전후쯤일 것으로 파악된다.<sup>132)</sup> 이에 따라 작품 목록에서 확인되는 1926년 조승원이 시공에 참여한 3개의 건축은 대륙조 소속 전 개인 활동으로서 행한 것과 대륙조에 소속되어 행한 것이 섞인 것으로 보이고<sup>133)</sup>,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조승원이

128) 백기환은 1900년 평양 숭실학교 2년을 수료하고 평양 군영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고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3년간 유학하였다. 귀국 후 1919년에는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고 1920년에 평양으로 돌아와 평남도청과 평양경찰서 투탄을 계획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4년에는 평양 신사 방화 사건에 가담하였고 1945년 2월에는 평양의 일본 군사시설 파괴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었으나 도피하였다 한다. 그는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1972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별세하였다. 「백기환 [白基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애국지사 백기환 옹 별세」, 『동아일보』, 1972.11.24.

129)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책. 국가보훈처, 같은 책. 『동아일보』, 1967.11.25자 같은 기사의 세 기록에서는 가석방의 시기를 각각 4월, 6월 9일, 5월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석방 시기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개 1928년 4월에서 6월 무렵에 그가 석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0) 『동아일보』, 1967.11.25.자 앞의 기사에서는 백기환이 당시 서북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일류 건축기사로 활동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20년대 당시 일본 이외 서구의 건축을 직접 유학하고 온 사람은 드물었으므로 이러한 그의 유명세에 관한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31)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32) 『동아일보』, 1967.11.25자 앞의 기사

133) 조영무가 편집한 작품 목록에는 각 건축에서 조승원이 맡은 역할을 병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26년의 두 작품 「수옥리 동양여관」과 「진남포 김상회」는 그 역할이 청부, 시공으로 표기되었으나 「정의여학교」는 시공만이 표기되어 차이가 드러난다. 따



그림 4 부인 강여사와 함께 건국공로훈장을 바라보며 옛날을 말하는 백기환  
출처: 『서글픈 斜陽 獨立有功者』, 『동아일보』, 1967.11.25자 기사)



그림 5 「평양만담, 적극적인 평양」, 『동아일보』, 1930.10.19.

책임 시공으로 참여한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은 분명히 대륙조 소속으로 백기환과 함께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작업들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책임 시공으로 참여한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이다. 조영무 편집의 기록에서는 두 건축의 공사를 모두 1926년에 참여하였다고 표기하였는데, 관련 문헌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30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0년대 후반에 평양 교육계의 건축 공사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34)</sup> 이 기록에서 건물의 공사연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30년 10월 19일의 얼마 전에 숭실전문학교의 대강당과 기

라서 청부, 시공한 두 작품은 「정의여학교」와 동일하게 1926년에 행해졌으나 대륙조 소속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정의여학교」는 대륙조 소속으로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대륙조 소속으로 행한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서의 조승원의 역할을 청부 없이 책임 시공으로만 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134) “불경기의 선풍이 휘돌자 각 방면을 통하여 건축건축의 부르짖음은 어대를 가나 업는곳이 없다 … 그러나 평양에 잇서서는 오직 교육계와 공업계는 대진전이다.

교육계로 말하면 금년에 와서는 건축이 가위대유행이 되었다. 일전에 신축낙성식을 거행한 숭실전문학교의 대강당과 기숙사건축을 비롯하여 광성고등보통학교의 대강당과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 강당, 운동실, 기숙사 등과 숭의여학교의 기숙사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와 관립사범학교의 교사 등 신건축이 잇스니 각 학교의 용운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반면으로 노동자의 실업문제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평양만담, 적극적인 평양」, 『동아일보』, 1930.10.19.

숙사의 신축낙성식이 있었으며, 정의여자고등보교의 교사, 강당, 운동실, 기숙사 등이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5)</sup> 여기에서 ‘숭실전문학교의 대강당’은 조승원이 책임 시공하였다는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숭실대학사를 살펴보면, 숭실전문학교의 ‘실내 운동실을 겸한 대강당’은 1928년에 교장으로 취임한 윤산온(尹山溫, G.S.McCune)<sup>136)</sup> 박사의 설계에 의해 그해 7월 기공에 들어가 2년여의 공사 끝에 1930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개교기념일에 맞춰 낙성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sup>137)</sup> 따라서 조승원이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의 공사에 참여한 시기는 1926년이 아닌, 일러도 1928년 7월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백기환이 평양 숭실전문 대강당을 지었다고 언급하는 동아일보의 1967년 11월 25일자 기사를 검토해볼 때 이 공사는 조승원이 대룡조에 소속되어 백기환과 함께 책임자로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38)</sup>

조승원이 공사에 참여한 숭실전문학교의 강당 및 체육관은 당시 평양 신양리 39-1번

135) 한편 조영무 편집의 기록에 따르면 조승원은 1926년에 「정의여학교」를 시공하였는데, 이는 동아일보 1930.10.19자 기사에서 언급하는 ‘정의여자고등보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신축 시기와 조영무 편집 기록의 시기가 각각 1930년과 1926년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 등장하는 신축 공사에 조승원이 참여했음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정확한 조승원 작품 연혁의 파악을 위해서는 두 방향의 사실 관계의 검토를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 1926년의 시기에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의 공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둘째는 조영무의 기록이 오류이고, 동아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1930년의 공사에 조승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이다. 앞서 백기환과 관련한 시기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승원이 대룡조에 소속되었을 시기가 1926년이 아닌 백기환 출옥 후인 1927년 4~6월 이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승원이 「정의여학교」를 시공한 시기는 1926년보다 후일 가능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의 검증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사에 실린 ‘정의여자고등보교’의 건물 사진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1920년대 조승원 건축 입문기의 건축물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p.2-3. 『동아일보』, 1930.10.19자 같은 기사

136) 미국인 선교사. 본명 George Shannon McCune, 한국명 윤산온. 「맥쿰 [George Shannon McCune, 윤산온, 尹山溫]」,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37) 다만 1926년에 숭실전문학교는 생물학 교실 등을 갖춘 과학관을 건립하였는데, 조승원이 이 과학관과 대강당의 용도를 착각하여 오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둘의 용도는 착오하기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숭실대학교 100년사 ① 평양숭실편: 1897-1997』,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pp.337-338.

138) 백기환은 당시에 평양 숭실전문 대강당 외에도 독립병원 등 많은 건물을 지었고, 건축업을 통해 번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고 한다. 『동아일보』, 1967.11.25.자 앞의 기사.



지의 캠퍼스에 위치한 것으로, 구체적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을 통해 건설 당시의 강당 건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당의 구조는 연와조로서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2층에 건평 303평, 연평 756평이었다.<sup>139)</sup> 강당의 수용인원은 6천명에 달했고, 운동실 내에서는 정구, 농구, 경주, 탁구, 권투, 유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sup>140)</sup> 지하실에는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식당과 50명씩 수용 가능 한 목욕탕 시설 3개를 갖추고 있었다.<sup>1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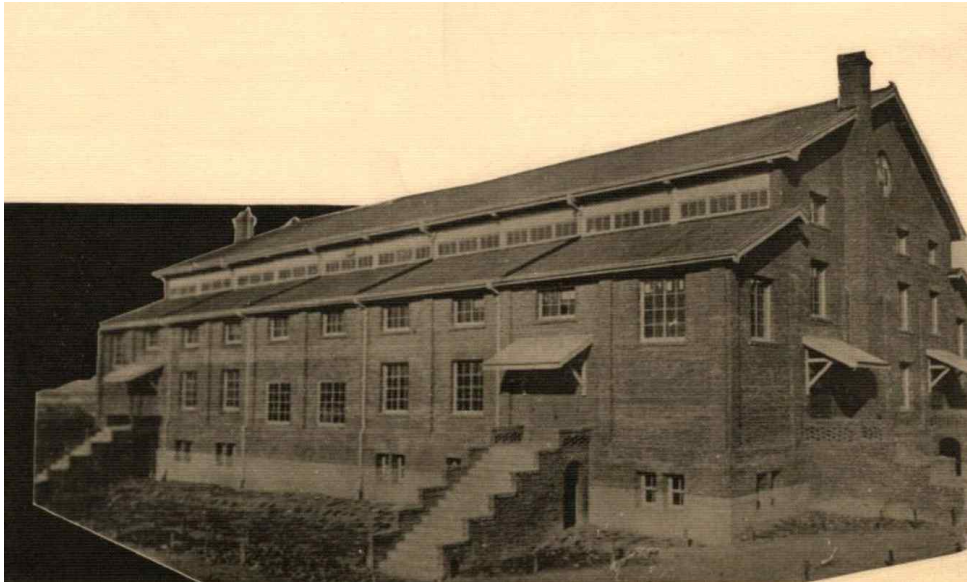


그림 6 1934년 송실전문학교 대강당의 외관(출처: 송실역사자료관)

강당의 전체 형태는 고대 로마의 바실리카와 흡사하고, 정면 박공면의 중앙 상부에는 원형 창을 설치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방형의 창을 통해 채광을 해결하면서 바실리카의 형태를 살려 지붕과 지붕 사이에 고측창을 설치하였다. 사진 상으로 확인되는 출입구는 정면과 측면에 각각 두 개씩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면의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각 출입문의 상부에는 45도가량 아래 방향으로 기울어진 캐노피를 설치하였다. 지하는 채광을 위해 반지하식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대강당의 출입은 반 층 정도의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주 강당의 실내공간을 살펴보면, 장축을 따라 지붕 구조를 받치는 원형 기둥이 늘어서 있다. 기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부에 연결된 사선부재인데, 이는 판재 2장이 사이의 기둥을 연결 부재로 물고서 지붕 마감재로 이어져 있다. 내부의 천장이 평평하게 마감되어 있어 지붕 하부의 구조는 파악할 수 없

139) 「평양교육계의 완전한 설비」, 『동아일보』, 1931.1.3.

140) 『조선일보』, 1930.4.13.(송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338에서 재인용)

141) 『동아일보』, 앞의 기사, 193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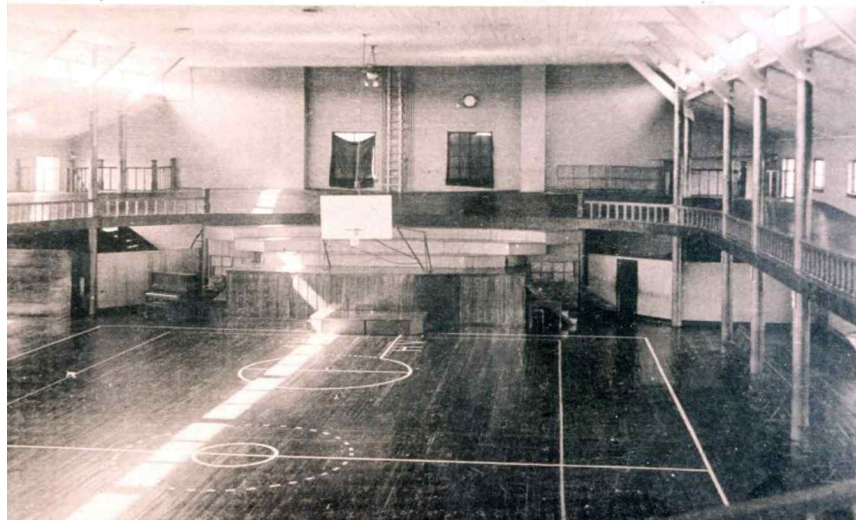


그림 7 송실대학교 대강당 내부 모습(출처: 송실역사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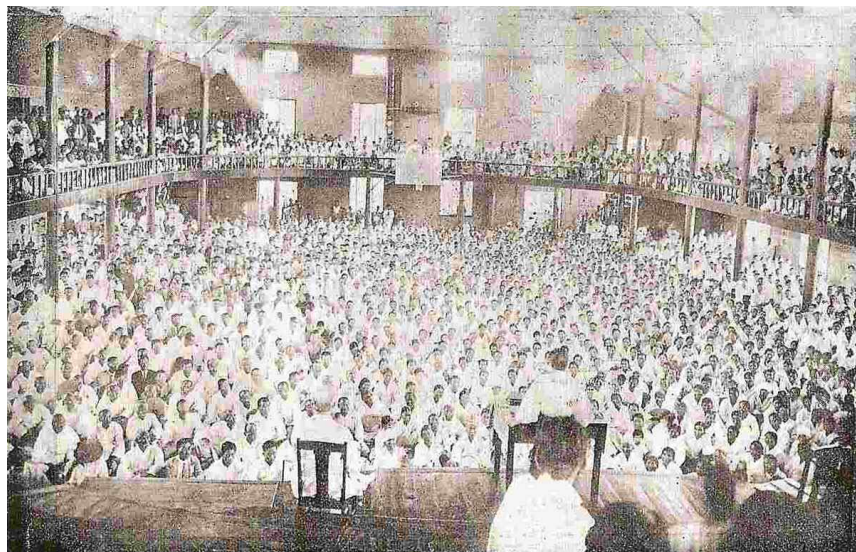


그림 8 1932년 평서, 평양 양노회 연합도 사경회강설장면  
광경(출처: 『조선예수교장로회50주년 역사화보』, 1934)

다. 다만 무게를 감안하여 지붕 구조에서는 목재를 혼용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형의 기둥과 판재의 트러스 역시 목재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존 사진으로는 재료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실내에는 열주 선에 맞추어 발코니를 둘러 설치하였다. 내부의 바닥에 선으로 표시된 농구장의 선과 설치된 농구골대를 통해 실내가 운동시설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23년 평양에서 대목 김익준의 권유로 본격적인 목수 일을 시작한 조승원

은 이후 3~4년간 소규모의 ‘벽돌조와 석조를 겹들인 근대적 목조건축’의 공사에 참여하며 기본적인 시공의 기술을 익혔다. 이 시기에 그는 삼공양말공장의 공사를 통해 2층 목조가옥을 시공하기도 하였다. 일러도 1927년 봄 이후 그는 대룡조에서 백기환을 만났고, 그를 통해 도면 보는 법과 설계제도의 방법 등 시공 외의 기본적인 근대적 건축기술을 접하였다. 이후 그는 1928년 7월부터 1930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의 공사에 대룡조 소속으로 참여하였고, 역할은 시공 책임을 맡았다. 숭실전문학교 강당은 당시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장이었던 윤산온(G.S.McCune)에 의해 설계되었고, 전체 형태는 고대 로마의 바실리카를 연상시킨다. 이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6천명 가량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설로서 구조는 연와조에 일부 목재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가 당시 소규모의 한옥뿐만이 아니라, 규모 있는 학교 시설의 공사를 통해 근대 건축을 체험적으로 학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2.2 도편수 한성룡의 영향(1925)

조승원이 그의 20대인 1920년대 주로 근대 건축 공사의 현장을 다녔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전통건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대목장 김익준과 함께 근대식 한옥의 현장들을 누비던 1925년에 당시 평양에서 포작시공으로 유명하던 도편수 한성룡을 찾아가 전통건축의 가르침을 구한다.<sup>142)</sup> 한성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부족하지만, 조승원에 따르면 한성룡은 평양의 기성팔경 중 하나인 「애련당(愛蓮堂)」을 지은 도편수였다.<sup>143)</sup> 또한 그는 당시 여든이 넘은 고령자였지만 장년에 지지 않는 정력가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sup>144)</sup>, 대개의 목수들과 달리 유식했고 초(草)를 미술적으로 잘 그렸다 한다.<sup>145)</sup> 다음의 기록에서 조승원은 당시 한성룡을 통해 배운 전통건축의 기법을 정리하고 있다.

... 평양에는 鋪作시공으로 유명하시었던 韓成龍翁이 계시었다. 나는 그 분을 찾아 그 요

142)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143) 김정동은 그의 애련당에 관한 글에서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 서술된 애련당의 연혁을 근거로 하여 한성룡이 애련당을 지은 도목수라는 조승원의 저술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 따르면 애련당은 1542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중건을 거쳐 1804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30년에 다시 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 구획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한성룡이 1925년 당시 여든이 넘었다는 조승원의 증언에 따른다면 그는 1835~1845년생이므로, 1830년의 중건에 한성룡이 참여할 수 없었고 보수나 이축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김정동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국고지도목록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古軸 4709-12)의 箕城全圖의 제작시기를 1890~1894년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시기 추정의 근거로서 애련당 중건 시기를 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애련당은 1804년에 불탔다가 1890년에 중건되었다. 만약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한성룡의 나이 45~55세에 실제로 애련당을 건축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김정동의 지적 역시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정리하면, 애련당의 1804~1890년 기간의 정확한 연혁을 추적하고, 조승원의 증언을 보충하면, 도편수 한성룡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애련당은 1905~1909년경에 일본 경제의 유력인이었던 시부자와에 의해 동경의 시부자와 저택 부지 내로 이축되었다. 원래의 애련당 자리에는 제일은행 평양지점이 들어섰다. 동경의 애련당은 태평양전쟁 때 미국의 공습으로 소실되었다, 김정동, 「일본으로 뜯겨져간 평양팔경 애련당을 찾아」, 『건축가』, 제146호, 1994.9. 리화선, 『조선건축사 2』, 발언, 1993. 「箕城全圖」,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144)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 (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145) 현석홍, 앞의 책, p.37.



그림 9 일제시기 평양의 애련당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엽서. 1909년 이전 촬영 추정(출처: 일제시기 발간 된 평양명승 사진엽서집 중 하나로 추정)

령을 배웠었다...

모서리의 「총포」는 그 포자리에서 直交하는 長欄線과 45°각도의 限大線이 三重으로 이어지고, 疊作 차례로 1尺 4寸씩을 가산하고, 밖에서는 확대하고 안에서는 축소하는 斗栱들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따라서 장여로 여기 채우는 복잡한 결구공작이다.

「춘여」 구성공작은 일정한 길이의 끝머리 휘임線의 표준점보다도 그 기장이 가감하는데 따라서 취임線(압곡)의 높이를 가감하는 비례로 조련하게 된다.

韓式建築의 美的要素가 되는 揉線調練은 「춘여」 머리의 윗선과 석가래 머리의 윗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秤平線法에 의거하여 治材하게 된다.

「사라춘여」와 부연의 경사선의 工作, 그리고 부연 뒷 끝에 누리게나무들로 눌러 못질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鋪作構造工作技法이 된다. 그 당시 나는 ... 기본적인 工作技法들과 寸數比例法에 대한 이치를 익혔었다...<sup>146)</sup>

이 내용은 귀공포, 춘녀, 선자연, 부연 등의 가구로서 전통건축 지붕의 특징적인 곡선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는 45°, 1척 4촌 등의 수치, 구조에서의 표준점과 비례 등의 사용, 청평법과 같은 수평을 잡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온전히 당시 한성룡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기법은 아니고 그가 1960년대에 수행했던 전통건축의 학습 내용이

146)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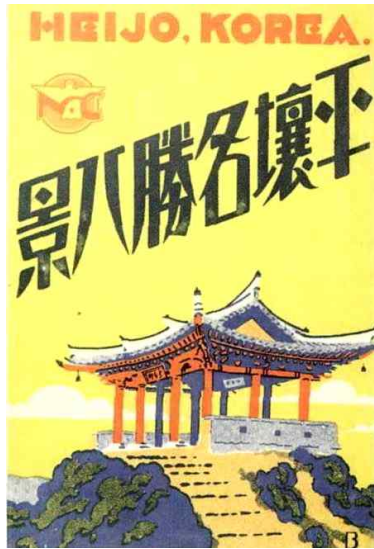


그림 10 일제시기 발간 된 평양 명승8경 사진엽서집의 봉투(출처: 김수현, 「식민지 조선에서 온 엽서7: 평양 명승지」, 『민족21』, 2009. 8.)



그림 11 시부자와의 집 저택에 이축되었을 때의 애련당(출처: 김정동, 「일본으로 뜯겨져간 평양팔경 애련당을 찾아」, 『건축가』, 제146호, 1994.9)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선 이 기록이 1977년에 작성된 것이고, 무엇보다 조승원은 당시 포작집을 직접 설계, 시공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어려운 생계로 인해 한성룡 옹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었다고 회고하기 때문이다.<sup>147)</sup> 대개 전통건축의 목수가 도목의 아래에서 학습하여 설계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3~4년이 소요되는데<sup>148)</sup>, 정황상 이 시기에 조승원이 근대 건축의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실습 한번 없이 한성룡을 틈틈이 방문함으로써 구체적인 전통건축의 가구법을 깊이 습득하였다고 보긴 어렵다.<sup>149)</sup>

147) 조승원, 같은 책, p.50.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 (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148) ... 인간문화재 이광규 옹은 “전통적인 조선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이 되어야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데 4년까지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 염려했다, 「木手 ‘집다운 집’ 꿈 가꾸는 ‘망치 匠人」, 『경향신문』, 1982.9.25.

실제로 대목장 이광규와 배회한이 본인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기까지는 목수 입문 후 4년이 걸렸고, 대목장 신응수가 목수 일을 시작한 후 현장의 부편수가 되기까지는 무려 14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회한 구술, 이상룡 편, 앞의 책. 신응수, 앞의 책. 등을 참고.

149) 조승원은 인터뷰에서 한성룡이 본인이 젊다고 시키는 바람에 힘든 일을 많이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한성룡을 몇 번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기만 한 것은

이처럼 조승원이 비록 전통건축 장인의 기술을 깊이 있게 습득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가 스스로의 관심으로 한성룡을 방문하여 전통건축의 구조 이치를 이해하려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당시 조승원이 한성룡을 방문하여 문답할 때 한성룡은 직접 귀기둥과 평기둥 상부의 공포 단면도를 꺼내 보이며 전통건축의 복잡한 가구구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50)</sup> 하지만 이는 전통건축의 설계 도면을 그리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보다도 그는 꺼내 보여준 것과 같은 설계 도면을 그리기 전에 스스로 구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건축물의 ‘관찰’, ‘관조’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 나는 한성룡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처음 배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배우시고 이치를 터득하셨습니까?」 라고 여쭙어 보았다.

이 질문을 받으신 한성룡 선생님은 과안대소하시면서, 「... 이 늙은이가 어릴 적에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한가지 비결이 있지. ... 지필과 자는 구조의 이치를 깨우친 다음에야 소용될 터이니가 당장 준비할 필요가 없고, 우선 돛자리 한 장과 목침 한 개만을 준비하면 돼. 알고 싶은 건물을 찾아가서, 그 처마 밑에 돛자리를 깔고 목침을 베고 누운 다음에, 자네가 그 건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관조해 보게나. 백일 동안을 작정하고 말이야. 온갖 잡념을 버리고 그 건물의 밑에서부터 위로 차례차례 짜 맞춘 것들을 살살이 살피면서 그것들을 자네 머릿속에 새겨 두노라면, 자네는 어느 날엔가 홀연히 그 질서정연하고 간단한 이치를 깨우치게 될 걸세.」 라고 가르쳐 주셨다...<sup>151)</sup>

이러한 방법은 한성룡 스스로가 전통건축의 기술을 습득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는 돛자리와 목침을 이용한 관찰의 직접적 실천보다도 ‘스스로 깨닫는’식의 학습의 정신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평생 자습을 통해 건축을 학습한 그에게 스승의 이러한 학습의 정신은 상당한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늘 한성룡 선생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sup>152)</sup>

하지만 한편으로 조승원은 이러한 방법이 ‘추상이 추상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sup>153)</sup> 이는 장인의 전통건축 기술이 어떠한 구체적 매개 없이 현장 실습만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수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술했듯이 실제로 그는 당시 포작집을 지어보지 못했고, 한성룡의 도본 설명은 그에게 마치 ‘소 귀

아니고 그의 밑에서 일을 수행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석홍, 앞의 책, p.37.

150)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p.16-17.

151) 조승원, 같은 책, pp.16-17.

152) 조승원, 앞의 책, pp.16-17.

153)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1. 보고듣고」(1963.10),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5.

에 경 읽는 격'이었다.<sup>154)</sup> 이러한 이 시기 전통건축 학습의 한계와 아쉬움은 그가 후에 전통건축의 재학습을 수행하고 나아가 전통건축의 상세한 도면과 도해를 다수 첨부한 저서를 출간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

154) 조승원, 같은 책, p.125.



### 3.3.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建平社)

조승원은 숭실전문학교의 대강당 공사를 통해 만난 평양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을 통해 근대 건축술의 학습을 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견적과 시방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sup>155)</sup> 이를 계기로 그는 1929년부터 동료 김익준, 송병렬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당시 숭실전문학교 공예과 고학생이던 김준식과 함께 독립된 회사의 설립을 구상하였고, 1930년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建平社)를 조직하여 1931년 마침내 평양 숭실전문학교 정문 앞에 사무실을 개설한다.<sup>156)</sup> 당시 조승원은 건평사의 전무 겸 경리를 맡았다.<sup>157)</sup>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후 건평사는 평양의 미국 선교회가 발주하는 건축공사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한다.<sup>158)</sup> 실제로 해방 전 조승원이 참여한 건축 작품 총 27개 중 22개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936년에는 황해도 평산군 남천리의 계림목재상회를 매입하였고 1938년에는 경기도 개풍군 영북면 청수동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를 매입했다는 기록을 살펴볼 때 성공적인 건평사 사업으로 그가 이 시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159)</sup> 조승원은 1936년 건평사의 사장에 취임하였고, 해방직후 와해될 때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sup>160)</sup>

조승원의 건평사 시기 작품들은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도과 황해도 그리고 평안북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현재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더욱이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활동 관련 내용은 1950년대 이후 서울에서의 활동 기록과 비교하여 현저히 구체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인 대구 제일교회의 건물을 건평사의 김준식이 청부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건평사 건축의 실체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방 후 이남에서 재건된 숭실대학교의 역사 기록과 북한교회재건위원회의 출판물 등의 관련 문헌을 통해 몇몇 작품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조승원이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시공현장의 목수에서 근대적 건축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155)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5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5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58)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59)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6.

160)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Vol.64, 1987.2, pp.97.

### 3.3.1.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영향과 건평사의 설립(1931)

조승원은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의 공사 기간과 일치하는 1928년에서 193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이 해외에서 들어온 근대식 건축설계 및 시공을 배웠고, 이후 평양의 미국 선교회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사들을 청부하게 되면서 건평사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sup>161)</sup> 특히 그는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은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맹장로와 객안련을 특기하고 있으므로, 건평사 설립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조승원은 맹장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이름을 기록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관련 문헌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 맹장로는 당시 숭실전문학교에 직원으로 재직 하던 미국인 장로 맹로법(孟老法, R.M.McMutrie)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13년 숭실대학 편람의 교수명단에서 확인되는 장로 맹로법은 1907년에 당시 미국에서 숭실학교를 지원하던 데이비스(Davis)에 의해 이 학교로 파견되었다.<sup>162)</sup> 그는 이전에 미국 연방정부 소속의 록아일랜드 병기제조장에서 근무하였고, 숭실학교에 설치 된 기계창이라는 기관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가로서 합류하였다.<sup>163)</sup> 1932년 10월 12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그가 근속 직원 표창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적어도 이 시기까지 숭실전문학교에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4)</sup>

맹로법은 1912년부터 1913년까지 숭실대학의 실과 교수로서 공장, 제도를 수업한 이력이 확인된다.<sup>165)</sup> 또한 그가 운영을 담당했던 기계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설치 된 일종의 기술 실습소였는데, 소속 학생들에게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일로써 급여를 제공하여 지금의 대학교 시설과 유사한 업무까지 맡아보는 기관이었다.<sup>166)</sup> 따라서 그가 1928년~1930년 기간에 이루어진 숭실전문학교의 강당 공

161) 조승원, 「머리말」 (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1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62) 숭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150, p.251.

163) 맹로법이 부임하면서, 학교의 설립자이자 당시의 교장 배위량(W.M.Baird)은 기계창의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한다, 숭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251.

164) 「숭실학교창립 35주년기념성대」, 『동아일보』, 1932.10.12.

한편 이 기사에서는 사진의 (좌)를 맹로법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좌, 우 표기를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165) 1909년 숭실대학의 본관 건설 때 당시 교장이었던 배위량(W.M.Baird)은 맹로법을 통해 건축요람을 빌리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09년 이후에도 맹로법이 학교 건축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을 예상케 한다. 숭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135.

166) 내부 시설로는 업무를 통괄하는 사무실에 목공실, 인쇄실, 주물실, 철공부실을 포함하는 공작실을 갖추었고, 각 부실에는 목공 도구, 공작 도구, 연관(鉛管)도구와 단조용



그림 12 기계창에서 목공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출처: 송실역사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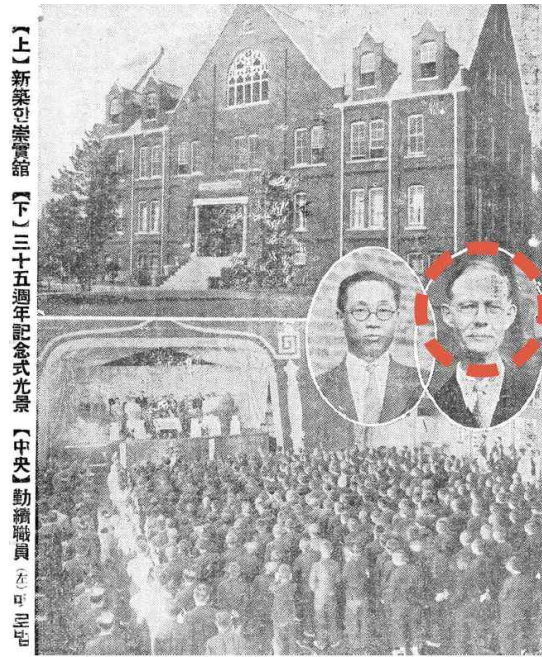


그림 13 조승원이 맹장로로 언급하는 맹로법 (출처: 「근속직원 (좌) 맹로법」, 『동아일보』, 1932.10.12자 기사)

사에 기계창의 총괄로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시공 책임이었던 조승원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조승원이 건평사 설립 후 평양의 미국 선교회가 발주하는 건축 공사들을 청부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특기하는 미국 선교사인 곽안련(郭安蓮, C.A.Clark)은 1912년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30호인 승동교회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1878년생인 그는 1902년 선교를 위해 내한하기 전인 1888년부터 1892년까지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건축업 보조일을 한 적이 있으며<sup>167)</sup>, 내한 후인 1905년에는 대구동산병원을 설계하기도 하였다.<sup>168)</sup> 그는 평양 거점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핵심 인물들 중 하나

도구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기계창의 목공부는 학교의 모든 가구를 생산, 수선하였고, 유리공의 일로서는 학교의 유리를 갈아 끼우는 일을 하였으며 철공부에서는 학교의 연관(鉛管)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계창 소속 학생들은 캠퍼스 내 도로의 수축과 보수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기계창은 학교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의 일을 맡은 것이다. 송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p.113-114, p.252, p.254.

167)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생명의 말씀사, 2005, pp.418-419.

168) 최준호,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변화』, 서울대 건축학과 석론, 2015, p.114.

였고, 1908년부터 1939년까지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교수로 활동하였는데 평양으로 이사하여 정착한 시기는 1922년이였다.<sup>169)</sup> 건축 이력을 통해볼 때 그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건축 관련 일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승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One Sixth of a Square Mile of Missionary Activity』<sup>170)</sup>라는 제목의 당시 평양 선교 거점 풍경을 묘사한 조감도를 살펴보면, 조승원이 기록에서 언급하는 방위량(方衛良, W.N.Blair), 맵로법(McMurtrie), 콕안런(Clark)뿐만 아니라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을 설계한 윤산온(McCune)과 숭실전문학교의 설립자 배위량(Baird)등이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 거점 지역 내에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들은 모두 국내 기독교 세력에서 서울 선교부와 함께 강력한 축을 형성하던 평양 거점의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운영자들이었다.<sup>171)</sup> 조감도에는 선교사들의 주택을 포함하여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교회,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총 41개의 건축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었다.<sup>172)</sup> 또한 여기에는 각 기관에 소속된 학생, 환자,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당시 평양 선교 거점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조승원은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 공사를 계기로 만난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건평사를 설립하게 된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

169) 이호우, 앞의 책, pp.418-419.

170) 이성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p.138에 따르면 이 조감도는 1930년경 평양 선교 거점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고, 평양의 선교사가 편지지 뒤에 인쇄하여 본국으로 발송한 것이라 한다. 또한 그는 연구 중에 복사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R.H.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Oakland, 1968에 수집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본 저자는 조승원의 연구 중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1901~1945)』,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과 Richard.H.Baird,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출판국, 2016. 등의 문헌에서 출처 없이 이 조감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의 조감도에는 그 위에 손글씨로 기록이 추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조감도의 원본 출처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문헌의 복사본은 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성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p.138.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1901~1945)』,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출판국, 2016.

171) 미국 선교부는 1910년대 조선 내 하나의 연합대학을 구상하였는데, 이때 평양과 서울의 설립위치를 두고 강력히 대립하였다. 이는 평양 선교부가 당시 한국에서 지닌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성전, 같은 책, p.138.

172) 이성전, 앞의 책,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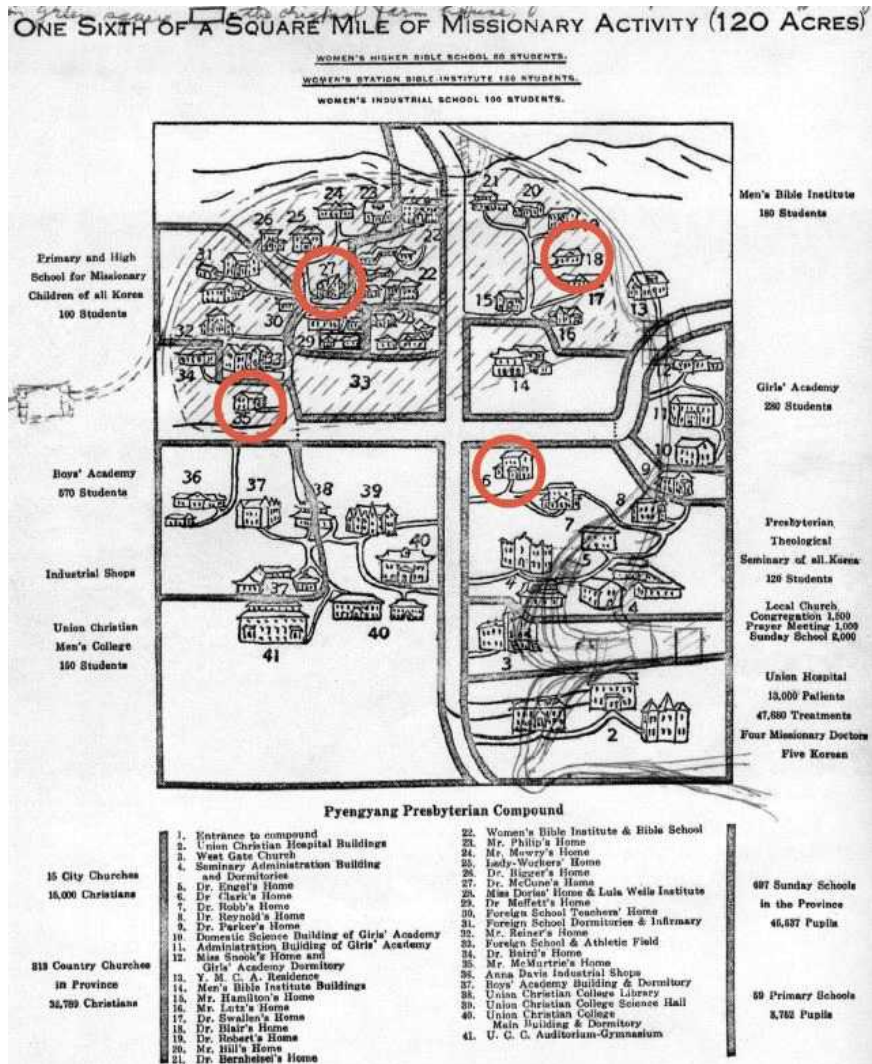


그림 14 1930년~1932년 사이 평양의 선교 거점 풍경을 묘사한 조감도(출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1901~1945)』, 2008)



그림 15 조감도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의 자택 확대 그림. 왼쪽부터 차례로, 6. Dr.Clark' s Home(곽안련의 집), 18. Dr.Blair' s Home(방위량의 집), 27. Dr.McCune' s Home(윤산온의 집), 35. Dr.McMurtrie' s Home(맹로법의 집)

할 수는 없으나 숭실전문학교 대강당 공사를 마지막으로 대륜조는 해체되었고,<sup>173)</sup> 이에 조승원은 1929년부터 김익준, 송병렬과 의논한 후 숭실전문학교 공예과 고학생이었던 김준식<sup>174)</sup>을 영입하여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의 조직을 구상하였다.<sup>175)</sup> 1930년에는 4인조의 합명회사 건평사를 조직하였고, 1931년에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정문 앞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sup>176)</sup> 그는 당시 전무 겸 경리를 맡았고,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건축 공사 중 황해도 사업을 전담하였다.<sup>177)</sup>

---

173) 조승원에 따르면 당시 대륜조 내부의 불화가 폐업 해산의 원인이었다. 조승원이 대륜조 소속으로서 시공하던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1929년부터 건평사 조직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대륜조의 불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74) 조승원이 김준식을 고학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숭실전문학교 강당 및 체육관」 공사 시기에 김준식이 학교 기계창의 자조근로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조승원을 만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175)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7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177) 그가 건평사의 황해도 사업을 전담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알려진 건평사 시기의 건축 작품 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건축의 위치를 파악해보면 평양이 4건, 황해도가 3건, 평안북도가 5건으로 황해도 사업이 특별히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황해도 이외 평양과 평안북도의 작품 수가 더 높게 나와 조승원이 황해도에서 알려진 작품 외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 3.3.2. 건평사 시기의 건축(1931-1943)

년도	번호	건축 작품	역할
1931	6	평양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	청부, 시공
1932	7	「숭실전문학교본관 증축공사」	시공
	8	평양 역전 유정에 「2층목욕탕」	설계, 시공
	9	안악읍 대원면 「김농장창고」	설계, 시공
1933	10	「정의여학교 담장공사」	시공
	11	황해도 재령 「제중병원」	시공
	12	황해도 재령 「재령교회당」	설계, 시공
	13	「농장사무실」	시공
	14	「문산창고」	시공
1934	15	평양 「신양리교회당」	설계, 시공
	16	황해도 선천 「신성학교 강당」	-
	17	평양 「신양리 조승원 한옥자택」	설계, 시공
1936	18	황해도 금천읍 「금천읍사무소」	설계, 시공
1938	19	「오성상업학교」	설계, 시공
	20	「동부예배당」	설계, 시공
	21	평양 기림리 「조승원한옥자택」	설계, 시공
1939	22	평안북도 영변읍 「승덕남학교」가 농산면 구장동으로 이전. 그 「본관, 강당, 교사사택」	설계, 시공
	23	황해도 평산군 남천리 소재 「천도교포교당」을 매입하여 「예수교장로회 남천교회당」으로 개조	-
1942	24	평안북도 영변읍 농산면 구장동 「용문공업학교」	설계, 시공
시기 미상	25	「강계 계례지(桂禮知)병원」	역할 미상
	26	「신의주 제일 주일학교」	
	27	「명신 중·고등학교」	

표 13 제2기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 시기」의 작품 목록(1931-1942)



### (1) 건평사 조승원 시공의 평양 미국 복장로회 선교부 학교 건축

조승원의 건평사 시기 건축이 대부분 이북에 위치하므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지만 관련 문헌을 통해 일부의 건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One Sixth of a Square Mile of Missionary Activity』의 조감도와 현 숭실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역사 자료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각 1931년과 1932년에 건평사가 시공한 것으로 파악되는 평양의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와 「숭실전문학교본관 증축공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통해 1933년 「정의여학교 담장공사」가 시공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One Sixth of a Square Mile of Missionary Activity』의 조감도는 건축물을 꽤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할 만한 기록이다. 조감도 상에서 「41. U.C.C.Auditorium-Gymnasium」로 표기된 건물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의 바실리카 형태에 고측창의 모습과 출입구의 캐노피 등이 상당히 정확히 묘사되어 이것이 조승원이 대륙조 소속으로 참여하여 완성했던 숭실전문학교 대강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78)</sup> 다음으로, 「40. U.C.C.Main Building & Dormitory」로 표기된 건물의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복층의 몸체에 한식기와의 팔작지붕을 얹은 모습이 실제 1932년 증축 전의 숭실전문학교 본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우진각의 지붕을 얹은 중앙의 출입구 부분과 지붕 중심에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36번부터 39번에 이르는 숭실전문학교 영역의 건물들은 현재 파악가능한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볼 때 각 건물의 특징을 잘 살려 상당히 정확하게 건물들을 표현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조감도는 당시 평양의 선교 거점 지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모습을 추정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

조승원이 건평사를 통해 1931년에 청부, 시공하였다고 알려진 평양의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는 현재 구체적인 문헌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건축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조영무 편집의 기록에서 전하는 공사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건물의 대강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는 1층 석조, 2층은 한식 기와집으로서 실내의 기둥이 없이 4칸통의 넓은 주간거리를 지탱하는 난공사였으나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고 한다.<sup>179)</sup> 그런데 기록에서 묘사한 ‘1층 석조, 2

178) 조영무 편집의 기록에서 이 건물은 「숭실전문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으로 표기되는데, ‘Auditorium-Gymnasium’을 직역하면 그 표기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해볼 수 있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2.

179) 성공적인 준공 결과를 확인한 선교사 방위량 교장은 맹장로와 박안련과 입을 모아 “우리 선교부 일은 조승원이 모조리 시공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조영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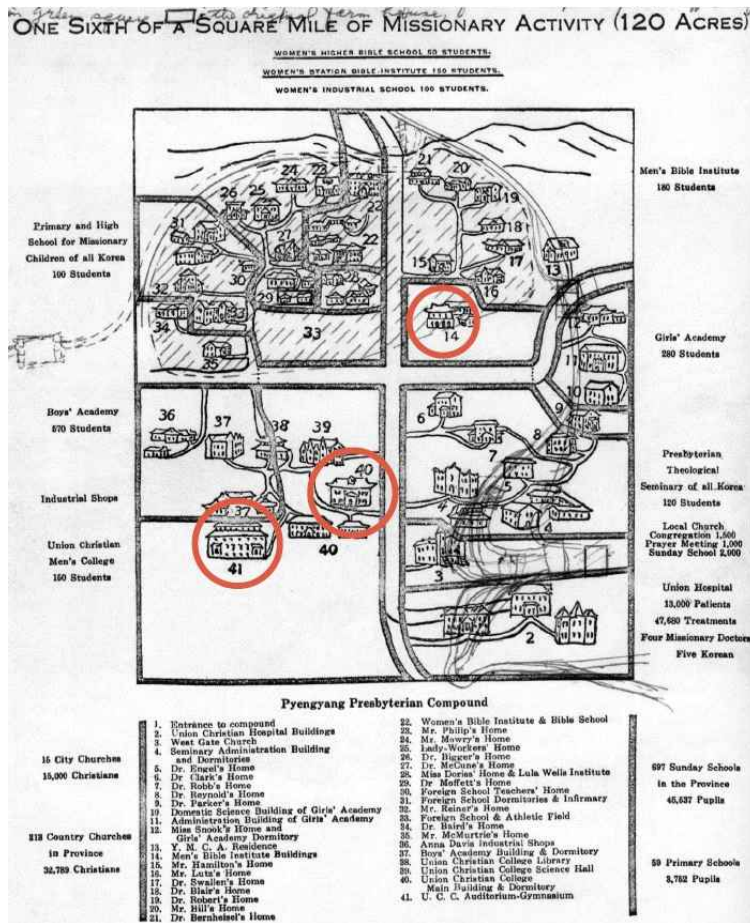


그림 17 조감도에 표기된 14. Men's Bible Institute Buildings. 직역하면 남성경 학교건물.

그림 16 1930년~1932년 사이 평양의 선교 거점 풍경을 묘사한 조감도(출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 (1901~1945)』, 2008)



그림 18 조감도에 표기된 40. U.C.C. Main Building & Dormitory과 1932년 증축 전 본관 U.C.C. Auditorium-Gymnasium과 숭실전문학교 대의 정면(출처: 숭실역사자료관)      강당 및 체육관 측면(출처: 숭실역사자료관)

층 한식 기와집, 4칸통의 건물'의 모습은 『One Sixth of a Square Mile of Missionary Activity』 조감도의 「14. Men's Bible Institute Buildings」의 그림에서

저, 앞의 책, p.3.

확인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그 모습의 실체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1층 몸체와 2층 몸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1층의 아치 개구부를 통해 이것이 석조임을 예상케 하고, 상층부는 4칸에 팔작지붕의 형태로 서 그가 묘사한 4칸의 한식 기와집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0 1908년 평양 신학교 건물 전 그림 21 뒷 편에 보이는 건물이 여여성경학교 건물  
경(출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출처: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  
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1901~194 화보집(1901~1945)』, 2008)  
5)』, 2008)

‘1층 석조 + 2층 한식 기와집’은 조감도에 표현된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 거점 구역 내에 존재하던 타 건물의 현존 사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1908년에 건립되어 1922년까지 존재하던 평양 신학교<sup>180)</sup>의 건축을 살펴보면, 1층은 석조로 되어 있고, 2층은 목조에 한식 기와지붕을 올린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나 2층 목조부는 부재단면의 크기가 한국 전통의 목조건축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구조방식에서는 지붕 처마 아래에서 가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의 전통적 방식은 아니고 서양의 목골조 건축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붕 역시 한국의 전통적 방식과 달리 박공부를 중앙 정면에 배치하여 대칭성과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은 역시 평양 선교 거점 구역 내에 존재하던 여여성경학교 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승원의 「남성경학교 강당 및 기숙사」도 이들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지녔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록에서 ‘2층 한식 기와집’으로 묘사된 부분은 완전히 한국의 전통적 방식의 목조건축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전체적으로 한국과 서양의 건축 방식이 혼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조승원은 1932년에 숭실전문학교의 본관 증축공사의 시공을 수행하였다고 전하는데, 숭실대학교의 이 시기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1932년에 실제로 숭실전문학교

180) 평양 신학교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전신이다.

본관의 증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총 공사기간 4개월에 공사비 1만원을 들였으며, 원래 한식기와의 팔작지붕이었던 지붕부를 벽돌 조적조 경사지붕의 2개 층으로 교체하여 총 5개 층으로 증축한 것이다.<sup>181)</sup>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이전의 본관과 증축 이후 본관의 몸체부가 정면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층 몸체부와 상층의 교체된 지붕부 사이에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2 1932년 증축 전 송실전문학교 본관(출처: 송실역사자료관)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본관의 증축이 지붕부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사 지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 아래의 공간을 두 층으로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붕 공간 이용의 특징은 이 건축의 설계가 선교사 곽안련에 의해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교사 곽안련은 지붕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의 근거로서 곽안련은 1905년 대구 동산병원의 설계 시 지붕 구조를 들어 올려 다락의 구조를 만들기도 하였고, 이후 송동교회의 지붕에서는 쌍대공 트러스의 독특한 구조 방식으로 지붕부를 설계하였다.<sup>182)</sup> 따라서 당시 평양 선교 지역에 체류했던 곽안련이 송실전문학교 본관 증축 공사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이외에도 1933년 조승원은 정의여학교의 담장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는 1931년 1월 3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 실제 공사가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sup>183)</sup> 기사에

181) 송실대학교 출판부, 앞의 책, p.340.

182)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장로교 소속 개척선교사들의 건축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39권, 2004, p.80. 최준호, 앞의 책, p.114.

183) “평양의 자량인 정의여고 … 동교는 미국 선교인으로부터 기부된 15만원을 투하야





그림 23 1935년 송실전문학교 증축 후 본관(출처: 송실역사자료관)

따르면 1930년 10월 5일 평양 남산현 언덕 위에 정의여고의 신교사가 준공되었는데 이 건물을 낙성하고 보니 운동장 수축설비가 미진하여 이 공사를 위한 6천원의 경비를 모으기 위해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담장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동장 수축설비라는 표현을 통해 학교의 주변을 정비하는 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차는 있으나, 이 때 모집된 경비를 통해 진행된 주변 정비의 연장선에서 1933년에 건평사가 일부의 일을 청부하여 담장을 시공하였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

3월 1일(1930년) 남산현 언덕우에 신교사를 기공하야가지고 10월 5일에 준공되니 공사비 14만 여원 광성고보 교장 김득수 씨의 설계한 바로 건평이 3421평 4층 연와제 양옥으로서 그 미관은 평양 기다의 건물을 능가하는 바이며 학급수가 8, 외로 음악실, 도서실, 오락실, 체조장 등 완전한 구비는 평양에 잇서서는 교육계의 최대건물인 것은 물론 아즉 전 조선을 통하여 여자교육 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건물일 것이요 남자 교육기관으로서도 어데도나 빠지지 안홀집이다 ... 더욱 여기 따르는 반가운 소식은 동 교사를 낙성하고 보매 운동장이 수축설비가 미진하야 이것만도 6천원의 경비를 요하는바 차는 동교 학부형 일동이 자진 의연으로써 공사를 시작할 계획 하에 방금의연을 모집 중에 잇다는 것이다”, 「3월 1일 건축 기다 건물을 능가」, 『동아일보』, 1931.1.3.

## (2) 건평사 조승원 설계, 시공의 교회 건축

조승원의 건평사 시기 작품목록에서는 그가 시공을 포함하여 직접 설계를 한 총 11개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그 실체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1934년 설계, 시공된 평양의 「신양리 교회당」 한건이다. 이마저도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의 자료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시점에서 신양리 교회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흐릿한 흑백의 사진 한 장이다. 하지만 신양리 교회당이 설계, 시공된 시기와 유사한 시기인 1933년에 건평사 김준식이 청부하여 설계, 시공한 대구제일교회의 건축이 현존하여 주목된다.<sup>184)</sup> 이는 자료가 부족한 조승원의 신양리 교회당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조승원이 1930년대의 건평사 시기에 근대건축의 시공 뿐 아니라 설계까지 능숙하게 수행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평사 김준식의 대구제일교회는 1897년 대구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남성정교회의 세 번째 건축이다.<sup>185)</sup> 대구 남성정교회는 이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1908년 준공된 한양절충의 단층건물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933년 제4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를 남성정교회가 유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sup>186)</sup> 이에 따라 1932년 9월 6일 최재화 목사의 주도로 새로운 교회건축의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33년 5월 1일에 건축의 기공식이 열렸고, 1933년 6월 23일에 정초식이 열렸으며, 전국주일학교대회가 열린던 중인 1933년 10월 10일 입당식을 가졌다.<sup>187)</sup> 이 시기의 공사를 통해서는 교회 정면의 첨탑부를 제외한 몸체부만 준공되었는데 이는 공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936년에 이주열 권사에 의해 공사비가 충당되어 당해 7월 1일에서야 종탑의 공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1936년 12월 20일 준공되어 1937년 5월 30일에 낙성식을 올렸다.<sup>188)</sup> 이로써 현존하는 건축과 동일한 모습의 교회가 완성되었다. 남성정교회는 이 새로운 예배당의 건립과 함께 제일교회로 개칭하였다.

당시 평양의 건평사가 이 건축을 청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는다. 허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볼 때, 김준식은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관계로 인해 일을 청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대구 지역은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이루어진 선교

184) 『대구제일교회 110년사』, 대구제일교회, p.220. 대구광역시·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공편, 『대구지역근대건축물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1988, p.24.

185) 대구제일교회, 같은 책, p.217.

186) 대구제일교회, 앞의 책, pp.214-217.

187) 대구제일교회, 앞의 책, pp.219-220.

188) 대구제일교회, 앞의 책, p.225.



그림 24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23 소재,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 대구제일교회. 현재 남성정 선교관의 모습(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지 분할 협정에 따라 미국 북장로회의 관할에 속해 있었다.<sup>189)</sup> 따라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거점 역할을 하던 평양 선교부의 영향이 대구에까지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평사는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구제일교회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술했듯이 1933년에 시작된 건축 공사는 1, 2차에 나뉘어 이루어졌는데 관련 기록에서는 각 공사의 청부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기록에서는 1차 공사의 청부인은 평양 건평사 김준식이나 2차의 종탑 공사의 청부인은 권병두로 확인된다.<sup>190)</sup> 하지만 1933년 8월 9일자 기독교신보에 실린 건축도면에서는 1936년에 완성된 종탑과 거의 유사한 종탑이 표현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91)</sup> 따라

189)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Vol.8, 2011, p.215.

190) 대구제일교회, 앞의 책, p.224.

191) 『기독교신보』, 1933.8.9. 대구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백년사』, 대구제일교회, 2000에서 재인용.



그림 25 1933년 8월 9일자 『기독신보』에 게재된 대구제일교회의 정면도와 기사(출처: 대구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백 년사』, 대구제일교회, 2000)

서 김준식이 처음 대구제일교회 건축을 청부할 당시 종탑까지를 모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문제로 1차 공사에서는 계획안의 종탑부가 표현되지 못하였고, 1936년 공사 때는 김준식이 아닌 권병두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김준식의 원안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36년 준공된 대구제일교회의 건축은 이후 1969년 내부공사, 1981년 본당 뒤편으로의 증축 그리고 1995년 4월의 화재를 거치며 원래의 상태를 많이 훼손하였다.<sup>192)</sup> 허나 1992년에 이 건축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화재로 훼손된 건축물의 내부와 지붕 등을 보수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많이 회복하였다.<sup>193)</sup> 대구제일교회는 1994년 동산동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옮겨가고, 이 건축은 현재 대구제일교회의 남성정 선교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준식의 대구제일교회 건축은 붉은 벽돌의 조적조로 완성되었다. 전체의 구성은 박

192) 『대구경관자원 52선』, 대구광역시, 2013, p.65.

193) 대구광역시, 같은 책, p.65.





그림 26 대구제일교회 후면 모습(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그림 28 대구제일교회 측면 모습(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그림 27 대구제일교회 첨탑을 올려다 본 모습(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공지붕의 장방형 몸체에 정면 우측에 붙은 첨탑으로 이루어진다. 몸체는 2층, 종탑은 5층으로 계획되었고, 종탑의 높이는 총 33m이다. 건물 전체에는 뾰족 아치의 창이 설치되었고,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는 일정 간격으로 돌출된 부벽이 설치되었다. 평면은 남향의 배치에 장방형으로 계획되었고, 정면에는 돌출된 포치(porch)를 설치하였다. 포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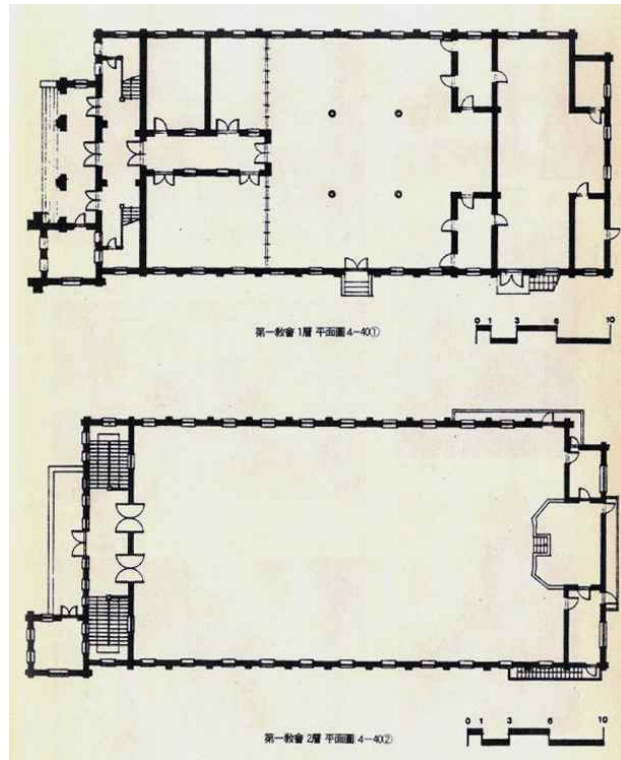


그림 29 대구제일교회 평면도 1층(上), 2층(下). 영남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작성 실측도면(출처: 『대구지역근대 건축물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1988)

상부는 2층과 통하는 테라스로 계획되었다.

평면을 통해 실내 공간의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1층은 장방형을 따라 크게 4분할로 공간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능의 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면 출입구를 들어서면 나르텍스 공간이 나오고 이의 좌우로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대칭으로 설치하였다. 다음의 구역으로 넘어가면 여러 실을 이어주는 복도 공간이 나온다. 이때 복도의 좌우로는 작은 방들을 계획하였다. 다음의 세 번째 구역이 소예배당이고 움푹 들어간 곳의 좌우를 통해 마지막 실로 들어갈 수 있게 계획되었다. 가장 깊은 곳의 실은 외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2층의 교단 양옆의 실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목사들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층은 대예배당으로서 1층과 달리 벽 분할이 없이 큰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설교를 위한 교단이 설치되었다. 또한 2층 나르텍스의 외부로는 포치 상부의 테라스로 통하도록 계획되었다. 종탑은 1층과 2층의 포치에서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이 설치되어 있다.

김준식의 건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건축의 외관 구성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서양식 교회건축의 전형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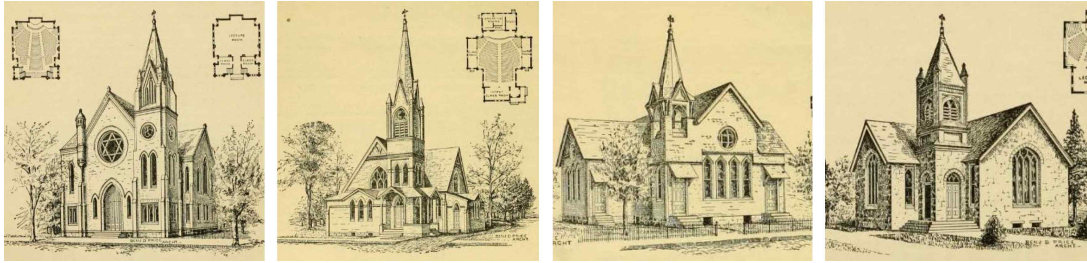


그림 30 벤자민 프라이스의 『Church Plans』(1892)에 수록된 교회들. 왼쪽부터 차례로 no.165. no.168. no.175. no.176.(출처: 최준호,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변화』, 서울대 건축학과 석론, 201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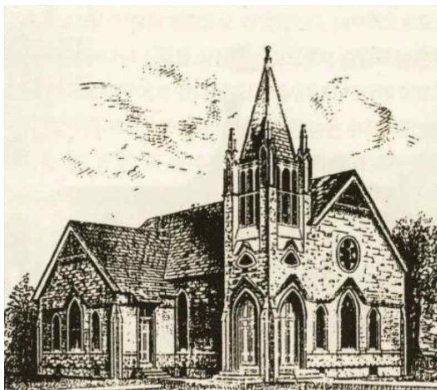


그림 31 아펜젤러가 정동교회의 계획에 활용했다고 알려진 벤자민 프라이스의 교회 그림. 『Church Plans』(1892) no.25(출처: 최준호,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변화』, 서울대 건축학과 석론, 2015에서 재인용)

그림 32 서울 정동교회(출처: 「정동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펜젤러가 1897년 완성된 정동교회의 계획을 위해 참고했다고 알려진 벤자민 프라이스(Benjamin D. Price)의 교회 투시도를 살펴보면, 김준식의 제일교회에서와 동일한 뾰족 아치의 창호가 설치된 박공정면의 몸체에 비대칭적으로 첨탑을 부착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194)</sup> 이 도면을 제공한 벤자민 프라이스는 미국 건축가로 『Church Plans』라는 교회 건축의 카탈로그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데, 아펜젤러가 참고한 그림은 1894년 카탈로그의 25번 도면이다.<sup>195)</sup> 그의 1892년 카탈로그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어, 뾰족 아치창, 박공정면 그리고 첨탑으로 구성된 교회의 외관은 당시 미국 교회건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던 계획 중 하나인 것으로

194) 최준호, 앞의 책, p.73.

195) 최준호, 앞의 책,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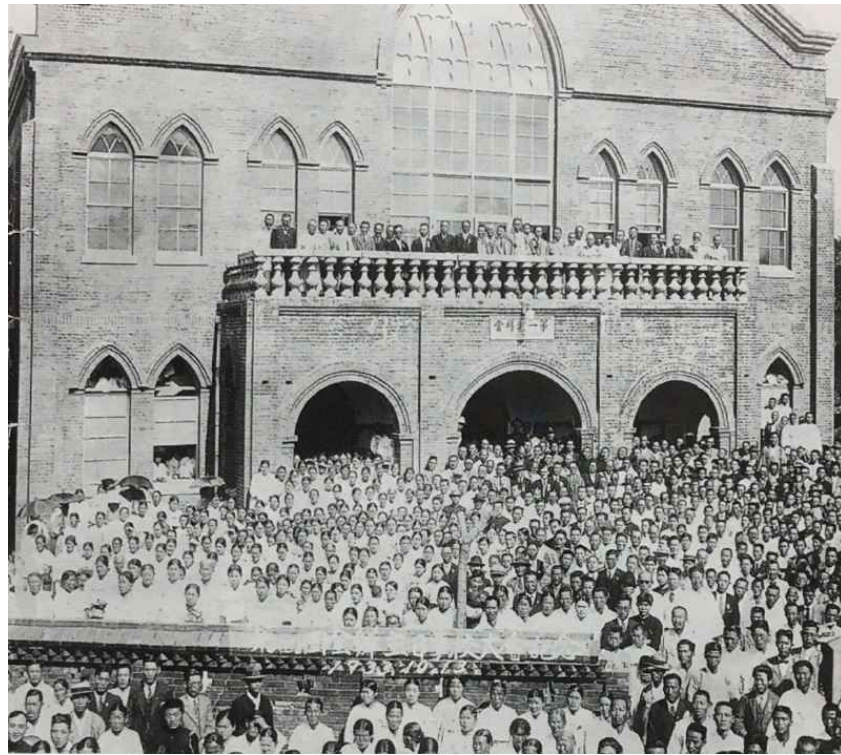


그림 33 대구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4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 광경. 침탑이 완성되기 전의 모습. 1933년 10월 6일에서 1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출처: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백년사』, 대구제일교회, 2000)

생각된다. 그리고 정동교회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이러한 구성이 당시 교회건축의 계획에서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1901년에 완성된 상동교회, 1910년에 완성된 동대문 교회와 종교교회 등에서도 박공정면에 비대칭의 침탑을 부착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준식의 제일교회의 외관은 특별한 의도 하에 계획되었다기보다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전형적인 교회건축의 구성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그의 건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내공간의 계획과 포치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건축은 높은 층고를 살린 단층의 중심공간을 두고 복층은 대개 이러한 중심공간을 내려다보는 갤러리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는 실내공간을 완전한 두 개의 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나아가 1층 공간은 여러 방들로 분할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의식보다 설교를 중시하는 장로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으로 보인다.<sup>196)</sup> 즉, 장로교의 교회건축에서는 의식의 성스러움을 강화하는 높은 층고의 공간보다 설교를 듣는 신자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준

196) 최준호, 앞의 책,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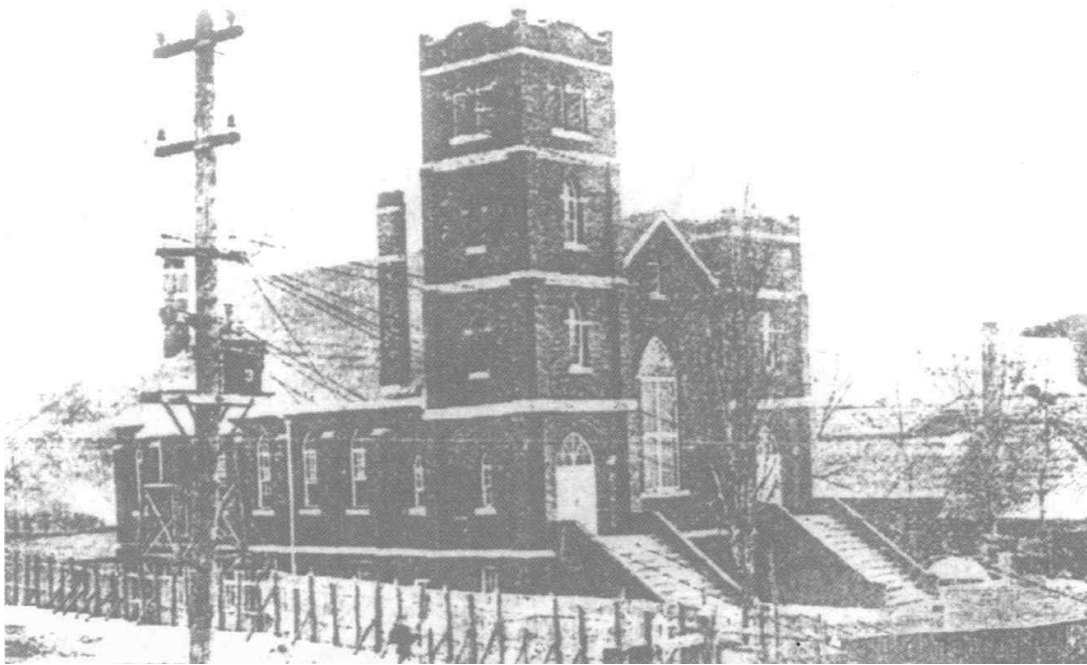


그림 34 평양 신양리 교회(출처: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910~1950』,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9.)

식은 이러한 실내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치를 크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33년 10월 6일에서 13일까지 대구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4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면, 포치의 테라스가 연단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예배 이외의 행사 등의 이유로 교회건축의 높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낮은 층고의 실내 공간 대신 외부의 앞마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돌출되어 상부가 테라스로 활용되는 포치는 연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마당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조승원의 신양리 교회당은 김준식의 대구제일교회에서 나타나는 외관 구성에서의 전형성과 실내 계획에서의 특이성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러한 특이성의 발현이 김준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구성의 전형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신양리 교회당을 살펴보면, 이는 뽕족 아치 창을 사용한 박공 정면의 몸체에 비대칭의 첨탑을 사용하고 있지만 약간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신양리 교회당의 정면부에는 김준식의 건축과 달리 박공의 양쪽 모두에 첨탑부가 부착되었고, 각 첨탑부의 높이의 차이로써 비대칭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양리 교회당의 외관에서는 내부를 감지할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몸체부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가로선이다. 이와 함께 정면에 설치된 계단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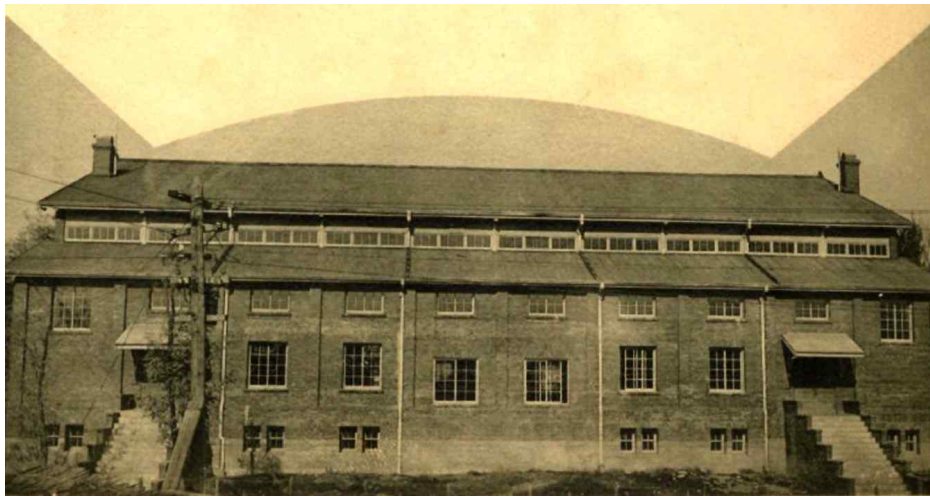


그림 35 조승원이 대륙조 시절 시공했던 송실전문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 (1928-1930). 반지하층의 활용을 입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송실역사자료관)

전체는 상하의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김준식의 제일교회가 내부를 분명히 두 개 층으로 분할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김준식이 온전한 지상의 2층으로 제일교회를 계획했다면, 조승원의 신양리 교회당은 반지하층과 지상 1층으로 계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유사한 계획은 앞서 살펴본 건평사 이전의 조승원 시공 작품인 송실전문학교 대강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실전문 대강당에서도 지상층을 조금 들어 올려 반지하층을 계획하였다. 이때 대강당의 외부에서는 반지하층의 채광을 위한 창들이 확인되는데, 신양리 교회당의 가로선 아래에서 확인되는 작은 창이 이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두 작품에 설치된 외부 계단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신양리 교회당이 14단, 송실전문 대강당이 15단으로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양리 교회당은 송실전문 대강당과 거의 같은 높이로 1층을 계획하였고, 하부는 반지하층으로 이용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승원은 높은 공간의 지상 1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예배당으로 활용되었을 것이고, 반지하층은 김준식의 1층과 유사하게 공간을 작은 방들로 구획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용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승원의 층 구성은 필요한 연면적의 확보와 실내의 높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김준식이 낮은 두 개 층의 공간을 구성하고, 포치라는 부가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공간의 단점을 보완하려했던 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끝으로, 김준식의 대구제일교회와 조승원의 신양리 교회당은 건평사의 교회건축 뿐만

아니라 건평사의 실체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우선 건평사의 작품이 대구에서 확인됨으로써 건평사의 활동 범위가 이북 지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조승원의 기록에서는 건평사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국내전역’의 건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일부 입증된 것이다.<sup>197)</sup> 이에 따라 건평사는 대구 외에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관할이었던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대구제일교회와 신양리교회당의 실체를 통해 건평사가 단순히 시공만을 수행하는 건설사가 아니라, 설계까지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두 작품이 드러내는 차이는 건평사의 설계가 동일한 작품을 반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건평사의 작품이 대구에서 확인된 점과 김준식, 조승원의 작품이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건평사의 운영 방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건평사의 4명의 소속원 김익준, 송병렬, 김준식, 조승원은 한 작품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맡은 지역에서 개별적인 작품 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록에서 조승원은 건평사가 4인조 합명회사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는 황해도 구역을 전담했다고 전하는데, 김준식의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sup>198)</sup>

---

197)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5.

198)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5.

## IV. 조승원 건축의 형성과 전개

### 4.1. 서울 활동의 시작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발상

#### 4.1.1.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1943-1953)

조승원이 서울로 이주한 1940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의 시기는 그의 건축 경력의 암흑기였다. 그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1941년부터 1952년까지의 10여 년 간 단 2번의 작품이 확인될 뿐이다. 이는 우선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의 미국 선교사들의 철수,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에 기인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그에게 기쁜 일이었지만, 이어진 38도선을 경계로 한 이념갈등의 분단은 그의 이북 사업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리고 몇 해 만에 터진 한국전쟁의 혼란까지 그는 정상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

시기	번호	건축 작품	역할
1942	24	평안북도 영변읍 농산면 구장동 「용문공업학교」	설계, 시공
1947	28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	청부, 시공

표 14 혼란기 1940년대 조승원의 건축 작품

#### (1) 건평사의 해체와 건축활동의 중단

1940년 평양 광성중학교<sup>199)</sup>에 재학 중이던 조승원의 만아들 영휘(英徽)<sup>200)</sup>가 경성제국대학교 예과시험에 합격했고, 함께 만딸 영애(英愛)도 서울 정신여학교<sup>201)</sup>의 입학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그는 자녀교육을 위해 평양 기림리의 자택을 팔고,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47-2번지 소재의 초가집으로 이사하였다.<sup>202)</sup> 하지만 1940년 전후 시기의 정황을

199) 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광성중학교의 전신.

200) 조승원의 만아들이자 조영무의 형인 조영휘 선생은 해방 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였고, 1977년 3월 1일 서울 중앙여자중학교의 제6대 교장에 취임하여 1986년까지 재직하였다. 퇴임 후 1988년에는 교육의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그는 2017년 3월 20일에 작고하였다. 「同期生」, 『매일경제』, 1982.4.21. 「훈장받은 퇴임敎職者 명단」, 『동아일보』, 1988.8.19.

201)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신여자고등학교의 전신.

202) 당시 이사한 명륜동의 초가집은 대지 53평에 총 9칸 규모의 집이었다고 한다.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3.

살펴보면, 자녀교육만이 그가 서울로 이주한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그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1939년을 마지막으로 1940년대에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건평사의 사업이 평양의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 사업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건평사가 1930년대에 평양의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인해 크게 신장되었지만, 이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철수하게 되자 일감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림 36 1940년 철수하는 평양의 미국 선교사들(출처: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p.166.)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만주침략 이후 1930년대는 이전부터 진행된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일제는 한국어 사용을 심하게 통제하고, 창씨개명을 강행하였으며 식민주의사관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 민족을 탄압하였다. 특히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 역시 1930년대이다. 1935년 9월 총독부는 전면적인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선교회의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시행할 것을 압박하였다.<sup>203)</sup> 하지만 같은 해 11월과 12월, 미국 선교회 평양 학교의 교장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이의 이유로 1936년 초 파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204)</sup> 이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북장로회 선교부는 1936년 6월의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선교회 학교들의 철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 3월 31일자로 평양의 대표적인 미국 선교회 학교인 숭실

203) 박혜진,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 경인문화사, 2015, p.147.

204) 박혜진, 같은 책, p.147.



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가 최종적으로 폐교되었다.<sup>205)</sup>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 마쉬(O.G.Marsh)와 영국 총영사 뽀프스(G.H.Phipps)는 각각 한국에서의 미국인과 영국인의 철수를 권고하였다.<sup>206)</sup>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1940년 11월 16일 본국으로 귀국하였고<sup>207)</sup>,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던 언더우드, 쿤스 등의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적성국 국민으로서 구금 또는 억류되었다가 1942년 6월 1일 전쟁포로 교환 방식으로 한국을 떠났다.<sup>208)</sup>

따라서 평양을 거점으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 크게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건평사는 1930년대 중, 후반부터 그 세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0년대 전, 후반의 작품수를 비교해보는 것으로도 파악해볼 수 있는데, 조승원이 건평사의 사장에 취임한 1936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작품 수가 11작품, 이후의 작품 수는 5작품으로 후반기의 숫자가 전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09)</sup> 더욱이 1940년으로 들어서면 급격히 그 수가 줄어서 1942년 용문공업학교가 그의 작품 목록에서 확인되는 건평사 시기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sup>210)</sup> 이와 함께 1938년에 조승원이 건축 외에 인술(仁術)을 동경하여 약포경작 및 채약을 위해 경기도 개풍군 영북면 청수동에 위치한 농지 및 임야를 매입하고 노후 정착 및 생계를 준비했다는 사실은 그가 건축 외 다른 직업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 무렵 건평사 사업이 하락세로 들어섰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211)</sup> 따라서 건평사의 정확한 해체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리해보면 대체로 1936년 쯤 건평사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는 급격히 일감이 줄어들었고,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을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sup>212)</sup>

건평사의 해체와 함께 해방 전후 시기는 조승원에게 완전한 혼란의 시기였다. 1945년 그는 극에 달한 태평양 전쟁의 여파로 경기도 개풍군 본인의 농지로 소개를 당하기도

205) 박혜진, 앞의 책, p.148, p.199.

206) 박혜진, 앞의 책, p.156.

207) 박혜진, 앞의 책, p.156.

208)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pp.228-239.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 국사학과 박론, 2008, pp.178-188.

209) 건평사 시기의 작품 목록에서 조승원의 신양리, 기림리의 한옥자택은 제외하여 수를 파악하였다.

210)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4.

211)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4.

212) 다만 이왕기만이 유일하게 건평사의 해체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건평사는 해방직후 와해되었다고 한다.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Vol.64, 1987.2, pp.97.

하였으며<sup>213)</sup>, 해방 직후에는 남북분단으로 그의 이북 사업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채 소 개지에서 빈손으로 서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sup>214)</sup> 이어서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 했다. 조승원은 1차 후퇴 당시 90일간 서울에 잔류하며 반장 일을 맡아 보았고, 9.28 수 북 후에는 통장 일을 보았다.<sup>215)</sup>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부친 조득룡이 별세하여 장 례를 치러야 했다.<sup>216)</sup> 1951년의 1.4후퇴, 3.14 수복에 이은 4.14 후퇴 동안에는 임시동회 장 일을 맡으면서 수많은 시체들을 가매장하고 기록하여 후에 연고자들에게 인계하였 다.<sup>217)</sup> 한국전쟁의 기간 동안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목수일, 양말직조 공, 상인, 반공무원, 직공, 상두꾼, 무유급 전도사 등 다양한 생업으로 생계를 이어갔 다.<sup>218)</sup>

## (2) 조선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의 시공(1947)

전술하였듯이 1940년대 조승원은 건평사의 해체와 혼란스러운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정상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기록에서 이 시기 다시금 대목직 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있는데<sup>219)</sup>, 이를 통해 당시 그가 완전하게 건축 일에서 손을 떼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목직업’이라는 표현으로 짐작컨대 이 시기의 활동 은 그가 1920년대 목수로서 한옥의 시공 현장을 전전하던 때의 활동과 유사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조승원이 청부, 시공한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 구의 공사 사실은, 조선주택영단의 구체적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못한 해방부터 한국전 쟁까지의 과도기에 행해진 것으로서 눈길을 끈다.

돈암지구는 현재의 돈암동, 동선동 1가, 동소문동 1가, 안암동 1가, 삼선동 1가, 보문 동 1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사 업이 시행되었다.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 2월 2일 총독부 고시 제96호 에 의해 시행되어 1940년에 완전 종료되었는데, 이는 총독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10개 곳 중 영등포지구와 함께 해방이전 가장 먼저 사업이 착수되어 완 료된 것이다.<sup>220)</sup> 돈암지구는 사업시작과 더불어 불과 3, 4년 만에 대규모 주거지로 바뀌

213)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4.

214)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215)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5.

216)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5.

21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5.

218)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5.

219)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220)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제37호, 2009, p.4에 따르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를 포함하여 대현지구와 신당지구를 제외하면

〈그림 3-14〉 1936년 敎岩 龍頭地區의 주거밀집 현황<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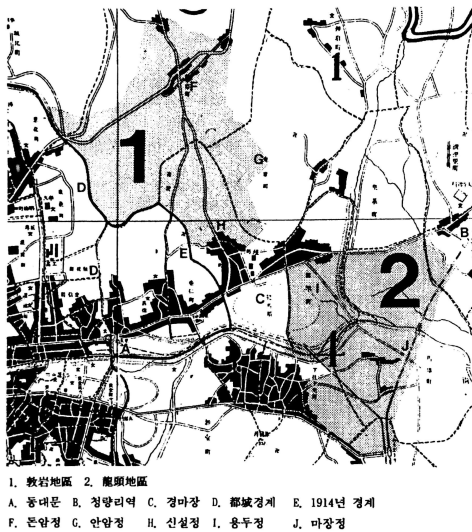


그림 37 1936년 돈암 용두지구의 주거 밀집 현황(출처: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문, 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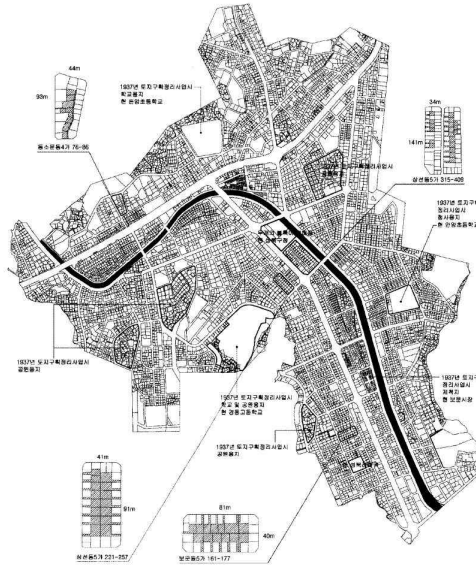


그림 38 2002년 돈암지구 지적도(출처: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제37호, 2009.)

게 되었다.<sup>221)</sup>

돈암지구의 토지조성이 완료되고 1939년 9월에 분양이 완료된 후 어느 시점부터 돈암지구 내 주택들이 지어졌는지 정확한 날짜 및 지어진 주택 수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sup>222)</sup> 다만 조선총독부는 당시 돈암지구에 건축될 주거유형을 일식 주거를 바탕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지어진 주거유형은 거의가 한식목조의 도시한옥인 것으로 파악된다.<sup>223)</sup> 한편 1959년 돈암지구 항공사진을 통해 현재의 보문동4가 지역으로 보문시장 대각선 방향의 블록에서 연립형 영단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지가 일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돈암지구에 도시형 한옥 외에 영단주택이 건립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sup>224)</sup>

한편 1945년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정세에서 주택영단의 활동 사항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한국전쟁 중 영단의 사옥은 북한군에 의해 방화, 소실되었고, 이때 광복 이후의 각종 자료도 함께 소실되었다.<sup>225)</sup> 다만 대한주택공사의 연혁을 통해 미

나머지 지구의 사업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221) 김영수, 같은 책, p.4.

222) 이는 김영수가 2009년의 글에서 지적한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기록은 거의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영수, 앞의 책, p.12.

223) 김영수, 앞의 책, p.5.

224) 김영수, 앞의 책,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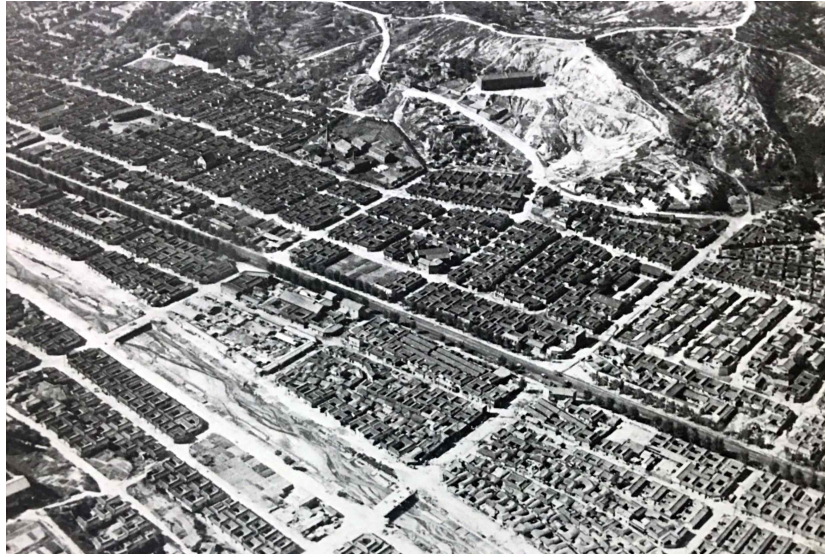


그림 39 서울 청계천과 안암동, 제기동 항공촬영 1959년(출처: 임인식, 임정의 편, 『그때그모습』, 발언, 1993.)

군정과 관련된 이 시기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 1945년 해방이후 조선주택영단은 미군정 보건후생부의 주택국으로 인수인계되어 미군정 산하의 기관이 된다. 1946년 미군정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직시하여, 조선주택영단에 주택 1만호 건설을 지시하였고, 영단은 건설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sup>226)</sup> 이후 미군정청 직제 개편으로 주택국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영단은 적산으로 간주되어 경기도 적산관리처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영단은 군정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요청을 받는데, 이는 당시 적산가옥을 점유하고 있던 난민들이 입주할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일이었다.<sup>227)</sup> 이에 영단은 1946년 후반에서 1947년 전반에 걸쳐 돈암동 11호, 용두동 14호, 안암동 24호, 신설동 5호, 사근동 11호, 홍제동 8호 총 73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다.<sup>228)</sup> 1948년이 되면서 조선주택영단은 중앙관제처의 관할 하에 소속되어 그 호칭을 대한주택영단으로 변경하여 조선주택영단 시대를 마무리하였다.

정리해보면, 현재로서는 1946년 후반에서 1947년 전반에 걸쳐 시행된 적산가옥 철거민을 위한 주택 73호의 건설 공사만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해방 직후 한국전쟁 전까지 주택영단의 활동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1947년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언급한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의 공사가 이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

225)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226) 대한주택공사, 같은 책, p.75.

227)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p.76.

228) 대한주택공사, 앞의 책, p.76.

만 1941년 일제시기 총독부 산하의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계획되었던 주택 공급 사업이 해방 직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승원이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를 청부, 시공한 사실을 통해 해방 직후 영단 내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주택 공급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1.2. 1950년대 건축 활동의 재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그는 건축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는 연고자 직영의 방식을 통해 몇몇의 학교 건축의 설계, 시공 일을 맡아보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평양에서 청부회사를 운영하던 때와는 달리 서울 활동에서는 어떠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채 줄곧 개인자격으로 설계, 시공의 일을 이어가게 된다. 이 시기 조승원의 활동을 살펴보면, 당시 재건의 현장에서 제도권 밖의 건축 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고, 또한 그가 서울에서의 활동에서 줄곧 청부가 아닌 직영을 고수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년도	번호	건축 작품	역할
1953	29	「군산사범학교 도서관」	설계, 감리
	30	「군산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설계, 감리
1955	31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	설계, 감리
1955	32	「오산 중고등학교 본관」	설계
1956 - 1957	33	「인천사범학교 본관」	설계, 감리
	34	「춘천사범학교 별관」	시공, 감리
	35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춘천사범학교 도서관」	계획안
1958 - 1960	36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	시공, 감리
1960	37	「서울 혜화동 윤씨주택」	설계, 시공
1964	38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체육관」	시공, 감리
1965	39	「보성고등학교 본관」	설계, 감리

표 15 제3기 「학교건축을 통한 철근콘크리트조 학습기」의 작품 목록(1947-1965)

##### (1) 연고자를 통한 건축 활동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조승원은 군산사범학교<sup>229)</sup> 도서관 및 부속국민학교를 설계, 감리할 기회를 얻는다. 군산사범학교는 1946년 9월 10일 설립 인가를 받았고, 설립 당

229) 군산사범학교는 1946년 9월 10일에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이후 1963년 교육대학 설치방침에 따라 군산사범학교는 폐교되었고, 1966년에 군산교육대학으로 다시 개교하였다. 군산교육대학도 1978년에 11회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폐교되었으나, 이듬해 군산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산대학교 60년사』, 국립군산대학교, 2007, p.4.

시 캠퍼스는 전라북도 군산시 동흥남동 팔마산 자락이 감싸 안고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sup>230)</sup> 현재 캠퍼스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교육대학 군산부설초등학교의 교지로 사용되고 있다.<sup>231)</sup> 한편 군산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는 1947년 사범학교가 개교한 해의 4월 27일에 설립되었고, 개교 당시에는 군산사범학교 내에 위치하였으나, 1952년 미원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sup>232)</sup> 시기상 조승원이 설계, 감리한 부속국민학교의 건축은 미원동의 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군산시 미원동의 군산남초등학교 교지가 옛 군산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의 자리이다.

조승원은 당시 군산사범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최봉칙과의 인연을 통해 건축 일을 맡을 수 있었다. 최봉칙은 한국전쟁의 기간을 포함하는 시기인 1951년 4월 19일부터 1955년 3월 15일까지 군산사범학교의 교장을 맡았다.<sup>233)</sup> 그는 1896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는데<sup>234)</sup>, 조승원의 차남 조영무는 최봉칙이 그의 외증조부라고 증언하였다.<sup>235)</sup> 즉, 최봉칙은 조승원의 처인 최명숙의 할아버지인 것인데, 최명숙이 1900년생인 것으로 판단할 때 그녀의 직계 할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녀와 친척 관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봉칙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학교의 재건을 위해 군산사범학교 도서관의 건립에 힘을 쏟았고<sup>236)</sup> 이때 이의 설계, 시공을 조승원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군산사범학교의 도서관은 1954년 완공되었다.<sup>237)</sup>



그림 40 최봉칙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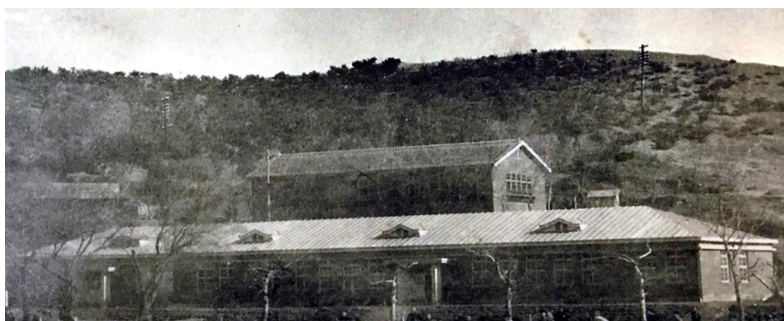


그림 41 군산사범학생들이 터를 닦은 도서관(위)과 과학관(아래)(출처: 『군산대학교 60년사』, 국립군산대학교, 2007)

230) 이곳은 1938년 4월 1일부터 군산팔마국민학교의 교사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팔마국민학교는 1947년 3월 31일에 폐교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4.

231)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4.

232)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26.

233)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12.

234) 「최봉칙」,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35)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2017.3.22., p.20.

236)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12.

237)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12.

한편 군산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는 1948년 이후로 사범학교와는 별개의 교장을 따로 임명하였으나, 1952년부터 1955년까지 진행된 미원동 교사 신축은 그 기간이 최봉칙의 군산사범학교 교장 재직 기간과 일치하므로, 역시 직간접적인 최봉칙과의 관련을 통해서 조승원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속국민학교의 교사는 1952년 2개 교실을 준공한 이후 점차로 교실을 증축하여 1955년 11월 21일에 증축교사 2층 8개 교실 및 현관을 준공하였다.<sup>238)</sup> 조승원이 1952년 부속국민학교의 첫 2개 교실의 준공에 참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1955년까지의 증축 과정에 일부 참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조승원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이어진 인천사범학교의 본관 및 부속초등학교 교사의 설계 및 시공을 맡게 되었는데, 이 역시 최봉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봉칙은 1955년 3월 군산사범학교의 교장 직을 내려놓은 직후 인천사범학교의 5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961년 3월 31일까지 재직하였다.<sup>239)</sup> 조승원이 맡은 인천사범학교의 건축 기간은 최봉칙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속한다.

옛 인천사범학교의 본관 및 부속국민학교는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에 위치하였고, 현재 이 건물들은 현존하여 각각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과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센터의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1955년 5월 20일 인천사범학교 본관의 건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 구성되었고, 문교부, 미군원조기관, 기타 기관 등의 협력을 얻어 1956년 10월 13일에 본관의 정초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sup>240)</sup> 1957년 6월 30일 본관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3층 1028평의 건물로 준공되었다.<sup>241)</sup> 한편 인천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는 1957년 4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58년 12월 15일 신축 교사의 공사가 착공되어 1960년 1월 25일 철근콘크리트조 3층에 연건평 총 877평으로 준공되었다.<sup>242)</sup>

이외에도, 1955년에 조승원이 오산 중고등학교 교사의 설계를 맡을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20대에 인연이 있었던 이응준 중위와의 인연이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승원은 1921년 항일독립운동 죄목으로 마포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평양으로 귀가하기 전 서울의 당시 일본군 중위 이응준의 덕에 머문 적이 있었다. 조승원에 따르면 그가 당시 그곳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감옥에서 만난 현순을<sup>243)</sup>이 그의 동창 겸 절

238) 국립군산대학교, 앞의 책 p.26.

239)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7, p.100.

240)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같은 책, p.100.

241)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00.

242)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100.

243) 현순을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남만주 이주 교민 자치기구인 한족회(韓族會)와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에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금하는데 힘썼다. 그는 평안남도 개천 출신으로, 생몰년이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현순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의형제였던 이응준에게 조승원의 출옥 후 장래를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244)</sup> 1955년 당시 육군 참모차장이었던 이응준은 조승원이 맡은 오산 중고등학교의 공사가 진행되던 1955년부터 1957년까지 학교의 이사에 재직하였고, 1955년 11월 26일 기공식이 있던 후에는 학교 부지를 정리하는데 공병 1개 소대를 동원시키는 일에 적극 개입하기도 하였다.<sup>245)</sup>

한편 1950년대 건축 활동 사항 중 보성고등학교와 춘천사범학교의 일을 그가 맡게 된 구체적 정황은 현재로서는 파악치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의 사례들을 통해볼 때 이들 건축 역시 특정 연구자와의 인연을 통해 설계, 시공을 맡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조승원은 1950년대 건축 활동의 재기에 성공한다.

## (2) 오산 중고등학교 교사의 설계(1955-1957)

조영무는 조승원이 오산 중고등학교 교사의 설계, 감리를 1957년에 수행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조승원은 기록에서 오산 중학 본관의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언급하지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sup>246)</sup> 하지만 오산 중고등학교의 역사 기록을 통해 1955년부터 1957년까지 행해진 교사의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기록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승원은 1955년에 오산 중고등학교 교사의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며,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승원이 서울에서의 건축 활동에서 청부가 아닌 직영을 고집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재건 현장의 건축 활동의 구체적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244) 이응준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창씨개명으로 가야마 다케토시(香山武俊)라는 이칭을 지니고 있으며, 1890년 8월 12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시기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며 1930, 40년대에는 조선인의 일본군에 의한 전쟁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선동한 전력이 있다. 해방 후에는 초대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대학 총장을 지냈고, 1955년부터 1958년까지는 체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응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러한 이응준의 친일 이력 때문에 현석홍과 조영무는 조승원이 1921년 출옥 후 이응준 장교의 집에 머문 이유를 그가 요시찰인이 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조승원은 기록에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감옥에서 만났던 현순을의 부탁이 있었던 점을 특별히 함께 언급하였다. 종합해서 검토할 때 조승원이 1950년대 건축 활동을 재개하던 시기 불가피하게 이응준의 도움을 받았고, 이의 고마움으로 인해 이후 시기 이응준과 관련한 회고에서 친일 행적과 관련한 사항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석홍, 앞의 책, p.37.

245) 『오산 80년사』, 오산중고등학교, 1987, pp.490-491, p.499.

246)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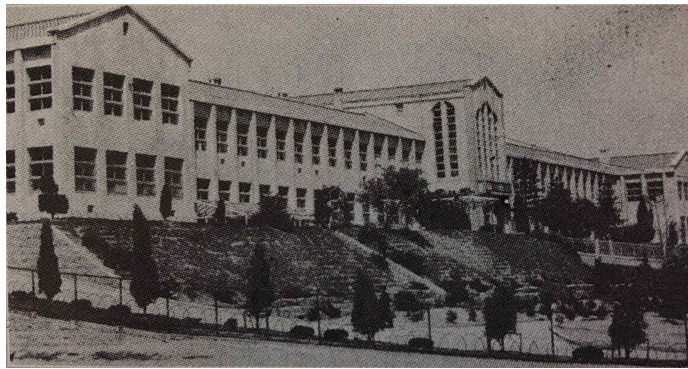


그림 43 이응준(출처: 한 그림 42 오산 중.고등학교 본관(출처: 『오산80년사』, 오산  
국학중앙연구원) 중고등학교, 1987.)

오산 고등학교는 1907년 12월 남강 이승훈이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오산에서 4년제 중등과정으로 세운 오산학교로 설립되었다. 광복 후에는 남하하여 1953년 4월 부산광역시 동구 동대신동에서 오산고등학교로 재건하였다가 같은 해 서울 용산의 원효로에 교사를 짓고 이전하였다. 1956년 4월에 다시 서울 용산구 보광동 현 위치에 교사를 새로 지으며 이전하였는데, 조승원이 참여한 교사는 보광동 이전을 위해 신축된 본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오산중학교의 본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건축은 1955년 말엽에 학교의 대지를 매수하고 본관 교사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sup>247)</sup> 대지 460평에 건평 944평 2층으로 짓기로 하고 평면 형태를 오산의 산자를 따기로 하였다.<sup>248)</sup> 총 공사비는 당시 가격으로 5천만원이 소요되었다.<sup>249)</sup> 1955년 11월 26일에 기공식, 1956년 7월 10일에 정초식을 시행하였으며 1957년 5월 15일에 준공 본관의 낙성식을 시행하였다.

기공 후에는 학교의 터를 닦기 위해 동창과 사회 유지들 중 이응준 포함 군 유력자들의 도움으로 공병 1개 소대를 동원시켰고, 시멘트, 목재, 철근 등의 건축자재는 미8군의 원조를 받아 확보하였다.<sup>250)</sup> 본관의 공사는 학교에서 직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뒤따르지 못해 부득이 노임은 청부로 하고 자재만 학교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sup>251)</sup> 이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는 업자인 차광전(車廣田)에게 낙찰되었고 대금은 학교가 완성된 후에 지불하기로 하여 건축에 착수하였다.<sup>252)</sup> 이러한 기록과 함께 조승원이 오

247)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0.

248)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0.

249) 당시 최성민 교감은 건축 공사를 감독하고 박여명 서무는 조달 및 자재 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현장 자재 출납은 방휘제 선생의 부친 방정현이 맡았다.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0.

250)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1.

251)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2.

산중학교 본관의 일을 맡았다는 기록을 신뢰한다면, 그는 1955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이고 시공은 1956년 정초식 이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차광전이 청부로 맡아 보았으므로 그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당시의 기록에서는 청부업자에게 제때 임금을 제공하지 못해 공사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956년 10월에 이르러 본관 교사가 일부 완성되어 학교 측에서는 계약에 의해 공사비 중도금을 청부업자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학교 재정난으로 인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sup>253)</sup> 이에 청부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김기홍 이사장을 남오여관에 4일간 연금하며 공사비를 재촉하였다 한다.<sup>254)</sup> 이후에도 학교는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 건축 공사는 중단되기 일쑤였으며, 청부업자는 오산학교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재단을 본인들이 인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고 한다.<sup>255)</sup> 이러한 상황은 1957년 2월 15일 최창학이 이사장에 취임하며 일단락되었고, 1957년에서야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식 건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sup>256)</sup>

전술하였듯이 조승원은 연고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건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측과의 과격한 활동으로써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서, 그는 홍두표 교장을 통해 1965년부터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공사를 맡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1955년의 보성고등학교 공사 당시 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홍두표와의 인연을 이어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sup>257)</sup> 이를 통해 당시 그가 건축주와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그가 청부의 방식이 유발하는 건축주와의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 직영을 고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승원이 1950년대 건축 활동을 재개하던 시기에는 그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임을 후에 받는 식의 청부 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

252)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2.

253)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3.

254)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4.

255)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4, p.496.

256) 오산중고등학교, 앞의 책, p.498, p.500.

257) 조승원과 홍두표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3.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에 내용을 참고.

#### 4.1.3. 철근콘크리트조의 학습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 (1953-1965)

1950년대 조승원의 건축 작품은 총 8개로 모두 한국전쟁 후 학교의 재건 과정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 중에는 설계 또는 시공, 감리에만 참여한 작품도 있으며, 계획안만 작성하고 실현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멸실되었지만, 인천사범 학교의 본관 및 부속초등학교 교사와 오산 중고등학교 교사가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실체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는 이들 작품을 통해 196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토대가 되는 시공 기술을 학습할 수 있었고, 특히 춘천사범학교의 공사에서 만난 미국원조재단의 기술 감독관 허만 박사의 조언을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발상을 체득할 수 있었다.

##### (1) 학교 건축을 통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학습

조승원은 1950년대에 맡게 된 학교의 건축 일을 통해 처음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법을 습득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 건평사는 주로 벽돌조와 목조의 건축들을 설계, 시공하였다고 하며,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 기술을 사용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없다.<sup>258)</sup> 다음으로 서울 이주 후에는 그가 또다시 대목직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학교 건물의 설계, 감리를 통해 겨우 재기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므로, 1947년 주택영단 돈암지구 제1지구의 공사는 대목일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철근콘크리트조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59)</sup> 실제로 192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철근콘크리트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의 건축양식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공공시설과 대형 시설에 적용되었지만<sup>260)</sup> 이는 매우 일부분이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도 완전한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 기술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sup>261)</sup>

조승원이 본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58)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제1호, 1977.2, p.50.

259)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260)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19.

261) 박길룡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은 매우 빈약한 기술지원 하에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모더니즘을 위해 나름대로 찾은 수단은 콘크리트와 조적조를 조합하는 격자의 로-테크의 건축 조형이었다. 즉, 1950년대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2015, p.21.

한편 전봉희, 권용찬에 따르면 주택에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다. 전봉희, 권용찬, 앞의 책,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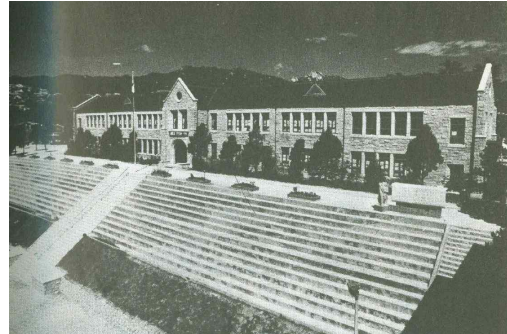


그림 45 조승원이 1953년 설계, 감리한 군산 부속 초등학교의 1950년대 모습(출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그림 44 1955년 조승원이 설계, 감리한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출처: 『보성 80년사』, 1986)

1956년의 인천사범학교 본관을 설계, 시공하면서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전 시기인 1955년에 이루어진 보성고등학교 교사는 석조로 명시되어 있으며<sup>262)</sup>, 더 이전 시기의 군산사범학교의 도서관 및 부속초등학교 건물들은 사진을 통해 확인해볼 때 일부 철근콘크리트조가 적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주로 벽돌의 조적조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그는 당시 사범학교의 공사와 관련한 회고에서 안동 사범학교 교사가 1976년으로부터 20년 전 골조와 바닥과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시공한 최초의 교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sup>263)</sup>, 안동사범학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건축 연혁은 확인되지 않으나 대체로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 건축 이후인 1956년 즈음부터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각 건축의 연혁을 살펴보면, 그가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1957년 5월 15일에 낙성식을 가진 오산 중고등학교의 본관은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완성되었고, 1957년 6월 30일에 준공된 인천사범학교 본관은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완성되었으며, 1960년 1월 25일에 준공된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의 교사 역시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완성되었다. 이들 세 건물은 현존하여 각각 오산중학교 본관,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인천광역시 남구 스포츠센터로 이용되고 있어, 그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춘천사범학교 별관과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를 미국에서 파견된 교육사절단을 도와서 시공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조의 학습을

262) 보성고등학교 교사는 당시 이의 신축을 위해 구성된 교사복구증축기성회에 의해 이루어졌고, 1955년 5월에 착공되었다. 이 교사의 구조는 석조였고, 규모는 2층, 14개 교실에 건평 454평이었다. 『보성80년사』, 동성학원, 1986, p.541.

263)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그림 46 1980년 송의동의 인천교육대학 구 캠퍼스 전경. 왼쪽 건물이 조승원이 설계, 감리한 인천사범학교 본관. 오른쪽이 조승원이 시공, 감리한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 지붕의 모습과 중심부 처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출처: 『경인교대 60년사』, 경인교대60년사 편찬위원회, 2007)

진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56년 미국 국무성의 위촉을 받고 피바디 사범대학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에서 거슬린(Dr. Goslin)단장이 사절단을 데리고 내한하였고, 이들은 1962년까지 각 도를 돌아다니며 전반적인 사범교육의 발전을 도왔다.<sup>264)</sup> 이들은 사범학교의 시설확충과 정비 등도 도왔는데<sup>265)</sup>, 이를 통해 조승원이 미국에서 들어온 발전된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술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그는 1957년 춘천사범학교의 별관을 시공, 감리하던 때에 미국원조재단의 기술 감독관으로 내한한 허만 박사의 지도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허만 박사는 미연방정부 건축과장과 피바디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학교건축 전문가였다고 한다.<sup>266)</sup> 이 허만 박사는 피바디 사범대학에서 파견된 사절단 중 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허만 박사에게 철근의 결속 거푸집의 조립 사용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제도에 열중하면서 기술 설계를 배울 셈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sup>267)</sup>

이러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학습의 성과는 그가 1959년부터 1960년까지 시공한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가 평지붕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련 사진 또는 실물을 통해 확인되는 1957년 이전까지 조승원이 직접 설계한 대부분의 학교 교사 건축은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이는 장축으로 긴 직사각형의 평면에 2층 또는 3층의 판상형 몸체를 지니고, 박공 정면을 중앙에 배치하여 정면성을 살리며, 지붕은 경사지붕을 채택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허나 그가 시공에만 참여한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에는 경사지붕 대신 평지붕을 적용하였고 이와 함께 박공 정면의 중앙부 역시 사라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가 개선된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술이 적용되

264) 『춘천교육대학 50년사』, 춘천교육대학, 1989, p.277.

265) 춘천교육대학, 같은 책, p.188.

266)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49.

267)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그림 47 보성고등학교 신관(출처: 김원석, 도목수 조승원 공, 『건축가』, 1987.1-2)

어 평지붕을 사용한 건축을 거의 최초로 시공해본 사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의 영향은 이후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시도하기 직전 시기인 1965년의 철근콘크리트조 보성고등학교 신관<sup>268)</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천사범학교 부속초등학교와 유사하게 평지붕을 적용하였고, 박공 정면의 중앙부를 제거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서 그는 얇은 바닥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측면에서 바닥판의 단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 표현은

268) 건축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보성80년사』에서는 1965년쯤의 시기에 이루어진 보성고등학교 신관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65년 3월 2일에는 신관 2층 6개교실 중 일부가 준공되었고, 1967년에는 1966년부터 진행되던 신관 건물 중의 2개 교실이 완성되고 1, 2, 3층 14교실의 뼈대 공사가 끝났다고 한다. 이 중 1965년 3월 2일의 준공 건축은 그 규모가 조승원이 설계, 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신관과 맞지 않으므로, 1967년에 뼈대 공사가 끝난 3개 층의 건축이 조승원에 의한 신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달리 여기에서는 이의 공사가 1965년이 아닌 1966년부터 진행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의 차이를 현재의 정보만으로 확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조승원에 의한 신관 계획이 1965년부터 이루어졌고, 그 착공이 1966년에 이루어졌다면 동일 건축의 시작을 다른 시기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학원, 앞의 책, p.565, p.571.

이 시기에 그의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기술이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발상

조승원은 여러 기록에서 1957년 춘천사범학교의 공사에서 만난 허만 박사와의 에피소드를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발상을 체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1960년대 관의 이념적 목적으로 전통건축양식이 콘크리트조로 모방되기 이전에 민간의 건축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건축 조형의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sup>269)</sup>

전술하였듯이 조승원이 언급하는 허만 박사는 당시 피바디 사범대학에서 파견된 사절단 중 한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축과 관련한 기술 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승원에 따르면 당시 허만 박사는 한국 풍습을 존중하였으며, 한국의 건축을 중국이나 일본의 것보다도 아름다운 훌륭한 것으로서 칭찬하고 격려했었다고 한다.<sup>270)</sup>

당시 허만 박사는 춘천사범학교 터의 왼편 언덕에 짓기로 한 도서관의 설계를 조승원에게 맡겼다. 조승원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층마다 1m 이상의 난간을 세운 발코니를 설치하고 경사지를 살려 지하층을 1층으로 하고 그 위에 지상의 2층을 도서관으로 두는 기본 설계안을 구상하여 허만 박사에게 제시하였다.<sup>271)</sup> 며칠 후 이를 검토한 허만 박사는 기본 설계안에서 지붕만 한식으로 고칠 수 없겠느냐고 조승원에게 물어왔고, 조승원은 이 제의를 반갑게 받아들여 한식목조건축양식의 기와지붕 및 처마구조 형태를 갖추고서 한국 고유의 난간을 살리고 창호들도 亞자 문양으로 의장하였다.<sup>272)</sup> 이의 입면도를 확인한 허만 박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는데, 이때의 대화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그는 이 立面圖를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요. 이것은 예술품이다. 당신은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한국 사람이야. 당신은 좀 더 한국건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소! 근대식건물들은 立體的의어서 사용에는 편리하나 예술품은 되지 못한다오.> 라고 말하기에 <한국의 전통구조는 목조가 아닙니까? 建藝品은 될 수 있어도 근대사회에서 사용할만한 여유 있는 집을 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정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해 보라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韓式建物들을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과 같은 새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 보세요. 한식건축을 바탕으

269) 1960, 70년대 박정희의 주도하에 실현된 전통건축양식을 콘크리트조로 모방한 건축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 김지홍, 앞의 책. 강난형, 앞의 책.

270)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현석홍, 앞의 책, p.37.

271) 조승원, 같은 책, p.134.

272)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49.



로 하여 목조보다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야겠다. 나는 한국에 와서 건축설계제도 책을 구하려고 애썼으나 구할 길이 없었다.> 고 말하였다. 나에게서는 그의 이 충고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버렸었다....273)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조승원은 목조와 철근콘크리트조를 각각 전통과 근대의 건축 기술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였고, 또한 목조의 전통건축이 근대사회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허만 박사의 충고로서 이러한 그의 편견을 벗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전통건축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발상을 깨닫게 된 것이다.

허나 관련 문헌을 살펴볼 때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되는 춘천사범학교 도서관은 실제로 지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승원의 관련 기록의 어디에서도 이 건축의 기본 설계안을 작성 및 수정하였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완성되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춘천사범학교의 당시 건축 관련 기록을 살펴볼 때, 따로이 도서관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1950년대 춘천사범학교 건축 연혁을 살펴보면, 1954년 9월에 행정본관이 벽돌조의 2층으로 완성되었고, 1956년 5월 15일 목조의 7교실을 갖춘 특별교실이 준공되었으며, 1957년 10월 23일에 10평의 온실이 준공되었고, 1959년 6월 17일부터 1960년 6월 30일까지 시공된 과학관에 연건평 72평의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벽돌조와 목조 그리고 10평의 소규모 건축의 기록까지 비교적 상세한 것으로 보아 학교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의 건축 기록을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었던 과학관을 검토해보면, 관련 기록에서는 과학관이 미국국제협력처(ICA) 기관의 원조로 세워졌으며, 이 공사는 삼화건설주식회사가 맡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시 건물 모습을 사진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물에 전통건축의 요소를 도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최종적으로 춘천사범학교 공사에 참여한 시기가 1957년이라는 조승원의 기억과 과학관의 건립연대는 2년여 이상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가 참여한 도서관이 과학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춘천사범학교의 도서관이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조승원이 깨닫게 된 발상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가 이러한 발상을 이후 196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서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설계, 시공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소석관을 시작으로, 이후 1970년

---

273)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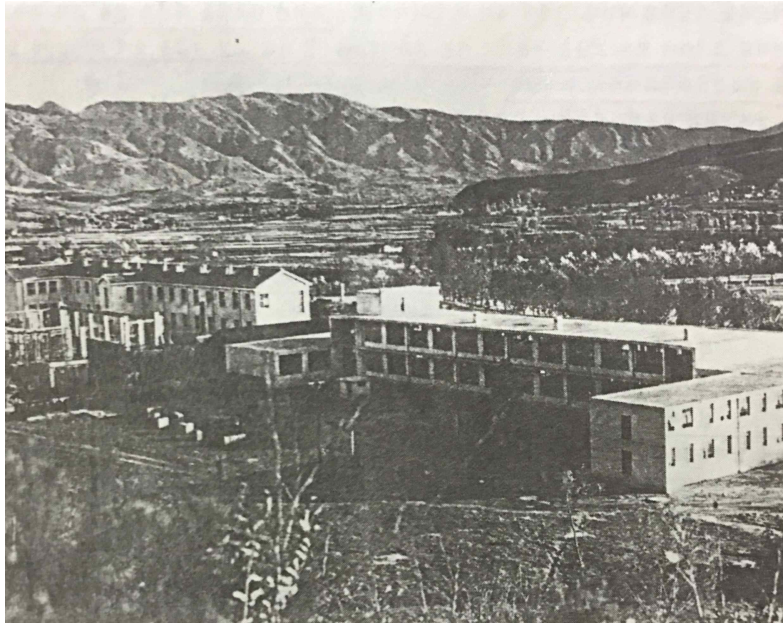


그림 48 1960년 과학관 준공 직후 춘천사범학교 전경. 오른쪽 건물군이 과학관(출처: 『춘천교육대학 50년사』, 1989)

대까지 대부분의 작품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형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조승원 건축의 뚜렷한 특징이 된다.

## 4.2. 건축관의 형성과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조승원은 환갑을 맞이한 1961년부터 본인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생각을 글로 남기기 시작하였고 이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본 절에서는 특히 1960년대 초에 작성된 몇몇 문헌에서 드러나는 그의 건축에 관한 가치관을 살펴보려 한다.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대목출신 근대건축가로서 전통을 계승해야하는 주체임을 자각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가치 판단을 통해 계승되어야 할 전통의 성격을 구별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전통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는 그의 1960, 70년대 저술과 작품 활동을 위한 사고의 토대로서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그가 1960, 70년대 당시 벽돌, 콘크리트와 같은 근대적 재료와 기술에 더 익숙했음에도 목조의 전통건축에 천착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여기에서는 그가 건축 실무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 면에서 맞닥뜨린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가 1960년대에 전통건축을 보충 학습하고 저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등의 저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이유를 파악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그의 건축 실무 활동과 전통건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저술 활동까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 4.2.1. 전통 계승의 의식

*장차 우리의 건축 역사를 규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 자신이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힌 산 기예들과 지식들을 직접 서술하여 후진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여태껏 나와 같이 대목(大木) 수업을 거친 사람이 직접 서술하여 펴낸 건축책을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척 불행스러운 사실이다.<sup>274)</sup>*

조승원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머리말에서 그가 대목 수업을 거친 사람으로서 후진들에게 전통건축의 기법을 기록으로 전하기 위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허나 전술하였듯이 조승원이 1920년대 대목으로 건축에 입문하였고 도편수의 수업을 거친 이력이 있음에도, 실무에서의 주요 활동의 대부분은 근대적 재료를 이용한 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1960, 70년대의 저술과 실무 활동에서 전통건축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이유를 단순히 그가 대목 출신이었다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헌의 단서를 통해 그가 스스로를 대

274)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조승원·조영무 공저, 민음사, 1981, p.11.

목 출신 근대건축가로서 전통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전통을 어떠한 기준으로 파악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조승원의 1960, 70년대 저술,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고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로서 중요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조승원의 유년기 3개의 고향집을 살펴보아야한다.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단순히 개인의 추억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대목 수업을 거친 근대 건축 설계자로서 후대에 계승해야 할 역사적 기억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스스로 전통을 계승해야하는 주체임을 의식하고 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글과 현장을 통해 학습한 과거 건축의 선례들을 나열하고 이를 크게 일시성의 예술과 영원성의 예술로 분류한다. 그리고 그는 일시적인 정치성이 개입한 권력의 예술을 부정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후손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예술로서 자비의 건축을 긍정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과거를 계승하는 영원한 예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료와 공법을 이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주로 그가 저술을 막 시작한 시점인 1963년과 1964년에 작성된 글<sup>275)</sup>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그의 건축관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조승원 유년기 3개의 집

조승원이 실향민으로서의 향수를 담아 기록한 어린 시절의 집에 대한 내용은 여러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18살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그의 유년기 총 3개의 다른 집을 경험하였는데, 각각의 집들에 대한 기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첫 번째 집은 그가 태어난 곳으로, 평안남도 맹산군 애전면 두무산동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하였다.<sup>276)</sup> 조승원의 조부와 부모는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의 여파로 인해

275) 이는 조승원에 의해 1963년부터 64년까지 작성되어 1996년 4월 비평건축에 게재된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1963.10-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5개의 절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1963년 12월에 작성된 세 번째 항 “유래를 더듬어”의 내용과 1964년에 작성된 마지막 항 “영원한 예술”의 내용에서 그의 건축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76) 조승원, 같은 책, p.127.

애전면은 광복 전 평안남도 맹산군 8면의 하나로, 1896년에 맹산군 애전면으로 되어 여러 동리를 관할하였다. 1952년에 구면리 대폐합에 따라 면 전체가 맹산군에 편입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한편 두무산동은 현재 평안남도 맹산군 풍림리의 두미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미산은 드므같이 생겼다하여 드므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종합하여 그가 태어난 곳을 2008년 기준의 지명으로 파악할 경우 ‘평안남도 맹산군 풍림리 두미산 계곡의 어느 곳’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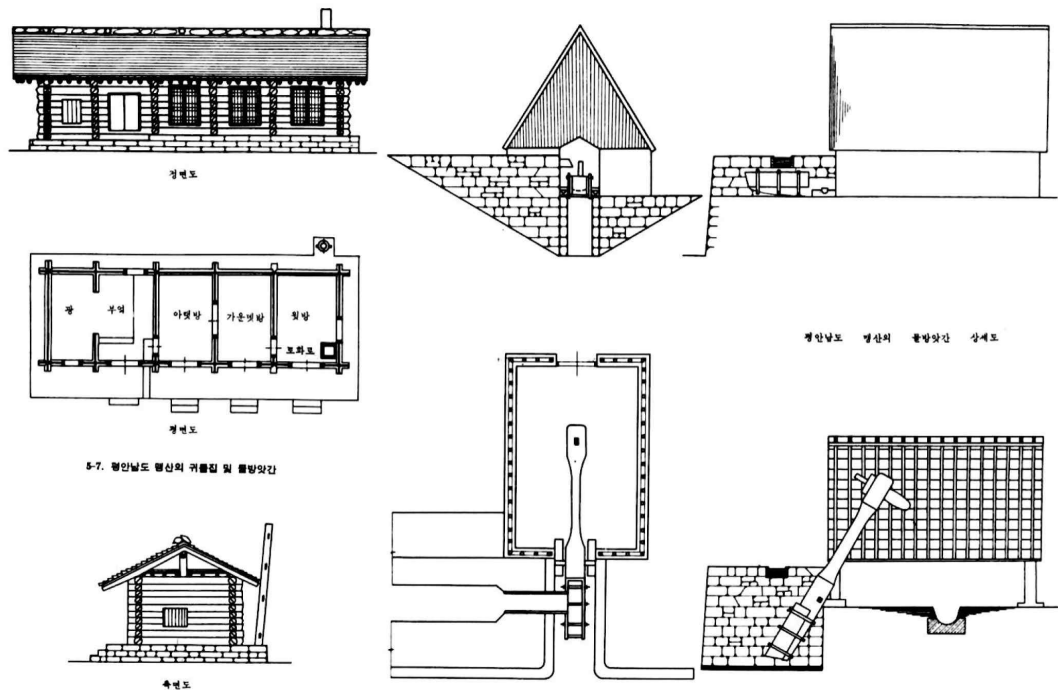


그림 49 평안남도 맹산의 귀틀집 및 물방앗간 도면. 조승원의 첫 번째 고향집(출처: 조승원 · 조영무 공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원래 살던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에서 이곳으로 피난하였다.<sup>277)</sup> 그의 기록에 따르면 집은 두미산 서남향 기슭, 뒤에는 산, 앞에는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입지하였으며, 그 규모는 온돌방 3칸에 곡간, 부엌이 붙은 총 5칸 집이었고, 그 구조는 곧은 통나무를 井자로 쌓아올리고 벽에 흙을 바른 귀틀집이었으며, 그 위에 초가지붕을 올린 것이었다.<sup>278)</sup>

조승원이 7살 되던 해인 1907년 그의 가족은 평안남도 덕천군 일하면 달하리 5통 8호의 초가집으로 이사하였다.<sup>279)</sup> 어린 조승원은 산골짜기에 고립 된 피난 집에서 벗어

27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1.

278)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3. 유래를 더듬어」 (1963.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8.

279) 조승원, 「특집: 나의 일생기 - 감명」 (1961), 『건축』, 제47권 1호, 2013.1, p.40.

일하면은 광복 전 평안남도 덕천군 6면의 하나로, 1896년에 평안도 덕천군 일하방을 개편하여 신설했던 면으로서 일하방의 이름을 따 일하면이라 하였다. 달하리 등 11개 리를 관할하였다.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면 전체가 덕천군에 편입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달하리 역시 덕천군 형봉리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한편 1986년에는 덕천군이 덕천시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조승원의 두 번째 집의 위치를 2008년 기준의 지명으로 파악할 경우 ‘평안남도 덕천시 형봉리 내의 어느 곳’으

나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경한 촌락의 풍경을 마주하였을 것이다. 마을은 용문산 기슭 아래 덕천 서면의 4촌락 중 하나였고, 마을의 대부분 집은 초가집에 간혹 돌너와집이 섞여있는 곳이었다.<sup>280)</sup> 마을의 집은 대부분 一자형 또는 二자형 평면 구성에 박공지붕을 얹은 형태였다고 한다.<sup>281)</sup> 특히 그는 회고에서 당시 고장의 특징적인 초가지붕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남쪽지방과는 다른 방식이라 한다.<sup>282)</sup> 아마도 당시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에서 주기로 집집마다 지붕을 교체할 때 호기심 많은 어린 조승원이 곁에서 이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을 것을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1918년이 되어, 조승원의 부친은 돌너와집을 신축하였다.<sup>283)</sup> 이 때, 18살의 조승원은 아버지의 조수로서 집 짓는 일을 함께 하였다. 집은 부엌 두 칸, 온돌방 세 칸의 총 5칸 규모의 집이었다.<sup>284)</sup> 지붕에는 고장에서 채석되는 두터운 석판을 사용하였고, 용마루에는 흙기와를 덮어 마감하였다.<sup>285)</sup> 벽은 북위 40°가 넘는 북녘 땅의 추위를 막기 위해 두터운 진흙벽으로 만들었다.<sup>286)</sup> 조승원은 같은 해에 장가를 가고 곧 평안남도 대동군

---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앞의 책.

280)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34-135.

281)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49.

282) “남쪽지방과 달리, 지붕이엉을 얹는 법은 짚을 거꾸로 얹지 않고, 밑둥쪽을 아래쪽에 놓이도록 얹었으며, 또 지붕전체를 통째로 고깃비늘처럼 달아 도롱이 얹는 식으로 몽땅 얹어서 덮는데, 양단의 박공머리 서까래에다 결속하고, 지붕머리에 곱새를 덮어 씌우는 형식이 예사였었다. 새끼그물을 씌우지 않고도 폭풍에 벗겨지지 아니하였었다.” 조승원, 같은 책, p.49.

283) 관련 기록에서 “1918년 가친께서는 德川에서 돌기와집을 새로 지으셨었다.”, “1918년에 돌너와집으로 신축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땅에 돌기와집을 신축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초가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승원, 같은 책, p.49.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34-135.

284)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34-135.

285)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49.

이는 강원도 지방의 청석집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강원도에서는 흙기와나 나무너와 대신에 박판으로 쪼개지는 납작한 점판암을 지붕에 올린 집을 청석집이라 부르는데, 이는 점판암의 색이 푸르기 때문이다. 청석집은 돌기와집, 돌능에집, 돌느에집, 돌너와집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한다. 「청석집 [靑石—]」, 『두산백과』.

286) “흙바람벽 시공법은 下枋角材로서 厚角材를 사용하고, 중깃은 自生直材를 그대로 꺾어다가 45센치간격으로 끼우고 나서, 중깃사이에 진흙을 이겨 묻치서 채워넣고난 다음에, 싸리나무줄기들을 그 안팎에 세워 비뜨려 매놓고 다시 진흙의 초벌, 진흙과 모래의

물리면 구동창리로 이사하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sup>287)</sup> 따라서 그가 세 번째 집에서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는 처음으로 직접 건축 현장에 참여한 경험으로서 그에게 특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88)</sup>

## (2)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을 통한 전통 계승의 의식

조승원의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고향집은 단순한 개인적 추억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그가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 전통을 계승해야 함을 자각하는 매개로 기능하므로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가 1963년 12월에 기록한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중 3항 ‘유래를 더듬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sup>289)</sup> 여기에서 조승원은 앞서 언급한 3개의 집들 중 특히 그가 태어나 7살까지 자라났던 첫 번째 집의 기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두문산 서남향 기슭, 뒤에는 산 앞에는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배산임수의 아늑한 모태 안에 있던 벼락바위 위쪽에 층층나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던 터에 할아버지와 부모님께서 원시적으로 손수 짓고 살던 집이 바로 내가 1901년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랐던 집이다. ... 지붕과 처마는 작도를 갖고 분디나무를 길이 1.5척 너비 8치 이상 두께 1치가량으로 쪼개서 비늘처럼 3중으로 겹쳐 이어 덮고 그 집 마루에는 보나무 껍질을 사람 인자(人) 형으로 덮어씌운 다음에 무거운 자생돌로써 눌러 놓았다. 온돌방 구들돌도 역시 넓적한 자생돌을 골라 사용하고, 맨 웃목에는 흙으로 만든 화로가 있고, 그 화로위에는 첩끈을 가로세로 엮어서 빨래를 말리는 원형 나무틀을 매달아 놓았다. 능지기름과 분디나무 열매기름을 묻힌 솜심지에 불을 붙여 어두운 방안을 밝혔다. 불을 붙힐 적에는 광솔에다가 불씨를 얹고 입김을 불어서 불길을 점화시켰다. 어머니께서는 십여 년간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온돌바닥에는 흙면지가 많이 생겨난다고 해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어 솔 속에 넣어 삶아 끓인 풀물로써 진흙을 반죽하여 발랐다. 갈대로 만든 샛자리 대신에 구름나무 가지를 칼로 쪼개서 샛자리와 같이 엮어서 깔았다. 심산유곡이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했다. 두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해도 소금이나 바닷물로 만든 서슬(간수라고도 함)이 없어서 가막딸기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두부를 만들어 먹었다. 겨울철 김장을 담글 오지

재벌, 그리고 석회와 모래의 마감미장을 차례로 발라서 완성시켰었다.”, 조승원, 같은 책, p.49.

28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1.

288) “그 당시 내나이 열여덟 살 되던 때 이 집을 신축할 적에는 어른들을 도우면서 이런 돌너와집 짓는 기술을 저절로 습득했다.”.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34-135.

289)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1963.10-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27-129.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큰 통나무를 벌집통과 같이 파내어 그 밑바닥에는 나무 조각을 붙이고 느릅나무껍질을 끓인 풀물에 숨을 섞어 회반죽 땀질을 하여 장독 대신 사용했다. 모든 살림살이를 천연자원들을 활용하여 손수 만들어 사용하던 어머니의 슬기와 숨씨는 어떠한 곳, 어떠한 집, 어떠한 살림도 극복해 내시었다. 이러한 곳, 이러한 살림, 이러한 집에서 나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잉태되었고 일곱 살 되던 때까지 이 방틀집에서 자랐다. ...290)

이상의 내용에서 그는 본인이 태어난 장소의 자연환경과 조부와 부모가 이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살림을 꾸렸던 기억을 전하고 있다. 글에서 그는 이를 ‘서민주거생활’이라 칭한다.<sup>291)</sup> 이어서 그는 1963년의 시점에 이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을 기록으로 끄집어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곳, 오늘 이 순간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도 선명하게 눈에 떠오르는 옛집은 손자인 나보다도 53년 전(1848년)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친할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셨던 집이었다. 그 후 대목이 되고 스스로 독학하여 근대건축 설계자가 되어 생환한지 어언 40여년, 1963년에 이르러 이 고고건축에 대한 추상을 쓰는데 이 옛집이 생각날 줄이야 예전에 어찌 상상이라도 했었을까? ... 거기에서 살면서 겪었던 나의 서민생활이 후일의 내 자신의 치세문화 개발력을 크게 일깨워 주었다고 여겨진다. ...292)

여기에서 그는 스스로가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임을 의식하며 이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에게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은 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이며 건축가로서 창작 활동의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아가 그는 글에서 이를 개인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켜 바라본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선조한테서 듣고 자손에게 이야기한 것을 또 그 자손이 후손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대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 아득히 거슬러 올라간 저 먼 우리 겨레의 선조들 가운데 한 대표자이시던 단군왕검 할아버지께서 거쳐하시던 버드나무 「유월」과 별세하셨던 축집 「봉정」의 평면과 구조와 형태가 과연 어떠했을까? ... 나는 천 살에 세 살을 더 살았으니, 단군왕검(B.C.2333~B.C.2239) 할아버지께서는 나보다도 71갑자에 32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태어나셨던 옛 할아버지이시고, 나는 1갑자에 3년을 더 살아오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 후손의 할아버지에 불과하다. ...293)

---

290) 조승원, 같은 책, p.128.

291) 조승원, 앞의 책, p.128.

292) 조승원, 앞의 책, p.128.

293) 조승원, 앞의 책, p.128.



이상의 내용에서 그는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을 단군왕검의 유래에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그가 태어난 첫 번째 집은 그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부모의 지혜를 넘겨받은 공간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지혜는 멀고 먼 한반도의 원시 조상에게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갑을 지난 그는 선조에게 넘겨받은 지혜를 후손에게 계승해야함을 의식한다. 글의 말미를 살펴보면, 그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 전통을 계승해야하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 서구의 근대건축양식이 전 세계의 건축을 휩쓸고 있는 이즈음에 내가 후진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흔쾌히 봉사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대목 출신의 건축가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역시 우선 한식목조의 익공작과 포작의 도해제도와 해설 집필을 마쳐, 누구든지 우리 고고건물에 대한 말문을 열어주는 것일 것이다. ... 각종 품명들과 각종 제작기법들을 설명할 줄 모른다면 어찌 선조들이 창조한 고고건축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언제까지 현대조형 예술가들이 뿌리 없이 나뭇가지에 기생하고만 있으려는가!<sup>294)</sup>

여기에서 그는 서구의 근대건축양식을 특기하며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라는 본인의 이력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sup>295)</sup> 이는 스스로가 타 건축인들과의 비교에서 본인의 이력이 차별성을 지님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글에서는 그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군왕검에서 이어져 조부, 부모를 통해 경험한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본인의 건축, 저술 활동이 후손에게 전통을 계승해야 할

294) 조승원, 앞의 책, p.129.

295) “을 1963년 이른 봄에 건축계의 권위자들과 대학교수들의 강좌가 열린다기에 참석해 보았다. 애급과 회랍의 고대건축 유물들, 로마의 사원, 영국의 의사당, 미국의 국제연합센터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환등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강의하고 있을 뿐 정작 우리가 살았고 살고 있는 동북아 고대건물들도 서양건물들과 버금가는 진선미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구하지 못했거나 강의를 가치조차 없었는지는 몰라도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나 자신도 나이 많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우리 건축문화에 관한 글과 책을 남기지 못한 것을 부끄럽다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목출신의 근대건축가로서 진정한 건축계에 사과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조승원, 앞의 책, p.126.

이상의 내용은 1963년 10월에 기록된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중 1절 ‘보고 듣고’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현대에 이르는 서양건축사의 일부를 학습한 사실을 파악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의 대목 출신의 이력이 특수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다.

대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관이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그의 건축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생각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영원한 예술로서의 전통 계승

조승원이 남긴 문헌에서 그의 구체적인 건축관을 파악해볼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허나 그가 1964년에 작성한 기록인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중 마지막 항 ‘영원한 예술’의 내용은 그가 계승, 발전하려는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과거의 선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 비교적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서 그는 글과 현장을 통해 학습한 동서양의 과거의 건축 사례들을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 건축관을 드러낸다. 그는 이 사례들을 크게 일시적인 권력의 예술과 영원한 자비의 예술로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실례로서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로 일시적인 정치성이 개입 개제한 권력의 예술작품과 둘째로 영원한 신비성이 개입개제한 자비의 예술작품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296)

이상의 분류에 따라 그는 실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가 ‘일시적 정치성이 개입한 권력의 예술작품’의 사례로 언급하는 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시온 성의 옛 성전, 고구려의 장안성, 신라의 반월성, 백제의 부여성, 고려의 만월대, 중국의 아방궁 등이다.<sup>297)</sup> 그는 이 사례들이 대부분 현존치 못하고 터만 남은 이유를 일시적 성격인 권력에 의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sup>298)</sup> 다음으로 그가 ‘영원한 신비성이 개입한 자비의 예술작품’의 사례로 언급하는 것은 베드로 대성당, 바울 대성당, 금강산 유점사, 강화도 전등사, 충북 법주사 등이다.<sup>299)</sup> 그는 이 사례들이 집권의 권력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00)</sup> 이에 대한 내용은 그가 역사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술한 것이 아닐지 모르나, 그가 과거의 건축에 대한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조승원의 해설을 추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6) 조승원, 앞의 책, p.131.

297) 조승원, 앞의 책, p.131.

298) 조승원, 앞의 책, p.131.

299) 조승원, 앞의 책, p.131.

300) 조승원, 앞의 책, p.132.

... 건축예술이란 인간이 세계천지의 자연과 부합하여 살아가는 신비한 공동체의 실제실상을 생각하여 구현한 것인가 보다. 그러므로 예술은 인간 실체의 신성한 사유의 소산이고, 예술은 인간의 천진한 사유의 소산이고, 예술은 인위적인 처세문화를 구현하는 조형행위의 소산이고, 예술은 결코 권력의 소산이 아니고 편벽의 소산이 아니다. 인간의 신성함이 예술로 표현되고 인간의 천진함이 예술로 표현되고 인위적인 처세문화가 예술로 편향되고, 예술은 권력과 편벽이 없다. 권력이나 정치성이 개입 개재하는 거기에는 치부와 영화가 빈곤과 고생이 서로 대립 적대되어지고 자비와 공홀에 대한 자애심이나 인애심이나 애착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는 보았고 분명히 알아보았다. 자애와 인애, 자비와 공홀관이 영원한 예술 소인이 되어 지고, 예술은 진선의미를 지정껏 궁구할 뿐이다. ...301)

이상의 내용은 ‘권력과 차별에 의한 예술이 아니라, 자연에 부합하고 보편적 인류애에 의한 예술이 영원한 것으로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건축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일견 좋은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분명하게 권력에 의한 건축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승원의 작업 외에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철근콘크리트의 기술에 전통건축의 발상을 접목한 다수의 작업들이 주지하다시피 당시 정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승원이 이와 같은 건축관에 따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구현했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의 성격이 지니는 차별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sup>302)</sup>

다음으로 주목되는 언급은 그가 예술을 ‘인위적인 처세문화를 구현하는 조형행위의 소산’으로 파악한 점이다. 이는 그가 「고건축에 관한 추상-5개항」 중 3항 ‘유래를 더듬어’에서 서민주거생활의 기억이 본인에게 지니는 의미를 피력할 때 표현한 문구와 상응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서민주거생활을 ‘인위적인 문화개발 조형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술하였듯이 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본인의 ‘처세문화 개발력’이 연유한다고 표현하고 있다.<sup>303)</sup> 즉, 그는 조부와 부모가 전해준 삶의 기억을 가치 있는 예술로 파악하

301) 조승원, 앞의 책, p.131.

302)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실례로서 1968년에 완성된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경우 정황상 건축의 배후에 박정희와 육영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승원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에서도 도선사 주지인 청담스님 외에 정권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권력을 부정한 그의 건축관에 비추어 이를 파악해보면, 그가 도선사의 건축을 행함에 있어 박정희, 육영수의 영향을 스스로 배제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303) 원시적 대자연의 신비성과 이 대자연의 신비성으로 말미암아 연유하는 인위적인 문화개발 조형행위의 신비성은 근본적으로 일원적인 세계 천지 만물의 창조 운동을 스스

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해진 것이고 그가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전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로서의 전통이 계승되는 과정의 연속으로서 그 역시 영원한 예술의 창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서 서두를 살펴보면 그가 1960, 70년대에 건축을 통해 이루려는 바가 보다 뚜렷해진다.

*... 우리 한국건축에서 유해하는 유물들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러한 대의 아래 과거의 성사구현을 인식하고 현재 포착 가능한 미래 건축에서 대용재료 대체 재료와 그 공법을 활용하여 과거의 한식목조건축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하면서도 서구 건축물에 비하여 내구력을 더 능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도 펼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 아래 영원한 건축의 실체 실상을 생각하여 궁구하는데 관하여 한마디 추구하고자 한다. ...<sup>304)</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가 영원한 예술의 창작을 추구하는 목적은 선별 된 과거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료와 공법을 통해 한식 목조건축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이때 선별 된 과거는 전술하였듯이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가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전통이며, 그 방법은 현재의 재료와 공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그의 1960, 70년대의 저술과 작품 활동은 본인이 대목출신 근대건축가로서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그가 계승해야 할 전통을 영원한 예술로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별하며, 이를 현재의 재료와 공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실천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그의 전통 계승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은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작품이 등장하게 된 사고의 배경으로서 중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당시의 최신 재료와 공법을 활용하는 그의 전통 계승의 방법에 대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로 생각하여 운용하는 구현의 표현이요 또한 거기에서 살면서 겪었던 나의 서민생활이 후일의 내 자신의 처세문화 개발력을 크게 일깨워 주었다고 여겨진다, 조승원, 앞의 책, p.128.

304) 조승원, 앞의 책, pp.130-131.

#### 4.2.2. 전통의 현대적 계승

... 한식 전통 건축이 무엇을 추구했던가? 오늘날 한식 전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한식 전통을 가지고서 새로이 무엇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런 문제들일 것이다.<sup>305)</sup>

조승원은 여러 기록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의 방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관련 문헌의 양이 많지 않고, 내용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1960, 70년대의 저술, 실무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가의 사고와 관점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관련 기록을 통하여 그가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재료와 기술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모순을 파악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는 그의 실무와 저술 활동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1) 재료와 기술에 대한 생각

앞의 4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승원은 한국전쟁 이후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을 학습하였고, 이전에도 주로 전통 방식의 목조보다는 조적조와 석조 등 외래의 재료, 기술이 혼합된 형태의 근대 건축을 설계, 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를 살펴보면, 그가 유입된 최신의 외래 건축 재료와 기술에 상당히 민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sup>306)</sup> 따라서 그가 전통의 계승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그의 이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현대적 재료와 기술에 의해 전통이 계승됨과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통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건

305)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조승원·조영무 공저, 민음사, 1981, p.18.

306) “이 땅 위에 서구물질문명에 의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상륙했다.

지금도 계속 상륙하고 있다.

어떠한 기술, 재료, 장비 등이 상륙했는지 모를 정도다.” 조승원, 「조승원 전통건축가의 증언」(1975.11.28.), 『건축·도시계획론』, 조영무 저, 민음사, 1975, pp.60-61.

“... 오늘날 공공 및 산업건축은 물론, 주택건축까지도 예전과 달리 조적조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그리고 철골조, 더 나가서 조립식 및 공업화 공법을 채용하게 되었고, 또 학교에서 정식으로 건축교육을 받아 설계 및 시공 영역의 자격면허를 얻게 되는 건축인들은 완전한 과학적 지식, 경험적이고 직접 실험을 거쳐 판정한 기술적 지식,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동 심사하여 안전과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지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조승원·조영무 공저, 민음사, 1981, p.13.

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307)</sup>

우선 그가 관련 기록에서 재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새로운 재료’<sup>308)</sup>, ‘현재 포착 가능한 … 대용재료, 대체 재료와 그 공법’<sup>309)</sup>, ‘현대화학 및 금속재료’<sup>310)</sup>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표현은 현대화학 및 금속재료의 표현을 제외하면 비교적 구체적인 재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승원이 전통 계승을 위한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조승원 스스로는 1960, 70년대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이의 사고 바탕에는 철근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 다양한 재료 응용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승원의 관점은 1968년에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복원한 강봉진이 철근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를 강조한 관점과 뚜렷이 차별되고 있어 주목된다.<sup>311)</sup>

다음으로 관련 기록에서는 그가 재료를 구사하는 기술면에서 구조역학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통건축의 사례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이러한 기준에 대한 제시는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그가 전통 계승의 기술적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구조 기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술하였듯이 재료 응용 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건축 재료와 구조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료를 제한하지 않는 한 특정 구조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구체적인 재료에 대한 기법을 서술하기보다 전통 건축의 사례들을 구조역학의 관점으로 가치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307) “현대건축사의 계승 발전 방향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식전통건축체제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내실을 추구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목조구조예술의 진수를 전통계승의 주류로 삼는 것과 동시에 현대화학 및 금속재료를 구사하여 새로운 건축양식을 창조하는 선구자적 역할과 노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조승원, 「한식건축 사장-대를 잇는 증언」(1963),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308)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5. 영원한 예술」(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2.

309) 조승원, 같은 책, pp.130-131.

310) 조승원, 「한식건축 사장-대를 잇는 증언」(1963),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311) “철근 콘크리트 발달은 건축유형을 재료(돌, 나무)에 따라 구속하지 않고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형적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과거의 지역, 역사에 속한 건축 양식이 아닌 세계 공통의 건축 유형이 되었다.”, 강봉진, 「시멘트와 조형미-우리나라 건축 조형미의 현재와 미래」, 『한국양회공업지』, No.32, 1969, pp.18-23.

... 목재 대신에 다른 대용재료를 사용할 경우 새로운 대용재료로써 옛 건축 재료를 대체하여 부합시키는 착안점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조계사의 대웅전의 이전 시공차질이나 범어사의 강당 시공결함은 일차적으로 목재 강도의 취약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차적으로는 목조 구조역학 중심주의가 부수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sup>312)</sup>

이상의 내용에서 그는 조계사 대웅전과 범어사 강당의 결함이 일차적으로는 재료 자체의 문제이며 이차적으로는 구조역학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이 주로 목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재료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가 전통 건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구조역학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언급에서 '새로운 대용재료로써 옛 건축 재료(목재)를 대체하여 부합시키는 착안점을 정확히 해야'라는 표현은 새로운 재료에 따른 구조역학을 잘 고려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위의 글에서 등장한 조계사 대웅전의 구조적 결함을 다른 문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와 대비되는 구조적으로 훌륭한 사례로서는 창덕궁의 인정전과 창경궁의 명정전을 들고 있다.<sup>313)</sup> 이는 그의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의 전통 건축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그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실현에서 공포의 양식이나 세부 장식, 비례 등에 비해 철근콘크리트라는 재료에 부합하는 구조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2) 모순과 해결책

조승원은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재료와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런데 그는 문헌에서 신 재료와 구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전통 건축의 무엇을 계승할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글에서는 그가 전통 건축의 재료와 구조 자체를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에는 계승 대상인 재료 자체가 신 재료로 변경될 경우 이로써 완성된 건축은 애초에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지 못한 것이 된다. 즉, 이는 그의 의견에 근본적 모순이 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순은 다음의 기록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12) 조승원, 「한식건축 사장-대를 잇는 증언」(1963),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4.

313) 조승원, 「조승원 전통건축가의 증언」(1975.11.28.), 『건축·도시계획론』, 조영무 저, 민음사, 1975, p.60.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1976.12.),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한식 건물은 목조가 眞體이다.

철근(또는 鐵骨) 콘크리트造 구조는 一體式 이다.

그러나 한식의 技法에 따라 연구하고, 설계 시공하면 잘 될 수 있다 하겠다.<sup>314)</sup>

이상의 내용에서 마지막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료와 구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새로운 재료로서는 목조의 전통 방식에 따라 설계, 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를 수행한다면, 이 역시 새로운 재료에 적합한 구조를 강조한 그의 관점과 상충하므로 그가 제시한 올바른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 볼 수 없게 된다.<sup>315)</sup> 이러한 모순은 그가 1960년대 처했던 상황을 설명해준다. 즉, 그는 당시 전통적인 목조의 방식보다 철근콘크리트 등의 근대적 재료와 시공에 능한 건축가였고, 따라서 그가 전통 건축의 재료, 구조에 조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축 실물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실천의 괴리는 다음의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한식 건축을 현대 건축가가 설계, 시공, 監理를 담당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

주요한 자재를 代替하여 쓸지라도, 개관적인 콘크리트板 밑에 서까래 대신 콘크리트(원심)棒을 볼트로 달아 맨다든가, 초매기평고대도 없이 부연을 가설한다든가, 鋪作을 외부에만 부설하고 내부에는 삭제하고, 천장을 현대식으로 은폐시키는 일, 지붕만 한식기와에 窓戶는 현대식으로 처리한다든가, 石柱를 벽면에 둘러 붙이는 것과 같이 하는 일, 椽木岬耳斜線 시공 없이 기와만 덮는 공사는 구조상 사물원리에 이탈될 뿐만 아니라, 祖上의 전통을 모독하는 것이면서 전승에 어긋나는 것이다. ...<sup>316)</sup>

314) 조승원, 같은 책, 조영무 저, 민음사, 1975, pp.60-61.

315) 이러한 혼란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 새로운 건축재료에 대한 문양조각법과 채화법 등 종전보다 더 한층 재료, 구조, 형태 등 미학적 기술미를 부가한 계승 발전이야말로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

조승원, 앞의 책, 1975, pp.60-61.

316) 조승원, 앞의 책, pp.60-61.

이와 유사한 언급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건축이라면 아무리 건축재료를 새로운 대용재료와 대체할지라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인 처마개관에 아무렇게 모의서까래를 매달아 놓는 것, 초매기평고대없이 부연을 가설하는 것 등은 구조적 사리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전통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이 밖에도 외부에만 포작을 흉내내고 내부에는 포작을 삭제시켜버리고 내부천장을 현대식공법으로 은폐하는 것, 지붕과 처마는 기와를 얹고 창호는 현대식 창호를 사용하는 것, 석판을 붙여 돌기둥을 위장하는 것 등은 가급적 시정할 문제이다.”, 조승원, 「한식건축 사장-대를 잇는 증언」(1963), 『비평건축』, 제2호,



여기에서 그가 언급한 콘크리트를 이용한 서까래, 부연, 공포, 천장, 기둥, 지붕 마감 등의 시공법은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전통 건축의 요소를 표현하는 핵심 수법들로 알려져 있다.<sup>317)</sup> 조승원의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역시 부득이하게 이러한 수법의 일부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스스로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허나 한편으로 조승원이 전통을 계승함에 있어 재료와 이에 적합한 구조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에서는 무리한 공포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화 된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한계를 의식한 듯 글에서 나무를 사용한 전통 건축의 계승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건축유산들이 목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장차 연구하기에 따라서는 「나무」라고 하는 재료와 나무를 이용하는 공법의 발전에 따라서는 자연적이고 실존적인 전통건축의 공간을 살린 다양한 한식건축의 새로운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진 건축인들이 새로운 발전적 원형을 창작하기를 기대한다...<sup>318)</sup>*

이상의 내용에서 그는 전통건축의 목조 방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나무를 이용한 전통 건축의 계승, 발전을 후진 건축인들이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 스스로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의 능력의 한계만을 지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실무 외에 저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저술, 출간함으로써 전통 목조 건축의 기법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즉, 그의 1960년대의 전통 건축의 학습과 적극적인 전통 건축 관련 저술 활동은 그가 건축 실무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는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과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결과물과 내용면에서 상이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큰 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조승원의 1960, 70년대의 다방면의 활동은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1996.4, p.134.

31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훈, 앞의 책을 참고.

318) 조승원, 「머리말」(1969.1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18.

#### 4.2.3. 1960년대 전통건축의 재학습과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1963-69, 1981)

... 지나온 한평생의 길을 돌이켜 보건데, 한식건축기법들을 경험적으로 익혀 오던 인습이 근대적 기술조류에 밀리어 전통계승이 단절되어 버리던 시대 속에서, 「보고」, 「듣고」, 또 「깎고」, 「밀고」, 「새기며」, 그리고 「그리고」, 「짓고」, 「쓰고」 하는 동안에 어언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참으로 나는 고달픈 전철을 살아 왔다. 지금 나에게 소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후진들에게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통건축 계획법식을 간행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대답하겠다.<sup>319)</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승원은 스스로 전통 계승의 주체임을 자각하였으며, 이를 현대적 재료와 기술에 의해 수행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한계에 부딪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1960년대 전통 목조 건축에 관한 학습을 보충하게 된다. 그리고 이의 성과는 건축 실무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특히 저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기획, 출간으로 이어진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전통 건축의 학습과 저서 출간 및 저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1960년대 전통 건축의 재학습

조승원은 1923년 평양에서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문하여 목수들의 도구를 다루었고, 또한 1925년에는 도편수 한성룡을 통해 전통 방식의 목조 건축 기법을 접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1920년대 후반부터 줄곧 조적조와 석조가 혼합된 근대적 건축의 시공에 종사하였고, 1950년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시공을 학습하였다. 따라서 시공 현장에서 그가 목재를 꾸준히 다루었다 할지라도 이는 전통의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1960년대에 전통 건축에 대한 학습을 보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문헌과 현장답사 그리고 인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고, 외에도 전통 건축 관련 용어를 수집하거나 장인들의 도구를 수집,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록에서 조승원은 꾸준히 고건축의 답사를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320)</sup> 문헌에서 등장하는 조승원 답사지의 목록을 정리해보면 각 답사지들을 방문한 구체적 시기는 불분명 하지만 현재는 북한 지역에 속하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가 분단 이전부터 옛 유적지들의 현장을 관심 있게 방문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열악한 교통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속하는 곳들을 아우르면 답사지의 지역 범위가 전

319)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320)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5. 영원한 예술」(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2.

지역		답사지	유형
남한	서울	4대궁	궁궐
		송례문, 홍인지문	도성 대문
		규장각	사고
		조계사 대웅전	사찰
		종묘	사당
	인천	강화 장사각	사고
	경기도	고양 벽제관	객사
	강원도	평창 오대산 선원각	사고
		강릉 오죽헌	서원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사찰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사찰
		부여	-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사찰
	전남	영암 송양서원(송양사)	서원
	경주	동경관	객사
		서악서원	서원
		석굴암, 불국사 석탑 등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찰
		소수서원	서원
	안동	봉정사 대웅전	사찰
		도산서원	서원
	부산	동래 범어사 대웅전 및 강당	사찰
북한	평양	칠성문, 현무문, 대동문, 보통문	도성 대문
		을밀대	누각
		승령전	사당
		대동강 연안 고분 및 강서군 고분 등	-
	개성	만월대	-
		남대문	도성 대문
	황해도	황주 심원사 대웅전	사찰
	평남	성주 동명관	객사
	금강산	신계사	사찰
		정양사 대웅전 및 낙사전	사찰
		유점사 능인보전	사찰
	묘향산	안심사	사찰

표 16 문헌에서 등장하는 조승원 답사지 목록(조승원이 직접 작성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작성)

국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가 현장 답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유적을 접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한편으로 그가 답사를 수행하던 시기에는 아직 유적지들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가 답사와 관련한 체계적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답사지를 통해 깊이 있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현장을 통해 전통 건축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숭례문 해체, 복원 현장과 5대궁 및 종묘 등의 왕실 관련 건축을 답사하며 이루어졌다. 그는 1961년부터 이루어진 숭례문의 해체 복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였다.<sup>321)</sup> 그는 1961년 초겨울 당시 해체 현장의 책임자였던 양철수의 안내를 받아 해체된 재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sup>322)</sup> 그는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는데, 첫째는 향에 따른 재료의 변형에 차별이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숭례문의 목구조 방식이 그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었다.<sup>323)</sup> 결과적으로 그는 전통 건축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각이나 채색 등의 장식보다 재료와 구조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하고 있어<sup>324)</sup>, 숭례문 현장이 전술했던 재료와 구조의 관점을 통한 전통 계승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1962년 당시 문화재 관리국 영선과에 재직하던 차남 조영무에 의해 5대궁 및 종묘와 능원들을 직접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sup>325)</sup> 이에 의해 조승원은 조영무가 담당했던 ‘5대궁의 건축 보수, 단청, 실측 5개년 계획서’<sup>326)</sup>의 작성을 돕거나 경복궁 내 건물들의 보수를 직접 도왔다.<sup>327)</sup> 이를 통해 그는 전통 건축을 도면으로 작성하는 데

321)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2. 실마리를 찾아」 (1963.11),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7.

322) 조승원, 같은 책, p.127.

323) 조승원, 앞의 책, p.127.

324) 조승원, 앞의 책, p.127.

325)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326) 이왕기에 따르면 이 계획서는 당시 이를 담당했던 한당옥 장군이 해임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한당옥은 1961년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을 지냈고, 1962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의 관리국장을 맡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왕기, 앞의 책, p.95. 「정부 인사」, 『동아일보』, 1961.10.7. 「문화재관리국 박의장이 시찰 종합관리책지시」, 『동아일보』, 1962.1.30.

327) 그는 경복궁 내의 협화당과 자경전 서행각의 보수 일을 도왔다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 경복궁 내 협화당으로 알려진 건물이 없어 이는 정확히 무슨 건물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sup>328)</sup>, 이의 경험이 후에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다수 수록된 전통 건축의 도면들의 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때의 경험이 그가 이후 기록에서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중화전 등의 건축을 자주 언급하며 그의 건축관을 피력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원에게 현장 답사가 전통 건축에 대한 실물 감각을 바탕으로 그의 건축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1960년대 도편수 박기섭을 통한 전통 건축의 학습은 더욱 직접적으로 『한식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저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가능케 하였다. 도편수 박기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사항은 없지만 전해지는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박기섭은 동대문을 보수하였고<sup>329)</sup>, 1960년 진주 축석루 복원의 도편수를 맡은 이력이 있으며<sup>330)</sup>, 전통 건축 장인들 사이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받은 도편수인 것으로 확인된다.<sup>331)</sup> 조승원은 늦어도 1963년부터 박기섭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332)</sup> 그는 기록에서 박기섭의 자택을 방문하여 학생처럼 배웠다고 전하고 있다.<sup>333)</sup> 이를 통해 그는 전통 건축의 모형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목가구의 접합 기법과 조각 문양의 제도법 등을 학습하였다.<sup>334)</sup> 전통 건축의 기법이 주로 스승 장인에 의한 도제식으로

328) 조승원, 같은 책, p.136.

329) 이왕기에 따르면 박기섭은 동대문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는 1958년에 수행된 동대문의 지붕 번와공사, 단청공사, 웅성보수 등의 보수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왕기, 앞의 책, p.95. 『홍인지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p.67.

330) 김란기, 앞의 책, p.27.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김란기의 글에서는 박기섭이 진주 축석루 복원의 도편수를 맡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조승원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331) 김란기, 앞의 책, pp.27-28, p.32.

예로써 김란기는 장인들의 조사를 위해 다수의 직접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증언자들은 박기섭을 언급하였으며, 그가 예용해가 도편수 인간문화재로 언급했던 임배근보다도 실력이 뛰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목장 기능보유자였던 고택영, 배희한과 단청 인간문화재 만봉 스님이 박기섭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박기섭이 실력있는 도편수였다고 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도편수 임배근과 관련해서는 예용해, 『인간문화재』, 어문각, 1963, pp.253-256을 참고.

332)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2. 실마리를 찾아」(1963.11),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27.

기록에서 등장하는 조승원과 박기섭이 교류한 가장 이른 시기는 1963년 봄이다.

333)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334)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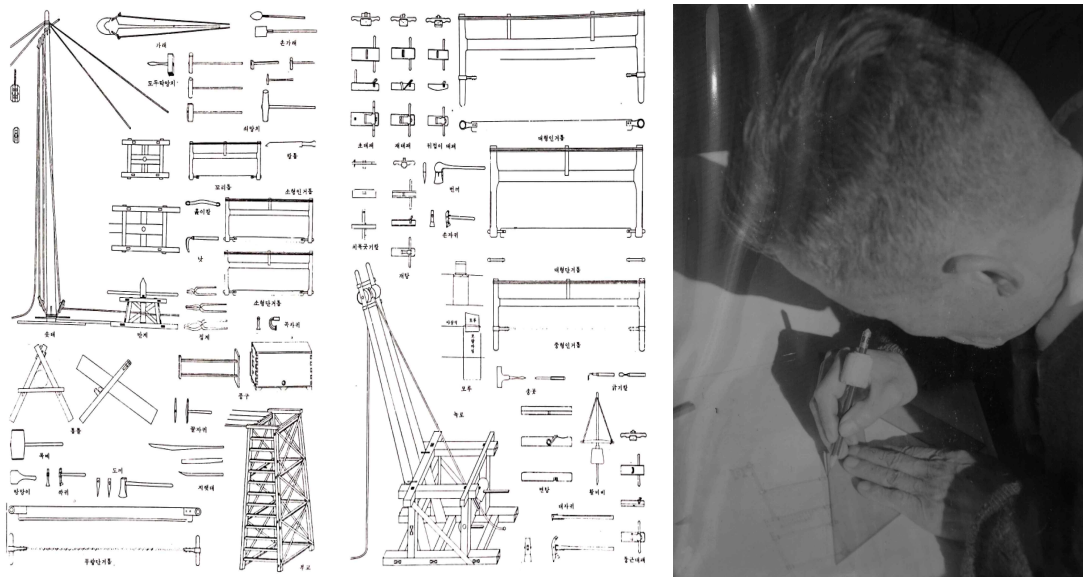


그림 50 도구 도면(출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그림 51 제도 중인 조승원. 1960년대 촬영된 것으로 추정(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전수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조승원이 박기섭에 의한 건축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는 못했는지라도 이는 상당히 직접적인 학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습득한 조각 문양의 제도법 등이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수록된 다수의 도면 제작에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335)</sup>

이밖에도 그는 개인적으로 다수의 건축 용어를 수집하기도 하였고, 장인의 도구를 수집, 제작, 제도하기도 하였다. 우선 여러 기록을 통해 조승원이 건축 용어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문교부 간행의 건축용어해설집과 창경궁영건도감 의례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현장의 용어까지를 더하여 1963년 당시에만 총 20종 447건의 건축품명의 용어를 수집하였다.<sup>336)</sup> 조영무에 따르면 조승원은 한국 건축 용어집의 저술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생전에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sup>337)</sup>

335) 기록에서는 조승원이 박기섭 외에도 전통 건축과 관련 된 여러 인물들과 접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박기섭을 통해 당시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 교수였던 윤장섭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차남 조영무를 통해 단청 인간문화재 만봉 스님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또한 송례문 중건의 도편수를 맡았던 조원재와도 교류하였다 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이들을 통해 크고 작은 전통 건축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만봉 스님의 단청 채화도는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336) 조승원, 「고고건물의 추상 - 4. 용어를 되살려야」(1963-1964), 『비평건축』, 제2호, 1996.4, pp.129-130.

337)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10.

다음으로 도구와 관련해서는 그가 직접 수집, 제작한 실물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으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그가 그린 도구 도면들이 수록되어 이의 학습 사항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sup>338)</sup> 이를 통해 그가 전통 건축과 관련한 다방면의 학습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특징

조승원은 전술했던 1960년대의 다양한 학습과 병행하여 1963년부터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저서를 기획하고 집필하였다.<sup>339)</sup> 1969년에 탈고된 저서의 초고는 1970년 차남 조영무에게 넘겨져 1981년 12월에 출간되었다.<sup>340)</sup>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는 1960년대의 다양한 전통 건축 관련 학습 성과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또 다른 성격의 학습으로서 문헌 연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이 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즉,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 건축 관련 고문헌을 참고, 해설하는 바탕에 설계도를 비롯한 본인의 경험적 학습 성과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승원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내용에서 대체로 문헌 인용의 출처를 충실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책에서 참고문헌 역시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 인용 도서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는 책의 시작에서 미리 대강의 참고 문헌을 언급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출처를 밝히며 인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가 책의 저술을 위해 참고했던 글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그는 『영조법식』, 『화성성역의궤』, 『저승전의궤』, 『인정전중수의궤』<sup>341)</sup>,

338) 건축 도구의 도면은 「목공·연장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1980.12.4.-31.)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2017.3.22, p.5.

339) 조영무 편저, 앞의 책, p.6.

340) 조승원, 조영무,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p.185.

초고는 한문과 한글이 병기된 서술의 형식을 취했었다고 한다. 조승원은 이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쓰는 일을 조영무에게 부탁하였다. 당시 전통 건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조영무가 이 초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을 편집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탈고 시기와 출판 시기는 10여년 가량 차이가 나게 되며, 또한 조영무는 조승원과 함께 이 책의 공동 저자가 되었다. 하지만 조영무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내용 자체를 손 본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의 내용은 조승원 고유의 창작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출판 직전 시기인 1980년 10월과 1981년 4월, 7월에 본 저서에 수록된 일부 내용이 『건축사』지에 게재되어 선 공개되기도 하였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 자료가 부족한 이유』, 2017.3.25, p.8.

341) 조승원, 조영무, 같은 책, p.15.

책에서 그는 『창덕궁 인정전 보수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철종8년(1857년)

## 머리말

### 제1부 한식목조건축총설

1. 한식 목조건축 총설
  - 1-1. 한식 목조건축기법의 특징
  - 1-2. 한식 건축의 구옥 종목들
  - 1-3. 한옥의 건축재료들
  - 1-4. 건축공장의 직종들
  - 1-5. 건축도구와 기계들
  - 1-6. 한식 목조건축의 영조제작
  - 1-7. 주요 영조 제도들

### 제2부 한식목조건축설계도(제도)

1. 일익공집 설계도
2. 이익공집 설계도
3. 칠포집 설계도
4. 한식 부계루옥 설계도
5. 한식 농가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
6. 한식 창호도
7. 한식 단청 채화 설계도(이만봉씨 작도, 원색도)

표 17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목차

『택리지』, 『세종실록』 342)등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7]의 목차를 통해 책의 전체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이는 1부의 전통목조건축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2부의 설계도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이중 1부에서는 목조건축의 제작 및 제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용도, 재료, 장인, 도구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부에는 그가 직접 작도한 총 71장의 건축 도면이 해설과 함께 수록되었다. 따라서 책의 목차 구성을 통해 전술했던 그의 다방면에 걸친 고유한 학습 성과가 내용상 얼마나 반영되었을 지를 미리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1부 총설의 세부 목차와 속 내용을 살펴보면 책의 기획과 저술에서 그의 경험적 학습 성과보다 문헌 연구가 선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책의 가장 주요한

---

에 편찬된 『인정전중수의궤』를 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욱, 「의궤를 통한 조선 시대 건축 연구의 가능성」, 『건축역사연구』, 제14권1호, 2005.3, p.199.

342)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30. 등.

책에서 그는 세종13년(143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주택조례」를 여러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1-6. 한식 목조건축의 영조제작

- 1-6-1. 기담작(基牆作)
- 1-6-2. 석작(石作)
- 1-6-3. 대목작(大木作)
- 1-6-4. 소목작(小木作)
- 1-6-5. 조각(彫作)
- 1-6-6. 선작(旋作)
- 1-6-7. 거작(鋸作)
- 1-6-8. 와작(瓦作)
- 1-6-9. 니작(泥作)
- 1-6-10. 채화작(彩畵作)
- 1-6-11. 전작(塼作)
- 1-6-12. 요작(陶作)
- 1-6-13. 도배작(塗褙作)

#### 1-7. 주요 영조 제도들

- 1-7-1. 영조 도량제도
- 1-7-2. 구옥제와 용재법
- 1-7-3. 방원평직법(方圓平直法)
- 1-7-4. 경주사장법(徑周斜長法)
- 1-7-5. 정공법(定功法)
- 1-7-6. 취정법(取正法)
- 1-7-7. 정평법(正平法)
- 1-7-8. 사수법(斜收法)
- 1-7-9. 목조와가의 구옥분류
- 1-7-10. 임주간수와 평면구성법
- 1-7-11. 누옥의 가구구조 형식
- 1-7-12. 용주제(用柱制)
- 1-7-13. 주량(柱梁)의 결구방법
- 1-7-14. 용량법(用梁法)
- 1-7-15. 포작제(包作制)
- 1-7-16. 거절제(擧節制)
- 1-7-17. 지붕구조의 형식들
- 1-7-18. 조침제(造檐制)

표 18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영조제작, 영조제도의 세부목차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6의 영조제작과 1-7의 영조제도에서는 『영조법식』의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 [표 18]을 통해 이들의 세부목차를 살펴보면, 1-6의 영조제작의 목차 순서는 『영조법식』의 제작, 제도에 해당하는 3권에서 15권의 구성 순서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343)</sup> 차이점은 『영조법식』에서 호채(壕寨)라 표현된 용어가 기담(基牆)으로 바뀌었고, 도배작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1-7의 영조제도의 세부목차에 사용된 낱선 용어에서도 『영조법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방원평직(方圓平直), 정공(定功), 취정(取正), 정평(正平), 거절(擧節) 등의 표현은 『영조법식』 서목(序目)의 간상(看詳)을 구성하는 제목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며, 경주사장의 경(徑) 역시 간상의 취경위(取徑圍)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sup>344)</sup> 또한 용재(用材), 용주(用柱), 용량(用梁), 조첨(造檐)의 표현들도 기둥, 보, 처마 등의 표현 대신 『영조법식』 4권과 5권의 대목작 제도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sup>345)</sup>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내용에서도 역시 『영조법식』의 번역이 그대로 수록되었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기가 지적하였듯이 1-6-1의 기담작 내용 중 축기, 주춧돌 등의 내용은 『영조법식』 제3권의 호채 제도 중 축기와 석작 제도 중 주초에 해당하는 내용의 번역인 것으로 확인된다.<sup>346)</sup> 다른 예로써 1-6-3의 대목작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들의 다수가 『영조법식』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대목작 중 귀솟음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13간이면 귀솟음 높이 1척 2촌, 11간 1척, 9간 8촌, 7간 6촌, 5간 4촌, 3간 2촌이 높아진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영조법식』의 생기(生起)를 우리식 표현인 귀솟음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영조법식』 5권의 주(柱)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다.<sup>347)</sup> 이처럼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은 대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책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내용상에서 위와 같이 지적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의 내용이 『영조법식』을 그대로 번역 또는 모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1-6-3의 대목작을 살펴보면, 이의 제목은 『영조법식』의 4권과 5권의 대목작과 동일하지만, 전체를 구성

343) 김도경, 주남철,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번역」, 『건축사』, 1994.9, p.79.

344) 국토연구원 역, 『영조법식』, 대건사, 2006, p.9.

345) 국토연구원 역, 같은 책, pp.13-14.

346) 김정기, 「조승원옹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공간』, Vol.177, 1982.3. 국토연구원 역, 앞의 책, p.150, p.155.

347)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p.64-65. 국토연구원 역, 앞의 책, p.197.

하는 내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의 영조제도에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1-7-6의 취정법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48)</sup> 더욱이 1-7-2의 구옥제와 용재법, 1-7-8의 사수법, 1-7-16의 거절제의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영조법식』의 해당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함을 밝히고 있어, 일부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의도되었다고 보긴 힘들다.<sup>349)</sup>

핵심적으로 책에서는 『영조법식』 외에도 여러 의궤서들과 『택리지』, 『세종실록』 등 한국의 고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영조법식』에서 다루지 못하는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비교적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시대 건축 공장의 직종, 제작의 도구와 기계에 관한 내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sup>350)</sup> 또한 『택리지』의 경우 우리 고유의 풍수지리를 언급할 때 인용하고 있으며<sup>351)</sup>, 『세종실록』은 조선시대 가사제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때 주로 인용하고 있다.<sup>352)</sup> 이밖에도 책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국 건축사의 개괄, 한국 고유의 민가와 살림집, 온돌, 익공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처럼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책의 특성은 용어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1-6의 영조제작에서는 서두에서 전통 건축의 다양한 물건과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sup>353)</sup> 이들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익숙한 용어 외에 다수의 낯선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sup>354)</sup> 이 낯선 용어들은 『영조법식』에서 사용된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화성성역의궤』에서 사용되었던 표현들 중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현재 용어집을 통해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표 19] 이러한 용어의 혼재는 책의 이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의 의미 있는 특징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348)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97.

349)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96, p.98, p.104.

350)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p.37-38, pp.40-41, pp.56-57, p.98.

351)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28, p.97.

352)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30, pp.60-61, pp.93-94.

353) 조승원, 조영무, 앞의 책, pp.55-59.

354) 용어의 파악을 위해 참고한 전통 건축 관련 용어집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재원 편,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195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4.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5.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화성성역의궤 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왕치권 저, 차주환, 이민, 송선엽 역, 『중국건축 도해사전』, 고려, 2016.

이러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책에 등장하는 중국식 표현은 조승원에 의해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는데, 이는 책의 『영조법식』에 대한 해설서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 전반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술했듯이 책의 구성과 내용이 기본적으로 『영조법식』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84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처음으로 『영조법식』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이후에서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 등장했다.<sup>355)</sup> 이를 감안했을 때 1960년대 이루어진 조승원의 『영조법식』 독해는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문헌의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책에서 등장하지만 현재 용어집에서 바로 파악되지 않는 표현들은 책이 저술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라진 용어들을 파악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점에서도 책은 전통 건축의 용어와 관련한 이른 시기의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1부의 구성과 내용상의 특징을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이 책의 큰 특징으로서 2부의 설계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익공집, 다포집, 중층 한옥, 지역별 민가, 창호도, 단청 채화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

355) 국토개발연구원에 의해 1984년과 1989년에 발간된 『영조법식 1, 2』는 완역본은 아니며, 전체 중 서목에서 10권 소목작제도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각주를 이용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내용이 정확한 출처 없이 다수 인용되어 주목된다. 또한 이해철에 의해 작성된 머리말에서도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머리말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번역본의 발간에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영조법식』의 해설서로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번역본은 2006년 대건사에서 재출판되었다.

번역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영조법식』에 대한 해설로는 김도경, 주남철에 의해 8회에 걸쳐 『건축사』지에 연재된 「대목작제도」의 주해가 있다. 이는 전체 중 4, 5권에 해당하는 대목작 제도 부분만을 번역한 한계가 있지만, 국토연구원에 의한 것과 달리 단순히 번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상세한 해설을 첨가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참고문헌들을 참고.

『영조법식 1』, 국토개발연구원, 1984. 『영조법식 2』, 국토개발연구원, 1989. 국토연구원 역, 『영조법식』, 대건사, 2006. 김도경, 주남철, 앞의 책. 김도경, 주남철, 「송 영조법식 대목작 제도 주해 2-8」, 『건축사』, 1994.11-1995.9.

356) 해당 내용의 용어 해설은 조승원이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직접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357) 김도경, 주남철, 「송 영조법식 대목작 제도 주해 2」, 『건축사』, 1994.11, p.74.

358)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8.

359) 해당 내용의 용어 해설은 『화성성역의궤 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을 참고하였다.

문헌	용어
『영조법식』 356)	<p><b>기담작(基牆作)</b> 지초를 다져올리고 성, 담장을 쌓는 작업.</p> <p><b>조작(彫作)</b> 목재를 조각하는 작업.</p> <p><b>선작(旋作)</b> 목재를 돌림질하는 작업.</p> <p><b>거작(鋸作)</b> 목재를 잘라 켜는 작업.</p> <p><b>니작(泥作)</b> 미장을 하고 온돌을 축조하는 작업.</p> <p><b>요작(陶作)</b> 또는 도작. 기와, 전벽돌 등을 제조하는 작업.</p> <p><b>전작(塼作)</b> 전벽돌을 조적하는 작업.</p> <p><b>평좌(平坐)</b> 성면 위나 중층건물의 하층 위에 상층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공포를 사용하여 평평한 臺를 만드는데 이 臺를 ‘평좌’라 한다.<sup>357)</sup></p> <p><b>촉주(蜀柱)</b> 중국의 전통적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짧은 기둥. 송나라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 있는 용어로 청대관식(清代官式)에서는 과주(瓜柱)라 부른다.<sup>358)</sup></p> <p><b>취정(取正)</b>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려서 집터 자리를 정남향으로 잡음.</p> <p><b>정평(定平)</b> 수평면이나 수평을 바로 잡음.</p> <p><b>입기(立基)</b> 기단을 높임.</p> <p><b>축기(築基)</b> 지초를 축조함. 차례로 흙과 돌을 격증으로 다져 올린다. 사방에 돌담벽을 쌓은 것이 축대이다.</p> <p><b>전물(塡物)</b> 축기에 사용되는 깬돌, 자갈, 전돌조각, 기와조각, 막돌, 흙, 모래, 소석회, 숯, 소금 등.</p> <p><b>사수(斜收)</b> 성이나 담장의 상면 두께를 높이에 따라 하저면 두께에 비하여 체감함.</p>
『화성성역의궤』 359)	<p><b>반도리(半도리)</b> =도리</p> <p><b>체목(替木)</b> =원체목.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원체목은 길이가 18자 말원경이 1.2자인 목재라고 한다.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도 체목의 규격이 나타나는데 길이가 20자 말원경이 1.4자라고 기록하고 있어 『화성성역의궤』보다 큰 부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p> <p><b>보판(步板)</b> 계단 등의 디딤판을 말한다. 『화성성역의궤』의 장안문 건축에 소요된 자재의 기록을 보면, 계단의 구성재로 층교기 8개와 보판 27립, 후판 28립을 사용하였다.</p> <p><b>곡두원죽음(曲頭圓竹音)</b> 원음은 머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원음죽은 머름대를 말한다. 머름대는 머름을 구성하는 부재들 중에서 하부에 가로 지르는 부재이다. 곡두머름대는 방화수류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면이 꺾여 돌아간 난간 밑에 있는 머름대이다.</p> <p><b>선문(扇門)</b> 육축으로 쌓은 홍예문을 이른다. 마치 부채와 같이 생겨 부르는 별칭이지만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p>
확인불가	<p>천왕주(天王柱), 층주(層柱), 차주(叉柱), 통량(通樑), 측량(側樑), 장족연(長足椽), 양귀틀(樑耳機), 초경(草莖), 예문개판(蜺門蓋板), 천심투팔창(穿心闢八窓), 무성(戊城), 소성(所城), 영성(營城) 등.</p>

표 19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1-6. 한식목조건축의 영조제작 서두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 목록(김재원, 장기인, 김왕직 등에 의한 용어집에서 확인되지 않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있다.[그림 52] 이중 단청 인간문화재 만봉 스님이 직접 작도한 단청 채화도를 제외한 모든 도면은 조승원이 직접 작도한 것이다. 우선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익공집과 민가의 도면을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1부의 내용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도면들을 통해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도면들을 살펴보면, 건축의 도면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책에 수록된 일익공집, 이익공집, 칠포집의 도면들은 계획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이 도면들은 현존하는 특정 건축물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학습한 제작, 제도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승원의 전통건축 제작, 제도의 학습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능력은 전통건축 장인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sup>360)</sup> 그가 전통의 방식으로 직접 시공한 목조 건축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목재를 다루는 숙련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책에 수록된 도면들은 그가 전통건축의 계획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도면들은 작성기법에서 조승원의 근대 건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도면에서의 수치 단위로 척(尺)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법에서는 서양 근대식 정투영법을 채택하여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양시도, 투시도 등의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도면의 표현법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혼합되어 구사되고 있고, 특히 칠포집의 투시도 같은 경우 복잡한 세부 형태까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의 숙련된 근대식 도면의 제도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그림 53]

세 번째로 책의 도면들은 제작을 위한 설명서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주목했던 도면의 계획도로서의 특징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림과 해설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재의 조각과 전체의 조립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책에서는 각 부재별 상세도에서 투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재의 조각된 상태를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54] 이는 평면적인 전개도와 함께 제시되어 각 부재의 치목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특징적인 표현법을 칠포집의 구조 상세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60) 도면을 그리는 능력은 도목수의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이다. 도목수는 직접 목재를 다루는 숙련된 기능을 지녀야 함과 동시에 먹 굿는 일과 도면의 작성을 통해 전체 건축물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과 진행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 예용해, 앞의 책.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앞의 책. 신응수, 앞의 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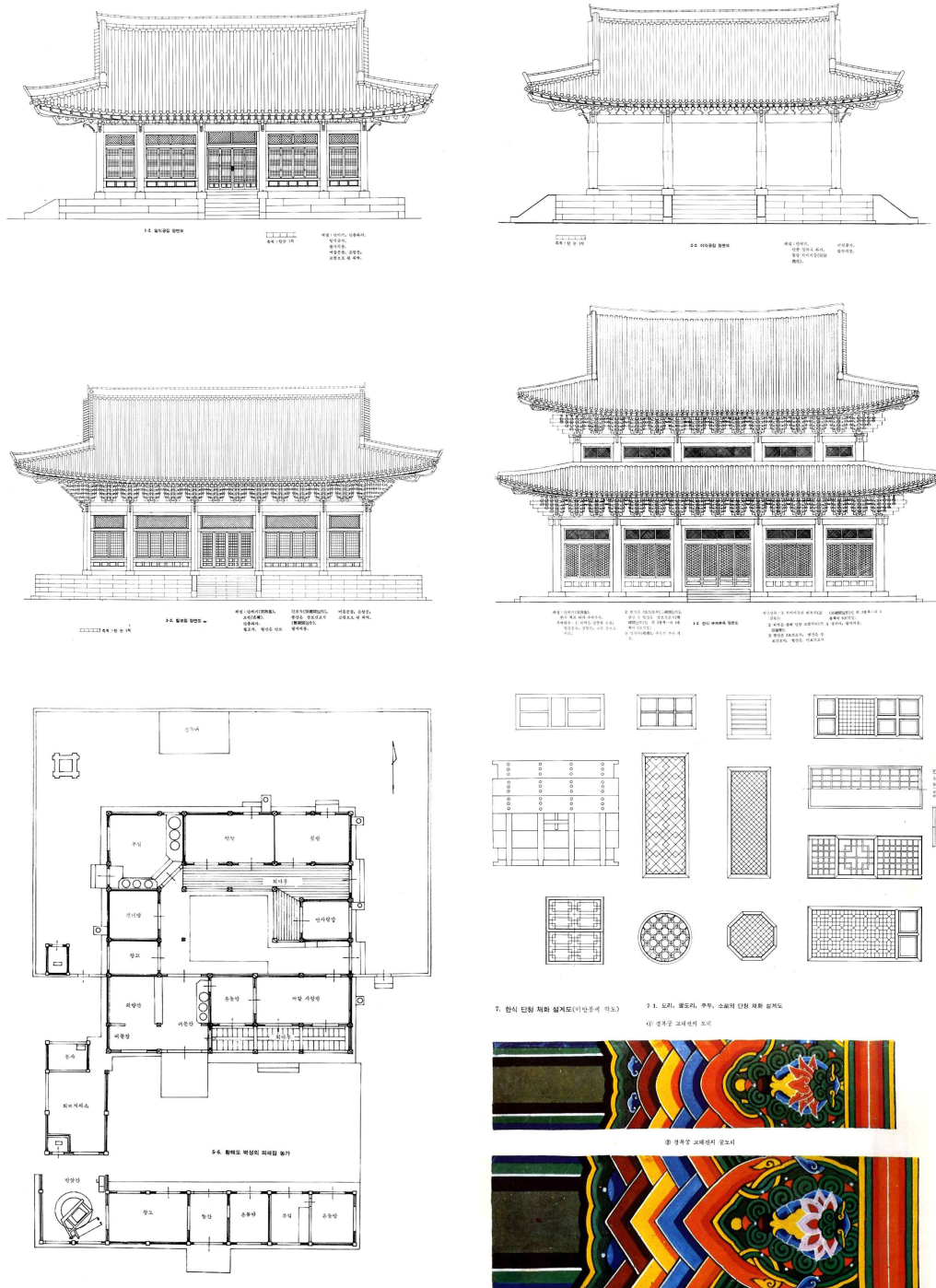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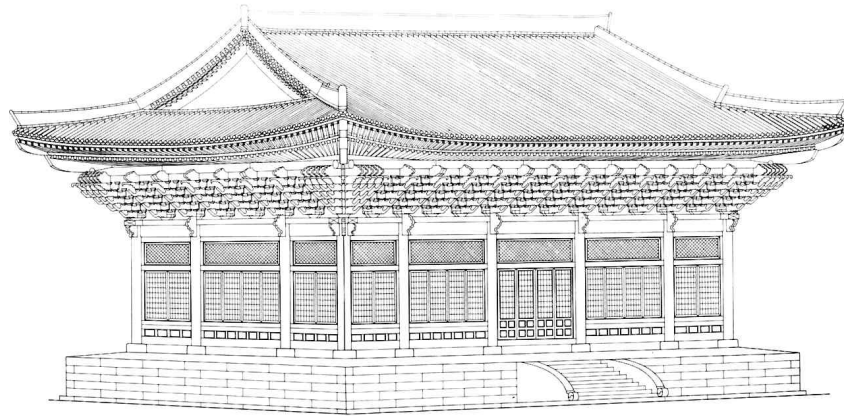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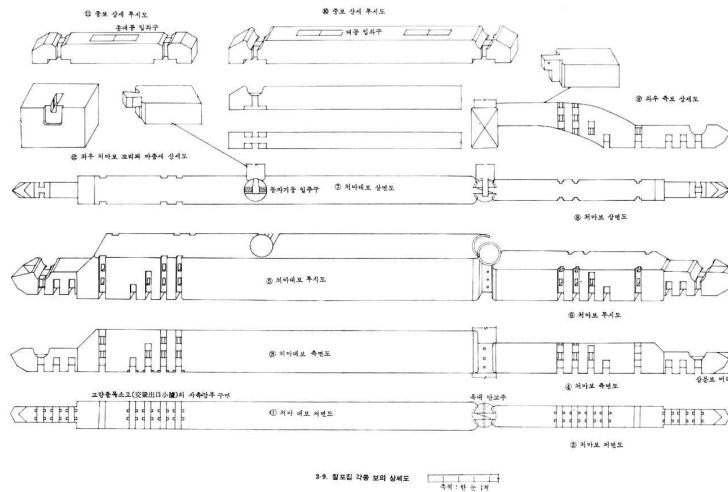
그림 52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에 수록된 도판의 종류. 시계방향으로, 「일익공집 정면도」, 「이익공집 정면도」, 「한식 부계루옥 정면도」, 「한식 문살 창호도」, 「경복궁 교태전 도리의 단청채화도(이만복 作)」, 「황해도 벽성의 띄새집 농가」(출처: 조승원, 조영무 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축척: 1/400

3-4. 칠포집 투시도

그림 53 칠포집 투시도(출처: 조승원, 조영무 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3-5. 칠포집 각종 평면 상세도

그림 54 부재 상세도(출처: 조승원, 조영무 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55] 그는 기둥 상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공포 및 지붕가구의 제작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제공부터 7제공까지를 각 포작의 층별 도면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각 포작의 높이에 해당하는 평면도와 양시도를 기본으로 해당 높이의 단면도와 층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의 상세도까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아래부터 위로의 수직 높이별 도면 작성법은 칠포집 외에도 이익공집의 세부 상세도와 중층 한옥의 구조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중목조로서 마치 조각처럼 부재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조립되는 전통 목조건축의 가구 방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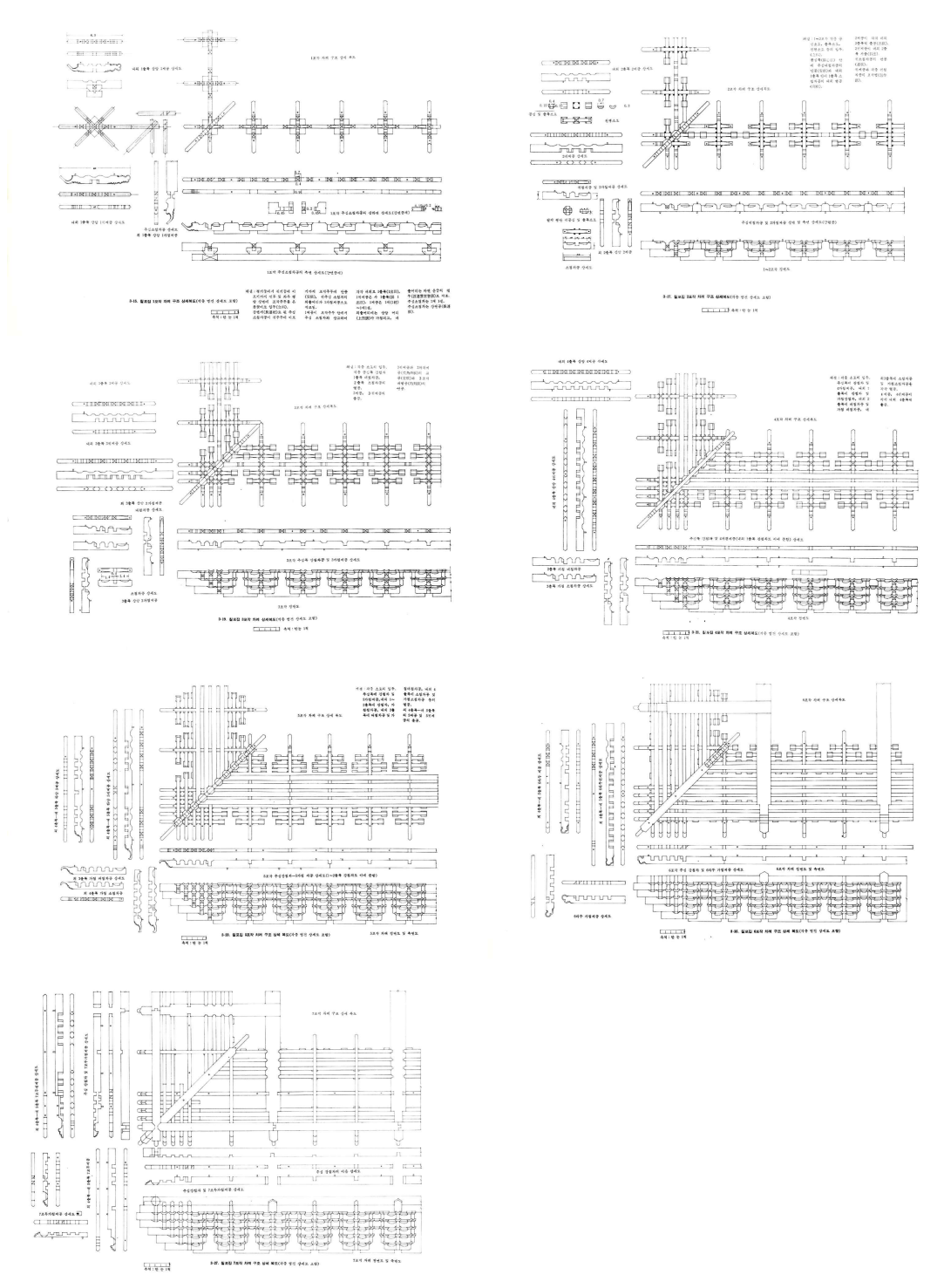


그림 55 철포집의 각 제공 층별 구조 상세도(출처: 조승원, 조영무 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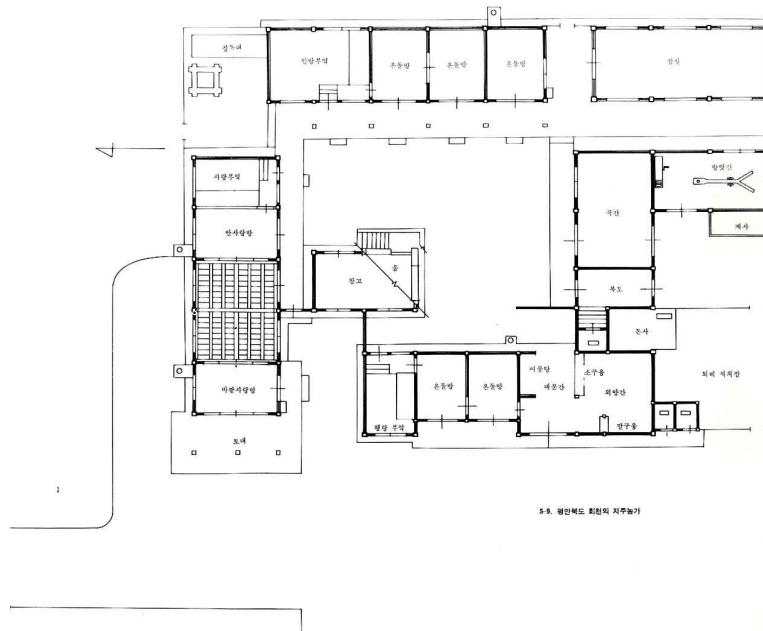


그림 56 평안북도 희천의 지주농가. 조승원 처 최명숙의 고향집(출처: 조승원, 조영무 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민음사, 1981)

마지막으로 주요한 건축 도면 외에 특기할 사항은 수록된 지역별 민가의 도면들이다. 책에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의 총 10장의 농가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평안남도 맹산의 조승원 고향집과 평안북도 희천의 조승원 처의 고향집이 포함된다.<sup>361)</sup>[그림 56] 이들 도면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나 수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판단할 때 도면들은 그가 구체적인 실측을 통해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살펴본 집의 기억을 되살려 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승원이 개인의 기억을 역사적 맥락에서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억에 의존한 기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현재 확인 불가능한 이북 지역의 민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

361)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2017.3.22, p.14.

조영무에 따르면 수록된 평안북도 희천의 지주농가는 조승원의 처이자 그의 어머니인 최명숙이 태어난 고향집이라고 한다.



그림 57 1973년 3월, 성북구 자택 시하장 마룻방(작업실)의  
원고 앞에서의 조승원(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 (3)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의의와 평가

그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의미는 크게 3가지 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전통건축 관련 고문헌의 기초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는 『영조법식』, 『화성성역의궤』, 『저승전의궤』, 『인정전중수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을 참고하는 바탕에 개인의 경험적 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책 내용의 일부에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표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참고 문헌들에 대한 해설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로서의 책의 특성은 용어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책에서는 『영조법식』과 『화성성역의궤』 등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을 해설하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용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이를 복원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로 책은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은 한국 건축사의 개괄, 익공, 온돌, 민가, 풍수지리, 조선시대 가옥 규제 등의 내용을 『화성성역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함께 수록된 설계도의 구성과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참고한 『영조법식』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전통건축을 전달하는 책의 1차적인 저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은 전통건축의 제작, 제도의 기법을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록된 설계도는 능숙한 근대식 제도 기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통



한식목조건축 설계원론의 저자인 82세의 趙勝元씨와 아들 英武씨. 정확한 비례에 따라 생겨나는 한식건축의 수백가지 기법을 처음으로 저술했다.



그림 59 경향신문 보도 당시의 사진(출처: 그림 58 1983년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초평건  
「『韓式건축설계 원론』 펴낸 趙勝元웅 韓 축상 수상(출처: 조영무 개인소장)  
屋건축 技法를 물려준다」, 『경향신문』,  
1982.02.03.자 기사)

건축의 제작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승원의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실례이면서 동시에 건축 실물로 가늠할 수 없는 조승원의 전통건축에 대한 학습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981년 12월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출간되어서야 그는 언론과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sup>362)</sup> 경향, 서울신문, The Korea Herald, 연합뉴스, 신동아 등의 언론에서 책의 출간에 대한 취재, 보도가 있었으며 『공간』, 『꾸밈』, 『건축가』의 건축 잡지에 책의 소개와 함께 서평이 게재되었다. 언론 보도들에서는 책에 대한 호평을 쏟아내며 그의 대목 출신의 이력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가 건축계에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로 작

362) 1960년대 활발했던 조승원의 전통건축 학습과 실무, 저술 활동은 1970년대에 이미 조금씩 한국 건축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1차적으로는 1960, 70년대의 한국 건축계의 전통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차적으로는 그의 차남 조영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조영무에 따르면 1975년 6월 『공간』 지 97호에 게재된 조승원의 인터뷰는 그가 건축계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이었고, 조승원 개인적으로도 이를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여겼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후 저서의 출간까지 조영무는 조금씩 조승원의 원고를 『건축』, 『건축사』 지 등에 수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출간이었다. 한편 1975년 6월의 『공간』 지에 게재된 인터뷰는 조영무에 의해 실현된 것은 아니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 자료가 부족한 이유』, 2017.3.25., p.2.

용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를 통해 그의 이력이 도판수 등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은 한계였다. 건축지에 게재된 서평들에서는 대체로 책을 호평하면서도 사용된 낱선 용어들과 『영조법식』의 인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1983년 조승원은 이 저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초평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된다.<sup>363)</sup> 이는 정식 근대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비회원으로서 최초의 사례였다.<sup>364)</sup>

---

363) 「82년 艸平建築賞 趙勝元翁이 받아」, 경향, 1983.03.01.

364) 현실비평연구소,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 4.3.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와 의미

조승원은 1967년 완성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소식관」을 시작으로 1970년대 말까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였다. 이는 1957년 춘천사범학교 공사 도중 얻게 된 발상을 실현시킨 것이었다.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현대적 재료와 구조를 통해 전통을 계승해야한다는 그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물이며 동시에 전통과 근대를 넘나드는 학습의 종합적 성과였다.

엄밀히 말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까지 조승원이 설계, 시공했던 작품들은 작가의 개성을 잘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조승원 건축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승원 개인에게는 늦은 시기의 성과였으나 전후 한국 근, 현대 건축사의 흐름에서 전개된 철근콘크리트조에 전통의 주제를 접목한 건축 사례들 중에서는 이른 시기의 결과물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1967년 소식관 이후 조승원이 설계, 시공한 작품은 실현되지 않은 하나의 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총 13개이다. 이 중에서 소식관을 비롯하여 「도선사 호국 참회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과학관」, 「베트남 평화당」, 「삼청각 일주문」, 「삼청각 유하정」까지의 총 6개의 작품이 현존하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일하게 전해지는 조승원이 직접 작성한 건축 계획의 도면으로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의 정, 측면도를 확인할 수 있다.<sup>365)</sup> 여기에서는 현존 건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조승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의 특성을 기본형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실험의 관점으로서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김수근, 김중업, 강봉진 등 1960년대 전통을 주제로 삼은 한국 현대 건축물들과

---

365) 조승원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과 직접 관련된 설계 도서들을 거의 전하고 있지 않다.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의 도서들은 건축가가 건물을 계획하고 이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의 부재는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허나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실례들의 현장 답사를 통해 이를 최대한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조영무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료 부족의 주요한 원인으로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였다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조승원의 경험을 지적하였다. 조승원이 항일독립운동의 죄목으로 복역한 후 일본경찰에 의해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평생 동안 자기기록의 기피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영무에 따르면 조승원은 1940년 서울 이주 후에 사무실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자택에도 서가가 없었고, 서류 보관을 위한 보관함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2. 조승원 연구자료가 부족한 이유』, 2017.3.25, p.1.

의 비교를 통해 조승원 건축의 고유성과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 4.3.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전개

본 절에서는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특성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 「서울여자상업학교 과학관」, 「도선사 호국참회원」, 「베트남 평화당」, 「삼청각 일주문」, 「삼청각 유하정」의 총 6개 현존 사례들을 위주로 이들의 건축 배경과 건립 과정 그리고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년도	번호	건축 작품	역할
1965 - 1967	40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	설계, 감리
1968	41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도선사 호국참회원」	설계, 감리
1970 - 1973	4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서울여자상업학교 과학관」	설계, 감리
1971 - 1972	43	「대구 2군 사령부 한식 법당」	설계, 감리
1972	44	월남 사이공 시내공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평화당」	설계, 감리
	45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삼청각 일주문」	설계, 감리
	46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삼청각 유하정」	설계, 감리
	47	「홍 교장 주택」	설계, 시공
1973	48	「수원 29인 순국열사 사당」	설계, 감리
1974	49	「부산 천안사 법당」	설계, 감리
	50	「용인 한식 별장」	설계, 감리
1975	51	한식 대규모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1978	52	「서울 라이프 주택단지 경로당」	설계, 감리

표 20 제4기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시기」의 작품 목록(1965-1978)

##### (1) 서울여자상업학교를 통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실현(1965-1973)

조승원은 1964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약 9년의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8-69번지의 옛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주요 건축들을 설계, 시공하였다. 그는 1964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시공, 감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67년과 1973년에 각각 완성된 소석관과 과학관을 설계, 시공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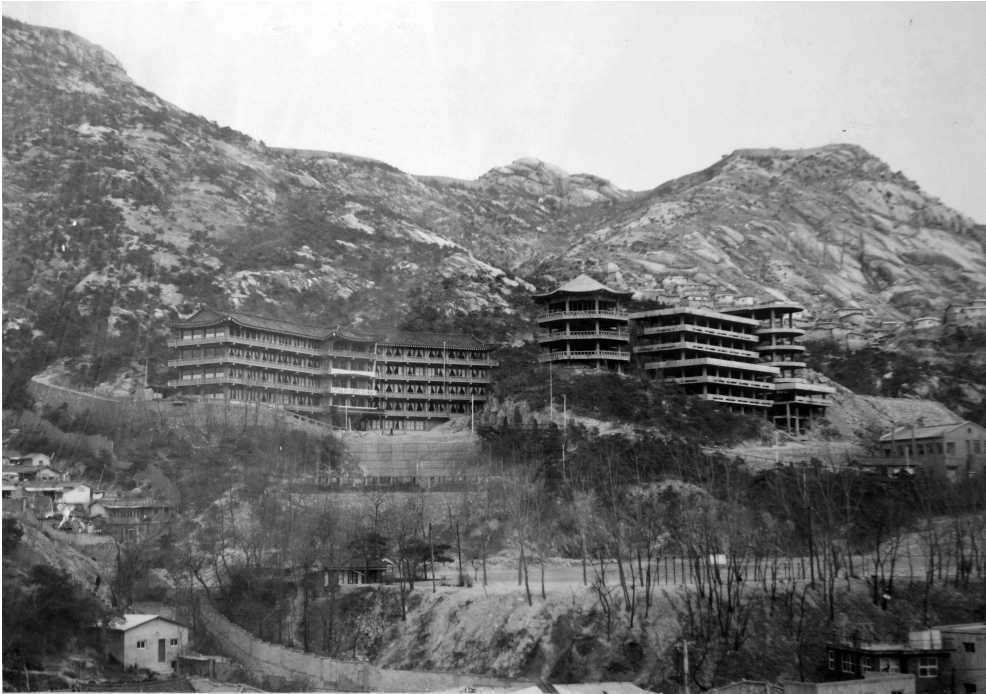


그림 60 1970년대 초 서울여자상업학교의 북서쪽에서의 전경. 가장 왼편의 건물이 본관인 소석관. 중간의 팔각정이 과학관. 가장 오른쪽이 신관인 우석관. 사진은 과학관과 우석관이 준공되기 전의 모습. 1970년 1월 이후 1973년 9월 이전 촬영 추정(출처: 조영무 개인소장)

건축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1967년의 소석관은 그가 실현한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이의 성공적인 준공은 그가 이후 다수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승원이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을 맡게 된 배경에는 당시 학교의 교장을 맡았던 홍두표와의 관계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66)</sup> 조승원은 기록에서 소석관의 실현이 홍두표 교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직접 밝히고 있다.<sup>367)</sup> 홍두표는 1964년 1월 18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9대 교장이자 중학교의 4대 교장으로 부임했고, 중, 고교의 교장 분리가 이루어진 1968년 8월 5일부터는 고등학교 교장으로만 1974년 7월 30일까지 재직하였다.<sup>368)</sup> 이 시기는 조승원이 서울여자상업학교를 위해 완성한 3개의 건축을 모

366) 작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72년 「홍교장 주택」은 홍두표 교장의 사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건물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67) 조승원은 문헌에서 확인되는 모든 서울여상 일과 관련된 기록에서 홍두표를 언급하고 있다.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현석홍, 앞의 책, p.38.





그림 61 조승원(右)과 홍두표(左)(출처: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신동아』, 1982.4.)



그림 62 서울여자상업학교 제9대(중학4대)교장 홍두표(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실제로 학교의 역사 기록에서는 홍두표의 주요한 업적으로 체육관, 소석관, 과학관의 준공을 언급하고 있다.<sup>369)</sup> 조승원과 홍두표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보성고등학교의 역사 기록에서 1956년 홍두표가 보성교우회의 이사직을 맡아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홍두표가 1955년 4월에 착공된 조승원의 보성고등학교 석조교사의 공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보성고등학교에 재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 이때의 인연이 서울여상의 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70)</sup>

368)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p.151.

369)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같은 책, p.151.

370) 동성학원, 앞의 책, p.543.

실제로 이왕기는 글에서 조승원과 홍두표의 보성고등학교를 통한 직접적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1965년부터의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일이 보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당시 철근콘크리트조 새 교사를 직영으로 시가보다 아주 싸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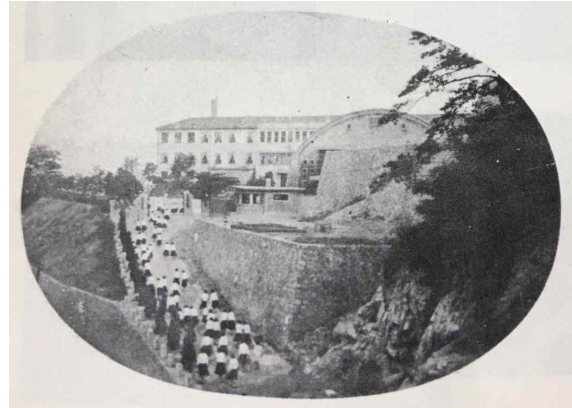


그림 63 1964년 9월 29일 서울여자상업학교 체육관 낙성식(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그림 64 1965년 서울여자상업학교 학생들의 등교 모습. 뒤로 아치형의 체육관 정면이 보인다.(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서울여자상업학교는 1926년 한규설 대감의 자제 한양호에 의해 본과 3년 과정으로 견지동에 설립된 경성여자상업학교의 후신이다. 학교는 1936년 현재 소석관과 과학관이 남아 있는 홍제동 38번지의 터로 이전하였으며 1951년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문영여자중학교로 체제가 변경되었고 1991년 현재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5번지로 터를 이전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홍제동 시절의 서울여자상업학교는 1957년부터 도서실, 생활 실천실 등을 신축하며 시설 정비를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서며 교육 인구의 일반적 증가와 경제 배경에 따른 상업계와 실업계 교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였다.<sup>371)</sup>

어준 것을 고맙게 여긴 홍두표가 서울여상 교장으로 부임하여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의 사실 관계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를 살펴보면, 홍두표가 보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1961년 7월 29일부터 1963년 4월 2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조승원의 보성고등학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왕기의 언급에서 일부의 사실 관계는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보성고교 공사에 의한 홍두표와의 인연을 통해 조승원이 서울여상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왕기, [추모특집] 20세기 격동기의 마지막 건축장인 조승원, 『꾸밈』, 64호, 1987.2, p.95.

한편 홍두표는 현 서울농대 전신인 서울고농 출신으로 서울여상의 교장에 부임하기 이전에는 경북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그는 전국 상업고등학교 교장회 회장직을 맡았었고, 1971년에는 교육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교육헌장 선포 3주년 기념식 때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서울女商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151.

371) 홍제동 서울여자상업학교는 1960년 1월 15일 교실을 확장하였고, 1961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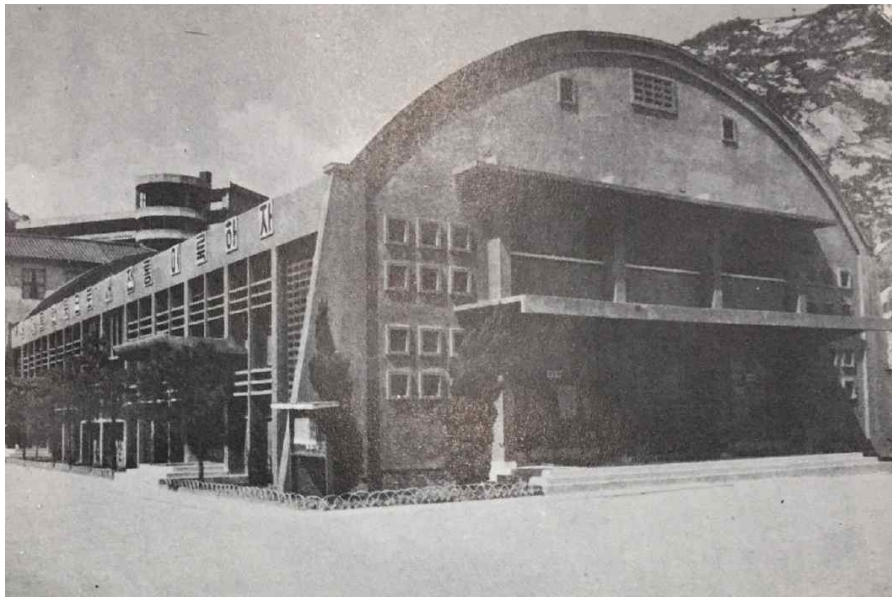


그림 65 서울여자상업학교 체육관. 1976년 이전 촬영 추정(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조승원이 서울여자상업학교에서 완성한 3개의 건물은 이러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학교 규모 증가에 따른 시설의 확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승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서울여상의 건물은 1964년에 신축 된 체육관이다. 그는 이의 설계를 맡아보진 않았으나 시공과 감리를 맡아보았다. 체육관의 낙성식은 1964년 9월 29일 서울여상의 38주년 개교기념일에 열렸다.<sup>372)</sup> 이는 당시 학교 교문을 통과하는 등푼길에서 첫 번째로 마주치는 건축물이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규모는 1층의 수용인원이 1200명, 2층의 수용인원은 600명이었으며, 건평 272평에 연건평 382평이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였다.<sup>373)</sup>

현재 이 건물은 멸실되었으나, 학교 역사 기록의 사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외관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볼트형의 지붕으로, 이는 실내공간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정면 중앙에는 큰 콘크리트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그 좌우로는 정방형의 창을 돌출로 설치하였다. 측면은 철근콘크리트조 벽기둥이 나열되어 그리드를 이루고 있고 빛의 음영으로 보아 내부에서 드나들 수 있는 테라스 공간

---

에는 후관인 강식관을 완성하였다. 또한 1963년 6월 10일에는 운동장 확장 공사를 수행하였다.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文英學園 七十年史 : 1926 - 1996년』,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1996, pp.84-85.

372)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같은 책, p.85.

373)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5, p.221.

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실내는 볼트형 지붕 아래에 전면 무대를 두고, 전면 무대로부터 3/4 지점부터 3면에 2층의 테라스 공간을 설치하였다.<sup>374)</sup> 이 건축의 계획에 조승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볼트형 지붕, 측면의 얇은 벽기둥, 콘크리트로 성형한 것으로 보이는 정면의 돌출창의 몰딩 등을 통해 1950년대부터 이어진 조승원의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학습의 진전을 엿볼 수 있다.

조승원이 1965년 당시 서울여자상업학교의 고등학교 본관인 소석관을 설계, 시공한 데에는 체육관의 성공적인 완성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교 측은 1965년 3월에 소석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승원은 이를 한식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으로 계획하였고, 1966년 5월 10일에 기공식을 보았다.<sup>375)</sup> 그는 학교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도로조성 공사비까지를 포함하여 건평당 35,000원에 이를 완공시켰다.<sup>376)</sup> 완공 후 1967년 10월 26일에는 성대한 준공식이 열렸으며, 건축명은 설립자의 아호를 따서 소석관으로 명명하여 고등학교의 본관으로 이용하였다.<sup>377)</sup>

건축의 규모는 건평 232평 연건평 1023평에 4층이었다.<sup>378)</sup> 학교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의 시설은 당시 초현대식이었다.<sup>379)</sup> 내부에는 30여개의 교실과 지하 가사실습실이 설치되었고, 모든 층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었다.<sup>380)</sup> 무엇보다도 계자 난간을 본뜬 테라스가 설치되고 최상부에 콘크리트 성형의 서까래에 한식기와를 올린 지붕을 설치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외관은 이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학교의 기록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건물은 전망이 뛰어났고 고전적 동양미를 살린 우아한 특색이 있다고 호평하고 있다.<sup>381)</sup>

374)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5.

375)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5.

376)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 (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소석관의 공사와 관련한 조승원의 기록에서는 그가 이를 통해 당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이 비싸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건축비를 현재의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기록에서 자신 있게 건평당 35,000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당시 기준에서 저렴한 건축, 공사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377)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6.

378)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21.

379)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5.

380)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p.85-86.

381) “... 정면에 넓은 베란다를 가진 전망이 뛰어난 건물이며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동양미를 살린 우아한 특색이 있다.”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86.



그림 66 소석관 낙성식 모습(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소석관이 완성된 3년 후 1970년 조승원은 과학관을 통해 서울여자상업학교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실현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다. 이는 소석관의 성공적인 완성과 홍두표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학교 측에서는 인왕산 자락을 따라 본관 소석관의 남측으로 신관 우석관의 신축을 계획하였고 이에 겸하여 소석관과 우석관 사이에 과학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sup>382)</sup> 조승원은 과학관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팔각정으로 계획하였다. 그는 소석관 이후 1968년 도선사를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보다 숙련하였고, 따라서 이후에 완성된 과학관은 이전보다 수월하게 계획, 시공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학관은 1970년 1월 20일에 착공하여 1973년 9월 1일에 준공을 보았다.<sup>383)</sup> 기록에 따르면 공사는 우석관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약 2년의 공기를 계획하였으나 건물 기초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공사 도중 우석관의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여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sup>384)</sup> 완성된 과학관은 특별교실 3개를 포함하였고, 건평 47.5평

382)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20.

383)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20.

384)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20.

학교의 역사 기록에서는 두 건축물이 함께 계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계획과 관련한 언급을 보면, 과학관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과 우석관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과 현대가 외관에서 대조되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승원의 작품 목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우석관의 설계와 시공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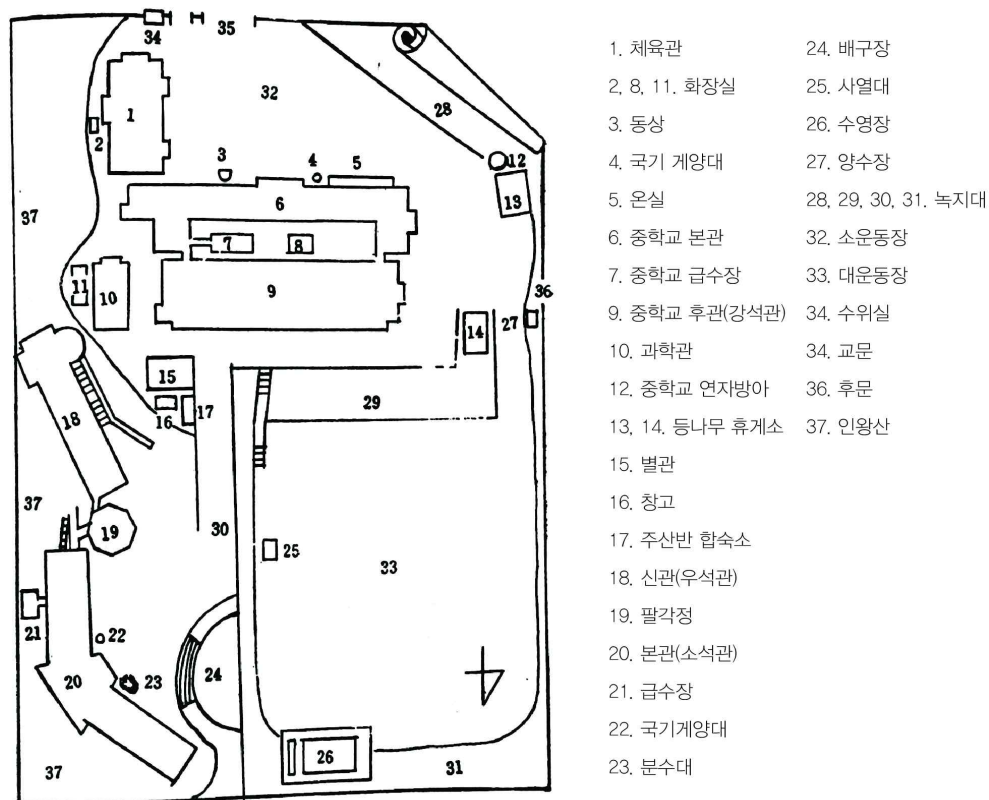


그림 67 1976년 학교 시설의 배치도. 그림의 20번이 소석관, 19번이 과학관, 18번이 우석관이다. 세 건물은 학교의 가장 주요한 시설로서 교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다.(출처: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에 연건평 143평의 규모였다.<sup>385)</sup> 이후 1976년 5월에는 소석관 1층의 교무실과 직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다.<sup>386)</sup>

과학관이 완성되자 소석관과 우석관을 포함한 인왕산 서쪽 자락의 높게 솟은 서울여자상업학교의 건축들은 무악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군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소석관과 과학관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인상으로 당시 그 지역의 명물로 꼽혔다고 한다.<sup>387)</sup> 하지만 1991년 서울여자상업학교가 봉천동으로 이전하고, 이전의 학교 운동장 자리였던 소석관, 과학관의 남서쪽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로 인해 건물의 외관은 완전히 가리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옛 서울여상의 건물들은 멸실되었으나 다행히

385)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21.

386)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編著, 앞의 책, p.218.

387) “그가 지은 건물 가운데 특히 서울女商校舍는, 북한적십자단원이 서울을 오가다 절간이냐고 물어 학교라고 하자 남한의 학교는 모두 저렇게 지었느냐고 되물을 정도로 장안의 명물로 꼽혔다.”, 「오늘의 한국인(51) 조승원」, 『신동아』, 1982.4.



그림 68 박희만 作, 서울문영여자중학교 전경, 194x97cm, 유화. 그림의 가장 왼편이 소석관. 그 오른쪽이 과학관. 그 오른쪽이 우석관. 가장 오른쪽에는 체육관의 측면도 보인다. 이 그림이 축소되어 담긴 엽서에는 그림이 1970년에 작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과학관과 우석관의 완성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이는 1973년 9월 1일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엽서)

소석관과 과학관은 남아 서부수도사업소의 업무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 건물들은 실내가 일부 정비되고 외부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하였지만 완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설계와 시공(1968)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에 위치한 삼각산 도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의 사찰이다.<sup>388)</sup> 사적기에 따르면 도선사는 도선국사에 의해 862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sup>389)</sup> 이 사찰은 1950년대까지 도선암이라 불리는 작은 규모였으나, 1961년 청담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세를 확장하여 강남의 봉은사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하였다.<sup>390)</sup>

1968년의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건립은 도선암이 도선사로 그 규모가 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391)</sup>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장로원장 등을 두루

388)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각산 도선사』, 미출간, 2015.12, p.11

389)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같은 책, p.11.

390)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서울의 전통사찰』, 1994, pp.137-142. 「생활불교의 도량 도선사」, 『경향신문』, 1987.2.13.

391)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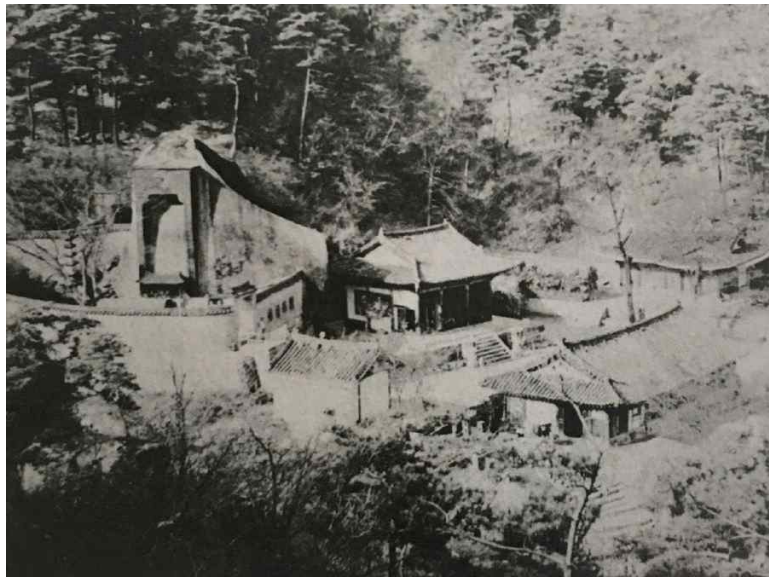


그림 69 도선암 시절의 도선사. 1961년 촬영 추정(출처: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각산 도선사』, 2015.12.)

역임한 청담 스님은 도선사 주지 시절 육영수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육영수의 후원을 받아 도선사 호국 참회원을 건립할 수 있었다.<sup>392)</sup> 또한 이러한 후원에 의해 우이동 버스종점에서 도선사 앞 광장에 이르는 4km의 청담로가 신설되었다.<sup>393)</sup> 실제 육영수는 1967년부터 도선사에 다니기 시작하여 1968년에는 청담 스님으로부터 대덕화라는 불명을 받았고, 1971년 청담 스님의 사후에도 꾸준히 도선사를 찾았다고 한다.<sup>394)</sup> 이에 따라 육영수 생전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의 도선사는 그가 드나드는 사찰로 유명세를 탔다.<sup>395)</sup>

청담 스님은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설계, 시공을 조승원에게 맡긴다.<sup>396)</sup> 도선사의 초기

392)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2.

393)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2.

394) 「물심양면으로 따뜻한 손길」, 『매일경제』, 1974.8.19.

기사에 의하면 육영수가 처음 도선사를 방문한 시기가 1967년 8월 12일이라고 한다. 이는 당시 취재 중 인터뷰를 한 스님의 증언이므로 매우 정확한 날짜는 아닐 수 있다.

395) 이와 같은 도선사와 청담 스님, 육영수의 관계는 1990년 10월 6일부터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고은 시인의 자전적 소설 『나의 산하 나의 삶』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육영수는 독실한 불교신도였으며 삼각산 도선사의 청담 스님을 찾아가 불공드리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또한 우이동에서 도선사로 올라가는 청담로가 신설되며 도선암이 도선사로 커졌다고 한다. 「나의 산하 나의 삶 142」, 『경향신문』, 소설, 1995.2.26.

396) 현석홍, 앞의 책, p.38.





그림 70 조승원과 청담 스님. 1971년 이전 촬영 추정(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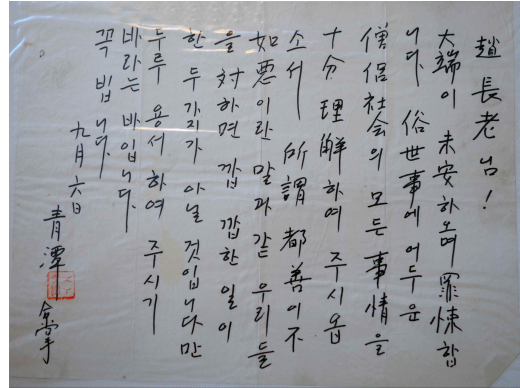


그림 71 청담 스님이 조승원에게 보낸 친필 편지. 글에서 조장로는 조승원을 칭한다. 건축비를 청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계획은 호국참회원을 포함하여 도선사의 대웅전과 기타 건물을 포함한 대대적인 증창으로 이루어졌고, 조승원은 이 전부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397)</sup> 허나 이는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호국참회원만이 실현되었다.<sup>398)</sup>

조승원은 호국참회원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계획하였고, 공사는 직영으로 수행하여 1968년 단청 공사비까지를 포함한 건평당 56,000원에 건물을 완성하였다.<sup>399)</sup> 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1000평의 규모였고,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동측의 정면에서는 3개 층, 서측 후면에서는 1개 층으로 이용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최상

397) 현석홍, 앞의 책, p.38.

이 기록에 따르면, 청담 스님과의 도선사 일을 통해 당시 조승원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 위치할 한식건축물도 설계한 적이 있다고 한다. 허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고, 관련된 구체적인 건축 도서들도 전하는 바가 없어 확인할 길은 없다.

398) 도선사 증창이 계획대로 완성되지 못한 데는 1971년 청담 스님의 돌연한 죽음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도선사의 증창은 1980년 도선사 정비 10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1990년 10월에 완성된 대웅전의 신축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선사 신축 대웅전 완공」, 『동아일보』, 1990.11.12.

399) 「생활불교의 도량 도선사」, 『경향신문』, 1987.2.13.

건축이 완성된 후 사찰에서는 별다른 준공식이나 낙성식은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건축비의 청산이 1976년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청담 스님은 사망 전 이와 관련하여 조승원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이 편지의 원본은 현재 조영무가 소장하고 있다.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그림 72 조승원에 의해 설계, 시공된 도선사 호국참회원의 전경. 1970년대 촬영된 것으로 추정(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층부의 건축 외관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몸체에 팔작지붕을 얹었고 전체는 단청으로 마감되어, 서울여자상업학교의 소석관과 비교했을 때 훨씬 즉물적으로 전통건축을 상기 시키도록 완성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외관은 1개 층으로 이용되는 서측 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도선사 호국참회원은 1977년 한 번의 증축을 거쳤지만 건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며 현재에도 법당, 승방 등의 본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승원은 도선사 호국참회원을 통해 소석관에서는 행하지 못했던 콘크리트에 의한 다양한 전통 요소의 표현을 실험해볼 수 있었다. 호국참회원 이후 1970년대 조승원 작품들은 비교적 안정된 세부 표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호국참회원은 그에게 과도기의 작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호국참회원의 건립은 당시 도선사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그가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1970년대 많은 건축 작품을 수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조승원에게 호국참회원은 세부 실험의 과도기이자 작품량을 늘릴 수 있었던 도약의 발판으로 중요한 작품이었다.

### (3) 베트남 평화정과 삼청각 일주문, 유하정의 설계와 시공(1972)

조승원의 작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작품은 하나의 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개이다. 그는 소석관과 호국참회원의 성공적인 준공 이후 1970년의 서울여자상업학교 과학관을 필두로 1978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11개의 작품들 중 대

부분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설계, 시공된 것으로 짐작된다.<sup>400)</sup> 이들 중에서 현재 파악 가능한 작품은 전술했던 과학관을 포함하여 「베트남 평화당」(1972), 「삼청각 일주문」(1972), 「삼청각 유하정」(1972)의 세 작품이다. 세 작품은 모두 과학관이 공사 중이던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 또한 실현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1975)의 정, 측면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원은 1971년 대구의 2군사령부 부대 내에 한식으로 법당을 설계하여 1972년 이를 완성하였다.<sup>401)</sup> 그 과정에서 육군본부는 당시 파월부대가 베트남 사이공 시내에 조성을 계획한 타이한 공원 내 팔각정의 설계, 시공을 조승원에게 맡긴다.<sup>402)</sup> 파월한국군은 이전에도 1967년 퀴논(Qui Nhon)의 월한정과 1970년 다낭(Đà Nẵng)의 평화정 등 공원을 조성하고 내에 한식 팔각정을 건설하여 베트남에 기증한 적이 있었다.<sup>403)</sup> 이는

---

400) 조승원의 19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작품들 중 현존하는 4개의 작품과 하나의 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6작품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문헌에서 「수원 29인 순국열사 사당」(1973)은 포작건축으로 계획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대구 2군 사령부 법당」(1971)의 설계, 시공으로 그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베트남 「평화당」을 설계 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당과 법당의 두 작품은 모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이었을 것을 보인다. 또한 「부산 천안사 법당」(1974)과 「용인 한식 별장」(1974) 역시 작품 목록에서 법당, 한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설계, 시공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석홍, 앞의 책, p.38.

「홍 교장 주택」(1972)과 「서울 라이프 주택단지 경로당」(1978)의 경우 작품 목록에서 사당, 법당, 한식 등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짐작할만한 단서의 표기를 확인할 수 없어 예외로 하였지만, 조승원이 19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역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설계, 시공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01)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현석홍, 앞의 책, p.38.

402)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현석홍, 앞의 책, p.38.

403) 「월남 땅에 팔각정 맹호 성대한 상량식 거행」, 『매일경제』, 1967.6.22. 「월남 소식」, 『매일경제』, 1967.9.4. 『파월장병 월남전선 앨범: 백마 28연대 도깨비 3대대(1970)』, vietvet.co.kr. 『파월장병 월남전선 앨범: 청룡(1971)』, vietvet.co.kr. 『대한뉴스 제788호』, 영상자료, 1970.8.8.

매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1967년 3월 6일 기공식을 올려 1967년 8월 14일 준공한 퀴논의 월한정이 부대 내를 제외하고 월남의 첫번째 팔각정이었다고 한다. 당시 퀴논시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팔각정은 이의 기념사업으로 수행된 것이다.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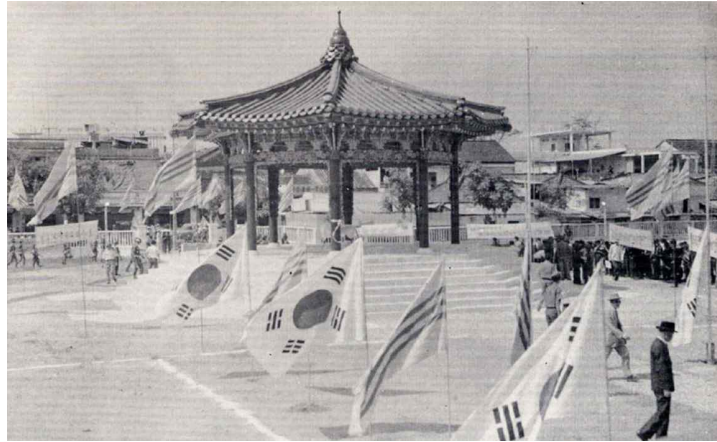


그림 73 퀴논 월한정의 준공식 그림 74 다낭 국제공원 내 평화정의 건립 당시 모습(출처: 모습, 1967년 8월 14일 촬영 『파월장병 월남전선 앨범: 청룡(1971)』, vietvet.co.kr)  
추정(출처: vietvet.co.kr)

한월의 친선 도모와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남기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사이공의 공원 조성과 팔각정 및 분수대의 건립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404)</sup> 이는 1973년 파월한국군이 철수하기 직전 해 마지막으로 건설된 것이었다. 조승원은 이 건축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팔각정으로 설계하였다.

건축의 착공은 1972년 2월 27일에 이루어졌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위해 국내의 고전건축기술자 총 30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sup>405)</sup> 실제로 조승원은 직접 본

시가 중심지인 퀴논시 로터리에 800여평 대지의 공원을 조성하고 팔각정을 세웠다. 설계는 서울미대 출신 맹호공병참모 김기옥 중령에 의해 서울 남산 팔각정을 본따 이루어졌다. 당시 공사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단청 50깁런, 기와 4,349매를 재료로서 지원하였고, 퀴논 시장이 기부한 고무나무 12,000채와 시멘트 250포대가 사용되었다. 2004년 6월 19일에 촬영된 멸실된 퀴논의 월한정을 살펴보면 이는 목조로 지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외에도 군에 의해 월남에 건설된 정자로는 백마정도 확인된다. 이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백마사단본부의 부대 내에 건립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 2월 17일에 건물의 정초식이 열렸다. 백마사단본부는 당시 사이공 동북방 약 48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이 건축은 백마강변 낙화암 옆에 자리한 백화정을 본따 한식 육각정으로 설계되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청기와 5천장이 사용되었다. 「백마본부에 백마정 정총리 정초식」, 『매일경제』, 1967.2.18. 「백마사단장 박현식 소장 부임」, 『매일경제』, 1967.7.24.

한편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한 퀴논의 월한정과 다낭의 평화정, 백마정은 모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404) 「사이공에 파이한公園 駐越軍 착공, 八角亭(팔각정), 분수도」, 『경향신문』, 1972.2.8. 『파월한국군戰史: 1972.1.-1973.3.』, 국방부, 1990.12.31, p.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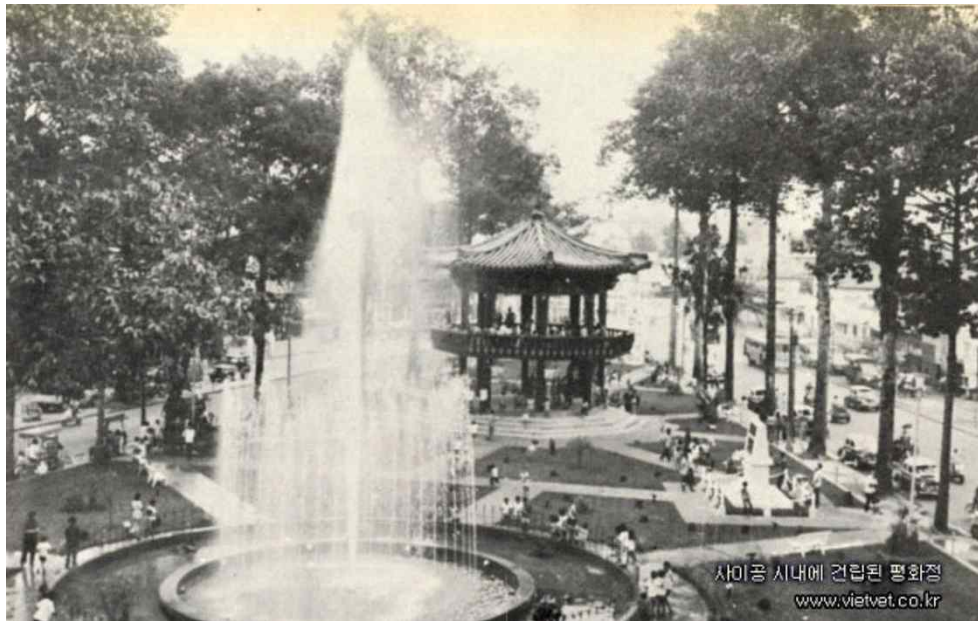


그림 75 1972년에 조성 된 타이한 공원 내 팔각정과 분수대. 당시의 모습. 1970년대 촬영 추정(출처: vietvet.co.kr)

인이 가르치던 일꾼들을 모두 데리고 사이공을 방문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sup>406)</sup> 또한 단청은 단청 인간문화재 이만봉에 의해 이루어졌다.<sup>407)</sup> 당시 공사를 위해 제127공병대 대 제3중대에서는 장교 447명 사병 7,798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로는 덤프트럭 224대, 믹서 34대, 용접기 12대, 크레인 5대 등이 지원되었다.<sup>408)</sup> 자재로는 시멘트 2188포, 목재 46,129 B/F, 합판 226매, 청기와 6,529장 등이 소요되었다.<sup>409)</sup> 건물은 1972년 7월 21일에 완공되었고 당일 오전 10시에는 공원에서 사이공 시에의 기증식이 열렸다.<sup>410)</sup> 이후 건물의 관리는 사이공 시청이 담당하기로 하였다.<sup>411)</sup>

건축은 지붕 너비 12m, 건물 총 높이 14m, 건평 53평 규모의 벽이 없는 2층 팔각정 형태로 완성되었다. 건물에는 박정희 친필의 ‘평화정’과 ‘한일우호’ 현판이 걸렸다. 이는 조승원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프로젝트였으며, 이 일로 그는 당시 사이공 시장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받았다.<sup>412)</sup>

405) 국방부, 같은 책, p.346.

406) 현석홍, 앞의 책, p.38.

407) 현석홍, 앞의 책, p.38. 「名人名匠」, 『매일경제』, 1982.4.17.

408) 국방부, 앞의 책, p.346.

409) 국방부, 앞의 책, p.346.

410) 국방부, 앞의 책, p.346.

411) 국방부, 앞의 책, p.346.

412) 현석홍, 앞의 책,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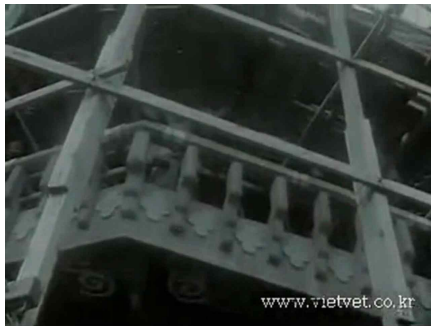


그림 76 1972년 사이공 평화정 공사 당시의 모습(출처: vietvet.co.kr 영상자료에서 캡처)



그림 77 1972년 사이공 평화정에 걸린 현판들(출처: vietvet.co.kr 영상자료에서 캡처)



그림 78 단청이 훼손되기 전의 평화정의 모습(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그림 80 2017년 6월 기준. 현존하는  
평화정의 모습(출처:

<http://blog.naver.com/khlee1959/221032152374> 개인 블로그)



그림 79 2017년 6월 기준 현존 평화정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막혀있는 모습(출처:

<http://blog.naver.com/khlee1959/221032152374> 개인 블로그)

저자가 평화정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으나, 이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현 호치민(Hô Chi Minh) 시의 평화공원(Công Viên Hòa Bình) 내에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413)</sup> 현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진한 녹색으로 새롭게 칠을 하여 기존의 단청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현판은 사라졌으며, 주변이 지저분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창살로 막혀있었다. 하지만 지붕의 기와를 포함하여 전체 구조물은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조승원은 베트남 사이공의 평화정 건축을 끝내고 귀국하여 다음날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115의 삼청각 일을 맡게 되었다.<sup>414)</sup> 당시 그는 개인 자격으로 삼청각의 설계 및 시공의 지도 역할을 맡았다.<sup>415)</sup> 전체의 건축 설계는 라이온 건축연구소의 정수현, 이완표, 윤태수가 맡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직영으로 맡아보았다.<sup>416)</sup>

전체 건축은 대지 13,400㎡에 건평 2,198㎡, 연건축면적 4,328㎡로 완성되었다.<sup>417)</sup> 총 7동의 건축물 중 일화당, 유하정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청천당, 천추당, 취한당, 동백헌은 목조 한옥으로 완성되었다.<sup>418)</sup> 전체 시설은 사괴석을 쌓고 한식기와를 올린

413) 인터넷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베트남을 재방문하여 전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평화정을 확인한 사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최근의 것은 <http://blog.naver.com/khlee1959/221032152374> 링크의 2017년 6월 18일의 기록이다.

414) 조승원, 「전통건축에 대한 체험담」(1976.12), 『비평건축』, 제2호, 1996.4, p.137.

415) 「회원작품」, 『건축사』, Vol.1974, No.6, 대한건축사협회, 1974, p.59.

416) 대한건축사협회, 같은 책, p.59.

417) 대한건축사협회, 앞의 책,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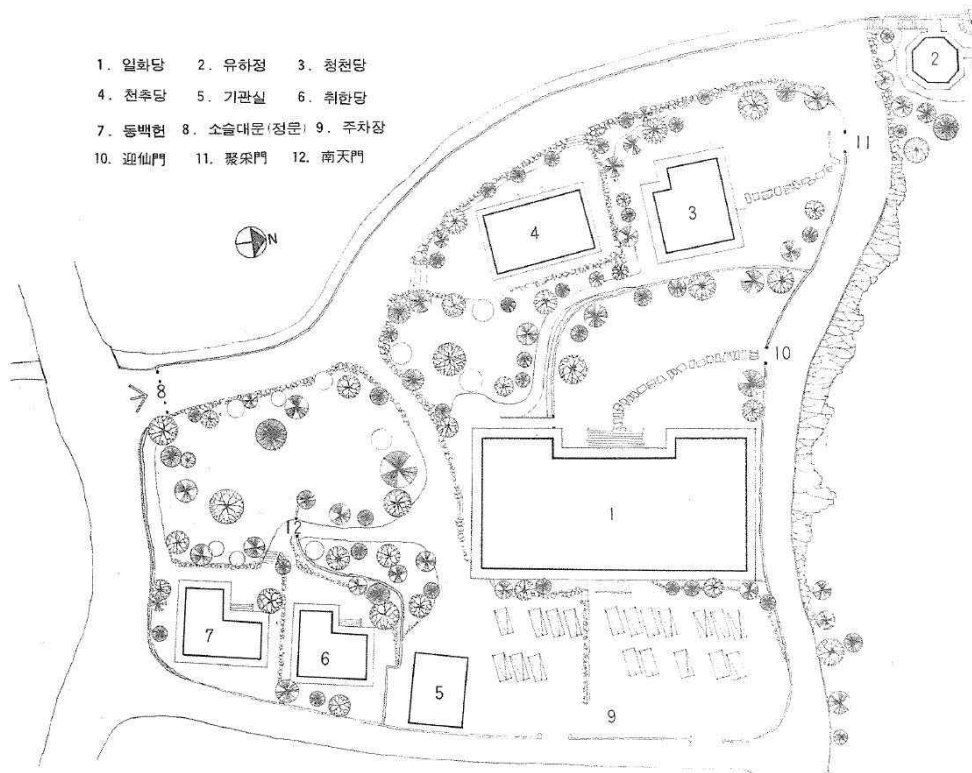


그림 81 삼청각 배치도. 197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출처: 『회원작품』, 『건축사』, Vol.1974, No.6, 대한건축사협회, 1974)

담장으로 둘러졌으며, 4개의 대문이 설치되었고, 내부의 공지에는 수목들로 조경하였다.<sup>419)</sup> 특히 삼청각의 본채였던 일화당은 정면 11칸(약 50m), 측면 5칸(약 30m)에 높이 약 15m의 대규모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완성되었다.

당시 그의 주된 업무는 조연자로서 전체 시공의 감리였던 것으로 보이나, 유하정과 남쪽의 정문 일주문은 직접 설계, 감리하였다.<sup>420)</sup> 그는 이들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계획하였고, 그가 가르쳐 온 장공들이 시공하였다.<sup>421)</sup>

유하정은 서울여상의 과학관과 베트남 평화정에 이어 세 번째로 팔각정의 형태로 완

418)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나머지 하나는 기관실로 이는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조로 완성되었다.

419) 대한건축사협회, 앞의 책, p.59.

420) 조승원, 앞의 책, p.50.

기록에서는 그가 일화당 건축의 지붕구조와 관련해 겪은 일화를 전하고 있다. 당시 그는 이 지붕구조 때문에 설계자와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양대 함성권 교수에게 구조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의 결과가 조승원의 의견과 일치하여 당시 계획되었던 구조설계를 그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였다고 한다.

421) 현석홍, 앞의 책, p.38.





그림 82 완성 직후의 삼청각 유 그림 83 공사 중인 삼청각 일주문. 아래 3인 중 가운데 한 하정. 1972, 3년경 촬영한 것으로 복 입은 사람이 조승원(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추정(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성되었다. 이는 평화정처럼 벽이 없이 열린 형태는 아니었고 과학관과 유사하게 벽과 주위를 두르는 테라스가 설치되었다. 시설면적 171㎡에 층수는 2개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아래층은 기계실로 계획되어 완전히 차단되었고 주된 기능은 2층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경사지에 계획된 특성을 살려 2층의 건물 뒤편으로 배선실과 차실, 화장실을 설치하여 테라스 복도로 연결하였다.

다음으로 삼청각의 정문으로 사용되는 일주문은 조승원의 작품 목록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대문 건축이다. 이는 맞배지붕을 올린 정면 1칸에 양쪽으로 반칸을 덧붙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양 옆의 반칸에 해당하는 문의 지붕은 맞배지붕이 잘린 형태로 중앙의 지붕보다 낮은 높이로 계획되었다. 또 특이하게도 대문의 정, 후면으로 반칸 규모를 내어 잘려진 기둥을 매달았다. 이는 상부에서 보와 도리 등으로 지붕가구와 일주(一柱)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확인되는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들에서 보기 드문 표현 방법으로서 주목을 끈다.

삼청각은 1972년 완성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한일회담의 막후 협상장소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 제4공화국의 국민 접대와 정치 회담 장소로 명성을 떨치며 당시 서울의 3대 요정 중 하나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요정으로 운영되던 삼청각은 경영난으로 1994년 문을 닫았다.<sup>422)</sup> 이후 시설 정비 등을 거쳐 1997년 일반음식점 ‘예향’으로 전환되었다가 1999년 이마저도 폐업하였다. 2000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 상

422) 「삼청각 전통혼례식장 탈바꿈」, 『동아일보』, 199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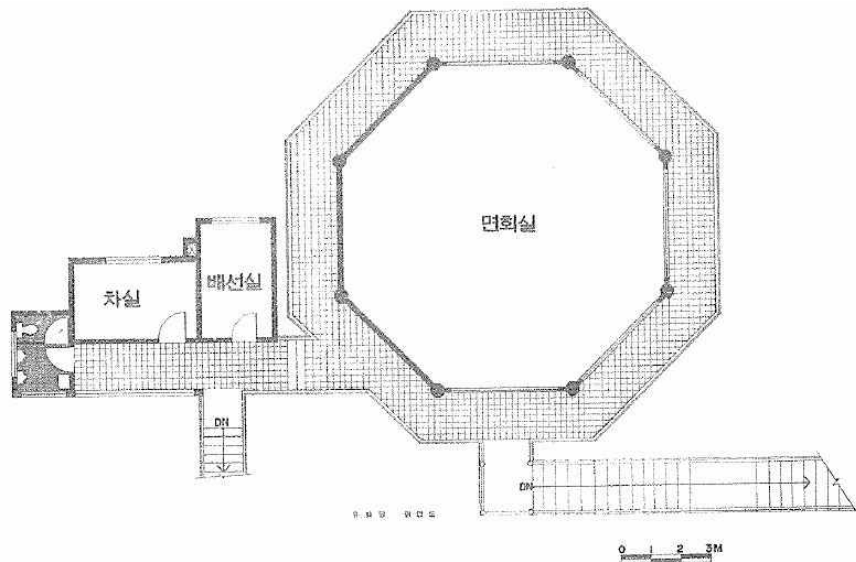


그림 84 삼청각 유하정 평면도. 197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출처: 「회원작품」, 『건축사』, Vol.1974, No.6, 대한건축사협회, 1974)

문화시설로 지정하여 세종문화회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창조건축사사무소와 LG건설에 의해 리모델링을 거쳐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새롭게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423)</sup>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청각의 대부분 건축물은 큰 변경 없이 완성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주문은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하정의 경우 기존의 계단이 철거되고 새로운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창호 외부에 통으로 유리를 설치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유하정은 강좌, 체험, 세미나, 워크숍 등이 가능한 다용도 대여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조승원은 1972년 삼청각 공사 이후 1978년까지 총 5개의 작품을 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현재로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75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의 정면도와 측면도가 전해지고 있어 이를 통해 1970년대 중, 후반의 작품 경향을 대강 짐작해볼 수 있다.<sup>424)</sup>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는 도선사 호국참회원과 유사하게 즉물적으로 전통 건축의 형태를 연상시키도록 계획되었다. 하지만 호국참회원과 달리 지면과 닿는

423) 현대건축사 저, 「삼청각」, 『CA현대건축 시리즈』, 2005.

424) 조영무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 경내에 조승원에 의한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의 실체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송승엽, 『조영무 구술채록 1. 조승원 관련 문헌의 열람 및 검토』, 2017.3.2., p.3.

부분에 높은 기단을 만들었고, 다포의 양식을 채택하였으며 층수는 한층 낮은 2층이지만 칸수를 비롯한 전체 규모는 더 크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조승원은 이를 경복궁 경회루보다 더 큰 규모로 계획했다고 한다.<sup>4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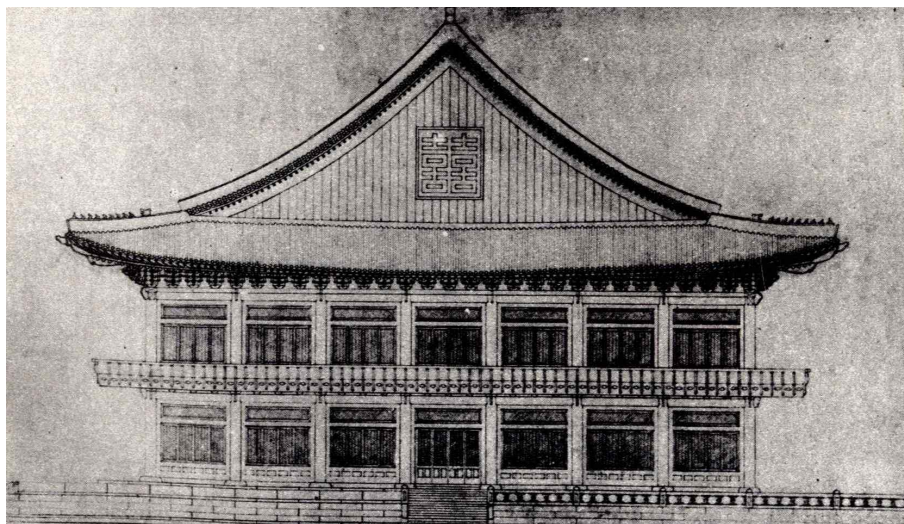


그림 85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측면도(출처: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웅, 『공간』, 97호, 19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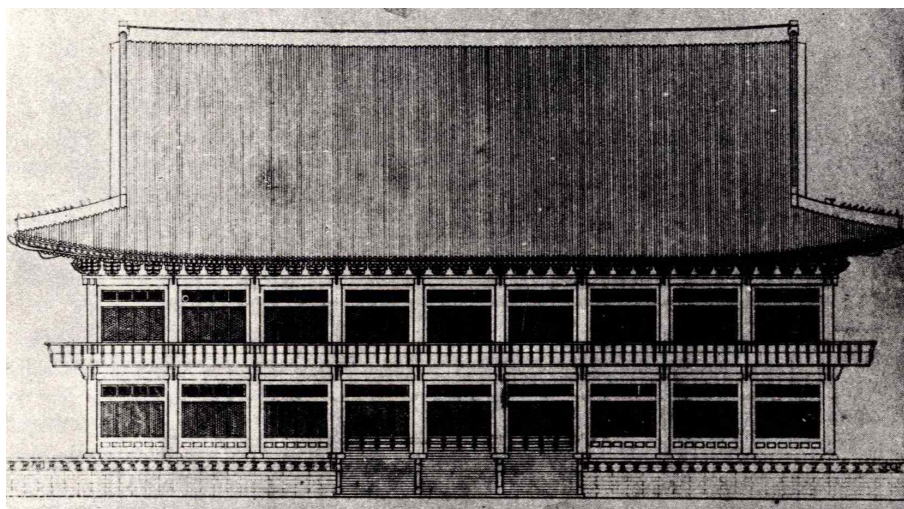


그림 86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정면도(출처: 현석홍, [대담] 고건축가 조승원 웅, 『공간』, 97호, 1975.6)

---

425) 현석홍, 앞의 책, p.38.

#### 4.3.2.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특성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존하는 6작품을 중심으로 조승원 건축에 담긴 창작 의도와 특성을 살펴본다. 조승원이 남긴 기록에서는 각 작품에 대한 짙막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해 그의 창작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sup>426)</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장답사와 사진 자료를 위주로 실물의 분석을 통해 조승원 건축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의 창작 의도를 역으로 추리해보고자 한다.

조승원 건축의 특성은 ‘전통 건축의 조형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간의 관계’의 관점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관계는 조화, 긴장,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가치관에서 도출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승원은 새로운 재료로써 전통이 계승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재료에 적합한 구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의 한계 역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그가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조승원 건축의 기본형과 팔각형 평면의 특성

조승원의 작품들 중 일주문을 제외한 다섯 작품에서는 외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식 지붕<sup>427)</sup>-철근콘크리트조 몸체-계자난간의 테라스’의 3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에서도 나타나는 구성으로, 조승원 건축에서 발견되는 기본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의 기본형은 전통건축의 누정(樓亭)형식과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통의 목조건축에서 누(樓)는 복층으로 된 건물을 칭하고, 정(亭)은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칭한다.<sup>428)</sup> 따라서 누정건축은 외부로 조망하는 정자의 기능을 복층의 누로써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29)</sup>

---

426) 조승원이 직접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각 작품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주로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현석홍, 앞의 책, 1975.6.

한편 이들 문헌에서는 현존하는 여섯 작품에 대한 언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을 포함하여 작품목록에서 확인되는 삼청각 이후의 작품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427) 여기에서 한식 지붕은 콘크리트로 성형된 서까래를 사용하고 한식 기와로 마감된 지붕을 의미한다.

428) 김성도, 「누와 정」,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p.236.

429) 조선시대의 누정은 고을이 잘 내려다보이는 객관이 있는 곳에 세워져 고을 수령이



조승원이 직접적으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에 전통건축의 누정 형식을 채택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계자난간의 테라스와 높이 솟은 한식기와의 지붕은 1차적으로 전통건축의 누정을 연상시킨다.

나아가 외관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할 점은 누정의 형식이 철근콘크리트조의 핵심적인 특징인 바닥판의 수직 확장과 조화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대부분 단층이고, 중층 한옥의 경우에도 외부에서는 2층 또는 3층의 복층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통주를 활용하여 한 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sup>430)</sup> 하지만 누정은 실질적인 구조와 기능에서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 복층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승원이 복층의 철근콘크리트조의 몸체로 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복층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전통건축을 조화시키기 위해 누정의 형식을 주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전통 누정의 실측 도면을 활용하여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누정의 바닥과 기둥의 수직적 반복만으로도 조승원의 도선사 호국참회원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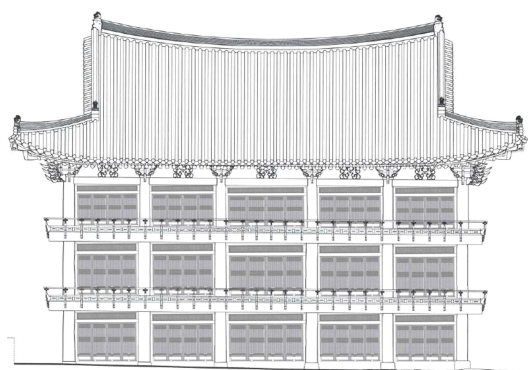


그림 88 전통건축 누정 바닥의 적층 예시 다이어그램. 전통 누정의 실측 도면을 활용하여 작성(원 도면 출처: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1997, 『광한루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997)



그림 87 도선사 호국참회원 정면(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나 읍내 유력 인사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었으며, 그 높이와 규모로 인해 고을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소규모의 누정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이 반영된 휴식 공간으로서 지방 곳곳의 경승지에 지어지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정건축으로는 삼척 죽서루, 청풍 한벽루, 밀양 영남루, 피향정, 남원 광한루, 경복궁 경회루 등을 들 수 있다.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198, p.221.

430) 김경표, 「중층 목조 건축」,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p.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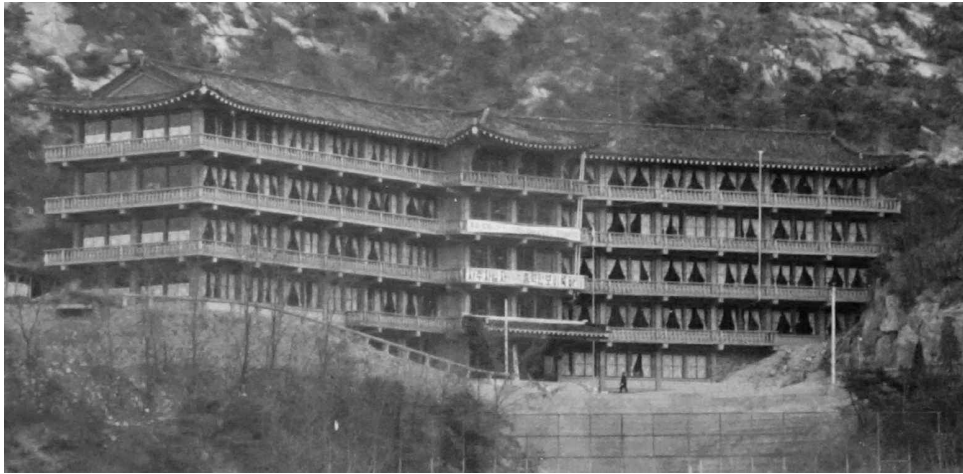


그림 89 누정의 전통과 철근콘크리트조가 조화 된 기본형을 잘 보여주는 서울여상 소석관의 전경(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이처럼 누정의 전통과 철근콘크리트조가 조화된 기본형의 특징은 조승원의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인 서울여상 소석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서울여상 소석관의 몸체는 단순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판상형이라 할 수 있고, 이후의 작품들과 달리 세부에서 어떠한 전통 요소가 나타나지 않지만, 적층되는 계자난간의 테라스와 최상층의 한식 지붕만으로 효과적으로 전통의 인상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승원 건축 기본형의 3요소 중에서도 전통 누정의 인상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요소인 계자난간의 테라스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기록에서는 조승원이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을 경복궁 경회루와 비교하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sup>431)</sup> 이는 주로 규모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둘의 비교를 통해 조승원 건축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 정면도에서도 조승원 건축의 기본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도 경회루와의 비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계자난간의 테라스이다. 경복궁 경회루가 최외각 기둥을 계자난간이 설치 된 바닥의 끝선에 맞추어 배열했다면,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에서는 계자난간의 테라스가 최외각 기둥보다 반 칸 정도 외부로 돌출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계자난간의 테라스를 분명히 최외각 기둥보다 외부로 돌출하는 특징은 일주문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 누정과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누정 건축인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 청풍 한벽루, 피향정, 남원 광한루 등의 실측 도면을 살펴보면, 최외각 기둥의 중심에서 바닥 끝선까지의 거

431) 현석홍, 앞의 책,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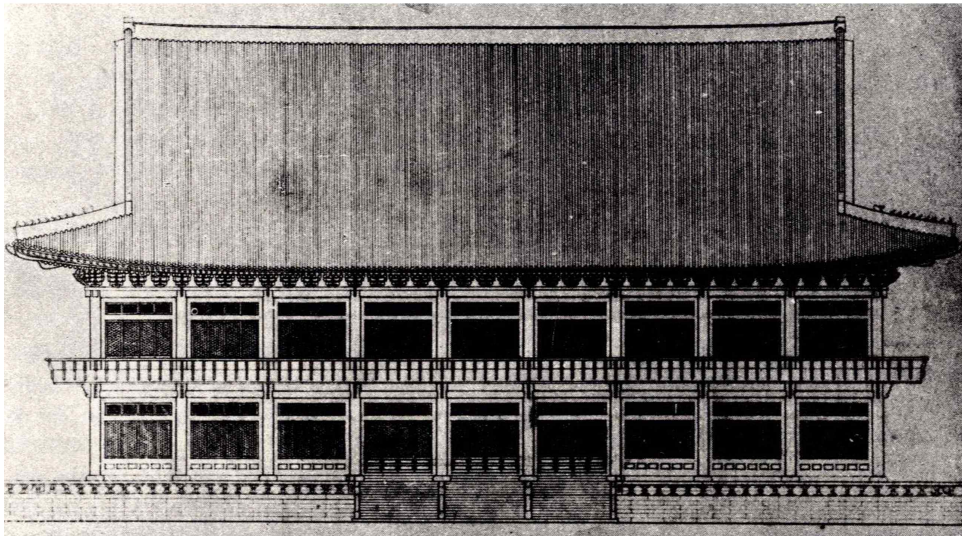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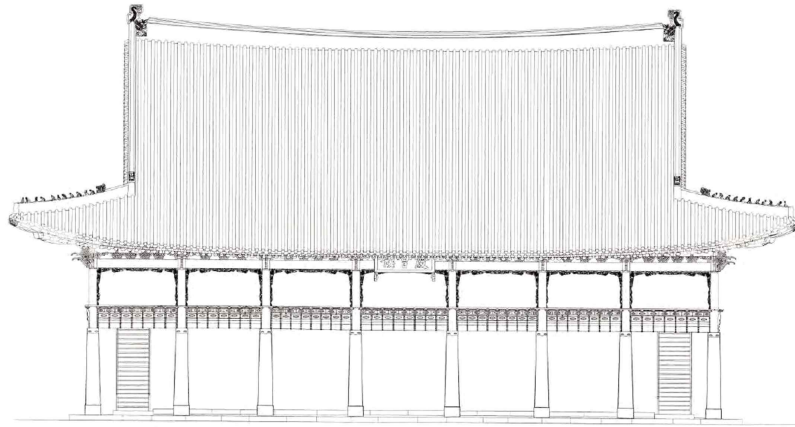


그림 90 경복궁 경회루(上)과 청와대 영빈관 계획(下)의 비교. 칸수를 기준으로 스케일 조정(경회루 도면 출처: 『경회루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문화재청, 2000)

리는 가장 넓은 것이 영남루로 대략 1,100(mm)이고, 최소는 죽서루로 대략 500(mm)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조승원의 테라스 폭보다 현저히 작다. 예로서, 도면을 확보한 삼청각 유하정의 테라스 폭을 살펴보면, 대략 2,000(mm)로 이는 영남루의 약 2배인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삼청각 유하정이 영남루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건축임을 감안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치 차이의 이유는 기본적인 개방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통의 누정은 경회루나 광한루에서처럼 창호가 설치되더라도 그 특성상 들어열개로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반면 조승원 건축에서는 최외각 기둥 간에 고정된 벽이 설치된다. 따라서 조승원 건축에서 테라스는 복도의 기능을 겸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통행로를 확보하면



그림 91 베트남 평화정(左), 탑골공원 팔각정(右)의 비교. 기단, 낙양 등이 유사하지만 층 구성과 기둥 구성 등 핵심 특징에서 차이가 드러난다.(탑골공원 팔각정 사진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서도 조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테라스의 폭을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조승원 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넉넉한 폭의 테라스는 항상 기둥의지지 없이 외팔보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의 목조보다 구조적으로 개선된 철근콘크리트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여상 과학관, 베트남 평화정, 삼청각 유하정에서 나타나는 팔각형의 평면<sup>432)</sup>도 조승원 건축의 기본형이 전통의 누정 형식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 기록은 조승원이 베트남 평화정과 관련하여 이의 설계를 위해 3.1공원의 팔각정을 참고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이다.<sup>433)</sup> 실제로 평화정을 살펴보면 팔각형의 평면형을 비롯해서 다섯 계단의 기단, 낙양의 설치, 팔각형의 기둥 등에서 탑골공원 팔각정과 유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정은 탑골공원 팔

432) 전봉희, 「북한지역 건축유적의 지역적 전통과 시기적 변천 시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8호, 2005에 따르면 팔각형과 육각형의 평면 사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한강 이북 지역에 분포하므로 4각형 이상의 정다면체 평면형의 사용은 고구려 및 고려시대와 관련된 북방적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승원이 이러한 팔각형에 내재하는 북한지역 문화유적의 지역성을 인식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그가 20대 건축에 입문하던 시기에 평양 근처의 낙랑시대의 고분들과 이름난 사찰들을 답사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젊은 시절 북한에 산재한 4각 이상의 정다면체 평면형의 유적들을 실제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이 시기의 팔각정의 형식을 지닌 작품들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석홍, 앞의 책, p.37.

433) 조승원, 「전통건축과의 인연」, 『건축』, 제21권 1호, 1977.2,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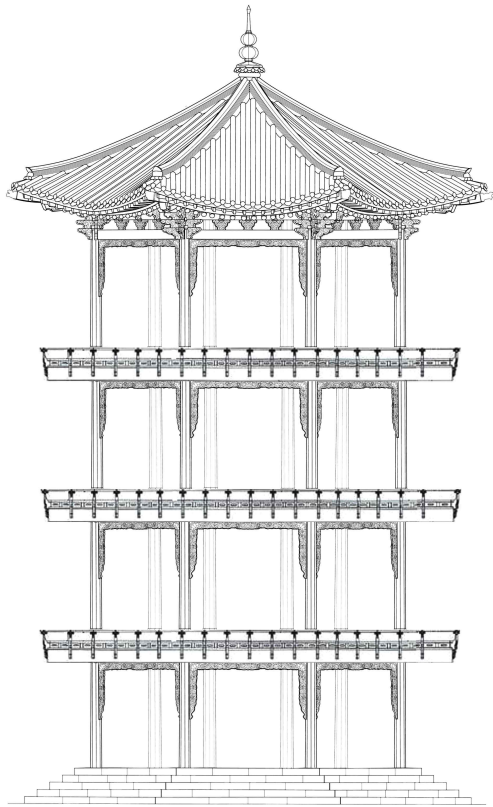


그림 92 기본형에 팔각형 평면의 도입 예시 다이어그램. 최상층부만 보면 탑골공원 팔각정이지만 전체는 조승원 건축의 특성을 드러낸다. 실측 도면을 활용하여 작성 (원 도면 출처: 『탑골공원 팔각정, 오운정: 정밀실측 보고서』, 서울시 종로구, 2011, 『광한루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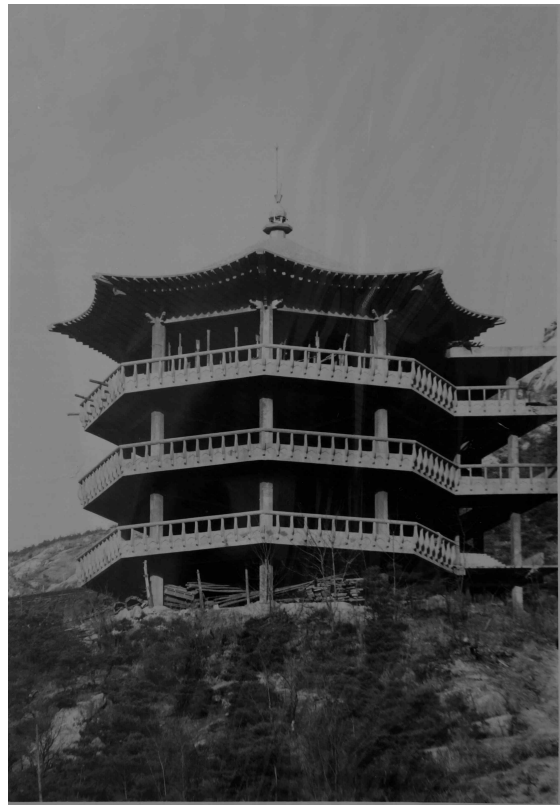


그림 93 1970년 공사중인 서울여상 과학관(출처: 조영무 개인 소장)

각정의 주요한 특징인 내진 고주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히 복층의 누로 계획하여 외관에서 탑골공원 팔각정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평화정과 달리 팔각형 평면으로 완성된 과학관과 유하정에서는 평면형을 제외하면 탑골공원 팔각정과의 유사성을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그가 1970년대의 작품들에 팔각형의 평면을 사용한 것을 탑골공원 팔각정과의 관계만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보다도 팔각형 평면의 도입은 그가 누정 형식과 관련된 기본형의 특성 중 외부를 조망하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서 살펴본 기본형에서는 전통 누정과 철근콘크리트조가 조화되는 과정에서 복층을 형성하는 누(樓)의 특성이 부각되었다면, 기본형에 팔각형의 평면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부를 조망하는 정

(亭)의 특성이 더 부각된다. 팔각정은 복층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그 평면형에 의해 중심에서 둘레를 조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팔각정의 특징은 기본형이 애초에 외부 조망의 특성을 지니는 누정 형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접목하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원의 작품 중 이러한 기본형과 팔각형 평면이 접목된 특성은 서울여상 과학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는 최상층에서는 단층 팔각정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전체에서는 계자난간의 테라스가 3개 층을 이루며 쌓여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조승원은 기록에서 이를 ‘팔각 고층 정자식’이라 칭하여 고층을 특기하고 있는데, 이는 바닥판의 수직 확장을 고려한 기본형에 팔각정의 특성이 접목된 그의 건축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긴장

조승원 건축의 기본형을 통해 전통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다면, 조승원 건축의 일부 특징에서는 전통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긴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여상의 소식관과 삼청각 일주문의 사례는 조승원이 전통의 표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와의 긴장 관계를 분명하게 의식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서울여상 소식관의 처마공간에서는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간의 상호 긴장이 잘 드러난다. 이를 살펴보면, 콘크리트로 표현된 서까래와 테라스의 계자난간이 장식 없는 철근콘크리트의 기둥, 보와 대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벽 하부의 석조 마감과 기둥 양 옆의 붉은 벽돌로 조적된 부분이다. 우선 벽 하부의 석조 마감은 마치 전통건축의 기단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서까래, 계자난간의 전통 요소와 호응하고 있다. 반면 붉은 벽돌은 특히 기둥의 양 옆에 바짝 붙어 조적되어 근대적 재료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체와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까래, 계자난간과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서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소식관 테라스의 계자난간과 테라스 하부를 받치는 보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의 보는 마감 없이 드러나면서 몸체의 기둥으로부터 돌출해 있다. 이러한 돌출보는 단부로 올수록 그 단면이 조금 작아지도록 하부가 경사지게 깎여있고, 기둥과 함께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를 조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계자난간의 테라스를 받치고 있어, 둘 간의 상호 긴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긴장은 원경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건축 외관에서 계자난간이 선적인 요소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돌출보는 점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만들어내며 대치하고 있다. 나아가 외관에서 보가 부각되는 처리는 테라스가 기둥의 지



그림 94 서울여상 소식관 최상층 처마 공간. 콘크리트 서까래, 계자난간, 석조 마감,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기둥과 보가 풍부한 긴장을 표현하고 있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그림 95 서울여상 소식관 정면을 올려다 본 모습. 계자난간 테라스의 선과 돌출부의 점이 전체의 리듬을 만들며 대치하고 있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지 없이 외팔보로 설치되는 조승원 건축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간의 긴장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삼청각 일주문이다. 삼청각 일주문은 단청과 세부 표현으로 인해 전통의 표현이 철근콘크리트조 특성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 간의



그림 96 삼청각 일주문의 정면. 매달린 기둥이 보인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그림 97 매달린 기둥을 가까이에서 본 모습. 실제 구조체는 기둥의 뒤로 설치된 보인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긴장 관계를 소식관 만큼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긴장은 공중에 매달려 설치된 기둥들에서 잘 드러난다. 전통 목조건축의 구조 개념이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나무들을 조립해서 쌓아가는 방식임을 생각해보면,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매달린 기둥은 전통 구법의 성질과는 대치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통한 외팔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짧은 기둥은 중심 기둥에서 돌출된 보의 상부에 얹히지 않고, 주신의 중간에 보가 걸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수법은 일주문이 정면성이 강한 건축 형식임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정면에서 건



축을 바라볼 때 실제 구조체인 보가 짧은 기둥의 몸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끔 처리함으로써 기둥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청각 일주문은 이러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표현과 외관에서 즉물적으로 인식되는 전통의 표현을 공존시킴으로써 둘 간의 긴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갈등

조승원의 서울여상 소석관과 삼청각 일주문에서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표현의 긴장이 두드러졌다면, 소석관 이후의 작품에서는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는 세부의 표현에서 두드러진다. 갈등의 양상은 전통 표현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합리성에 우세하거나 때로는 구조의 합리성이 전통 표현보다 우선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그림 98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나타나는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소석관에서 도선사 호국참회원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선사 호국참회원은 조승원 건축의 기본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석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긴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조승원은 호국참회원을 통해 콘크리트를 통한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을 구체적으로 실험하였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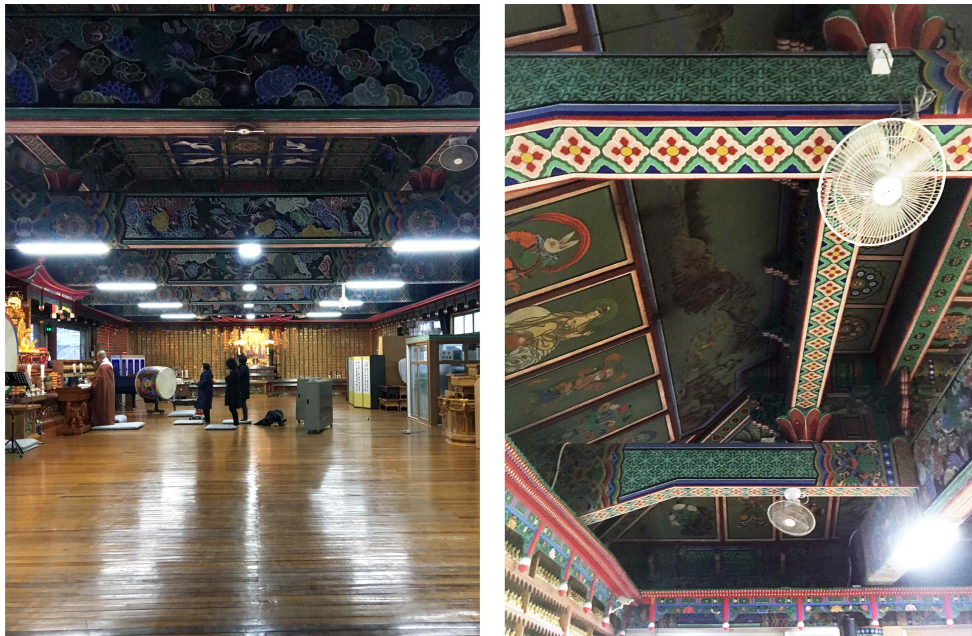


그림 99 호국참회원 최상층 실내 지붕 가구(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으로 보인다. 사찰 불전의 형식과 단청을 차치하더라도 호국참회원에서는 소석관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큰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호국참회원의 콘크리트 서까래는 소석관과 달리 부연이 설치되어 겹쳐마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회원의 팔작지붕은 더 크고 날렵해졌으며, 처마가 더 깊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호국참회원에서는 소석관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주두, 소로, 첨차 등의 전통건축의 공포 부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둥 상부에는 익공과 주두가 결합하고 이는 끝이 뾰족하게 성형된 돌출된 보머리를 받치고 있다. 세 번째로 최상층 실내에는 지붕 가구를 노출하여 마치 목조의 지붕을 연상시키도록 처리하였다. 이러한 실내 처리에서는 대들보가 강조되고 있고, 대들보 상부에는 특이한 형태의 동자주가 올라가 그 상부의 도리, 보 등을 받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큰 특징들 외에도 전통 양식의 창호, 화반 등도 눈길을 끈다.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전통의 계승에서 새로운 재료와 이에 적합한 구법을 고려하는 그의 건축관과 부딪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소석관에서 나타나는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표현 간의 조화와 긴장이 참회원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예로서 참회원에서는 소석관과 동일하게 테라스 하부의 돌출보를 노출시키고 있지만, 이는 화려한 채색의 단청과 전통의 요소들로 인해 가려져 소석관에서의 긴장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참회원 이후의 작품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세부 표현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





그림 100 역사박물관에 전시 중인 콘크리트 광화문. 중앙 사진을 통해 구조체 외부에 매달린 서까래의 단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우측 사진의 원형의 움푹 패인 자리들이 서까래가 위치했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가기 위한 실험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여상 과학관, 베트남 평화정, 삼청각 유하정은 팔각형의 평면뿐 아니라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참회원에서 실험되었던 전통의 표현 중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특정 표현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참회원의 실험 이후 세부에서의 전통표현의 정도를 조절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의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설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통 표현과의 갈등을 의미한다.

참회원에서 등장하여 이후의 작품들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 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서 주목할 부분은 지붕이다. 참회원에서는 소식관과 달리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로 지붕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과학관, 평화정, 유하정에서도 지속된다. 이러한 겹처마의 특성은 세 작품의 팔모지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팔모지붕에서는 방형의 지붕보다 추녀의 개수가 8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붕의 모서리가 겹처마로 인해 더욱 날렵해지는 특징이 부각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서까래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장식이다.<sup>434)</sup> 이러한 특성은 강봉진의 콘크리트 광화문의 서까래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PC 콘크리트로 미리 성형된 서까래 부재는 전통건축에서처럼 내부의 도리에까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타설된 구조벽과 상부의 콘크리트판에서 고정되어 외부에만 설치되고 있다.<sup>435)</sup> 이는 서까래가 장식이기 때문에 자중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sup>436)</sup> 또한

434) 김지훈, 앞의 책, p.21.

435) 강난형, 송인호, 「1960년대 광화문 중건과정의 특성」, 『건축역사학회』, Vol.24, No.6, 2015, pp.53-54. 콘크리트 광화문의 서까래 설치와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의 [Fig7]의 다이어그램을 참고.

436) 강난형, 송인호, 같은 책, p.53.



그림 101 삼청각 유하정의 전경. 지붕 겹처마가 두드러진다. 2012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출처: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그림 102 삼청각 일주문의 지붕 하부에서 드러나는 서까래의 모습. 자중에도 불구하고 서까래 전체를 성형하여 도리 위에 얹듯이 설치했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이러한 수법에서는 서까래가 받쳐지는 부재가 없이 벽과 천장에 매달려 설치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sup>437)</sup> 조승원이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에서 서까래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장식이며, 사선과 외팔보의 특징으로 인해 시공 난이도가 다른 부재들에 비해 높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공 상의 난점과 구조적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에서 지붕은 기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조승원이 이의 표현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 합리성을 희생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 구조 합리성 간의 갈등에서 전자가 우세했음을 의미한다. 전술했던 참회원과 이후의 작품에서 지속되는 겹처마의 지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삼청각 일주문의 서까래 처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겹처마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중이 야기하는 구조적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서까래 전체를 도리 위에 걸치는 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참회원 이후의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세부의 표현으로서 살펴볼 것은 기둥 상부에서 보이는 익공이다. 참회원에서는 소석관에서 보이지 않던 주두, 소로, 첨차 등의 공포 부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 우선 검토해야할 점은 그가 철근콘크리트로 표현해야할 전통의 공포 양식으로서 주심포나 다포가 아닌 익공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참회원이 사찰

437) 강난형, 송인호, 앞의 책, p.53. 콘크리트 광화문의 서까래 시공의 어려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42)를 참고.





그림 103 1970년대 초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익공.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과학관, 평화정, 유하정, 일주문(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의 주불전이므로 더욱 의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불전에서는 양식상 다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에서의 공포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앞서 살펴본 서까래와 마찬가지로 공포는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대표적인 장식 부재이다. 즉, 전통건축에서 공포는 지붕 구조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철근콘크리트조에서의 공포는 건물의 벽체에 부착되는 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전혀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sup>438)</sup> 따라서 조승원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 합리성을 고려하여 주심포, 다포 등의 무리한 공포의 표현 대신 간략한 형태의 익공을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겹처마의 표현과 달리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합리성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참회원의 익공과 이후 시기 세 작품의 익공을 살펴보면, 주두의 크기가 축소되고 돌출된 보머리에서 보이던 3차원의 형태도 사라지면서 훨씬 평면적으로 변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참회원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참회원의 보머리나, 실내의 동자주와 같이 3차원 곡선의 형태로 성형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2차원의 판부재로 이루어지는 철근콘크리트의 기본적인 성형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438) 강난형, 송인호, 앞의 책, p.53.

표현상의 절제는 참회원에서 이후 시기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변화이다. 이를 통해 그가 참회원의 실험을 바탕으로 세부의 전통 표현을 조절했으며,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와의 갈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조승원 건축의 경향

조승원의 현존하는 6개의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지 모른다. 더욱이 1972년의 삼청각 유하정 이후에도 그는 1978년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살펴본 사례들은 조승원 건축의 초기 경향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후기 작업으로서 1975년 작성된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이 확인되고, 기록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하여 그의 작품 경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익공이 아닌 다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관련 기록에서는 그가 1973년 수원 29인 순국열사 사당에서 다포를 사용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439)</sup> 이는 실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조영무의 작품 목록에서 설계, 시공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어 당시 완성을 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술했듯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에서의 공포의 사용은 구조 합리성의 희생을 감수해야하므로, 그가 1972년의 작품들 이후 다포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작품에서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 합리성보다 전통 표현을 분명하게 지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이 즉물적으로 전통건축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sup>440)</sup>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소석관에서 1970년대 초기 작품들로 이어지는 변화에서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작품들을 참회원과 비교할 때는 전통표현에서의 절제가 부각되지만, 소석관과 바로 비교해보면 전통 표현이 훨씬 풍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조의 희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소석관에서 철근콘크리트조를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요소로서 노출되었던 돌출보는 참회원에서도 유지되다가 1970년대 작품들에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지고 있다.

439) 현석홍, 앞의 책, p.38.

440) 외관에서 전통건축을 즉물적으로 상기시키는 특성에서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과 도선사 호국참회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유는 우선 두 작품이 행해진 시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특히 호국참회원의 경우 과도기의 실험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영빈관 계획안은 참회원과 달리 그의 완숙기의 작업으로서 파악해야한다.

한편 익공보다 복잡한 형태의 다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후기로 갈수록 그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시공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104 서울여수 과학관의 근경. 테라스 하부에 설치된 보의 단부는 계자 난간의 벽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정리해보면, 조승원의 건축은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의 구조가 조화, 긴장되는 소석관에서 출발하여, 세부에서의 전통 표현을 실험하는 과도기의 참회원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초반에는 안정되고 풍부한 전통 표현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그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고려보다 전통의 표현을 보다 우선시켰음을 의미한다. 후기의 작품들에서 다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의 건축이 거시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를 통한 전통건축의 즉물적 묘사로 나아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허나 이러한 경향성보다 주목해야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관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승원 건축의 특성이다. 이는 1960, 70년대 여타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과 그의 건축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이다.

### 4.3.3.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역사적 의미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한국 건축계의 전통 담론이 본격화되어 구체적인 건축물로서 전개되던 1960, 70년대에 완성되었다.<sup>44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축은 당대의 담론 내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의 원인이 그의 건축이 평가 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건축은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간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특수한 성질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통건축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과제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제는 1960, 70년대 한국 건축계 전통 담론의 핵심 주제였다. 따라서 조승원 건축의 역사적 의미는 그의 건축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유사한 시기에 완성되었던 여타의 건축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될 가치가 있다. 그의 건축의 역사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건축가 개인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구체적인 전통 건축의 학습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조승원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던 1960, 70년대에 한국 건축계를 주도하던 대표 건축가들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대개 일제시기 제도권의 건축 교육을 받은 인물들로 크게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파는 대부분 경성고공 출신들이며 해외파는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식민지기 제도권 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국 전통건축을 자습하거나 이에 대한 학습을 뒤로 미루게 된다. 이와 달리 조승원은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문하였고, 일찍이 전통건축에 관심을 가져 도편수 한성룡을 방문하여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긴 시간 근대적 건축의 설계와 시공에 종사하였지만, 1960년대 전통 건축을 재학습하며 그 구체적 성과를 글과 도면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건축을 당대의 다른 건축들과 차별화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두 번째로 건축 기술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한국 건축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달성한 철근콘크리트조의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1968년에 강봉진에 의해 완성된 「콘크리트 복원 광화문」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강봉진의 이 작업이 여러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콘크리트로 한옥의 상세를 가능케 한 기술적 성과는 당시 ‘방법적 쾌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sup>442)</sup> 또한 이는 최근

---

441) 배형민은 1966년의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와 1967년 부여박물관 논쟁으로 본격화된 한국 건축계의 전통 담론이 이후 근 20년간 지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승원의 건축이 담론으로 편입된 적은 없었다. 배형민, 「부여박물관 논쟁」,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pp.457-460.



그림 105 1966년 완성된 김중업의 UN 묘지 정문(출처: 정인하, 『김중업 건축론』시적 울림의 세계』, 시공문화사, 2003)



그림 106 1972년 완성된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의 모습(출처: 송승엽 개인 촬영)

에까지 긍정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sup>443)</sup> 조승원의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식관과 도선사 호국참회원은 각각 1967년, 1968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는 강봉진의 작업과 동시기 또는 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조승원 건축의 세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전통의 표현은 강봉진의 기술적 성과와 동일선상 또는 그 이상에서 그 의미를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건축 표현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의 표현을

442) 김윤기, 「30년회고담: 남기고 싶은 이야기」, 『건축』, 1975.8, p.19.

443) 강봉진에 의한 한식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술적 성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난형, 『경복궁 구역의 모던 프로젝트-발전국가시기 광화문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1962-73』, 서울시립대 박론, 2016을 참고.

위한 완전한 모사도 완전한 추상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이는 전체에서 모사와 추상을 공존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소식관과 일주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서는 세부에서 모사된 전통의 표현과 추상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표현이 긴장을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승원 건축의 특징은 소식관과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김중업의 「UN 묘지 정문」(1966)과 강봉진의 「국립종합박물관」(1972)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세 작품 모두 건축 외관에서 전통을 표현하였고, 이를 위해 표현할 전통건축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조승원과 달리 김중업은 작품에서 선택된 요소들을 완전히 추상화함으로써 전통을 표현하는 부분들의 실제 형태를 왜곡시켜 버렸고, 강봉진은 작품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모사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의 현실적 재료와 구법을 완전히 숨겨버린다. 하지만 조승원의 건축은 전통을 표현한 부분에서의 현실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철근콘크리트의 재료와 구법을 함께 고려한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01년 10월 2일에 출생하여 1987년 1월 16일에 사망한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 조승원(趙承元)의 생애와 그가 남긴 저술 및 작품들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조승원의 건축 활동은 1923년부터 1978년까지의 긴 시간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해방을 전후로 평양과 서울을 넘나드는 지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대목, 청부업, 근대 건축가의 다양한 직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한국건축의 근대화 과정을 구체적 대상을 통해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의 자습을 통한 건축 학습의 과정과 그가 1960, 70년대 남긴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 및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과 근대를 넘나드는 복합적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한국 근대건축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조승원의 작품 활동은 1923년에서 1931년의 대목으로서 건축 입문 시기, 1931년에서 1943년의 토목건축청부업회사 건평사 시기, 1943년에서 1953년의 건축 활동 불능의 혼란기, 1953년에서 1965년의 철근콘크리트조 학습 시기 1965년에서 1978년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 시기의 총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1960년대 전통 건축의 재학습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부터 1969년까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저술하여 1981년에 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의 전체 건축 활동이 수렴되는 지점을 5기에 해당하는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으로 보아, 이를 조승원 건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승원 건축의 발단으로 보았고, 이후시기를 조승원 건축이 형성되어 전개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조승원과 조승원의 건축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승원은 대목 출신이지만 전통건축의 장인이 아니며 주로 근대적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정식의 근대적 제도권 건축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구체적으로 1926년에 만난 백기환과 1930년을 전후로 교류한 미국 선교사 맹로법, 객안련을 통해 근대적 설계도서의 작성법과 시공법을 이룬 시기에 학습하였고, 줄곧 벽돌,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근대적 재료와 구법을 통한 건축을 설계, 시공하였다. 그는 1923년 대목으로 건축에 입문하였지만, 이 시기 그가 시공한 건축 역시 주로 ‘벽돌과 석조를 곁들인 근대적인 목조건축’이었고, 그의 전체 작품 목록에서 전통적 방식의 목조건축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1925년 도편수 한성룡을 방문하여 전통건축을 학습하였지만, 이는 깊이 있는 학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시기 그가 전통건축의 학습을 시도하고 한계에 부딪친 아쉬움은 이후 그가 전통건축의 학습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1931년 설립되어 1940년대 초까지 활동한 조승원의 평양 토목건축청부회사 건평사는 시공 뿐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설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작품의 활동 범위는 평양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건평사의 활동은 평양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 범위는 선교부의 관할 구역 전체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건평사 김준식이 1933년 설계하여 1936년 완성한 현존하는 대구제일교회의 건축을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조승원이 1934년 설계, 시공한 신양리 교회당의 실체도 가늠해볼 수 있는데, 이는 대구제일교회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건평사는 소속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동일 작품의 반복이 아닌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건축을 설계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건평사의 활동을 통해 일제시기 토목건축청부회사의 특성과 평양 장로교 중심의 미션계 건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조승원은 1956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에 참여한 춘천사범학교의 공사를 통해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을 체득하였다. 이는 이른 시기에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발상이 정치적 목적과 별개로 시공의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당시 피바디 사범대학의 사절단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춘천사범학교의 기술교육을 담당했던 허만 박사의 제안으로 한식목조건축양식을 철근콘크리트조에 반영하는 건축을 계획하였다. 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후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전개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네 번째, 조승원은 1960년대 전통건축의 학습과 함께 스스로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의 전통 계승을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고민하게 된다. 그의 전통건축의 학습은 현장답사, 도편수 박기섭을 통한 목가구 접합 기법 및 문양 제도 학습, 전통건축의 용어 및 도구의 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그는 대목 출신 근대건축가로서 본인이 전통 계승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자각했으며, 일시적 권력의 예술이 아닌 영원한 예술로서의 전통을 현대적 재료와 구법을 통해 계승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그가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을 남기게 되는 사고의 배경으로서 중요하다.

다섯 번째, 조승원이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저술한 전통목조건축에 관한 저서인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그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한 결과물이다. 조승원은 전통건축의 진체가 목조라는 점과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새로운 재료와 구조를 통한 전통의 계승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그는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을 저술하였다. 이는 대목 출신 근대 건축가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과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결과물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천하고자 했던 전통의 현대적 계승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의 특성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영조법식』, 『화성성역의궤』, 『저승전의궤』, 『인정전중수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을 참고하는 바탕에 개인의 경험적 학습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전통건축 관련 고문헌의 기초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로서의 책의 특성은 용어의 측면에서도 드러나는데, 책에서는 『영조법식』과 『화성성역의궤』 등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을 해설하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용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 이를 복원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두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은 한국 건축사의 개괄, 익공, 온돌, 민가, 풍수지리, 조선시대 가옥규제 등의 내용을 『화성성역의궤』, 『택리지』, 『세종실록』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함께 수록된 설계도의 구성과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저술에 가장 중요한 참고 문헌이었던 『영조법식』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며 한국 전통건축을 전달하는 책의 궁극적인 저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세 번째, 조승원의 『한식목조건축설계원론』은 전통건축의 제작, 제도의 기법을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록된 설계도는 능숙한 근대식 제도 기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통건축의 제작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승원의 전통과 근대의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실례이면서 동시에 건축 실물로 가늠할 수 없는 조승원의 전통건축에 대한 학습 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조승원의 1960, 70년대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의 특성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건축가 개인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구체적인 전통 건축의 학습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는 대목으로서 건축에 입

문하였고, 일찍이 전통건축에 관심을 가져 도편수 한성룡을 방문하여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긴 시간 근대적 건축의 설계와 시공에 종사하였지만, 1960년대 전통 건축을 재학습하며 그 구체적 성과를 글과 도면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건축을 전통을 주제로 한 당대의 다른 건축가들의 작품과 차별화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두 번째로 건축 기술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한국 건축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달성한 철근콘크리트조의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그의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과 도선사 호국참회원은 각각 1967년, 1968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는 기술의 관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한옥의 상세를 모사한 것으로 평가 받는 강봉진의 복원 콘크리트 광화문(1968), 국립중앙박물관(1972)과 동시기 또는 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조승원 건축의 세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전통의 표현은 강봉진의 기술적 성과와 동일선상 또는 그 이상에서 그 의미를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건축 표현의 관점에서 조승원의 한식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은 전통 표현을 위한 완전한 모사도 완전한 추상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그는 전통의 표현과 철근콘크리트조 표현 간의 조화, 긴장, 갈등의 관계를 통해 건축 형태를 결정하였는데, 이의 결과물에서는 세부에서 모사된 전통의 표현과 추상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표현이 공존한다. 이러한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은 그의 첫 번째 한식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인 서울여자상업학교 소석관(1967)으로, 이는 건축 형태에서 전통 표현을 위해 추상과 모사의 극단의 방법을 취한 당대의 여타 건축들과의 비교에서 조승원 건축의 차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보고서

-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 『대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배희한 구술, 이상룡 편,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
- 신응수, 『천년 궁궐을 짓는다』, 김영사, 2002.
-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 전봉희, 이규철, 서영희,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미건사.
- 배형민 저, 박정현 역, 『포트폴리오와 다이어그램』, 동녘, 2013.
-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2000.
-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2015.
-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1.
-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송실대학교 100년사 ① 평양송실편: 1897-1997』,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7.
- 리화선, 『조선건축사 2』, 발언, 1993.
-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 생명의 말씀사, 2005.
- 이성전,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화보집(1901~1945)』,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윌리엄 베어드』, 송실대학교출판국, 2016.
- 『대구제일교회 110년사』, 대구제일교회, p.220.
- 대구광역시·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공편, 『대구지역근대건축물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1988.
- 대구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백년사』, 대구제일교회, 2000.
- 『대구경관자원 52선』, 대구광역시, 2013.
- 박혜진,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 경인문화사, 2015.
- 김승태,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대한주택공사 30년사』, 대한주택공사, 1992.  
 『군산대학교 60년사』, 국립군산대학교, 2007.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경인교육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7.  
 『오산 80년사』, 오산중고등학교, 1987.  
 『보성80년사』, 동성학원, 1986.  
 『춘천교육대학 50년사』, 춘천교육대학, 1989.  
 『흥인지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예용해, 『인간문화재』, 어문각, 1963.  
 『영조법식 1』, 국토개발연구원, 1984.  
 『영조법식 2』, 국토개발연구원, 1989.  
 국토연구원 역, 『영조법식』, 대건사, 2006.  
 김재원 편,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을유문화사, 195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4.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5.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화성성역의궤 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왕치원 저, 차주환, 이민, 송선엽 역, 『중국건축 도해사전』, 고려, 2016.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1998.  
 서울女商五十年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女商五十年史』, 文英學園, 1976.  
 『文英學園 七十年史 : 1926 - 1996년』, 文英學園 七十年史 編纂委員會, 1996.  
 도선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각산 도선사』, 미출간, 2015.12.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서울의 전통사찰』, 1994.  
 『파월한국군戰史: 1972.1.-1973.3.』, 국방부, 1990.12.31.  
 현대건축사 저, 「삼청각」, 『CA현대건축 시리즈』, 2005.

## 학위논문

정태용, 『韓國 建築에 나타난 近代性에 關한 研究 : 19세기에서 1960년대까지 시기별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론, 1994.  
 송율, 『韓國近代建築의 發展過程에 關한 研究 : 1920年代 後半에서 1960年까지를 中心으로』, 서울대 박론, 1993.  
 김종훈, 『전통 한옥 계획에 나타난 장인 건축기법 연구』, 명지대 박론, 2011.  
 박익수,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건축도 연구』, 전남대 박론, 1994.  
 안창모,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97.

김상윤, 『1950-70년대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종합건축연구소의 작품특성』, 연세대 석론, 2007.

이윤석,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 종합건축과 신건축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양대 건축대학원 석론, 2004.

이종호, 『1945년-1955년 한국 건축단체 연구 : 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론, 1993.

이은진, 『1960-7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론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강남형, 『경복궁 구역의 모던 프로젝트: 발전국가시기 광화문과 국립종합박물관을 중심으로 1962-73』, 서울시립대 박론, 2016.

김지훈, 『1970년대 한국전통양식 콘크리트조 건축물 보존현황』, 충북대 산업대학원 석론, 2002.

김지홍,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 박론, 2014.

박철진,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서울대 석론, 2002.

최준호,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변화』, 서울대 건축학과 석론, 2015.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 국사학과 박론, 2008.

#### 학술발표대회 및 학술지 논문

김란기, 「근대 전통건축 생산장인의 활동과 계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4호, 1990. 8.

송율, 「한국인 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건축역사연구』, 제2권 1호, 1993.

류전희, 「광복후 50년, 한국건축교육의 극복과 도전-건축교육에서 ‘식민성’ 극복의 의미」,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1995.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의 세대론을 위한 구도」, 『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 논총』, 1993.8.

안창모,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14권 6호, 1998.6.

이안, 「한국근대건축에 설계도면 구법의 체계화 과정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8, 2000.

이규철, 「통감부 시기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재편」, 『건축역사연구』, 제23권 5

호, 2014.

정순영, 윤인석,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0권, 1999.

김권정, 「1920~30년대 조만식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47, 2006.

장규식, 「조만식」, 『韓國史市民講座』, Vol.47, 2010.

윤은순, 「조만식의 생활개선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1, 2014.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장로교 소속 개척선교사들의 건축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39권, 2004.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Vol.8, 2011.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 제37호, 2009.

강봉진, 「시멘트와 조형미—우리나라 건축 조형미의 현재와 장래」, 『한국양회공업지』, No.32, 1969.

김동욱, 「의궤를 통한 조선시대 건축 연구의 가능성」, 『건축역사연구』, 제14권1호, 2005.3.

전봉희, 「북한지역 건축유적의 지역적 전통과 시기적 변천 시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8호, 2005.

강남형, 송인호, 「1960년대 광화문 중건과정의 특성」, 『건축역사학회』, Vol.24, No.6, 2015.

김정동, 「심의석이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2010.

박언곤,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1996.

## 건축전문지

김윤기, 「30년회고담: 남기고 싶은 이야기」, 『건축』, 1975.8.

「회원작품」, 『건축사』, Vol.1974, No.6, 대한건축사협회, 1974.

송울, 「건축실무의 역사 (1)」, 『건축사』, Vol.1994, No.8, 1994.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건축』, 제27권 5호, 1983.

김정동, 「일본으로 뜯겨져간 평양팔경 애련당을 찾아」, 『건축가』, 제146호,



1994.9.

박길룡, 「1부: 건축사 사무소의 성립과 진화, 한국 건축사무소 傳」, 『건축과 사회』, 제22권, 2010.

안창모,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회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 재고」, 『건축』, 제53권9호, 2009.

송인호, 「한국 현대건축형태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유형화의 시론과 실례」, 『꾸밈』, 제65호, 1987.4.

김도경, 주남철,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번역」, 『건축사』, 1994.9.

김도경, 주남철, 「송 영조법식 대목작 제도 주해 2-8」, 『건축사』, 1994.11-1995.9.

## 신문기사

「건설 노임 38% 폭등」, 『경향신문』, 1991.8.25.

「남성경학교졸업식」, 『동아일보』, 1922.2.2.

「해국지사 백기환 옹 별세」, 『동아일보』, 1972.11.24.

「평양만담, 적극적인 평양」, 『동아일보』, 1930.10.19.

「평양교육계의 완전한 설비」, 『동아일보』, 1931.1.3.

「木手 ‘집다운 집’ 꿈 가꾸는 ‘망치 匠人」」, 『경향신문』, 1982.9.25.

「송실학교창립 35주년기념성대」, 『동아일보』, 1932.10.12.

「3월 1일 건축 기다 건물을 능가」, 『동아일보』, 1931.1.3.

「同期生」, 『매일경제』, 1982.4.21.

「훈장받은 퇴임 敎職者 명단」, 『동아일보』, 1988.8.19.

「정부인사」, 『동아일보』, 1961.10.7.

「문화재관리국 박의장이 시찰 종합관리책지시」, 『동아일보』, 1962.1.30.

「생활불교의 도량 도선사」, 『경향신문』, 1987.2.13.

「물심양면으로 따뜻한 손길」, 『매일경제』, 1974.8.19.

「나의 산하 나의 삶 142」, 『경향신문』, 소설, 1995.2.26.

「도선사 신축 대웅전 완공」, 『동아일보』, 1990.11.12.

「월남 땅에 팔각정 맹호 성대한 상량식 거행」, 『매일경제』, 1967.6.22.

「월남 소식」, 『매일경제』, 1967.9.4.

「백마본부배 백마정 정총리 정초식」, 『매일경제』, 1967.2.18.

「백마사단장 박현식 소장 부임」, 『매일경제』, 1967.7.24.

「사이곤에 다이한公園 駐越軍 착공, 八角亭(팔각정), 분수도」, 『경향신문』, 1972.2.8.

「名人名匠」, 『매일경제』, 1982.4.17.

「삼청각 전통혼례식장 탈바꿈」, 『동아일보』, 1994.6.4.

## 기타

CNC 북한학술정보, 「평양시의 역사지리적 개관」, 『북한지리정보: 평양시』

「백기환 [白基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맥쿤 [George Shannon McCune, 윤산온, 尹山溫]」,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箕城全圖」,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최봉칙」,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순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응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헌토대백과』

「청석집 [靑石一]」, 『두산백과』

『파월장병 월남전선 앨범: 백마 28연대 도깨비 3대대(1970)』, vietvet.co.kr

『파월장병 월남전선 앨범: 청룡(1971)』, vietvet.co.kr

『대한뉴스 제788호』, 영상자료, 1970.8.8.

## Abstract

### A Study on a Modern Architect Seung Won Cho, a Former Master Carpenter

Advised by Prof. Jeon, BongHee  
Song, SeungYeop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studied the life of Cho Seungwon, a modernist who was born on October 2, 1901 and died on January 16, 1987,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his works and works.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of Cho Seungwon consisted of a long period of time from 1923 to 1978, the area was spread across Pyongyang and Seoul before and after liberation, and the diverse functions of the Daemok, contractor, and modern architects Provides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architecture in a microscopic way through concrete objects. In addition, the course of architectural learning through his self-study, the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at he left in the 1960s and 1970s reveal the particularit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by revealing the complex character that goes beyond tradition and modernity.

The works of Cho Seungwon are from 1923 to 1931 as a period of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from the period of 1931 to 1943, the period of construction of th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 from 1943 to 1953, the turbulence of building inactivity, and from 1953 to 1965 Concrete slabs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periods, from 1965 to 1978,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In addition, he conducted re-learning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the 1960s, and from 1963 to 1969, he published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nd published it in 1981. In this study, the point where the whole architectural activities converge is defined as Cho Seungwon 's architecture considering the 5th period of 1960' s and 70 's Korean - 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Based on this, I regarded the contents corresponding to the first and second period as the beginning of Cho Seungwon's architecture, and then saw the period as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Cho Seungwon' s architecture. The following are the important facts about the building activities of Cho Seungwon and Cho Seungwon:

First, Cho Seungwon is from Daemok, but he is not a master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mainly works as a modern architect. Although he did not receive formal education in modern institutional architecture, he learned early on in the early days of writing and construction methods of modern design books through Baek Kihwan who met in 1926 and American Missionary Alliance Law, Brick, masonry, and reinforced concrete tile. He entered architecture in 1923, but the architecture he built during that period was also 'modern wooden architecture with bricks and masonry', and there is no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in his entire work list. He visited Han Seongryong in 1925 and studied traditional architecture, but this was not an in-depth study. However, in this period, he tried to study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limitations encountered in the limit, he became the opportunity to resume the study of traditional architecture.

Secondly, it seems that Cho Seungwon, who was established in 1931 and worked until the early 1940s, did not only construct construction but also designed a considerable portion of his works. The scope of these works was not confined to Pyongyang. At that time, the activities of Kunpyeong Compan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n Presbyterian Mission in Pyongyang, and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was found to be in the entire jurisdiction of the mission. This can be confirmed indirect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existing Daegu Jeil Church, which was constructed in 1933 by Junpeak Choi and completed in 1936.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gauge the reality of Sinyang

Church House, which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in 1934 by Cho Seungwon. This reveals a clear difference from Daegu First Church. Therefore, it seems that Kunpyeong was operated by the members in the way of performing their own works individually, and it is thought that they designed the architecture reflecting the individuality of each person rather than the repetition of the same works.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Kunpyeong Company can give a concrete pictur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ntracting compan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reality of mission-based architecture centering on the Pyongyang Presbyterian Church.

Third, Cho Seungwon acquired the idea of Korean - 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Chuncheon Normal School which participated from 1956 to 1957. He planned the construction to reflect the wooden style of Korean architecture to the reinforced concrete barge with the proposal of Dr. Herman who dispatched to Korea as the mission of Peabody Normal University and was in charge of the technical education of Chuncheon Normal School. This has not been realized, but it is the main backgroun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Fourth, with the learning of traditional architecture in the 1960s, Cho Seungwon began to conscious of the traditional succession as a modern architect who came to his own way. The study of his traditional architecture consisted of field trips, painting techniques of joining the villages through Park Kiseop, learning of the pattern system, and collection of terms and tool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long with this, he realized that I should be the subject of traditional succession as a modern architect from Daemyeong, and I thought that I should inherit the tradition as an eternal art, not the art of temporary power, through modern materials and old law. This is a direct opportunity for him to leave the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nd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Fifth,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 book on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written by Cho Seungwon from 1963 to 1969, is the result of his recognition of the limitations of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It seems that Cho Seungwon himself recognized that the traditional body of architecture is wooden, and that inheritance of tradition through his new material and structure is fundamentally limited. As a result, he has written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s a metho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This seems to have been the best he could have taken as a modernist architect from Daemok. In conclus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and the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share the subject of the modern succession which he tried to practice despite the difference of the results.

Next, the significance of Cho Seungwon 's "Theory of Korean-style Wooden Architectural Desig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ook reflects the results of individual experiential learning based on reference to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traditional architecture. Therefore, it is academic value as a basic study of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made in the early period.

Second, the book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ains many contents abou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ird, the book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technique of making and institu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s concrete design. The designs are written in the skillful modern method, and include a variety of expressions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creation and institu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is an example that reveals Cho Seung Won 's tradition and modernity, and indirectly shows the level of learning about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Bae Seung - won, which can not be measured by architectural realities.

Finally, the significance of Cho Seung Won '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 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in the 1960s and 1970s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individual architect, Cho Seung-won's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is meaningful as a result of learning concrete traditional architecture. He started to work as a big man, and he was interested in traditional architecture, so he had a chance to visit Han Sung Ryong. Since then, he has been engag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modern architecture for a long time. The profound understanding of tradition through this process is fundamental to differentiating his architecture from the work of other contemporary architects on the subject of tradition.

Secondly, from the viewpoi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Cho Seung - won 's Korean - styl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construction is meaningful as a result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accomplished very early in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His colleagues at the Seoul Women's Commercial School and members of the Doosan Charter were completed in 1967 and 1968, respectively. This was the first time in terms of technology that Kang Bong-jin's restored concrete concrete Gwanghwamun , Or at the same time or earlier with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refore, the expression of tradition by reinforced concrete, which can be seen in the details of Cho Seung - won 's architecture, deserves to be evaluated in terms of the technical achievements of Kang.

Third, from the viewpoint of architectural expression, it is meaningful that Bo Seung Won 's Korean - styl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is suggesting a new method not a complete abstraction nor a complete abstraction for traditional expression. He determined the architectural form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tradition and the expression of harmony,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expressions of the reinforced concrete. In the result, the expressions of tradition simulated in detail and the expression of abstract reinforced concrete group coexist. The best way to show this method is his first Korean-style steel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project, Seoul Women's Commercial School. This is a comparison with other contemporary buildings that took the method of abstract and simulation for the expression of tradition in architecture form. And shows the differentiation of Cho Seung-won's architecture.

**keywords : SeungWon Cho, Master carpenter, Modern architect, Korean traditional trchitecture, Modern architecture, Korean-styl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tudent Number : 2015-22844***